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출판 사도직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출판 사도직

사도직과 양성 지침

바오로가족

바오로 영성 센터 엮음
© 성바오로수도회, 총원, 1998

출판 허락, 감수
1998년 4월 4일, 로마
실비오 피노티 신부Sac, Silvio Pignotti,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엘리사벳 카펠로Elisabetta Capello, 루이지 조반니니Luigi Giovannini, 안토
니에타 마르티니Antonietta Martini, 프랑코 피에리니Franco Pierini, 엘리세오
스가르보사Eliseo Sgarbossa, 마우리치오 티라펠레Maurizio Tirapelle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작품 머리글자: AE

© Edizioni San Paolo s.r.l., 2000
Piazza Soncino, 5 - 20092 Cinisello Balsamo (Milano)
<http://www.stpauls.it/libri>
Distribuzione: Diffusione San Paolo s.r.l.
Corso Regina Margherita, 2 - 10153 Torino

차례

입문	11
1. 작품의 중요성 2. 지침서의 구조 3. 지침서의 역사 4. 1931-1944년까지: 선한 출판의 사도 알베리오네 신부 5. 역사적 배경과 교회상황 6. 독서를 위한 몇 가지 제안 7. 맺음말	
일러두기	36
여는 말	39
제1편 사도직과 사도	
제1부 사도직	
제1장 출판과 사도직 수단	45
출판 사도직의 본질; 중요성; 목적	
제2장 출판 사도직의 내용	51
신앙; 윤리; 전례(경신례)	
제3장 출판 사도직의 우선 순위	56
교회의 가르침; 성경; 성전	
제4장 출판 사도직의 특징	59
사목적 특징; 내용; 형태	
제5장 출판 사도직의 요청	63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느낄 것; 교회와 함께 느낄 것; 영혼을 위해 성 바오로와 함께 느낄 것	
제6장 출판 사도직의 방법	67
본질; 기초; 실행; 실천적 결론	

제2부 사도

제1장 통상적 직무자.....	75
하느님이 뽑으셨다는 측면; 성무를 수행한다는 측면	
제2장 출판 사도직을 위한 수도자.....	77
더 넓은 광대함; 더 긴 지속성; 더 큰 열성	
제3장 시대의 필요성.....	79
제4장 성바오로수도회.....	81
이중의 목표; 회원; 협력자들	
제5장 출판 사도직을 위한 가톨릭 평신도.....	83
소극적 협력; 적극적 협력	
제6장 사도의 양성.....	88
정신의 양성; 의지의 양성; 마음의 양성	
제7장 출판사도의 미사성제.....	94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제8장 영성체.....	100
지성의 일치; 의지의 일치; 마음의 일치	
제9장 묵상.....	106
다양한 묵상 방법; 출판 사도의 묵상 방법	
제10장 성체방문.....	111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제11장 양심성찰.....	116
일반성찰; 특별성찰	
제12장 사도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	124
창조를 주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창조의 발전을 주재하 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피조물의 완성을 주재하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제13장 사도의 특징.....	130
성경에 대한 공경; 성경에 대한 공경의 실천; 성경에 대한 공경의 외 적 행위	

제2편 출판, 영화, 라디오 사도직

제1부 출판 사도직

제1장 출판 사도직의 기원과 발전.....	141
하느님에게서 유래한 것; 교회가 받아들인 것; 보편적으로 실천한 것	
제2장 출판 사도직을 위한 편집.....	146
교의에 담긴 진리; 윤리적인 선; 형태의 아름다움	
제3장 위대한 진리.....	150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 귀착된다	
제4장 독자들에게 대한 적응.....	157
각 범주의 특수한 필요성; 실천적 방법	
제5장 저술가 사도의 귀감이신 하느님.....	162
사도의 저술은 ‘길’이라야 한다; 사도의 저술은 ‘진리’라야 한다; 사도의 저술은 ‘생명’이라야 한다	
제6장 성경.....	169
성경의 중요성; 성경에 관한 하느님의 뜻; 역사와 인간의 필요성	
제7장 성경에 관한 활동.....	181
성경 출판; 해설서 출판; 인격형성에 관계된 출판	
제8장 교회 역사.....	188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교회 역사; 발전을 통한 교회 역사; 영원으로 향하는 교회 역사; 실천적 결론	
제9장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198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앙;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본받음;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와 공경	
제10장 거룩한 신학.....	205
사목자를 위한 필요성; 신자들을 위한 유익함; 실천적 규범	
제11장 수덕신학과 신비신학.....	210
수호활동; 계발과 격려 활동; 지도자의 역할; 실천적 규범	

제12장 전례	217
전례에 대한 지식; 전례에 대한 사랑; 전례를 살 것	
제13장 거룩한 교부들	226
모든 이에게 교부들을 제시할 것; 성전聖傳의 증인들; 실천적 결론	
제14장 교리교육 활동	235
교리교육; 교리교사 양성; 교리교육 기구機構	
제15장 교황	244
정의의 귀감; 진리의 스승; 은총의 관리자; 실천적 규범	
제16장 성인전과 전기	250
성인들에 대한 지식; 성인들을 본받음; 성인들에 대한 공경	
제17장 거룩한 호교론	258
거룩한 호교론의 필요성; 일반 규범; 특별 규범	
제18장 일간지	266
일간지의 가치; 가톨릭 일간지의 사명; 실천적 규범	
제19장 잡지와 정기간행물	272
잡지와 정기간행물 보급;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가치; 사도를 위한 규범	
제20장 본당주보	279
주보란 무엇인가; 주보의 유용성; 어떠한가 하는가	
제21장 즐거운 독서	285
사도직의 유용성; 어떠한가 하는가; 영감을 받은 모델	
제22장 유년기와 유아기를 위한 문학작품	292
적합한 준비; 지혜로운 활동	
제23장 선교학	302
선교에 대한 지식; 선교를 위한 협력; 선교를 위한 기도	
제24장 학술서적	311
어떤 서적을 다룰 것인가; 어떠한가 하는가; 실천적 규범	
제25장 지리학	314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리학; 사도에게 도움이 되는 지리학	

제26장 서지학 잡지.....	321
일반 잡지; 특수 잡지	
제26장/2 서평.....	325
완전한 서평; 양심적인 서평; 전문성을 갖춘 서평	
제27장 정치학, 사회과학, 철학.....	331
정치학; 사회과학; 철학	
제28장 일러스트레이션.....	335
일러스트레이션의 심리적 잠재력; 사도직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용성; 사도를 위한 규범	
제29장 출판 기술.....	340
우수한 작가발굴; 인쇄작업에 마음 쓸 것; 독자의 취향을 지도할 것	
제30장 선교.....	344
선교의 본질; 중요성과 필요성; 선교 방법	
제31장 선교사.....	350
특별한 준비; 올바른 지향; 재치와 사람에 대한 통찰력	
제32장 선교의 형태.....	355
조직적 선교; 양성하는 선교; 활동적인 선교	
제33장 보급 센터.....	359
양성과 조직; 기능	
제34장 도서관.....	364
중요성과 효과; 도서관 형태; 도서관 설립; 조직	
제35장 방문선교.....	374
효과적인 수단; 보람 있는 활동	
제36장 복음의 날.....	379
준비; 행사 당일	
제37장 성마로수도회를 통한 출판 사도직 실천.....	386
회원 양성; 사도직 실습	
제38장 출판물이 일으키는 죄.....	393
죄의 본질과 심각성; 죄를 어떻게 보속하고 피할 것인가	

제2부 영화 사도직

제1장 영화와 수도자의 사도직..... 399

제2장 영화를 그리스도교화할 것..... 403
제작자와 민사당국을 향한 활동; 부모와 교육자를 향한 활동; 관객을 향한 활동

제3장 가톨릭 영화를 제작할 것..... 409
기도; 활동

제4장 출판과 영화..... 413
책임; 협력의 가능성

제3부 라디오 사도직

라디오와 종교 문제..... 417
방향설정의 필요성; 첫 시도와 새로운 신기루

맺음말..... 423

부 록

I. 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1918)..... 427

II. 좋은 출판물을 위한 집(1921)..... 429

III. 출판 사도직..... 437

짧은 기사와 인용문들..... 444

입 문

1. 작품의 중요성

1944년에 “경건한 성바오로수도회 선교 단체 Istituto Missionario Pia Società San Paolo”가 엮은 「출판 사도직 *L'Apostolato dell'Edizione*」의 중요성은 ‘양성과 사도직 지침서 *Manuale direttivo di formazione e di apostolato*’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이 작품은 모든 바오로인이 대를 이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또 실상 그렇게 사용해 왔다. 표지나 표제 또는 짤막한 서론에서조차 알베리오네 신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그 가치가 결코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편집상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바오로인이 여럿 관여하기는 했지만 알베리오네 신부의 감독에 의해 제한되거나 명확하게 요청되곤 했기 때문이다.

「출판 사도직」은 1950년에 재판되었으며, 3판은 1954년 11월 26일에 성바오로수도회 총통솔이 감수 *visto* 하고 승인하여¹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교회의 검열 *imprimatur* 을 받아 성바오로수도회에서 출판했다. 이는 바오로인들에게 사도직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바오로가족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1. 1950년 11월 2일, 알바의 참사위원 자놀리오 Gianolio 신부 검열.

2. 지침서의 구조

이 작품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제1편은 일반적이며 이론적인 특징을 띠고 있고, 제2편은 실천적 특징을 띠고 있다.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는 모든 바오로인을 일컫는 사도²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는 남녀 모든 바오로인을 가리킨다. 내용은 짧은 여러 개의 장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특히 젊은 독자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 사도직: ‘출판’(출판의 내용, 순서, 특징, 요구 사항과 방법)에 대한 기술이며 설명이다.

2. 사도: 제1편 사도에 관한 부분은 사제 그리고 사제와 함께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고자 하는 통장적 직무자-사제, 그리고 ‘남녀 수도자’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성바오로 수도회는 성바오로딸수도회라는 여성 줄기와 연대하여 ‘출판’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이는 ‘평신도’도 할 수 있는 사도직이다. 이들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사제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교리교사’가 될 수 있으며(251항 참조),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양성’, 무엇보다 영적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미사, 영성체, 묵상, 성체분향, 양심성찰 등을 포함한 매일의 ‘강력한 신심’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출간^{edit}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역주: 성모님이 성자를 낳으신 것을 ‘말씀의 출간^{edit} Verbum’으로 표현하는 것에 유의하라)

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바오로가 서간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 칭호다.

바로로인 사도들에게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공경하는 것이다.

제2편은 출판물 세 가지 ‘사도직’의 특수 명칭으로 세분하는데 곧 인쇄, 영화, 라디오로 나눈다. (1955년에 출간된) 이 책 3판에는 텔레비전도 추가되었다.

초판에는 인쇄에 할애된 내용이 서른여덟 개의 장(재판과 3판에서는 서른아홉 개의 장으로 늘어남)이었다. 영화에 관해 초판에서는 네 개의 장이 할애되었는데 재판과 3판에는 다섯 개의 장으로 늘어났다. 라디오에 관해서는 초판에서 3판까지 오직 한 개의 장이 할애되었다. ‘텔레비전’은 드러내어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선교를 위해 더욱 신속하고 더 광범위한’ 수단에 사도가 채택해야 하는 수단 중 하나다. 1955년³⁾에 출간된 3판에는 텔레비전에 대해 한 개의 장이 할애되었다.

그러나 인쇄에 관해서는 현대적 수단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이 할애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알베리오네 신부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재촉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시대와 함께 걸으려는 염원이 있었다. 기술은 출판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3. 지침서의 역사

사도직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향에 관해서는 「출판 사도직」의

3. (비록 1952년, RAI [Radio Audizioni Italia: 이탈리아 라디오 방송국]에 방송 허가가 승인되어, 한때 선명도 625선이 표준으로 확정되었지만) 이탈리아의 텔레비전 정규방송 서비스는 1954년 1월 3일에야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탈리아어 텔레비전 두 번째 프로그램 방영은 1961년 11월 4일에 이루어졌다.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 ‘지침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3판을 거듭하면서 첨가·개정되었다. 초기 작업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 작업은 사도직이라는 개념 자체의 발전을 가리킨다. 「출판 사도직」의 수정작업은 성장 과정을 드러내며, 과거의 다른 책, 곧 「출판 사도직」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인쇄 사도직」(*Apostolato Stampa: AS*)과의 연속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지금 제시하는 문헌 곧 알베리오네 신부 S.S.P., 「인쇄 사도직」(*Apostolato Stampa*) (알바, 성바오로수도회 [1933]; 170 [2] p., 19c. m)의 머리말 격인 1933년의 도서목록 카드를 읽어보는 것이 유익하다.

비교해 보면 곧 알 수 있는 것은 「출판 사도직」에 저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과 「인쇄 사도직」의 마지막에 수록된 승인의 말이다. “승인할 뿐 아니라 인쇄를 열렬히 권고하는 바이다. 알바, 1933년 6월 10일. 몬시뇰 F. 키에사, 사도직 관리자.”

「인쇄 사도직」이 나오기까지 바오로가족을 깨어 지켜주던 박학다식한 대부요 교구 참사위원 키에사 Chiesa 신부⁴의 신학적 권위가 뒷받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쇄 사도직」의 표지에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옛 문장이 실려 있다. 펼쳐진 책에 요한 14,6에서 인용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Ego sum via veritas et vita”라는 말씀과 칼이 장식되어 있고,

4. 1930-1933년 사이 참사위원 프란치스코 키에사 Can, Francesco Chiesa는 독창적인 신학 종합서를 완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네 권으로 출간된 「최근의 지성과 요청에 부응한 수정판 교의신학 사전 *Lectiones Theologiae Dogmaticae recentiori mentalitati et necessitati accommodatae*」에 합쳐졌다. 위의 사전에서 영감을 받은 알베리오네 신부는 구원의 세 가지 역할에 빛을 받은 요한 14,6에 대해 심화했다. 곧 진리(스승/예언자), 길(왕/목자), 생명(사제요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이해를 깊었다. 이 해독에 관한 열쇠를 자신의 교회론적 전망뿐 아니라 사목 방향 설정과 수도회 창립을 위한 이해의 중심 기반으로 삼았다.

윗부분에는 인간의 구원자 예수(Jesus Hominum Salvator)의 머리 글자 JHS가 광채를 발하고 있다.

이미 「인쇄 사도직」의 많은 부분이 성소자들과 일반 대중에 관련하여 「가제타 알바*Gazzetta d'Alba*」(1932)와 「사목생활*Vita Pastorale*」(1931년 이하)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출판 사도직」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인쇄 사도직」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인쇄 사도직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그것은 새겨진 하느님 말씀의 설교요 인쇄된 설교다.) 사도직의 고유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성경의 저자이신 하느님에게서 온다.) 사도직의 특징(사목적이다), 준비, 요구 사항이나 전제조건(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 바오로와 함께 느낄 것),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 내용에 대한 작업, 역사의 여왕이신 마리아, 인쇄 사도직을 위해 필요한 미사, 성체방문과 영성체, 순서(인쇄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가르침, 다음은 성경과 성전), 화보집, 본당주보, 도서관, 초보자들, 중급자들, 숙련자들, 완전한 (또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몫이다(omnia vestra sunt. 편집과 보급, 본질적 특징인 성경에 대한 공경, 인쇄 사도직을 하는 수도자들, 인쇄의 악영향, 성경과 인쇄 사도직, 프로파간다(= propaganda) 선교, 광고는 결론적으로 편집, 인쇄 그리고 보급을 위해 지키고 있으며 또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이 이어진다.

「인쇄 사도직」은 전체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몇 장에서는 이론적인 면을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실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⁵ 다미노A. Damino⁶ 신부는 이 책을 “독창적이고 주목할 만한 책이며, 바오로회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다. 사실 「인쇄

사도직]에는 독특한 힘과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긴 몇몇 페이지가 「출판 사도직」에는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소개하는 이 책의 색인(우리말 번역본에는 생략함)을 살펴보면 출판 사도직이 책 제목뿐 아니라 영화,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사도직을 ‘출판’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쇄 사도직’이란 이름뿐 아니라 동일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흡수하고 확장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여러 사도직’은 ‘출판’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출판 사도직」의 소개말에 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인쇄, 영화, 라디오...]의 통합을 성바오로수도회는 일반 표현인 ‘출판 사도직’으로 명명한다. 이 책은 이러한 사도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주로 인쇄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강연에서 전개한 사상과 주로 「인쇄

-
5. 만일 바오로인의 활동이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도직 이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는 지침서에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천의 어려움, 어쩌면 굳어진 (출판=AE보다 인쇄=AS에 더 많이 내재된) 구텐베르크식 사고방식에 그 원인을 돌려야 한다. 쿠텐베르크식이란 사도직을 인쇄와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좋은 인쇄물은 늘 ‘성서’ 또는 ‘성경’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우선 개인 소장용 서적을 말하고 그다음으로는 교부들과 성인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작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6. A. Damino, 「야코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로마 1994, p.36 참조.
 7. 좀 더 후에 ‘사회홍보 사도직’ 또는 ‘커뮤니케이션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성 사도들’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고, 정보과학, 정보 서비스 시스템, 멀티미디어(다중매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현대적 분야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을 언급할 것이다. 「인쇄 사도직」과 「출판 사도직」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직을 위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할 시급성 곧 ‘복음화’의 긴급성이다. 계속적인 ‘쇄신’ 또는 ‘양성’은 창립자의 사고방식이다.

사도직」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

1933년판 「인쇄 사도직」과 1944년의 「출판 사도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다.

성바로딸수도회의 루이지나 보라노Luigina Borrano 수녀가 바오로 영성 센터의 안토니오 다 실바Antonio da Silva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책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책으로 출판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모 마에 스트로께서 몇 년 동안 20명 남짓한 성바로딸들에게 정기적으로 해주신 강의를 적은 노트에 불과했으니까요 [...]. 그 후에 출판하도록 저에게 맡기신 정확한 의미의 지침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립자께서 당신의 학생들인 저희에게 전달하신 당신의 진솔한 생각을 미래의 남녀 바오로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한 「양성과 사도직 지침Manuale direttivo di Formazione e di Apostolato」으로 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출판 사도직」에 「인쇄 사도직」의 모든 내용이 단순하고 교육적인 형태로 옮겨지기를 원하셨고, 당신 강의의 요점을 완전히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 강의 노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전부 받아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 보여 드리면 그분은 오랫동안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셨습니다. 제가 자필 원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당신 생각을 수정하시거나 몇몇 문장을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보라노 수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길 진리 생명 방법』에 관한 제6장은 조반니 펠리차G. Pelliccia 신부에게 맡겼으

므로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문서로 기록해 두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이 쓴 부분과 전혀 다른 형태의 글이 있음을 까다롭게 지적하셨지만 이에 동의하셨다. 이러한 문제가 「출판사도직」 초판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다음 판에서는 상당 부분이 간략하게 축소되었다.”⁸

이 책의 재고는 아틸리오 템프라A. Tempra 신부에게 맡겼는데, 「어느 가까운 협력자가 바라보고 소개한 알베리오네 신부Don Giacomo Alberione visto e presentato da un suo vicino collaboratore」라는 표제의 타자기로 작업된 소책자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젠차노의 선한목자에수수녀회 지도신부로 있을 때, 어느 날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원고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애정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이것을 읽고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 노트는] 대충 쓴 복 잡한 것이었다… 문체도 논리적이지 않았고 순서도 서로 달랐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한번 읽고 난 후 출판할 수준이 못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내게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부탁하면서 ‘아주 좋은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문장 몇 군데를 바꾸고, 표현을 좀 고친 후 프리모 마에스트로에게 돌려 드렸더니, 그분은 그 원고를 알바의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에게 보내어 읽어보게 하셨는데, 자카르도 신부는 그 책의 출판을 매우 흡족해 했다.”(p.34 이하)⁹

오늘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템프라 신부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템프라 신부는 「여정*l'iter*」에서 거의 정확한 정보를 우

8. A. 다미노, 같은 책.

9. A. 다미노, 같은 책, 50 참조.

리에게 주었는데, 아마 이 책도 알베리오네 신부가 매우 신뢰했던 마에스트로 자카르도가 손질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출판 지침서¹⁰에도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름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요, 또한 이 책은 독자인 남녀 바오로인 역사의 결실이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작품인 까닭이다.

4. 1931-1944년까지: 선한 출판의 사도 알베리오네 신부

「출판 사도직」의 확립시기는 「인쇄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1931년 초로 소급하여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날짜는 좀 더 정확하다. 대리자인 템프라 신부가 1943년 12월 10일자로 로마에서 이 책의 원고를 감수했고, 신학자 G.자카르도 신부는 1944년 1월 2일자로 알바에서 출판하도록 승인했다. 교구장 대리오, 참사위원 P. 자놀리오Gianolio 신부의 인가는 1944년 1월 5일자로 알바에서 받았으며, 1944년 1월 15일, 성바오로딸수도회에서 발간했다.

출판 사도인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1931년부터 1944년까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31년 12월 25일에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Famiglia Cristiana」를 창간했고, 같은 해에 알베리오네 신부의 윤리 교육서인 「주요 결점La passione predominante」이 출간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1932년 사제수품 25주년을 맞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바오로인의 영성 지침서)¹¹를, 11월에는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10. 포르투갈어로 된 최신판이 이미 있다. 상파울로(브라질).

위하여 *Per i nostri cari defunti*」라는 묵상집을 발간했다.

1933년에는 「인쇄 사도직」과 함께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론집 「고해성사에 관한 수덕적 고찰 *Considerazioni ascetiche sulla Confessione*」(사제들의 율피정), 「완전한 존재이기를 원한다면 *Si vis perfectus esse*」(신학생들에게 한 묵상), 「거룩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Leggete le Ss. Scritture*」(성경에 대한 10시간의 흡송)를 출간했다.

일반적으로 성바오로수도회에서 출판한 것은 신심서적과 대중서적이었다. 이 시기의 가톨릭 연감(1934)에는 성바오로수도회가 알바에서 출판한 책이 게재되었다. 「라 도메니카 일루스트라타 *La Domenica Illustrata*」(주일 전례 해설)와 「가제타 알바 *La Gazzetta d'Alba*」(알바교구의 주간 신문) 그 밖에 「그리스도인 가정의 천상 스승 *Il Divino Maestro della Famiglia Cristiana*」, 「하느님의 어머니 *La Madre di Dio*」, 「사목생활 *La Vita Pastorale*」, 「좋은 말씀 *Una buona parola*」, 「주보 *La Domenica*」(역주: 성바오로수도회가 이탈리아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보), 지역적이고 보급이 제한된 정기간행물¹²이 있었다.

그러므로 구두설교와 문서설교의 동일함이 이론뿐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프리모 마에스트로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인쇄 사도직을 최초로 실천했다. 종이에 담긴 그의 말은 바오로가 죽 전체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가능하다면 대중 가운데 있는 ‘성소자’까지 얻기를 바랐다.

11.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Donec formetur*...」(152-159)에서 「인쇄 사도직」의 개요를 찾아볼 수 있다.

12. L. Giovannini, 「교회사와 문화사 안에서 알베리오네 신부와 바오로인들의 연대기적 비교 *Don Alberione e i Paolini nella storia della Chiesa e della cultura. Cronologia comparata*」, 로마 1982, 145 참조.

남녀 바오로인에게 저술은 가장 우선되는 사도직 활동이다. 「출판 사도직」의 지침은 기술과 보급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 ‘남녀 저술가 사도들’의 양성을 지향한다.

바오로인 사제는 마땅히 저술가 사제라야 한다.

실제로 1935년에 출판된 알베리오네 신부의 책은 「영신수련과 피정 *Esercizi e ritiri*」 제1권 한 권 뿐이다. 그는 이 책의 긴 ‘머리말’의 첫 부분을 자신의 신학생들이 쓴 책과 소책자 목록으로 가득 채웠다.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1월 25일)을 맞아 1933-1934년의 바오로회 수련자들이 준비한 「교회 안의 수도자들 *I religiosi nella Chiesa*」이 나왔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음 작품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바르베로 G. Barbero 신부의 「지질학 *Geologia*」, 카사리지 R. Casaliggi 신부의 「식물학 개념 *Nozioni di biologia vegetale*」, 드라고네 C.T. Dragone 신부의 「중근대 *L'età contemporanea*」(고등학생을 위한 역사 교재), 포르나리 L. Fornari 신부의 「영웅적 혈통 *Progenie eroica*」(신교회 사제들에 관한 내용), 포르나사리 E.G. Fornasari 신부의 「대서양 저편에 *Oltre l'Oceano*」(마리아의 종 선교회에 관한 이야기), 라메라 S. Lamera 신부의 「중세기 *Il Medioevo*」(고등학생을 위한 역사 교재), 무차렐리 F. Muzzarelli 신부의 「일반 지리학 *Geografia generale*」, 파차리니 I. Pazzaglini 신부의 「에네이데 *L'Eneide*」(역주: Virgil의 서사시 일부에 해설을 곁들인 이야기 일부), 로아타 B. Roatta 신부의 「일리아데 *L'Iliade*」(각주와 함께 몇 편의 숨은 이야기), 톤니 I. Tonni 신부의 「광란의 오를란도 *L'Orlando furioso*」(해설을 곁들인 몇 편의 숨은 이야기) 등이다.

이것을 읽는 독자라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 목록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매년 당신의 젊은이들에게 책을

쓰라고 격려했다. (아니 “의무를 지워주었다.”)¹³

1936년 알베리오네 신부는 당신의 거처를 알바에서 로마로 옮겼다. 같은 해에 바오로가족의 또 다른 수도회를 설립하여 그의 비전은 구체화되었다. 곧 선한목자예수수녀회(Suore di Gesù Buon Pastore)로 보통 Pastorelle(목자수녀들)라고 불렀다.

같은 해 4월 12일, 성바오로수도회의 회헌이 빛을 보았다. 1937년에는 그가 쓴 다른 책이 출간되었는데, 「거룩한 영신수련 *S. Spirituali Esercizi*」(선생 수녀들을 위한 지침서), 「기도해야 한다 *Opportet orare*」, 「사말 *I Novissimi*」 등이다. 4월 18일부터 로마의 바오로회 인쇄소에서 정기적인 회보 「성 바오로 *San Paolo*」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8월 1일자 「성 바오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품을 앞둔 시험 전에 모든 지원자는 각자 자신의 책을 발간해야 합니다.”

13. 창립자는 “성바오로수도회의 ‘회헌’ 규정에 따라 1921년부터 알바에 바오로회의 편집부가 자리 잡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성 바오로 홀 *Sala San Paolo*’이 생겼고, 전문 편집인과 최고의 장비가 마련되었다. 교황 비오 12세는 ‘회헌’의 최종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바오로인 저술가를 위한 집을 세우기를 원했다. 이 집은 전쟁 동안 로마 성 카타리나 로타 성당 옆에 있다가 보르가타 라우렌티나, 몬타놀라에 있는 선한목자예수 본당 옆으로 이전했다. 편집 공동체는 세 번째로 총원 가까이 이전했고, 1948년에는 알바노에 정착하게 되었다. 성바오로수도회는 1953년 3월 15일에 얻은 회헌의 최종 승인을 위해 독립적인 편집 공동체, 저술가의 집을 그로타페라타에 마련해야 했다.”(G. 바르베로,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 한 인간-하나의 이상 *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un uomo-un'idea*」, 로마 1991, 741)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지만 훌륭한 저술가는 긴 습작 기간과 고된 탐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값진 체험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저술가 양성을 위해 온갖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쇄 분야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본인이 직접 수작업을 하는 등, 그런 노력들이 사제직의 초기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 덕분에 알바의 그 유명한 ‘성 바오로 강당’은 오랫동안 편집의 진정한 실습장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사도직 학교 *Scuola di Apostolato*와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갈망하던 저술가들의 집 *Casa degli Scrittori*까지 마련하게 되었다.”(같은 책, 456)

1938년에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신앙의 원칙 *Sectamini fidem*」(바오로회 사제들을 위한 것으로 후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Mibi vivere Christus est*」로 바뀜)과 「우리의 희망이신 마리아 *Maria nostra speranza*」(5월)가 출간되었다.

한편 영화 사도직¹⁴을 시작했다. 성바오로영화사 Sampaolo Film

14. 바르베로 신부는 이렇게 증언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리교육을 위해 영화가 좋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물이 알베리오네 신부는 아니었다. 다만 그의 공헌은 이 새로운 발명을, 그리스도인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영화 사도직은 수도회 회원이 수행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 많은 사업이었다. 영화는 좋은 전통을 붕괴시키려는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간주되었던 시기였기에, 대중을 저질 영화에서 떼어놓으려는 목적으로 1934년에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결성한 영화 심의단 *Legione della Decenza*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대중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록 이 영화 심의단의 활동이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만 편중되었다 해도, 교황 비오 11세는 1936년 6월 29일의 회칙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에서 이 운동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화는 하나의 현실이고, 선을 자극하듯이 악을 자극할 수도 있다. 징계는 그저 거부의 몸짓일 뿐이다. 교육적인 영화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당시 취미활동 정도로 간주되던 영화가 종교교육과 진리의 설교수단으로 드높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알베리오네 신부를 박차고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영화 사도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의 무덤에 한 시간 동안 경배하러 갑시다.’라며 어느 날 자기 동료 몇 명과 함께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으로 향한 신부는 영화 사도직을 시작하기 위해 젊은 바오로인 사제 포르투나토 그레고리오 델포제토 *Fortunato Gregorio Delpogetto*를 뽑아, 전문 지식을 갖춘 선교사 몇 명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사도 굴리엘모 마짜이아 *Guglielmo Massaia* 추기경의 생애를 영화화할 기획을 세웠다. 그 결과 고프레도 알렉산드리니 *Goffredo Alessandrini*(1905-1978) 감독의 〈아부나 메시아 *Abuna Messias*〉가 완성되었다. ‘제7차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 〈아부나 메시아〉는 대상인 ‘베니토 무솔리니 컵 *Coppa Benito Mussolini*’을 수상하게 된다. 비록 결말부분에 정치적 비판이 있었지만 굴리엘모 마짜이아 선교단체는 이 영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성좌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알베리오네 신부를 격려했다. “신부님,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권위

(S.P.F.)의 〈아부나 메시아Abuna Messias〉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무솔리니 컵 대상 수상). 아마도 그 줄거리가 강한 식민지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1939년에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책이 네 권 출간되었고, 5월 13일자로 로마 영화출판주식회사Società Anonima Romana Editrice Film (R.E.F.)가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이름으로 여섯 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4월 23일자로 바오로회의 엔초 만프레디Enzo Manfredi 신부가 시간 분배 전화 체계 특허il brevetto del sistema telefonico divisione tempo(일련번호 38,30,65)를 등록했다.

1941년에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책이 세 권 출간되었고, 5월 10일자로 교황 비오 12세가「회헌」을 승인하면서 성바오로수도회에 칭찬 교령Decretum laudis을 수여했다.

기간은 출판 사도직에서처럼 이 분야에서도 성바오로수도회의 업적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이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십시오.”〈아부나 메시아〉의 제작에서 얻은 경험은 영화분야에서 성바오로수도회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40-1945년 사이 전쟁으로 영화 사도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1946년에 활동을 재개하여 다른 작품도 뒤따랐다. 일반 영화 필름에서 축소 필름(역주: 16밀리 필름)으로 넘어갔고, 성 바오로 영화사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축소된 영화 필름이 더 용이했는데 영화 상영 지역과 나라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했다. 영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특히 재정분야에서 R.E.F. 라는 약어로 표기되는 로마 영화출판사Romana Editrice Film라는 주식회사를 세웠다가(1939-1951) 파르바 영화사Parva Film(1947)로, 1952년에는 다시 파르바-성 바오로 영화사Parva-Sampaolo Film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회사는 1955년까지 지속되다가 성 바오로 영화사San Paolo Film라는 법인체가 세워졌는데, 1956년 5월 22일에 알바(쿠네오)의 주요인 카를로 스토포Carlo Stoppa 문시놀이 승인했고, 1957년 2월 5일에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 조반니 그론키Giovanni Gronchi가 합법적인 법인으로 인가했다.(G. 바르베로,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 한 인간-하나의 이상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un uomo-un'idea」, 로마 1991, 527 참조)

이탈리아가 전쟁 중이었지만(1939-1945), 「출판 사도직」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와 상관 없이 오직 윤리적인 면만을 언급 하면서 이나시오의 대표적인 주요 결점에 대항하는 자신과의 ‘투쟁’을 이야기할 뿐이었다.¹⁵

193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이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작품은 종말론적 열쇠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요 단어는 죄, 죽음, 심판, 지옥, 연옥, 천국 등이다.

1942년에 「선생 수녀들을 위한 피정 *Esercizi alle Maestre*, 「영신수련 *Esercizi Spirituali*」 제2권, 연속 기획물인 「이것을 묵상하라 *Hac meditare*」 2권의 시리즈 몇몇 권이 출간되었다.

1943년에는 「이것을 묵상하라 *Hac meditare*」 2권의 다른 몇몇 권, 「영신수련 *Esercizi Spirituali*」 제3권과 함께 「파티마의 성모 *La Madonna di Fatima*」(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기도하라는 초대)가 빛을 보았다.¹⁶

1944년 초까지 알베리오네 신부의 면모는 좋은 출판사도로 부각되었다. 라디오 방송 활동에 관한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라디오는 바티칸 라디오가 이미 시작¹⁷되었지만 그 당시 남녀

15. 67항 105항 참조. 실상 전쟁은 저자의 의식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창립자라는 직분에서, 위협에 처한 수백 명에 대한 책임감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저술가라는 면에서도 그러했다. 1942년 성탄에 그의 글로 인한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주간지 「주일 전례 해설 *La Domenica Illustrata*」에 실린 논설에서, 옛 관습인 ‘하느님의 휴전 *tregua di Dio*’(역주: 중세 교회에서 사순절과 대림절 사이에 실시한 정전(停戰))에 따라 적어도 성탄시기에는 정전을 하자고 주장했다. 저자는 패전주의자로 기소당했고, 투옥의 위협을 받았다. 좀 더 앞으로 가서 보라. (290항, 각주 3)

16. 1944년에는 「출판 사도직」과 더불어 「이것을 묵상하라 *Hac meditare*」 몇몇 권과 「영신수련 *Esercizi Spirituali*」 제4권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17. 교황은 라디오를 이용했다. 비오 12세는 1939년 8월 24일,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기의 힘이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정의가 인도하게

바로로인에게는 실천보다 이론적인 사도직 차원이었다. 그럼에도 「출판 사도직」 안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¹⁸ 그러나 몇 년 후, 알베리오네 신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라디오 방송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¹⁹

하십시오... 평화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겠지만,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18. 알베리오네 신부는 열정에 넘쳐 이렇게 말했다. “가톨릭 사도직에 속한 활동, 특히 라디오 방송분야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라디오의 첫 사도인 현재 트리폴리의 주교 빅토리오 파키네티Vittorio Facchinetti에 의해 잘 알려졌다. 초기에 그는 잡지 「프란치스코 수사Frate Francesco」에 경이로운 하느님의 선물인 이 사도직을 축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표했다.”(p. 480항)
19. 라디오 첫 시험방송은 1948년 성탄절에 이루어졌다. 8시 정각에 ‘성 바로로 라디오Radio San Paolo’(I 1 RSP)는 미리 통보한 청취자들을 불러 모았다. 8시 10분, 알베리오네 신부는 감격에 차 마이크 앞에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 이 천사들의 인사는 저의 축하 인사이기도 합니다. 성부와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빛나는 오늘, 아들들과 딸들 모두에게 마음 깊이 인사드립니다. 천사들의 축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모든 이를 위해, 특히 고통받는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밤 미사를 거행한 후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무능한 종임을 통감하면서 저는 예수께 당신께서 모든 것을 홀로, 항상 해주십사 청했습니다. 그분이 성부를 전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듯이 모두가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도록! 모든 이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려 지상에 오시어 당신 아버지께 소개하실 그 왕국에 속하게 되기를, 먼저 우리에게 사랑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저물어가는 이 해는 영화를 통해 사도직에 발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많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활동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려움은 많지만 로마의 중앙 보급소, 서지학 회보, 새로운 국제서원을 통한 사도직의 국제조직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멀든 가깝든 어디에서든, 아는 데서 큰 신뢰가 생기니 미사성제 안에서 예수님의 지향에 따라,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지향에 따라 기도, 활동, 고통의 봉헌을 되풀이 하십시오. 이것은 본질적으로 회헌의 첫 두 조항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 순간 저는 이탈리아와 해외의 모든 아들 딸을 기억하고 있으며,

5. 역사적 배경과 교회 상황

1931년부터 1944년까지 알베리오네 신부는 불가피하게 교회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1915-1918)이 끝난 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도 개입하려는 상황이었다.

1922년부터 1939년까지는 비오 11세가 교황으로 재임在任했으며, 그 뒤에 비오 12세(1939-1958)가 교황으로 재임했다. 1931년에서 1944년까지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 두 분 교황에게 순종했다.

1931년, 비오 11세는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반포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교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회칙「사십주년 *Quadragesimo Anno*」을 반포했다. 같은 해에 파시즘의 반대를 받는 가톨릭 액션*Azione Cattolica*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Non abbiamo bisogno*」를 반포했다. 심각한 재정위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실업과 급격한 군비 확장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 「새로운 위협*Nova impendent*」을, 같은 해에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 기념으로 「진리의 빛*Lux veritatis*」을 반포했다.

교황도 인쇄 사도직을 실행하시며 그 본보기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1931년 2월 12일, 16시 30분에 교황청 국무원장 에우제니오 파첼리*Eugenio Pacelli* 추기경이 지켜

미사성제의 마지막 강복을 다시 보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방송은 6분간 계속되었으며 끝나자마자 가까운 공동체에서 전화가 걸려와 청취 상태가 최상이었다고 전했다.(G. 바르베로,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 한 인간-하나의 이상*Il Sacerdote Giacomo Alberione: un uomo-un'idea*」, 로마 1991, 743-745.

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통해 굴리엘모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의 소개를 받은 교황 비오 11세는 라디오 바티칸 방송국을 개국하면서 라디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역사상 첫 교황이 되었다.

1932년, 이탈리아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파시스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비오 11세는 ‘인류가 당면한 재난에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기도와 속죄에 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Cbaritate Christi compulsi*」를 반포하게 된다. 이는 교회에 적대적인 출판물과 영화제작 및 음반제작을 단죄하기 위해서였다.

1933년 4월 2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인류의 구원 19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성년 또는 구원의 희년을 반포했다. 공화주의 정부 치하에서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관하여 스페인에서 회칙 「우리가 지극히 아끼는*Dilectissima nobis*」이 출간되었다. 한편 히틀러는 독일 제3제국의 장관직에 올랐고, 다카우Dachau에 첫 ‘수용소’가 생겼다.

1933년 2월 11일, 라디오 바티칸은 단파 방송을 시작했다. 6월 6일, 교황은 알현실에서 언론인 순례단을 맞아 가톨릭 출판 협회 *unione della stampa cattolica*에 관해 이야기했다. 9월 18일 광고인들의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윤리, 모든 광고의 주된 요소’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1934년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긴 행군’의 해였다. 토리노의 「라 스타파*La Stampa*」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전송사진을 실었다(이탈리아-영국 축구 경기). 6월 10일, 비오 11세는 로마의 언론인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출판 사도직’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했다. 8월 10일 알현에는 ‘윤리적인 영화를 위한 염려’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영화출판협회Federazione Internazionale della Stampa Cinematografica 회원들이 참석했다.

1935년 비오 11세는 가톨릭 사제에 관한 회칙「가톨릭 사제들에게*Ad catholici sacerdotii*」를 반포했다. 1935년은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든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 텔레타이프라이터로 일간지에 뉴스를 전송하는 실험이 성공을 거두었고, 일본에서는 무선전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는 ‘흑인이나 히브리계’의 재즈는 금지되었다. 3월 22일부터 8월까지 베를린의 한 방송국에서는 선명도가 낮은(180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

식민주의가 득세하여 이탈리아도 1936년에 제국으로 공포했고, 빅토리오 엠마누엘 3세가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되었다. 같은 해, 러시아에서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새 헌법을 반포했지만, 역설적으로 완전한 사회주의 저널리즘을 공포했다. 11월 2일, BBC(영국 방송 협회)는 해상도(405선)가 선명한 첫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

1936년은 교황과 매스 미디어 종사자들의 만남이 잦았다. 4월 8일, 비오 11세는 「라 크루와*La Croix*」(역주: 프랑스 잡지)의 제36차 대회 참석자들과 「본 프레스*Bonne Presse*」(역주: 프랑스 신문) 일반 참석자들에게 연설했다. 며칠 후인 4월 21일, 국제영화출판 회의에 영화의 윤리적 고양에 관한 교황청 메시지를 보냈다. 5월 12일, 교황은 바티칸 가톨릭 출판국제전시회를 개최했다.²⁰ 5월 16일에는 ‘이상의 대변자’라는 주제로 외국 출판사 대표들을 만났다. 교황의

20. 1936년 6월 22일, 며칠 전 로마에 도착한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티칸 가톨릭 출판 전시회장에 있는 경당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이러한 여러 담화는 6월 29일에 반포한 영화 상영에 관한 회칙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0월 31일, 교황은 가톨릭 광고 대회 참가자들에게 ‘윤리적 의무’에 관해 연설했다. 11월 10일에는 ‘라디오 사도직’에 대해 국제 가톨릭 라디오 방송 사무국 대표들에게 연설했다. 비오 11세는 비록 연로하고 병약했지만 12월 초, 한 번 더 라디오 바티칸 방송국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이 모든 자료를 모은 이유는, 1931-1944년대의 새로운 요청에 응하면서, 조금씩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를 활용하면서 이미 자리잡은 출판 사도직 외에 라디오 사도직과 영화 사도직을 교회가 어떻게 전개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1937년은 독일 제국내 가톨릭교회의 염려스러운 상황에 관한 회칙 「깊은 근심을 안고 *Mit Brennender Sorge*」(3월 14일)가 반포된 해다. 교황은 나치즘을 고발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3월 19일, 무신론인 공산주의에 맞서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 *Divini Redemptoris Promissio*」를 반포했다. 두 회칙에는 출판(특히 보급)과 사회 홍보 전반에 관해 언급했다.

1937년, 로마에 영화 도시 *Cinecittà*(역주: 로마 근교에 있는 영화 촬영소)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탈리아 영화 대부분을 제작했다. 이탈리아 신문은 라디오로 전해진 최신 뉴스를 수집하기 위해 속기사를 고용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텔레비전 정규방송이 시작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출판 사도직」에서 ‘일간지²¹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도적 꿈으로 남아있다.

21. 제2편 1부 18장 284항 이하 참조.

1937년, 비오 11세는 기도의 사도직을 할 때 바치도록 우리의 선교 사명에 관한 지향을 담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승인했다. “출판, 라디오, 연극, 영화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촉진될 것이다.”

1938년은 성바오로수도회가 제작한 영화 <아부나 메시아>의 해였다. 또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된 해로, 그 지역에서 ‘인종 선언manifesto della razza’을 한 후에 반유대인 조치가 공포되었다.

스페인에서는 1938년 4월 22일자로 출판에 반대하는 독재법이 제정되었다.

1939년, 비오 12세는 회칙 「교황직의 지상권*Summi Pontificatus*」에 표현된 사목 계획을 내세워 직무를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점령했고,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

파리의 대주교 베르디Verdier 추기경은 1939년 1월 1일 서한에서 영화와 라디오에 관한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를 호소했다. 같은 해, 이탈리아에서 베네토 주교단은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영화가 아니면 보지 말자는 ‘영화서약’ 운동을 시작했다. 1942년에는 이 서약이 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모든 회원에게 확산되었다.

비오 12세는 1940년 7월 31일, 건전한 독서의 힘, 효과, 필요성에 관한 강연을, 8월 7일에는 나쁜 독서의 심각한 해악에 관한 강연을 했다.

1941년 미국에서는 이미 텔레비전 상업방송이 시작되었다.

1942년에는 마그네틱 녹음 테이프를 발명했고, 에이컨H.H. Aike 을 중심으로 과학자 그룹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전시킨 애니악

ENIAC(역주: 미국에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은 아마도 최초의 전기 계산기 또는 자동 계산기일 것이다.

12월 2일은 엔리코 페르미 Enrico Fermi가 제작한 ‘원자로’가 시카고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코닥 Kodak 회사는 최초로 적외선 사진 촬영을 위한 필름제작에 성공했다.

비오 12세는 1942년 10월 27일, 전쟁 시기에 출판의 교육적 영향력에 관하여 루마니아 언론인들과 담화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이 「인쇄 사도직」과 「출판 사도직」의 역사적·교회적 배경이다.

6. 독서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먼저 역사적인 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교회와 사회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고, 그 반대로 사도 저술가 알베리오네 신부가 당대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1931년부터 1943년 말까지 바오로인의 중요한 자료를 앞에 놓고 「출판 사도직」 지침서를 읽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교회 역사 그리고 종교적 사회-경제적 역사 앞에서 간단하게 종합한 홍보수단의 발전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역사적 언급을 대조해 보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은, ‘교황님의 본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화된 세상에 걸맞는 현대 세계의 사도직 형태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당대의 교회와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회를 앞서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유능한 제자로서 스승인 교회를 따르려 한 것 같다.

지침서를 단순하게 읽지 않고 숨은 뜻을 읽으려 할 때, 전문적인 매체에 대한 쇄신된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자의 분명한 의향과 일치하는 작품의 의도를 잇어서는 안 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수도회 회원에게 ‘출판 사도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참된 ‘사도’는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양성하기를 원했다.

출판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용어 저변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신학적 비전이 밝히 드러난다.

출판 사도직의 출발점은 삼위일체가 그 귀감²²이요, 알베리오네 신부의 백과사전적 계획에서는 ‘진리-길-생명’이라는 그리스도론적 세 가지 명제하에 ‘학문-예술-덕성’으로 전환된다. 그 예로서 ‘사도직’ 또는 ‘출판’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처럼 ‘편집-기술-보급’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독자들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사도직에 대한 비전을 (비록 세 부분의 통합과 완성의 시급성을 존중하면서도) 신학적 차원에서 기술적 조직 차원으로 축소시키지 않게 된다. 사도직은 사도의 중심^{meta}으로서 오늘의 사람들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모든 사목(예언적, 왕적, 사제적) 활동으로 전교회(교의, 윤리, 경신례)를 통해서 인간 전체(지성, 의지, 마음)와 삼위의 하느님(성부, 성자, 성령)께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22. 이 주제에 관해, G. 알베리오네,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t perfectus sit*…」I, 368 이하; II, 149 이하를 보라; 참조: A.F. 다 실바, 「알베리오네 신부 사상 안에서의 영신수련 여정 *Il cammino degli Esercizi spirituali nel pensiero di Don Alberione*」, 바오로 영성 센터, 아리차 1981, 79 이하.

알베리오네 신부는 전진하라고 우리를 가르친다. 그는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 너머로 전진하는 것만이 실제로 충만한 상태를 향해 극복하고, 계획하고, 진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완덕의 법에 따라 쇄신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사도적 측면에서 볼 때 카리스마가 자리를 잡아 굳건해짐과 동시에 제도화될 때 창의성과 예언보다는 현명함이나 합법성을 필수적으로 더 확보하게 된다. 본 지침서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낀다면 이는 많은 것을 잘 하고, 선을 잘 실천하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마치 거울을 보듯 알베리오네 신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맺음말

알베리오네 신부에 의하면 「출판 사도직」의 독자는 ‘사도직’과 ‘사도’, 말하자면 자신의 고유한 카리스마적 정체성의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다. 만일 알베리오네 신부가 컴퓨터, 정보과학, 정보 서비스 시스템, 위성, 광케이블, 멀티미디어 언어, CD-ROM, 휴대 전화, 위성 전화, 고선명도 텔레비전’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보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매체나 용어를 몰랐다는 것은 그가 우리 이전 세대를 살았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23. 1942년에 출판된, 성바오로수도회 「회헌」 2항. (수도회의 특수 목적)에 이미 명기된 것처럼 “무엇보다도 ‘출판 사도직’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고 신속하며 ‘시대의 필요와 조건에 더욱 적합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일하도록 회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윤리 또는 진리에 대한 사랑의 윤리를 따르면서 사도직을 위해 전진하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맡겼다.

비록 옛 용어가 되었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독자를 격려하며, 남녀 바오로인이라면 누구나가 지닐 권리가 있는 ‘출판 사도’라는 명칭을 책임과 품위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라고 초대한다. 오늘날 남녀 사도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언어와 수단으로 내일의 주님 추수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일꾼이 부족하다.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사도적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미래는 영원이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영원)이라는 말에서 시작하여 이 지침서의 다른 중요한 표현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 1998년 4월 4일

안젤로 콜라크라이 Angelo Colacrai

일러두기

1. 이 책이 택한 본문은 비록 실수가 있다 해도 가장 완전한 초판본(『출판 사도직L'Apostolato dell'Edizione』, 알바, 성바오로딸수도회, 1944년 1월 15일)임이 분명하다. 원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원전을 찾을 수 없음) 우리는 원전에 가장 가까운 원본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가끔 의미상의 명백한 실수(원고의 오독, 오식, 또는 행을 건너뛴)와 비록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여 신빙성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병행 표현을 따르거나 재판(1950)을 따랐다.

ㄴ) 철자법과 문장 구성의 잦은 불규칙성(구두점, 머리글자 등의 부재 또는 남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일반규칙을 따랐다.

ㄷ) 서체(불규칙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자주 부정확하게 사용한 볼드체, 이탤릭체 등): 볼드체는 부제에, 이탤릭체는 라틴어나 이미 원본에 분명하게 표시된 특별히 중요한 인용부분에 사용하기로 했다.(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이탤릭체 대신 “ ”이나 ‘ ’을 사용함)

2. 초판에 제시된 각주를 충실히 되살렸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요소로 보완했다. 첨가한 부분(라틴어 표현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경우처럼)이나 새로운 각주는 * 약물을 첨부했다.(한국어판에서는 본문에 실린 라틴어 성경구절을 각주로 처리함)

3. 장章의 숫자는 원본을 따라 로마숫자로 표기했으며(한국어판에서는 로마숫자 대신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함), 중복된 26장은 27장

으로 수정하여 표기하지 않고 26장/2로 표기한 것처럼 수정해야 하는 곳도 원본을 따랐다. 이는 이어지는 장의 숫자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다.

4. 판면 양옆 여백에 볼드체로 표시한 일련번호는 원본 초판의 쪽수를 참조하기 위한 것이다.(본문의 세로획 ‘|’부호는 원본 쪽수의 시작을 표시함) 이 일련번호는 색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문의 인용을 위해서 번역을 포함한 그 어떤 출판본에서든 사용되어야 한다.

5. 마지막에 부록을 첨부했는데, 이는 출판 사도직의 정당함을 전적으로 증명하는 「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1921년 7월 15일 5호) 특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이 전개하는 모든 내용의 예상이나 ‘후기’로 생각할 수 있다.

사도직! 이 단순한 용어에는 모든 사명과 모든 계획이 포함된다.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글로 쓰고 인쇄하고 보급하는 사람 또한 사도요, 으뜸가는 사도다.

오늘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결실을 많이 내는 사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출판사도, 영화사도, 라디오 사도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에 관하여 회칙「천상 스승이신 그분 *Divini illius magistri*」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시대에는 더욱 크고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는 그만큼,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재난의 기회가 많아졌고… 이는 불경스럽거나 | 사악한 서적들(그중 많은 책은 6 악의적으로 싼값에 보급됨)에서, 영화와 이제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종류의 영화처럼, 온갖 종류의 독서가 용이하도록 다양하고 쉽게 만들어 배가시킵니다.”

이러한 새롭고 시급한 사도직의 필요성은 각 분야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생각과 행동에 경탄할 만한 활력소가 되었다. 그 결과는 이미 위안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모든 사도직의 본보기요 스승인 교회의 목소리는 사회의 다양한 요청에

1. * 1929년 12월 31일에 반포된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회칙. [*가 딸린 각주는 이 출판본의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 *가 없는 각주는 1944년도 출판본의 각주다.]

따라 적합한 수단과 타당한 형태를 나타낼 터인데 이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게”²⁾ 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도직 전체 또는 일부만 담당하는 수도회 가운데 성바오로수도회가 있다. 이 수도회는 공통 사도직 외에 특수 목적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출판물 | 활용하며

- 7 우리 시대에 개인과 대중에게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과학과 예술의 새로운 발명, 곧 영화와 라디오를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이러한 활동 전체를 성바오로수도회는 ‘출판 사도직’³⁾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명한다.

이 책은 이러한 사도직에 관해 특히 인쇄 사도직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연에서 전개한 사상과 「인쇄 사도직 *Apostolato Stampa*」⁴⁾의 중요한 부분을 충실히 다룰 것이다.

모든 점을 다루지 않았으나 가톨릭 신자, 특히 성바오로수도회

- 8 회원과 협력자에 해당하는 | 활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성바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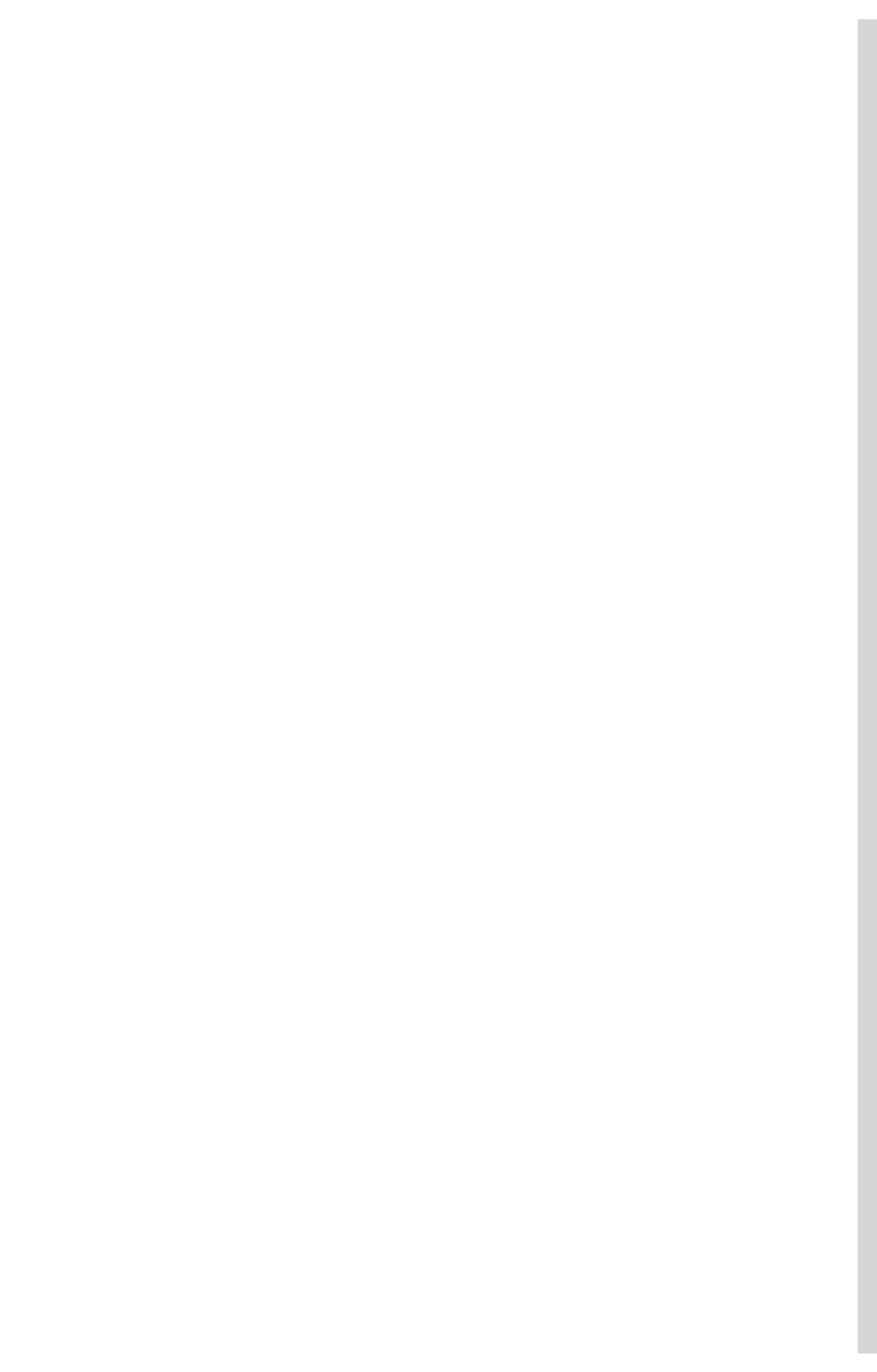
2. 2테살 3,1.

3. 이와 같은 표현은 성바오로수도회를 승인한 교황청 교령에서 사용했는데, 수도회의 특수 목적을 규정짓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출판’이라는 용어가 의도하는 것은, ㄱ) 밖으로 주다(라틴어 *edere* 에서 나옴)라는 어원적 의미에서, 또는 활동, 업적을 의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경우 밖으로 주는, 곧 대중을 향한 사도직을 의미한다. ㄴ) 용도에 부여한 의미: 대중과의 접촉을 가져오는 매체를 통해 교의, 정신적 산물, 생각을 밖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출판 사도직, 영화 사도직 그리고 이제는 라디오 사도직도 함께 포함된다.

4. G. 알베리오네, 「인쇄 사도직 *Apostolato Stampa*」, 성바오로수도회, 알바. * 1933년도 출판본.

수도회는 성 바오로를 귀감으로 삼아 무한한 열정을 지닌 사도적 양성을 지향한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들은 무엇이 하느님의 소중한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인류의 예술, 학문, 기술, 산업 발전을 사도직의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제1편

사도직과 사도

제1장 출판과 사도직 수단

영화, 라디오와 같은 현대의 발명은 인쇄 매체의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결코 감소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활동범위를 확장시켰고, 「출판 사도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인쇄, 영화, 라디오는 오늘날 긴밀히 서로의 힘을 강화시키고 완성하며 진보하면서 나란히 사상의 지배자, 세상의 정복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가 발명한 이 세 가지에 관해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 그 힘을 말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12 방어와 습득의 차원에서 사도직의 경이로운 수단이 되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반대되는 출판에 대항하는 방어는 ‘무기에는 무기로 맞설 것’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 과학, 완벽한 기술과 인류 문명의 진보는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질서지어져야 한다.”¹⁾

이같은 방대하고도 탁월한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출판 사도직을 본연의 참된 빛 안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 곧 본질, 중요성, 목적을

1. 교황 비오 11세,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 1936년, * 영화에 대한 회칙.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사도직의 본질

‘출판 사도직’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신앙과 윤리를 훼손시키는 요소를 거부하거나 공동선의 특별한 이상을 제시하는 시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출판이라는 수단을 통한 하느님 말씀의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 그 참된 사명을 의미한다.

- 13 ‘하느님 말씀의 설교’ 또는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 기쁜소식, 복음선포를 뜻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² 하신 주님의 명에 따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선포자가 되라는 것은 모든 이가 원죄에서 비롯한 무지無知와 함께 모두가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원래 설교는 출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두설교처럼 문서설교나 인쇄물은 하느님 말씀을 몇 배로 늘려 하느님 말씀이 어디에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나 본래대로 말씀을 보존할 수 없는 곳까지 이르게 한다. 이는 현재의 성경 73권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귀감과, 언제나 구두설교에 인쇄된 설교를 결합시킨 교회의 귀감을 따른 것이다.

2. 마르 16,15: * “Euntes in mundum universum, predicate Evangelium omni creature.”

중요성

어느 시기에는 출판 사도직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어둠의 | 자식들’이 출판을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는 데 이용했기에, 급기야 교황 비오 10세는 특별히 출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오, 출판! ...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도 성직자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그러나 얼마 후 곳곳에서 출판 사도직의 감탄할 만한 시도가 드러났다.

힘난하고도 황폐해진 출판, 영화, 라디오 분야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또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적극적(긍정적) 활동과 구체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의 전파자들이 이러한 도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 선교활동의 범주 저편에는 언제까지나 불모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도직의 본질뿐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선포라는 출판의 내적 가치 면에서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인쇄, 영화, 라디오는 사람들이 읽고, 보고, 듣는 바에 따라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자기 성향대로 이끌어 가는 신비한 영향력을 가진 무기다. 이러한 점에서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말과 문서가 | 지성에 사상을 심어주면서 호소하듯 의지는 지성을 따르고, 그의 삶은 사상에 의해 진척하기 때문이다. 15

베랑저Beranger는 출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좋은 나쁜든, 거

짓이든 진실이든, 타락시키든 덕스럽게 하든 출판은 자유국가 안에서 전능 그 자체다. 여론을 형성하고 관습을 만들어 낸다. 좋은 출판이라면 가족과 학교를 강화하고, 나쁜 출판이라면 파괴한다. 출판은 직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며,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쥐고 있다.”

국제가톨릭출판 전시회의 지속적이고 빛나는 고무자인 교황 비오 11세는 로마 회의에서 잡지 「라 크루와 *la Croix*」의 필자들과 관계자들에게 한 담화에서 ‘출판의 무한한 힘’을 강조한 후 이렇게 말했다.

“현실을 표현하는 데는 이같은 표현조차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전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스스로 전능하다면, 말씀이 그와 같은 절대적인 조직과 그에 상응하는 보급수단을 구성한다고 할 때 출판의 위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조직과 보급수단 덕분에 이 절대적인 힘은 참으로 온갖 한계를 넘어 몇 갑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화와 라디오에 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신뢰와 확신이 증명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쇄 사도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음, 이

16 책 | 제2편에서 영화와 라디오방송 사도직에 관한 것을 다시 언급 하겠다. 지금은 다음의 내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교황 비오 11세는 영화의 격려자요, 격찬자였다. 그는 영화에서 과학의 놀랄 만한 힘을 보았고, 하느님의 선이 인류에게 베푼 선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영화는 ‘거의 언제나 거대한 악의 원천과 전달수단’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교황은 통탄하듯 말했다. “얼마나 큰 파괴입니까! 영혼에 관한 사안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³

교황 비오 11세는 현대적 발명인 라디오에 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라디오가 새로이 부각되고 급발전을 이루며 놀라게 활용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라디오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바랐다.

교황 비오 12세도 선임자처럼 인쇄, 영화, 라디오의 힘을 보고 놀라면서도 염려했다. 그 증거가 그의 많은 연설과 문헌, 행적에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1941년 5월 10일, | 성바오로수도회 17
를 승인하며 내린 ‘칭찬과 승인 교령Decreto di lode e approvazione’을 상기하고 싶다. 현대적 수도회인 성바오로 수도회 회원은 출판 사도직을 그 특수 목적으로 제시한다.

목적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이것이 바로 출판 사도직의 특수 목적이다.

베들레헴 오두막 위에서 천사들이 이와 똑같은 계획을 노래했다.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Gloria Deo, pax hominibus.”³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당신 삶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목적이요, 천상 목적이다.

따라서 출판사도의 이상은 하나다. 하느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도록 하신 것이다. 곧 하느님께 지성을 복종시킴으로써 그 지성을 통해 신앙이 활기를 띠어 스며들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께

3. 1934년 10월 10일에 카스텔간돌포에서 국제 출판영화연합위원회 회원들에게 한 담화.

4. * 루카 2,14 참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하느님의 초자연적 사랑, 애덕에서 영감을 받아 그분께 마음을 내어맡기게 한다.

사도는 유일한 보화, 곧 영원한 보화, 천상지복을 지향한다. 사도는 이 보화가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확고하게 변함없이 자신에게 보장되고 또한 형제들과 모든 이에게 이 보화를 안겨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제2장 출판 사도직의 내용

18

출판 사도직의 내용은 구두설교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가톨릭 교의에 관한 것이다. 교의에는 필수적으로 신앙, 윤리, 경신례가 포함된다. 백성에게 ‘길 진리 생명’으로 선포된 완전한 천상 스승께 교의를 통해 영광을 드린다. 또한 조명받아야 할 지성, 선으로 인도되어야 할 의지, 성화되어야 할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근본 요청에 응답한다.

신앙

인간은 신앙의 진리를 알고 이에 충실해야 할 첫째가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¹ 라는 이 진리, |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이 진리가 출판 사도직 내용에서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19

이는 신학에 온전히 나타나 있고, 교리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신경(信經)에 요약되어 있는 진리를 출판 사도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모든 이가 교회와 함께 가톨릭 신경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신경: 한 분이신 창조주시오 만물의 근원이시며, 지혜와 힘과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인간에게 온갖 권능을 행사하시

1. 비오 10세의 교리교육.

는 분, 우리의 최고 목적이신 한 분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외아들을 저는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그리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인간을 성화시키며 교회를 비추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천상 스승께서는 “나는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20 윤리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리를 알고 고백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³

하느님의 뜻은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 표현되어 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고 각기 신분에 따른 의무와 덕행의 실천과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출판 사도직의 2차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교 윤리 곧 인간의 관습과 자유로운 행동을 하느님 뜻에 부합하도록 이끌어주는 모든 규정이다. 곧 의지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2. 요한 14,6.

3. 마태 7,21.

“... 네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⁴

그리고 세부적으로

계명: 우상숭배, 미신과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거룩한 것에 대한 모독과 온갖 불경을 멀리하고 하느님의 이름, 맹세, 서약에 대한 존중과 축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녀의 의무, | 종의 의무, 아랫사람의 의무, 노동자의 21 의무를 지키는 반면에 사람들과 이웃에 대한 명예훼손, 절도 그리고 온갖 불의를 단죄한다.

결국 이 모든 의무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향하고, 자신을 향하며, 이웃을 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회의 규정 -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이중의 규정: 축일에 대한 의무로서 휴식과 기도와 선행의 의무.

덕: 대신덕-믿음, 희망, 사랑; 사추덕-예지, 정의, 용기, 절제; 윤리덕-순명, 순결, 근면, 겸손 등.

복음적 권고: 인간이 최상의 경지에 들어 높여지는 곳인 공동 생활을 통한 정결, 청빈, 순명.

수도 신분과 교회적 신분과 모든 수덕 신학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인과 수도자의 완덕과 관련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나는 길이다.”⁵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삶의 거룩한 귀감으로 설명되고 확인된다.

4. 마태 22,37.

5. 요한 14,6.

전례(경신례)

전례는 신앙교육과 설교의 셋째 부분으로서 출판 사도직의 세 번째 내용이기도 하다.

- 22 그러므로 전례는 믿어야 할 진리와 지켜야 할 규범을 알게 하는 것 외에도 은총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은총의 수단을 알고 그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며,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는 공적이며 사적이고, 내면 적이며 외적인 행위의 복합적인 전례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가톨릭 전례의 가장 숭고한 부분은 ‘성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 사도직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성품성사, 혼인 성사와 병자성사를 밝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히 고해성사, 미사, 영성체, 성찬전례를 설명해야 한다.

성사와 더불어 ‘준성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준성사는 갖가지 축성과 축복, 구마식, 임종자를 위한 기도, 장례예식, 회사 등이다. ‘기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개인적으로 바치든 공동으로 바치든 소리기도, 마음기도 그리고 삶의 기도다. 특히 공적 기도는 교회가 정하고 가치를 부여한 공식적인 것이므로 전례주년을 충실히 따라 기도할 때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된다. 이것은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기는 것이 목적이기에 가장 유익한 기도다.

- 23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⁶ 결국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한다.⁷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⁸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출판 사도직의 내용은 그 모든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이란 직접계시와 간접계시의 공간과 같다.

직접계시: 교회의 신학적 가르침에 대한 설명, 옹호, 해설, 대중화.

간접계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계시에 연관되거나 포 함되어 있는 문학작품, 예술작품, 철학 원리, 사건들에 대한 설명, 수호, 해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문학, 역사, 예술, 과학을 통해 신앙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신앙에 빛을 비추어주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출판분야의 학술서적, 신문과 잡지, 흥미로운 문학 작품들이다. 이것은 피조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그분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며, 삶 속에서 신앙이 모든 것을 비취 주고 성화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선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악의 확산을 막거나 악 자체를 소멸시키는 소극적 활동이기도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갈라 4,19: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라는 표제의 알베리오네 신부 작품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 프리모 마에스트로 목상집, 알바, 성바오로수도회 1933년, 110쪽, 16cm. 새로운 비평 편집본을 출간 준비 중이다.

7. 갈라 2,20: **vivo autem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

8. 요한 14,6.

제3장 출판 사도직의 우선 순위

출판 사도직의 내용은 결국 교회의 가르침, 성경과 성전에서 이끌어 내는 가르침으로서, 이성의 논증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에게는 성경과 성전^{聖傳}의 원천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마땅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 교회의 가르침이 첫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에 밀접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오래된 규범을 이루는 성경과 성전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도권의 무류성을 오직 교회에
25 주셨기 때문에 | 사도는 여기서도 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

출판 사도직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첫째요, 주요 임무로서 교회, 교황, 주교, 가톨릭 사제의 말을 반복하는 사람, 목소리,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v.m.¹ 교황 비오 11세는 당신 진리의 좌 가까이에 아버지답게 가족처럼 맞아들인 시사평론가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의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라고 했다.

1. Di Venerando o venerata memoria. 가경자 또는 존경받는 추모자.

그 이유는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종교를 알고 심화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느님께서 오류도 결점도 없는 보편 교회를 제정하심으로써 섭리해 주셨다. 그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참되고 좋은 것을 확실하게 알아 돌아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 모든 백성은 매 순간 그 가르침에 전도顛倒되고 늘 그리로 향하면서 천상 진리와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확실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 26
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²

성경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사제와 신자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확인하는 일에서, 다시 말해 계시의 원천에 대한 연구에서도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다. 계시의 원천은 성경, 성전, 계시된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오래된 규범이다. 최우선인 성경은 하느님이 당신 자녀인 인간을 하늘로 초대하기 위해 보내신 하느님의 편지 또는 위대한 책으로서 믿어야 할 진리, 행해야 할 활동, 도달해야 할 은총의 수단을 제시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느님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만 맡기셨기에 거룩한 본문(성경)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로, 진리의

2. 루카 10,16.

보고寶庫인 성경은 교회의 지시에 따라 읽고 연구해야 한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충실한 아들로서의 출판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았기에 언제나 교회의 규범에
27 따라야 하며 | 교회의 원칙과 본질적인 해석에 상응하지 않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믿을 만한 입문 연구뿐 아니라 특히 교회가 제안했거나 적어도 승인한 해설을 수용하겠다는 교회에 대한 충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자들과 백성에게는 방대하지 않은 대중적 성격의 풍부한 해설을 곁들인 성경본문을 읽도록 제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다음에 설명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

성전^{聖傳}

출판사도는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외에도 성전^{聖傳}을 대중화하고 보급해야 한다. 성전은 성경을 실현하는 거룩한 계시 부분으로서, 성경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그 진리를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일반 교도권과 장엄한 교도권의 권위 있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출판사도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 성전^{聖傳}과 함께 가톨릭의 가르침을 명확히 설명하고 확고히 다지며, 적용하고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노고와 결실을 이끌어 낼 줄 알아야 한다.

제4장 출판 사도직의 특징

28

출판 사도직은 내용과 형태 면에서 사목적인 특징을 뚜렷이 드러낸다.

사목적 특징

사목은 인간을 다스리는 뛰어난 예술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사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성성이라는 올바른 길을 통해 진리라는 건강한 목초지로, 초자연적 삶의 원천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과제였다. 스승은 이 과제를 사목자들에게 전수하며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¹

이것은 다름 아닌 위대한 사제의 직무다. 사제는 설교대에서 29 설교하거나 종이, 책, 영화, 마이크를 통해 설교해야 한다. 유일한 교의, 유일한 계획, 하느님의 대리자를 위한 유일한 직무, 곧 출판의 언어를 이용해야 한다. “영혼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것은 가져가시오.”²

1. 요한 20,21.

2.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창세 14,21. * 성경 본문은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한다. 그리스도교 수덕신학 전통에서,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변천했다. “영혼들의 구원을 보장하라. 그 나머지는 기꺼이 그대가 가져도 좋다.”=(참된

내 용

출판 사도직은 출판물을 통해 제시하는 내용에서, 바꾸어 말하면 지식에서 또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사목적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교회가 스승이다. 교회는 거룩한 교의의 위탁자요, 모든 인간 지식의 모체³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학문과 모든 예술이 어떤 식으로든 계시에 의해 빛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공로자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인 직무, 관심사는 하늘의 길을 밝히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경신례, 윤리, 신앙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30 교회의 발자취와 지침을 따라 출판사도는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학문과 예술에 관여한다. 같은 방식으로 선교사는 | 믿지 않는 이들이 좀 더 쉽게 회심하도록 학문과 예술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사도의 주요 염려는 독자들에게 최근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요, 정치, 경제, 산업, 농업, 문학 등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교 사상으로 쉽게 인도하며, 영혼을 독이 있는 목초지에서 구하고, 학문과 예술을 그리스도교 사상으로 성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교의를 교리문답식이나 학술적 방식으로 직접 제시하여 전하기보다는 개인, 가족, 사회, 국제적 차원에서

사도적 열성은 현세 재물을 추구하기보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계로 이끄는 일에 집중한다.)

3. * 양육자 Alimentatrice, 유모nutrice.

그리스도인 삶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진리와 교회력을 따른 전례적 삶이 모든 활동의 바탕과 본질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축일, 복음서, 서간, 전례 거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진리, 규범, 은총의 수단을 이끌어 내고 대중화할 것이다.

또는 교황, 주교, 사제가 가르치는 교의를 적용하면서 시대를 거쳐 내려오는 교회의 삶이 그 바탕과 본질이 되게 한다. 그리고 사도는 악마의 도시에 맞서 하느님의 도시가 벌이는 전투에 자주 참여하고 파수꾼으로 나서기도 한다. | 적대자들의 공격에서 윤 31 리, 교의, 신앙을 보호하면서 어머니인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보화를 지상 곳곳에 널리 유포한다.

또는 시대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윤리 문제에 가톨릭 교의를 적용한다.

출판사도는 첫 두 양식에 대해 교의적 바탕과 사실적 증거 자료를 지닐 것이며, 세 번째는 역사적·교의적 방법을 따를 것이다.

형 태

출판 사도직은 내용을 설명할 때도 사목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능력, 곧 지성, 의지, 감정을 이끌어 인간을 거룩한 선물, 하느님 자체로 양육해야 한다. 이로써 인간은 하느님으로 변모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한다. 그분께 완전하고 지혜로운 경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분께로 방향지어야 한다.

지성은 하느님께 경의를 표해야 한다. 천상 스승은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⁵ 그러므로 ‘착한 목자’

32 이신 그분은 온갖 |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⁶

의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⁷ 의지는 완전한 모범이신 천상 스승의 표양과, 하늘의 길을 두드린 이들과 성인들의 표양으로 조명되어야 하고, 의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으니”⁸ 노력하라.

하느님께 감정과 마음을! 하느님의 생명 곧 은총은 마음을 충만케 하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변모시킨다.

세 가지 욕망이 인간을 흔들어 놓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⁹ 그러므로 순결과 가난의 정신, 마음의 겸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

4. 로마 12,1.

5. 요한 17,3: * “hæc est vita æterna; ut cognoscant Te (Pater) et quem misisti Jesum Christum.”

6. 마태 5,2-3: * “aperiens os suum docebat: beati pauperes spiritu…”

7. 마태 19,17: * “Si vis ad vitam ingredi serva mandata.”

8. 마태 7,13-14.

9. 1요한 2,16: * “Omne quod est in mundo concupiscentia carnis, concupiscentia oculorum, superbia vitæ.”

제5장 출판 사도직의 요청

33

출판 사도직의 보편성은 이를 실행하는 이에게는 다음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과 열망이 요청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느낄 것, 교회와 함께 느낄 것, 성 바오로와 함께 느낄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느낄 것

이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신 말씀에서 드러난 천상 스승의 마음을 지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범과 사명이나 교육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도와 성사, 하느님 말씀과 성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궁핍한 사람들, 여인들,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몰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특수한 사도직을 위해서는 |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34 자기네의 여러 거룩한 사업을 위해 출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 사도직은 온갖 필요, 온갖 활동, 온갖 이니셔티브, 모든 것에 마음을 쓴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을 위한 활동: 교리, 그리스도교 문화, 교육.

윤리적 양성을 위한 활동: 청소년 교육에 관한 모든 것(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톨릭 단체, 성소, 선교, 결혼의 성화, 가정의 올바른 정립, 바람직한 입법과 국민 통치.

영적 생활을 위한 활동: 기도와 신심, 연중 전례, 성사들 같은

1. 마태 11,28: * “Venite ad me omnes.”

일반 전례와 특별 전례, 경신례 실천.

선행: 성 빈첸시오 드 폴의 강연, 매일의 자선, 고아원, 양로원, 요양소, 병원, 교도소, 병자, 과부, 장애인, 하인들과 가난한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출판 사도직은 이 모든 활동에 관한 서적, 잡지, 적합한 출판물을 통해 효과적으로, 열정을 다해 기여할 수 있다. 열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복음서, 성체신심활동, 젊은이 양성, 샘에서(분출되듯) 다른 사도직을 발산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이다.

35 교회와 함께 느낄 것

출판 사도직은 교회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하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로마 가톨릭의 그르칠 수 없이 완전무결한 가시적인 단체로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직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적 감정을 내려놓고 정신, 의지, 마음이 항상 교회의 규정에 따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느끼도록 지향해야 한다.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지닌 교회를 향한 자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인과 추천을 받은 저작자들 특히 교회 박사들을 토대로 양성해야 한다. 전 생애 동안 그들의 저서를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한다. 특히 교황 문서, 로마 교황청 문서, 주교단의 문서를 읽어야 하지만, 교회가 가르치고 원하는 것과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온갖 서적, 잡지, 경향, 정당, 논쟁, 연설을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교회, 교황, 주교단, 공의회, 교회법, 전례 규정,

규범, 교의적 가르침과 전통적 가르침 등 교회에 관한 내용을 조명하고 칭송해야 하며, 이를 출간하는 일이 출판 사도직에 속한다. 또한 그 내용들을 수호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교회 안의 모든 단체를 장려하며 대답이 될 때 책망해야 한다.

36

이 사도직에는 특별히 교황청의 이니셔티브와 권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과를 보필할 과제가 맡겨졌다. 교구에 관련한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주교단에 조화, 일치, 효과를 가져올 지역적인 일을 위해 재속사제(교구사제)와 수도사제를 동반할 과제가 맡겨졌다.

요약하면, 출판 사도직은 교회, 교황, 주교단, 본당신부, 사제의 목소리가 된다. 그와 같은 목소리는 모든 이에게 교회의 진리, 성성, 생명이 도달하기 위해 확성기처럼 모든 이에게 확장된다.

영혼을 위해 성 바오로와 함께 느낄 것

성 바오로는 전형적인 사도다. 그는 하나의 이상, 하나의 생명, 하나의 존재에 헌신하기 위해 전혀 다른 종류의 요소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바오로 사도는 지칠 줄 몰랐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² 그는 항상 어디서든 모든 이와 함께했고,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열정적인 사도는 허약한 체질, 장거리, 산, 바다, 지식인의 무관심, 권력자의 힘, 향락자의 조롱, 체포, 순교에도 불구하고

2. “omnia omnibus factus.” *1코린 9,22 이하: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37 세상을 | 두루 다녔다.

출판사도는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방인의 사도, 곧 그의 귀감이요 보호자의 자취를 따라 온 세상을 끌어 안는 큰 마음을 지녀야 하고, 지칠 줄 모르는 활동으로 영혼을 하느님께 인도하고 하느님을 영혼에게 모셔가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인적 필요가 있기에 사도는 귀감이신 분에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슬기를 배워야 한다. 또한 사람들을 육체적·지적·윤리적·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에 따라 대하는 사도 바오로의 다양한 방식과 적응의 유연성을 배워야 한다.

사실상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오네시모스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또는 동정녀 테클라와 함께 사랑과 자비로 수고하여 드높여진 내면의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고, 때로는 코린토인들에게 행한 힘 있는 훈계를, 때로는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에 앞서 취한 기품을, 때로는 필레몬에게 말한 것같은 단순함을 취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도가 이렇듯 성 바오로의 적응의 비결, 곧 사랑을 발견할 줄 안다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³

3. “in omnibus caritas!” * 콜로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제6장 출판 사도직의 방법

38

사도직에서도 하나의 방법, 곧 행동양식을 통합하는 원칙과 기준과 배치의 종합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방법은 행보를 관리하고 목적 달성을 보증한다.

출판 사도직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할 만하다. 길 진리 생명, 곧 복음의 세 명제를 따르는 방법이다. 사도는 양성 때 이를 배워 심화시키며, 자신의 사도직에 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실천양식은 이 책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본질, 기초, 실행을 설명하고 실천적인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본 질

39

길 진리 생명의 방법은 인간이 하느님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하는,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주요 능력인 지성, 의지, 감정을 통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그 뿌리를 둔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진리, 성화, 은총의 중개자요, 하느님께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따름으로써 일치하게 된다.

1.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음

1. 요한 14,6: * “Ego sum Via, Veritas et Vita.”

으로써(의지의 일치).

2.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그분의 가르침에 귀기울임으로써(지성의 일치).

3.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므로써(감성과 정신의 일치).

이러한 원리에 근거한 도식에 따라 사도는 자신의 양성과 사도직을 위한 주요한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기 초

제시하는 방법은 인간 본성의 자연 질서와 인간 본성이 들어놓여진 초자연 질서에 기초를 둔다.

- 40 자연 질서: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인간은 본성을 제시하는 고유한 능력, 곧 영적 기능과 감각기능으로 행동하고 활동한다. 동일한 그루터기(인간 본성)에 뿌리내린 이러한 인간의 힘은 상호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특정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오로지 의지의 활동으로 제한하거나 지성이나 감성만으로도 아니고, 감각적인 것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² 인간 안에서 힘은 영적 질서 안에서든 반드시 생명의 조화속에서 모든 것이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능력들, 의지, 지성과 감정에 국한시켜 볼 때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의 활동이나 행동의 직접적인 원리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복음의 세 가지 명제 안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2. 실제로 활동은 능력으로 간주된다. 모든 활동은 자신이 지닌 주요한 능력에 의한 특별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해진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하자, 목표에 대한 이상^{idea}은 의도를 통해 생겨나고, 의지에 의해 갈망하게 된다. 그렇지만 수단을 적합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알아야 한다. 곧 지성의 성찰이다. 그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력, 힘, 열정, 용기가 필요하다. 곧 감정이다.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이고 점진적이다. 사실 인간의 으뜸가는 41
 능력은 의지고, 이 의지가 지성, 감정, 감각 등에 명령한다. 의지로 활성화된 지성은 적합성, 균형, 인간관계, 수단이 지닌 효과 등을 고찰한다. 의지의 명령을 받은 감정은 감각 세계의 질서 안에서 사물을 터득하여 감각을 적용하며, 생기찬 활동을 추진하고 끌어당긴다.

의지의 (원초적인) 첫 행위에는 목적을 드러내는 지성의 빛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목적의 의도에는 억누를 수 없는 경향처럼 빛을 발하는 지배력을 드러내는 의지가 있다.

감정은 의지, 지성, 그리고 감성과 감수성의 활동에서 분리할 수 없지만 이는 지성의 조명을 받고 감각의 도움을 받은 의지가 질서정연하게 실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³

3. 감정은 다른 이들이 '의지에 폭 빠진 애정^{pius affectus voluntatis}'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애정'을 통해 에너지에 명령하여, 영적 사랑을 증대시키고 지탱하며 강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영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감성적 의미에서 능력으로 간주되어 '마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적합성, 더 낮게는 합법적 상징주의를 통해 (생명과 양분의 상징인) 피를 전달하는 조직의 중심으로서, 심장의 기능에 토대를 둔다. 이를 '생명'이라고도 이름하는데, 이것이 결과에 응답하고, 사랑을 상징하며, 사랑을 통해 선의 커뮤니케이션인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 본성 안에서뿐 아니라 초자연적 본성 안에서도 그러한데, 이 초자연적 본성 안에서 선의 커뮤니케이션은 영혼의 생명, 은총의 커뮤니케이션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초자연 질서: 여기에 인간 본성 전체를 들어 높이는 생명과 활동의 새로운 원칙인 은총이 있다. 그리고 자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주는 원칙이, 실존과 행동에서 이를 지탱하기 위해 의지와 지성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초자연 질서 안에서도 은총은 의지와 지성에 정보를 주어 초자연적 목적에 따라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은 인간 본성을 특징짓고 들어 높이면서 효과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데, 이 에너지는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목적을 향해 의지를 끌어당기고, 지성에 자연적이고 초자연적 진리의 비전을 수월하게 가져다 준다. 이 에너지는 많은 장애를 신기할 정도로 제거하면서 신앙행위의 발산을 통해 그리고 여러 결의를 통해 지성과 의지를 도와준다.

- 42 초자연 질서로 들어 높여진 인간 본성 안에서도 길 진리 생명이라는 방법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인간은 자신의 핵심 능력(지성, 의지, 감정)⁴과 더불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비록 은총으로 들어 높여지지만 이 능력들은 적합한 행위들의 실행에서 상호 영향을 끼친다.

43 실행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이론적·실천적·사상적·예술적...)에서 그리고 모든 학문(신학적·철학적·역사적·전기적...)에서 복음의 세

4. (은총에 의해 고양된) 마음이라고도 불리는 감정은 사랑과 생명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시는 생명을 주는 새로운 기원인 은총으로 형성된다.

명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로 제한하기로 하자.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철학적 원칙이 잘 알려져 있다. “의도(意圖)의 첫 자리는 목적이다.”⁵ 그러나 의도 또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지적 인식에 관한) 하나의 상황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경향은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따르는 의지 고유의 특성이다. 44

뒤이어 목적에 어울리게 하는 수단들의 검토로서, 목적에 더욱 적합한⁶ 결과를 주는 행보에 대해 성찰하며, 생각과 행동 사이에, 말과 말 사이에, 행동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에 대한 검토다. 다시 말해 의지가 장애를 피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통해 늘 빛을 받도록 원인과 결과 사이의 검토가 따른다. 이것이 지성의 임무요, 진리를 통한 의지의 빛이다.

일단 의지가 목표를 결정하면 지성은 합당한 수단을 정하게 되고,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힘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매우 유사하여 생명의 상징이랄 수 있는 마음 또는 감정이다.

인간 삶의 시기에 따라서: 유년기에는 다만 자신이 보고 듣고, 인상적인 것만 모방하여 행동한다. 청년기에는 사고하기 시작하고, 사물의 근원을 탐구할 뿐 아니라 원인과 결과 사이의 조화도 추구하게 된다.

삶은 계속된다: 노년기에는 특히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한다.

5. “Primus in intentione est finis.”

6. *상응하는, 일치하는.

그러므로 감정과 정열이 지배적인 청년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인 세 단계, 곧 유년기는 모방(길), 성년기는 성찰(진리), 노년기는 감정(생명)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지성이라는 유형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세 명제의 점진적 실현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하자. 첫 눈길은 저자의 지적 행보를 따르는 것(모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시대와 사고를 결속시키는 동기를 검토한다. 마침내 애정을 갖고 전념하게 되는 자신의 생명,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사고와 개념에 동화된다.

목상이나 설교를 통해: 읽거나 경청하는 것은 우리 밖의 다른 사람이 찾아낸 길을 단순하게 따르는 것이다.

45 성찰이 따름-(좋은 나쁜) 원인에 따른 결과에 상응하는 관계를 | 검토한다. 지시한 그 길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 내적 동화가 이루어지면 열정적인 행동을 통해 숙고한 것을 자신 안에 살게 하고, 자기 것으로 한다. 그때 신념은 자기 것이 된 실재(생명)로 변하고, 그런 다음 개별 행동으로 발전하며,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 의지의 경향(목표)과 지성의 확신이 고유한 삶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구체적인 실천을 도외시키고 의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의도는 효과적이고 인간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창조한다.

삼단논법을 적용해 보자면, 대전제에서는 의지가 정한 어떤 길(방법)에 해당하는 명령을 서술한다. 소전제의 주어인 정신은 의지의 명령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이것이 매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두 전제

가 결합되면서 ‘결론’으로 요약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결론은 지식 분야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여기 제시한 예와 다른 수많은 예는 ‘길 진리 생명’ 방법이 유기적이고 논리적이며, 명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인간의 특수한 구성 요소를 건드리기 때문에 무한히 적용할 수 있다.

실천적 결론

46

제시한 방법을 따를 때 인간에게 길 진리 생명이 되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께 완전히 전념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상황에 적응할 줄 아는 유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의지가 지성에 부합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 위에 군림하는 의지에 부합하는 의견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의지가 인간 능력의 여왕인 것이 사실이라면, 지성 또한 행동 질서 안에서 확고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관념이 행위를 낳고, 그런 다음 행위는 감정을 촉발하며, 감정은 관념에 가치를 부여하여 행동을 강화한다.

제1장 통상적 직무자

출판 사도직의 직무자는 통상 직무자와 특별 직무자 두 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직무자들은 성직 수임자로서 성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사제다. 특별 직무자들은 그 사제와 일치 안에서 협력하며, 그 사제에게 종속된 이를 말한다. 이들 모두는 가톨릭 신자일 수도 있고, 갈라진 형제나 이단자, 또는 비신자일 수도 있다.¹

이제 하느님이 뽑으시어 성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사제를 가리키는 통상 직무자들에 국한시켜 살펴 보기로 하자.

하느님이 뽑으셨다는 측면

출판 사도직은 흔히 ‘거룩한 진리’에 대한 문서설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서설교를 교회 교도권에 위임하셨다. 곧 교황과 그에 일치한 주교들, 그리고 통교를 통해 주교들에 의해 임명된 성직자들, 일반적으로 ‘사제’라고 일컫는 이들에게 맡기셨으므로 구두설교든 문서설교든 모든 설교는 이들의 의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일을 맡은 것은 바로 사제다. 그러므로 진리와 윤리, 거룩한 경

1. 이 책에서는 이하 통상 직무자와 특별 직무자 모두를 일컬어 ‘사도’로 통칭한다.

신례(전례)와 구원의 수단을 통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은 사제에게 위임되었다. 그리고 말이나 출판이라는 수단은 부수적인 문제로서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출판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될 때 사제에게 출판의 의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이 사도직을 발전시킬 기회가 더 커진다.

성무를 수행한다는 측면

교회 안에서 사제는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두 가지 주요 성무를 수행한다.

- 49 그리스도를 삼위일체께 봉헌하는 것은 미사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방식은 1 다음 두 가지다. 곧 성체성사와 준성사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준다. 또 복음화를 통해 길ियो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준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과 계명, 거룩한 모범을 가르치고 대중화하며 이를 보호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준다.

이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말씀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출판 사도직으로도 행할 수 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출판 사도직이 말씀 사도직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말씀 사도직의 통상 직무자가 사제라면 그는 출판 사도직의 통상 직무자이기도 하다. 또한 말씀 사도직과 출판 사도직이나 사명이 모두 공통의 대상과 목적이 있다면 이를 수행할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제2장 출판 사도직을 위한 수도자

50

출판 사도직에서 수도자들은 일반 성직자의 공통된 임무와 그들의 특수한 신분에 따른 특별한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가능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더 넓은 광대함, 더 긴 지속성, 더 큰 열성.

더 넓은 광대함

설교, 영향, 은총에 대해

설교에 대해: 하나의 본당, 하나의 교구에 제한되지 않고, 그들의 활동을 교회 전체로 확장시킨다.

영향에 대해: 성좌에 특별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신자, 다양한 조건에 놓인 신자 모두에게 |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1**

은총에 대해: 받은 성소를 통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은총이 충분하다. 사실 하느님은 각자에게 맡긴 임무에 따라 기꺼이 은총을 선사하신다.

더 긴 지속성

수도회는 사제 개인보다 생명이 더 길다.

사실 수도자 중 한 명이 사도직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자 중

한 사람이 천국의 화관을 받으러 간다 해도 수도회는 다른 이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도록 배려할 것이다.

하나의 계획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고, 일이 많아지거나 새로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수도회는 인원을 보충하여 도울 것이다.

더 큰 열성

마지막으로 수도자들은 사도직에 대해 더 큰 열성을 갖는다. 이는 사도직에 헌신하는 이가 개인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또 수도서원은 사도직에서 자연적·

52 초자연적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지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수도자에게 특별한 신뢰를 갖고 지지한다. 결국 수도회는 질료와 형상에 있어 하나의 전문학교, 말하자면 사도직의 모든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

제3장 시대의 필요성

53

다른 시대에 출판 사도직이 개인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많은 결실을 내며 추진되었다면 오늘날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비록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을 대적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교회를 반대하는 출판사들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반대자가 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히브리인들, 프리메이슨, 개신교, 공산주의 등에서도 출판에 대단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의 정신과 현대의 형태를 지닌 광대하고 힘 있는 조직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출판 사도직에 종사함은 | 개별적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54 사람들이 종사하여 시간과 공간에서 결실을 증대시키는 보편적 특성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안한 사도직은 다음과 같은 폭넓은 가르침, 영향, 은총, 일의 연속성, 열정, 강한 희생 정신, 열렬한 기도 정신 등을 요청한다.

결국 교회에 의존하여 행동하고, 반대자들의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하느님의 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같은 부르심과 특별한 양성을 받은 사람들이 종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형성된 무리는 출판 사도직의 수행을 특수 목적으로 제시하는 수도자들의 집단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경륜과 교회의 전통에 완전히 일치된 것이다.

사실 하느님은 각 시대마다 필요에 부응하는 사람들과 수도회를 일으키셨다. 곧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피상적인 삶에 매달려 있을 때 하느님은 관상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일으키셨다. 페스트가 맹위를 떨칠 때는 환자들의 치료에 헌신하는 수도자들을 일으키셨다. 전 세계를 향해 해외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열렸을 때는 선교 수도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을 충실히 해석하는 교회는 세기에 걸쳐 그 활동을 언제나 수도자들에게 맡겼다. 예를 들면 이민족을 위한 선교, 전염병으로 인한 기근과 페스트를 위한 자선단체 조직, 십자군 원정, 명백한 역사적 순간과 사건을 입증한 위대한 연구, 노예 해방, 갖가지 위대한 개혁과 젊은이들의 교육 등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족 수도회가 있어야 한다. 하느님과 교회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제4장 성바오로수도회

56

출판 사도직에 종사하는 성바오로수도회는 출판을 위해 우리 시대에 생겨난 수도단체다.

이중의 목표

모든 수도회가 그러하듯 성바오로수도회에는 일반목표와 특수목표가 있다.

‘일반목표’는 거룩한 교회법과 수도회 고유의 회헌 규정에 따라 공동생활을 통해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회원의 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특수목표’는 출판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회 원

57

성바오로수도회는 ‘수도사제와 평수사’로 구성된다. 수도회는 다른 수도회처럼 청원기, 수련기, 유기서원기를 거쳐 종신서원을 한다.

수도회 곁에는 여성 가지인 ‘성바오로딸수도회’가 있다. 이 수도회는 사도직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성바오로수도회와 정신, 지향, 방법에 있어 일관성에서 평행을 이룬다. 수녀들로 구성된 수도회로서 다양한 수단, 곧 사목적 협력, 성체성사 안에 계신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 그리고 주로 출판 사도직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수도회의 목적이다.

그 임무와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적,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협력자들

성바오로가족에는 사도직을 위한 ‘협력자들’도 있다. 이들은 가족수도회의 수도생활과 사도직을 가능한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가능한 대로 복음적 청빈, 정결, 순명을 살아가는 한편 기도, 봉헌, 활동으로 사도직에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1. * 부록 참조.

제5장 출판 사도직을 위한 가톨릭 평신도 58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하며, 어느 범위에서는 평신도들도 그렇다. 이들은 성직자의 조력자들이다.

특히 출판 사도직에서 평신도들의 협력은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다.

소극적 협력

편집분야에서든 기술분야와 보급분야에서든 비종교적이며 나쁜 출판물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의무다.

편집분야에서: 복음과 교회에 상반되는 출판을 삼가야 할 뿐 아니라 반대자의 출판, 종교적 소재와 무관한 출판에 지적·윤리적 기여를 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해야 한다. 59

기술분야에서: 신앙이나 관습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그 일 자체나 기계 설비, 장소, 매체 등을 거부해야 한다.

보급분야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에 반대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포하고 조장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사실 가톨릭 신자들은 —인쇄분야에만 국한시켜 본다면—(교회 교도권이 검토하고 인정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윤리에 반대되는 독서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경박하고 감성적이며 신비적·관능적인 문학 서적을 삼가야 하고, 참된 가톨릭 양심을 잠재우는 비가톨릭 사상과 세속적

윤리를 거룩한 복음의 가르침과 윤리와 융화시키려는 인쇄물을 거부해야 한다.

- 그 대신 교회가 극찬하는 책들은 연구하기 위해 읽고 이용하며, 자기네 양성을 위해 따라야 한다. 그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나쁜 인쇄물의 중대한 죄와 스캔들을 다음과 같은 합법적 수단으로
- 60** 제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특정 출판물을 저지하고 고발하며 필요하다면 불태우는 일, 가능할 때 그 출판물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일, 만일 권위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다면 금지하는 것 등이다.

적극적 협력

모든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활동에 종사하듯이 출판에 종사하는 것은 중요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출판이 모든 활동 중의 으뜸인 것은 생각, 삶, 마음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판은 성직자에게 직접 맡겨졌으며, 협력으로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간접적으로 맡겨진 신앙활동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는 가톨릭 교계의 사도직을 확장하고 강화하며 수호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기도, 희생, 활동으로 출판 사도직에 협력할 수 있다.

‘직접적인 협력’은 대부분 권위 있는 위정자, 평신도 교사에게 그리고 다양한 동기로 다른 이들에게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도 주어졌다.

반면 ‘간접적인 협력’은 다양한 자질과 적합성에 따라 모든 가톨릭 신자가 할 수 있다.

출판물로 인한 하느님께 대한 모욕을 기워잡기 위해 | 그리고 61
출판 사도들을 위한 빛, 힘, 은총을 간구하고 사도직의 증진을 위해 모두가 예외 없이 기도와 희생으로 협력할 수 있다.

기도와 희생은 사도직의 큰 힘이다. 사실 기도와 희생은 사도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덕성을 갖추게 하고 빛과 위로와 영혼들의 구원을 얻어준다.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총 다음가는 이 사도직 외의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 곧 성소자를 보내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보냄으로써 거룩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만일 잉크가 순교자들의 피에 버금간다면 그들은 사도들,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자들을 교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제자들을 비추어줄 수 있다. 신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설립된 사업체를 도울 수 있다.

모두가 자기 신분에 따라 나쁜 출판물의 대량 유포로 형성된 위험에 대하여, 그리고 가톨릭 출판 사도직에 걸 수 있는 큰 희망에 대하여 강연, 저서, 대화로 형제들을 비추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사도직의 세 부분 곧 편집, 기술, 보급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기여함으로써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편집’에 관해 모든 가톨릭 평신도는 항상 가톨릭 출판물을 축 62
진시켜야 한다. 이는 사회학, 정치, 역사, 문학, 예술, 다양한 과학분야, 철학, 법학 등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여기에는 복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문학과 학문, 곧 역사학, 민법, 사회윤리학, 인구통계학, 음악, 미술, 건축 등의 예술 분야, 사법과

공법의 법률 규범, 철학, 윤리학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천상 스승의 가르침을 법률, 정치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적용해야 할 과제가 수없이 많다.

가톨릭의 많은 평신도가 종교를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 그들의 활동은 교회 교도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톨릭 교계에 종속되어야 한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마치 선교와 설교, 교리교육 활동을 위해 본분을 다하듯 물질적 기여와 희사로써 출판 사도직에 협력해야 한다. 복음의 활동과 복음의 일꾼은 계속 태어나야 하고, 살아야 하며, 유익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관은 법관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격려와

63 옹호와 보급을 위해 | 윤리적 협력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톨릭 신자는 일반적으로 성직자에 종속되고 일치하여 출판, 영화, 라디오의 드넓은 영역에서 편집, 기술적인 일, 소식, 관리, 보급 등의 폭넓은 역할을 맡는다.

‘기술’에 관해 가톨릭 평신도는 출판 사도직에 물질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봉사활동으로 도울 수 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출판을 위해서는 기계, 자재, 무한한¹ 수단이 필요하다.

좋은 뜻을 가진 가톨릭 신자들은 사도직의 필요를 알고 도와줄 시간과 장소를 간파하고, 그들이 고귀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활동은 하느님 앞에서 큰 공로가 되고, 자기 자신이 나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1. * ‘헤아릴 수 없는 innumerevoli’ 대신에 ‘무한한 indefiniti’를 택함.

결국 출판 사도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급’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평신도들의 협력에 달려있다. 수많은 수단을 제공하는 협력은 상황에 따라 다양해지고, 열성으로 고무된 창의적인 정신으로 더욱 확장된다.

64

제6장 사도의 양성

출판 사도직의 고귀함과 책임은 사도직 안에서 특수한 소명 외에도 준비, 더 나아가 고유한 양성이 필요한데, 이 양성에는 특별양성과 일반양성이 있다. 특별양성은 각 분야에서 직접 사도직을 실습할 준비를 하고, 사람과 업무에 따라 다양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인쇄 사도직, 영화 사도직과 라디오 사도직을 다루면서 언급할 것이다. 일반양성은 대부분 윤리적인 것이고, 출판 사도직의 몇몇 기획에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 이를 정신의 양성, 의지의 양성, 마음의 양성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65 정신의 양성

종교, 사도직, 세속 학문에 대한 공부로 이루어진다.

‘종교에 관한 공부’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확고해야 한다. 정확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가톨릭 교의와 윤리와 경신례를 포함해야 하고, 확고하다는 것은 중심 진리 위에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직에 관한 공부’, 특별히 출판 사도직에 대한 공부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으로 사도직 일반, 사도, 사도직 분야와 사도직이

1. 여기에서 사용한 ‘정신mente’이라는 용어는 이 책 전체에서 ‘지성intelletto’과 동의어다.

포함되어야 한다.

‘세속 학문에 대한 공부’는 사도직 실천에 필요한 종교와 사도직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사제 저술가의 예를 든다면 (그리고 비례적으로 수도자와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정신의 준비는 일반적으로 설교가이자 사목자여야 하는 사제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일한 사명으로 수렴되는 준비인 것이다. 다만, 그 유일한 사명에 속하는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전문화’ 된 부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뛰어난 설교, 글 쓰는 능력, 출판기술, 보급 기량 등.

출판사도에게 지적 준비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는 지적 66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본성상, 선택상, 신분상 스승이 된다. 뛰어난 스승, 정확하고 폭넓은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스승, 다양한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학식이 넓고 깊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준비한 만큼 결실도 풍부할 것이다. 그러므로 면학기간은 매우 신중한 사안이다. 보통 이상의 지성, 다시 말해 뛰어난 지성, 충분한 시간, 좋은 학교와 좋은 수업 방법, 구체적인 실습, 표본 적용, 공부를 방해하거나 멀리하게 하고 또 적용과 진보를 가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사도직을 착수하기 전에 시련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말씀의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지의 양성

자신의 나쁜 경향과의 투쟁과 덕의 실천을 통한 영적 활동의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 영적 투쟁을 하는 방법을 안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많은 방법 가운데 성 이나시오가 제시한 방법, 다시 말해 집중하여 | 지배적인 욕정과 투쟁할 것을 권한다. 이 투쟁을 연구하고, 모든 특징과 표현을 규정짓고, 모든 영적·윤리적·육체적 힘을 다해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하여 그것을 이기고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하여 이성과 신앙의 지배하에 선의 겸손한 종이 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반 양심성찰과 특별 양심성찰, 예비성찰, 일상성찰, 주간, 월간, 연간 양심성찰을 계속할 것이다.

덕의 실천도 체계적이고 항구하게 점진적으로 훈련한다. 자기 기질에 따라 필요한 덕부터 시작하여 그 덕을 열성적으로 가꾸며, 영혼이 그 덕을 “신속하고, 쉽게 그리고 기꺼이”²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한다.

믿음·희망·사랑인 대신덕과 그에 조화를 이루어 예지·정의·용기·절제인 사추덕에, 끝으로 순명·정결·청빈·겸손 등 윤리덕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완덕의 핵심에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습득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면 사도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상 그에게 필요한 것은
- 68** 모범적인 삶뿐 아니라 겸손과 | 희생정신, 항구함으로 하느님께

2. * “prompte, faciliter et delectabiliter.”

대한 사랑으로 강화된 사회적 덕을 지니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인 삶의 단순한 실천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최고의 단계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완덕의 절정에 이르기를 열망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덕을 쌓기 위한 영적 활동과 사도의 윤리적 양성은 지성의 양성시기 동안 지속되고, 전 생애를 통해 항구하게 계속 되는데, 시간의 흐름이 새로운 활동, 새로운 필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곧 더 큰 덕, 새로운 희생이 요구되겠기 때문이다. 결실은 지성의 양성뿐 아니라 의지의 양성에 비례할 것이다.

마음의 양성

마음의 양성은 하느님과 완전하게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인 작업과 긍정적인 작업에서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낙심, 우울감, 지나친 노력, 이성을 해치는 싸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작업은 부정적인 작업이 전제되며,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진선미, 실제로는 진리의 감미로움과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이다. 둘째, 하느님과 그분의 법을 | 초자연적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셋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강력한 동기로 사랑의 열정을 키우는 것이다.

이 셋째 단계에서 영적 교육에 입문하게 되는데 성사, 준성사, 기도의 실천이 따른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단이 참된 수로가 되게 하고, 이 수로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에서 사도의 마음으로 은총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여 그가 자신 안에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다.”³라는 말씀을 실현하는 삶과 사랑의 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자주 성사에 참여하도록 가르치며, 그중에서도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더 중요성을 두게 한다. 특히 미사에 대한 신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사도는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보속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사 거행에 있어 준성사, 적어도 가장 통상적인 준성사들과 분리시켜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에 관해 천상 스승의 권고에 유념해야 한다. “낙심 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⁴ 마음기도, 소리기도, 삶의 기도는 사도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 하느님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 70** 마음기도를 위해서는 성경, 특히 복음 묵상, 교부들의 저서, 성인들의 생애를 읽고 묵상하라고 권한다.

여기에 적어도 30분간의 매일 묵상과 월피정, 연피정을 결합시킨다. 소리기도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차근차근 지나치지 않게, 짧고 좋은 내용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

그다음 사도는 삶의 기도, 곧 신앙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활동을 봉헌하면서 모든 활동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마음의 양성은 사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더욱 사도적인 영혼이 될수록 항상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회개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필리 1,21: * “Mihi vivere Christus est.”

4. 루카 18,1: * “Oportet semper orare et non deficere.”

성 바오로가 그의 충실한 제자⁵에게 훈계한 것처럼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⁶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⁷ 하신 외딴 곳은 분명 | 설교대와 펜보다 영혼에 더 유익하다. 71

사실 영혼을 더욱 살찌우는 신심, 곧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 보편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대한 신심, 우리가 교회 안에 긴밀하게 결속되기를 비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에 대한 신심, 수호천사, 연옥영혼에 대한 신심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교회 전례력을 통해 제시하는 스승 예수의 생명에 특별히 깊이 참여해야 한다. 사도직은 여기서 열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도직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밖에는 겉모습과 공허만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의 양성과 사도직의 결과가 달려있는 신심 가운데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미사, 영성체, 묵상, 성체방문, 양심성찰이다. 이어지는 여러 장⁸에서, 앞서 언급한 실천사항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해 사도에게 실천적 안내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출판 사도직을 위해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복음의 세 명제인 ‘길 진리 생명’에 기초한 방법을 제시한다.

5. * 티모테오.

6. 1티모 4,16. * “Attende tibi et doctrinae... hoc enim faciens et te ipsum salvum facies et eos, qui te audiunt.”

7. * 마르 6,31 참조. “elige tibi remotum locum.”

제7장 출판사도의 미사성제

미사성제에 경건하게 참례하고 결실을 얻도록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출판사도에게 권고하는 방법은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미사성제는 시작예식부터 예물준비 전까지, 예물준비 이후부터 주님의 기도를 포함한 부분까지, 주님의 기도 이후부터 마침예식까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

시작부터 예물준비 전까지인 첫째 부분은 ‘지식의 주님’인 진리이신 예수께 영광을 드리는 부분이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73 실천이 지성의 행위로 이루어지며, | 드러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수난하고 죽으시기 전에 설교하신 천상 스승을 따라 희생제사를 거행하기 전에 신앙의 진리에 관한 교육을 먼저 행하는 교회의 정신과 일치한다.

예전부터 미사의 이 부분에서, 세례 지원자들과 신자들을 교육했다. 전자에게는 진리를 설명하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 나중에 신앙고백에 이르게 했고, 후자에게는 이미 전수받은 신앙의 신비를 상기시켰다.

이는 항상 계속되어 왔고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사목자들에게

1. * “scientiarum Dominus.”

미사에서 선포하는 독서의 의미, 특히 복음의 의미를 신자들에게 설명해줄 것을 권장했다.

미사 독서 내용은 매일 다르다. 이 독서 내용은 그날 고유 전례의 의미를 반영하는 한편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진리는 입당송과 본기도에서 선포하는데, 믿어야 할 것과 기도를 위한 행동 원칙과 삶의 규범을 알려준다. 이는 서간, 특히 복음서에서 드러나고 발전하며, 다른 부분에서 확증된다. ‘길 | 진리 생명’의 방법으로 미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74 삶의 규범으로 삼기 위해 이러한 진리를 구현하고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천방법: 제단 아래에서 사제가 준비기도를 바치는 동안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그다음 ‘입당송’에서 중요한 가르침의 선포를 들은 후 ‘자비송’과 ‘본기도’에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스며들도록 은총을 청한다. 그런 다음 서간과 복음서를 읽고, 축일이나 그날의 전례에서 빛을 받아 묵상한다. 신앙생활에 붙따르는 복음에 역행하는 온갖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다음 신앙이 굳건해지고 지식과 사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은총을 간구한다.

제시된 진리에 대한 충실 서약이자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모든 진리에 대한 장엄한 신앙고백인 신경을 바치면서 끝맺는다.

둘째 부분

예물준비부터 ‘주님의 기도’를 포함한 둘째 부분은 희생제사의

준비, 거행과 적용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실천의지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지는 계명과 제시된 모범을 실천하기로 공언하기 때문이다.

- 75** 이 부분에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신다. 그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미사를 되풀이하여 봉헌하면서 하느님께 마땅한 흠숭과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덕에 감사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해 훼손된 그분의 정의를 회복하고 마땅히 기뻐함이며, 우리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연옥 영혼을 위해 그분께 탄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비로운 희생으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의 완전한 희생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신 귀감, 곧 성화의 귀감, 거룩함 자체 이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으며, 완전해지고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징이나 기억, 또는 호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현실을 다룬다. 그리스도교 모든 경신례의 중심을 이루는 것, 은총의 유일하고 본질적인 원천이며, 가장 완전한 희생, 곧 인간-하느님이신 분의 업적을 다룬다.

- 미사의 둘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의 길을 한 번 더 **76** 제시하신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나를 희생하러 갈 것이다.”

실천방법: 교회가 의도하는 것처럼 전례행위를 착실히 따르고

묵상하는 것이다.

예물준비에서는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³ 곧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제물봉헌의 준비로서 하느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그러므로 제대 위에 빵과 포도주, 모든 외적 선물, 육신과 영혼, 자신의 능력, 곧 정신, 의지, 마음, 근심, 필요성, 곧 자기 존재와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 “찬미의 제사”,⁴ 감사와 축복의 장엄한 기도인 감사송에서는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하고 천사들과 성인들, 특히 강생하신 말씀과 연대하여 하느님의 존엄하심을 찬미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한다.

축성에서 우리 예물을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성부께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의 희생제물에 포함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 희생에 동참하도록 자신을 바치신다. 성부께 당신 자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찬미의 행위, 감사의 행위, 자신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보상행위를 완수한다. 자신과 세상과 연옥 영혼을 위해 새로운 | 은총과 자비의 청원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부께 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약속하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힘과 능력을 기원한다.

77

2. “Ego vadam immolari pro vobis.” * 요한복음서의 몇 구절을 나타낸다.(8,21-22 참조)

3. * “pro nostra et totius mundi salute.”

4. * “sacrificium laudis”.

셋째 부분

‘주님의 기도’ 이후부터 미사 마침 부분으로, 특히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청하며 인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의 중심에서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당신 성자를 선사하시는 제물인 성체를 영한다. 우리도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⁵

창조주와 피조물이 가장 밀접하게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이 부분이다. 육체적·윤리적 일치, 신비적·실재적 일치, 변형적이고 영원한 본성의 일치다. 신성과 인성의 상호 내재성 덕분에 일치는 성삼위의 신적 세 위격과의 특별한 일치를 이끌어 낸다.

미사의 이 부분은 청원기도와 함께 마음과 정신의 성화를 위한 기도가 특징이다.

78 핵심 행위인 영성체에서는 준비가 앞서고 | 영성체 후에는 감사가 뒤따른다.

준비는 특히 죄를 뉘우치고, 피조물에게서 벗어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일치를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한편 감사는 하느님께 감사를 표하고, 당신 자녀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게 해주기를 그분께 간절히 청하거나 흠숭으로 이루어진다.

실천방법: 영성체와 하느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두 가지 행위로 마칠 필요가 있다.

5. 요한 10,10: * “Ego veni ut vitam habeant et abundantius habeant.”

영성체(성사적 영성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신령성체)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해야 한다. 우리와 결합되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정신, 의지,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열심히 준비하고 가능한 한 마땅한 감사가 따라야 한다.

하느님께 드리는 간구는 사도의 마음,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께 그분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간청하고, 자기 개인의 필요와 사회의 필요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순례하는 교회와 정화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의 기도’에서 천상 스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제8장 영성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체를 통해 당신으로 우리를 변형시키기 위해 우리와 일치하신다. 이러한 초자연적 일치는 육체적인 동시에 윤리적이다. 육체적 일치인 것은 영성체 후에 “예수님과 우리의 일치는 음식과 그것을 소화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와 유사하다. 다만 다른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위의 존재가 하위의 존재를 소화한다.”¹

이러한 육체적 일치에서 가장 내밀한 변화의 모체인 윤리적 결합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cor unum et anima una}²’을 이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 80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분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영성체를 할 때, 사도는 미리 준비하고 이러한 일치를 촉진시키는 감사가 이어지도록 효과를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준비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전에 일치하는 것이요, 감사란 이러한 일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완전한 일치는 정신, 의지, 마음의 일치다.

1. A. Tanqueray, 「수덕신비신학 개론^{Compendio di teologia ascetica e mistica}」 [n.278].

2. *사도 4,32 참조.

지성의 일치

인간 지성은 신앙의 빛으로 조명받아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거룩한 빛으로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지성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원죄 이후,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 없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이 실수에 실수를 거듭했고, 언제나 진리를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논의하며 그리스도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입증한다.

거짓과 속임수투성이인 악령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 81
 션다. 그런 다음 구원의 보관자요 분배자인 교회를 남겨주셨다. 구원을 힘입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받아들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은총과 신앙이 주어진 덕분에 믿음의 특별한 선물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신앙을 고백하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은총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기도, 성사,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은총이다. 우리의 지성을 점차 회복시키는 습관적이고 구체적인 은총은 질병 곧(무반성, 무지, 망각, 완고함, 선입견, 실수, 타락 등)에서 지성을 치유하고 초자연적 차원으로 고양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일치하게 한다.

이러한 혜택은 준비와 감사에서 요청되는 협력이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활동과 일치한다면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실천방법: 준비와 감사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지성과 의지와 마음의 훈련이다. 첫째, 지성의 훈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82** 준비-자신의 생각, 확신, 판단을 |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비교할 것. 지성을 잘못 사용한 것과 신앙의 부족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 천상 스승께 은총을 청하며 개선하고자 하는 원의를 표할 것.
- 감사-진리이신 예수께 대한 깊은 흠숭의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지성을 다해 경의를 표할 것.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고 일치하며 간직하고 고백하는 방법으로 지성을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천상 스승께 기도할 것. 판단, 분별, 조언, 결정, 기억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초자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청할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들의 지성이 하느님을 따르도록 기도할 것.

의지의 일치

인간의 뜻과 하느님 뜻의 일치는 하느님 뜻과 완전히 같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완전함이 있다. 일치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완전함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일치가 더욱 강렬하고 완전할수록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생생할 것이고, 우리의 완전함은 더 높아질 것이다.

-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뜻은 계명, 교회의 규범과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계명과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 83** 뜻은 | 이론상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은 구체적이고 살아있으며 생기를 준다. 실상 그분은 거룩함 자체이시고 성부의 살아 있는 뜻이다. 거룩함 자체이신 것은 그분이

계명과 복음적 권고를 사셨고, 모든 덕 중 가장 높은 완덕에 이르셨기 때문이다. 뜻이란 그분의 귀감이 우리에게는 법이고, 그분의 말씀은 초자연적 권고와 규정과 함께 계명을 설명했고 적용했으며,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귀감에 일치하면서 그분 안에서 성부의 뜻에 일치하면 우리는 완덕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탱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윤리적 힘과 초자연적 생명력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의 뜻을 따르기가 수월하다. 그분과 함께 완덕의 길을 빠르게 걷고, 지금의 이 행보가 험난할 때 그분이 지탱이 되어 주시고 데려가 주신다.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성체야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탁월한 기도인데, 그것은 은총을 주시는 분 자신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성사이기 때문이다. 영성체를 통해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는 좋은 올리브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 된다.

영성체로써 우리 의지는 치료되고 고양되며 강화된다. “인간 구원의 창시자”³는 의지를 | 무기력, 불안정, 태만, 완고함, 나쁜 습관이라는 병에서 치유하신다. 하느님 은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지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키신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⁴

실천 방법: 준비-자신의 뜻과 원의를 예수님의 것과 비교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성찰을 하고, 영적 활동의 요점에 대

3. * “salutis humance Sator.” : 1티모 4,10; 참조: 요한 4,42.

4. 요한 15,5: * “qui manet in me et ego in eo, multum fructum affert.”

한 결심을 세우고, 통회의 기도로 마친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당함에 대한 성찰에서 우리나라는 진정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천상 스승께 영적 활동을 위한 은총을 청한다.

감사-거룩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낮추어 온전히 내어 드리는 고요한 흠숭의 기도를 드린다. 하느님 뜻에 따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의무를 완수하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길이신 예수께 탄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⁵ 하며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

85 마음의 일치

우리 마음과 하느님 마음과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적 생명을 느끼고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일치는 성령의 선물을 능동적으로 취함으로써, 물질적 영적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선과 영적 결실들에서 우리나라는 믿음 희망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신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 커뮤니케이션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것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은 세례성사에서 시작하여 은총 상태로 유지되며, 성사들, 그중에서도 으뜸인 성체성사으로써 성장하고 완전해진다. 사실 영성체로써 우리는 예수님으로 양육되는데 그

5. * “fiat voluntas tua sicut in caelo et in terra.” 참조: 마태 6,9; 루카 11,2.

것은 그분과 한마음이 되도록 그분의 거룩한 성심이 우리 마음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예수 성심은 우리 마음의 질병 곧 (무관심, 불신, 나쁜 경향, 불건전한 욕망, 경박한 감정, 인간적 열망...)을 치유해 주실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당신 성심과 일치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숭고하게 드높여짐을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다.

실천 방법: 준비-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기 마음의 느낌을 | 비교한다.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오로지 본 86
성적이고 감각적인 애정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그분께 열렬하고 관대하게, 열정적으로 하느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린다. 천상 스승께 그와 같은 은총을 청하며 생명을 마시고 예수님 모시기를 청한다! 그런 다음 자신 앞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해야 하므로 오직 그분만이 사시고 일하시도록 내어맡기며, 나는 그분 안에 숨고, 그분 안에 은둔하여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감사-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깊이 하느님을 공경한다.

천상 손님과 나누는 달콤한 대화에 마음을 활짝 열어 신적 생명으로 고취되기를 청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투쟁하는 교회와 정화하는 교회, 온 세상을 위해 특별한 은총을 청한다.

6. 갈라 2,20: * “Vivo autem,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

제9장 묵상

묵상은 삶의 규칙처럼 하느님의 뜻과 사말에 대한 기억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으며, 그분의 모범에 따라 성인들이 실천한, 하느님께 영혼을 들어높이고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는 활동보다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묵상에 할애된 시간은 열성적인 활동을 축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도는 묵상으로 양육된 내적 삶으로 아주 풍요로워지고 활성화된다.

다양한 묵상 방법

성인들은 각자 연구와 기도와 개인 체험의 결실이라는 고유한 88 입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기법으로 늘 다양한 묵상 방법을 추구했다.

최상의 방법은 카시아노와 성 요한 클리마코 그리고 중요한 영성 저술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들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예를 들면 성 이냐시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오라토 리오회 수사들과 성 술피스의 방법이 그것이다.

성인들과 영성 대가들이 제안한 모든 방법에는 묵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가 있다. 그것은 준비, 본 묵상, 결론이다.

‘준비’에는 세 단계, 곧 먼 준비와 가까운 준비와 직접적인 준비

가 있다.

먼 준비는 묵상으로 자기의 삶에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다.

지성의 준비는 교의적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진리에서 윤리적·수덕적·신비적 원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의지의 준비는 하느님의 법과 자기 신분의 의무를 실천하려는 성향을 띤다. 마음의 준비는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과 기도하려는 인간의 성향으로 이루어진다.

가까운 준비는 준비기도를 포함하는데, | 곧 전날 저녁에 묵상 89 주제에 관한 구절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기억할 것과 지성, 의지,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직접적인 준비는 묵상을 시작하는 기도를 포함한다. 곧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자신의 비천함과 무능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한다.

묵상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묵상에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하느님께 드려야 마땅한 종교적 의무를 다함, 묵상의 주제에 관한 숙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점을 향상시켜야 할지 알기 위해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그날을 위한 실천적 결심과 필요한 은총을 간청하는 기도다.

‘결론’은 묵상의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자신이 행한 방법과 영적 꽃다발의 선택에 대한 짧은 성찰이다.

90 출판사도의 묵상 방법

사도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묵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치¹를 향한 묵상인데, 이 일치로써 인간은 사랑으로 하느님과 밀접하게 결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께 달린 것이다. 그것은 정화와 조명의 묵상에서 나온 결실이기 때문에 많은 방법 중 하나를 따를 것이다. 일치의 묵상에 은총의 영역이 많다면 다른 두 묵상에는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이 묵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좋은 방법이라면 구별하지 말고 따를 것이다. 그러나 선호해야 하는 방법은 ‘길 진리 생명’의 방법이라야 한다.

이 방법도 다른 방법처럼 준비와 묵상과 결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 ‘준비’는 신앙, 윤리, 경신례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 종교에 관한 공부다. 가까운 준비는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저녁과 아침에 묵상주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준비는 시작 전 준비와 기도, 곧 묵상할 진리를 상기하고, 상상을 통해 장소를

91 구성하고 성과를 | 이끌어 낼 일반 결심, 주제에 부합하는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준비기도를 포함한다.

주제에 적합한 복음의 일화를 생각한다면 준비기도는 성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묵상할 영혼의 귀감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소개하는 부분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영혼의) 성문(城門)을

1. 일반적으로 묵상을 영성생활의 세 단계에 사용되는 같은 이름을 붙여서 정화, 조명, 일치로 구별한다.

두드리시는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의 모든 말씀을 보석처럼 여기며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어지심에 주의를 기울이는 신실한 여인을 닮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과 단둘이 머물러 그분과 친근하게 이야기 하고,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시도록 그분께 지성, 마음, 의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묵상 내내 그분과 달콤한 대화를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성모님의 삶과 성인들의 삶의 표양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죽음의 침상, 묘지 입구, 지옥 언저리 등과 같은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 처한 존재로 상상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묵상은 진리 길 생명 또는 길 진리 생명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에 처음 두 부분은 각각 셋째 부분이 차지하는 시간의 반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 셋째 부분을 12분 지속한다면, 92 첫째와 둘째 부분은 각각 6분간 지속할 것이다.)

첫째 부분: ‘진리’-이 부분에서는 지성의 훈련이 지배적이다. 묵상할 구절을 읽은 다음, 읽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지성에 각인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부분: ‘길’-의지의 훈련이다.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묵상한 진리에 관한 천상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생생함과 아주 특별한 속고다.

그다음, 예수님의 모범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고, 이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약속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하고 진지한 양심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성찰은 그날을 위해 결심한 셋째 부분으로 끝난다. 실천적이고

개인적인 결심은 최근의 영신수련이나 최근의 율피정과 관련해서 정한다. 곧 특별성찰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한다.

셋째 부분: ‘생명’- 이 부분이 가장 길다. 영혼은 하느님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열정이 넘치는 사랑스런 대화를 한다. 묵상한 바를 깊이 수 있는 빛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결심한

93 바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힘과 필요한 초자연적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이 기도는 영혼의 특별한 성향에 부합하는 매우 자유로운 기도일 것이다. 무미건조하거나 분심으로 마음이 산란할 경우에는 통상 기도문, 묵주기도의 신비 몇 단, 복되신 동정 마리아 호칭기도, ‘미세레레(Miserere)’(역주: 시편 51편) 등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²

묵상의 주요한 세 부분에 이어 ‘결론’이 따르는데, 앞서 행한 묵상에 대한 짧은 성찰이다. 성찰에는 묵상하는 동안 저지른 게으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받은 은총과 좋은 영감에 대해 감사하며, 정오의 특별성찰 중에 그리고 성체방문 때의 성찰 중에, 하루 동안 기억해야 할 영적 생각이나 작은 꽃다발을 모으는 것 세 가지가 따른다.

2.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곧 복음의 표현인 ‘길 진리 생명’에 따라 ‘길’을 ‘진리’ 앞에 두면, 먼저 묵상을 위해 제안한 진리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모범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범은 우리의 역량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우리 앞에 놓여진다.

이러한 첫 훈련(이른바 길)에 둘째(진리)가 뒤따르는데, 특정한 원인에 대한 결과(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의 적절할 상관성에 관한 성찰과 검토다.

셋째 훈련(생명)에서는 내적 동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숙고하고 따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자기 것이 되게 한다. 그러한 확신은 현실로 변화되는데, 개별 행위, 곧 결심의 실천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10장 성체방문

사도에게 성체방문은 제자 또는 사도가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과 대화를 나누러 가는 알현 또는 배움터와 같다. 이러한 실천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출판사도를 위해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것은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성체방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동일하게 시간을 배정한다.

첫째 부분

온 지성을 기울여 행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훈련으로서,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상의 진리요, 95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깊이 생각하고 영광을 드림.
2. 지적·영적·사목적 양성에서 얻은 자연적·초자연적 인식
모두를 하느님께 대한 봉사로 집약시키고 명료하게 하며 통합함.
3. 모든 사람이 복음말씀에 따라 진리의 빛에 도달하도록 간
청함.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
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¹

1. 요한 17,3: * “Hæc est autem vita æterna: ut cognoscant te, solum Deum verum, et quem misisti Jesum Christum.”

첫째 부분에서 지성은 그릇됨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신적 진리를 심화한다.

실천 방법: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해야 하는데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한다.

나) 하루 동안 또는 한 주 동안 얻은 인식을 머릿속에 요약하거나 성경의 몇 구절이나 신학 서적의 일정 부분을 읽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믿음의 행위를 실천한다.

다) 자신과 영혼들을 위해 ‘지성의 빛, 충만한 사랑’의 자연적
96 초자연적 선물을 하느님께 청한다. 그리고 특히 | 신앙(의화의 시작), 학문, 지혜, 지성의 선물, 자기 직분과 신분에 대한 인식, 하느님과 영혼들에 대한 인식, 지복직관을 위해 지성을 준비하는 은총을 청한다.

이러한 청원은 개인기도, 화살기도 또는 신경, 신덕송, 영광의 신비(묵주기도), 다양한 시편기도, ‘오소서 성령이여Veni Creator Spiritus’ 등의 기도로 바칠 수 있다.

둘째 부분

온 의지를 기울여 행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훈련으로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상의 선이요 선 자체이신 하느님을 깊이 생각하고 흠송한다.
2.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도달하기 위해 진지한 숙고와 섬세하게 양심성찰을 한다.

가) 계명, 복음적 권고, 신분에 따르는 의무를 자유롭게 수락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를 봉헌한다.

나) 우리가 당신을 따르면서 성부께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삶으로 그분을 이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한 모범을 배우기로 다짐한다. 97

3. 성부를 늘 기쁘게 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께 우리 의지와 모든 행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더 참되고, 더 뛰어나고, 더 심오한 모든 덕의 총체적 완성자이신 분의 귀감을 따라 참된 인간, 그리스도인, 사도가 될 것을 지향한다.

실천 방법: 가) 천상 스승의 생애에 관한 몇 구절을 관상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성찰과 결심과 기도를 드린다. 이러한 모든 훈련은 자신의 변화와 향상이 따라야 하며, 특별성찰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내에 관한 영적 활동에 집중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구유를 관상하고, 그다음에 겿세마니와 골고타의 길을 관상한다. 그리고 특별한 장면으로 내려와, 자신의 인내를 고통의 인간이신 분의 인내와 비교하며 용서를 청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청한다.

다음과 같은 기도 중 하나로 끝마칠 수 있다. ‘미세레레’, ‘깊은 구렁 속에서(시편 130편)’, 통회의 기도, 고통의 신비(묵주기도).

98 셋째 부분

온 마음과 영혼을 다기울여 행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훈련으로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이요 생명의 본질이신 하느님을 관상하고 흠송한다.

2. 하느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생명을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오셨음을 인식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²

3. 머리와 지체가 한몸을 이루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분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한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초자연적 생명을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신다는 것을 숙고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³

4. 이 생명의 선물, 성장, 열매와 자기 영혼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간구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룩한 삶을 생각하는 사도직의 과제이기 때문에 사도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지향하기에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청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⁴ “이제는 내가

2. 요한 1,4: * “in ipso vita erat, et vita erat lux hominum.”

3. 요한 15,5: * “Ego sum vitis, vos palmites: qui manet in me et ego in eo, hic fert fructum multum: quia sine me nihil potestis facere.”

4. 2코린 5,14: * “Caritas enim Christi urget nos.”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⁵라고 하는 이 삶은 완전한 | 삶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성체성사의 희생, 인간 마음의 진지한 협력으로 마리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 낡은 인간으로 살지 않고 강생하신 ‘하느님에게서 난’⁶ 새 인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은총, 이 내적 생명이요 초자연적 생명, 인간의 생명은 사도를 위한 이중의 영광, 곧 천국을 위한 보상과 영원한 영광일 것이다.

실천 방법: 가) 셋째 부분의 목적을 구성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성찰한다.

나) 천상 스승과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느님의 관심사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의 관심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다.

다) 특히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 대신덕과 같은 특별한 은총과 사추덕인 예지, 정의, 용기, 절제와 성령의 칠은인 지혜(슬기), 통달(깨달음), 의견(일깨움), 용기(굳셈), 지식(앎), 공경(받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두려워함) 그리고 복음의 여덟 가지 참행복과 성령의 열두 가지 열매, 위험을 피하고 기도로써 영적 삶의 세 가지 적인 세상, 육신, 악마에게서 항상 지켜줄 수 있는 은총과 | 그밖에도 완덕을 향한 성소, 사도직을 위한 열정 등을 간청한다. 100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기도는 애덕송, 참행복 선언, 셋째 부분으로서의 묵주기도 중 기쁨의 신비 등이다.

5. 갈라 2,20: * “Vivo autem,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

6. * “ex Deo factus est”, 요한 1,13 참조.

제11장 양심성찰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친밀하고도 사랑 가득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앎, 곧 일치의 두 요소인 하느님과 영혼이 필요하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을 찬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 그분의 존재, 본성, 속성, 활동, 특히 인간과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밀접한 삶을 포함한다.

철학과 신학에 대한 연구, 묵상과 기도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봄으로써 하느님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은 **102** 자기 영혼 안에서 보게 되는 모든 것 | 곧 재능과 결점, 자연적 초자연적 은혜, 자신의 경향과 싫어함, 자기 삶의 내밀한 역사, 자신의 잘못, 노력, 진보를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비관주의에 빠지는 일 없이 공정한 태도와 신앙으로 비추임 받은 올바른 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출판사도가 자신과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느님에 대한 탐구와 자신에 대한 탐구에 정진해야 한다. 곧 보이지 않는 자신의 작은 세계를 성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고,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성찰은 삶을 개혁하는 실천적 앎이기에 무엇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무엇이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 전자를 따르고 후자를 버리기 위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길 진리 생명’의 방법에 따라

매일의 양심성찰, 일반성찰과 특별성찰을 통해 할 것이다.

일반성찰

선량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알고 결점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성찰을 해야 한다. | 하루의 모든 생각, 행동, 감정을 살피며 **103** 특히 다음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둘 것이다.

1. 한 분이시고 삼위이시며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을 흠송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모든 은혜에 대해 그분께 ‘감사한다’. 이 첫째 사항에는 삼중의 목적이 있다. 하느님께 드려야 할 신앙행위와 은혜를 저버린 자기 잘못을 딛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영혼의 회개를 준비한다.

2. 자신의 죄를 알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는 ‘은총을 청한다’. 이러한 청원은 특별히 성령께 지식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는 것인데, 이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잘 알도록 영혼을 도와주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이다.

3. 아침 첫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날 시간을 잘 보냈는지 또는 배정한 시간과 순서에 따라 행동했는지 잘 생각하며 자문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가) 순서를 따르되 생각, 행동, 감정 그리고 다음 사항들까지 고려한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신앙, 교회에 대한 순종과 충실, 자신의 직무와 책임에 따르는 사도직을 통한 사목적 열의, 나쁘고 세속적인 출판물에

1. 성 이냐시오가 복음의 세 명제의 특별한 조명 아래에서 보았고, 논리적 순서와 진보적 순서에 따라 구분한 방법이다.

104 대한 사람들과 자신의 처신, | 시간 특히 내적 삶을 위한 시간 투자.
 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먼 동기와 가까운 동기와 그
 결과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검토하면서 내적 외적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특성을 부각시킨다. 다)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와 비교한다. 그러면 자신과 신적 모델 사이에서 느끼는 대립
 및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고, 한편
 그분을 더욱 가까이에서 따르고자 하는 원의가 촉진될 것이다.

4. ‘영적 고해’, 곧 겸손과 신뢰로 예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 승리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이 넷째 사항은
 양심성찰의 핵심 요소인 뉘우침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다.

5. 확실한 ‘결심’과 자신을 교정하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표명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한다. 결심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겸손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명확하고 특별해야 하고, 생각과 행
 위, 감정을 포함해야 한다. 결심을 실천할 은총을 간청하기 위해
 권고할 만한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기도’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효력 있는 기도
 로서, 우리의 용서와 도움의 청원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105 특별성찰

(특별성찰은) 명백히 드러난 한 부분에 대해 자기 자신을 극복할
 목적으로 시작하는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결점을
 고치거나 덕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과 실천양식에 관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주제 선정: 일반지침에서는 지배적인 결점인 (칠죄종 중 하나 또는 두드러진 결점 중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점을 차츰 반대되는 덕으로 바꾸도록 한다.

작업을 통해 더 완전하고, 더 쉽고 확실하게 진보하기 위해서는 기본 능력, 곧 지성, 의지, 감정 등 모든 능력을 기울이는 실천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 대한 애덕을 특별성찰로 정했다면, 그 계획은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지성의 훈련: 하느님께 대한 애덕의 기초인 원칙들을 굳게 믿는다. 곧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요 통치자요 목적이시다. 피조물의 최고선이요, 선 자체이신 그분은 소유한 모든 선을 커뮤니케이션하셨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의 사랑을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2. 의지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 뜻에 계속 기쁘게 일치하도록 결심한다. 하느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은 계명, 교회의 규정, 복음적 권고, 은총의 감화 그리고 수도자들에게는 회헌과 회칙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어지신 뜻에 일치한다는 것은 더 큰 선을 위해 그리고 주로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하느님이 원하시거나 허락하신 모든 섭리에 순종함을 의미한다. 106

3. 마음의 훈련: 다음에 나열하는 수단을 통해 하느님과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일치를 이루도록 결심한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 오로지 그리고 늘 하느님의 선만을 생각하고 바라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느님께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자기 자신과 본성적인 모든 감정에서 이탈하여 자기 자신 안에 작은 방을 만든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그분께 말씀드리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포옹을 기다린다.

실천 방법: 특별성찰은 세 번, 곧 아침에, 성체방문 중에, 저녁에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른바 ‘예비성찰’을 하는데, 네 가지 본질적인 행위를 내포한다. 오전에 투쟁할 주제를 분명하게 정하고, **107** 기회를 | 예상하며 기회가 올 때마다 승리하도록 결심하고, 하느님의 빛과 힘을 기원한다. 이것은 짧게 2-3분이면 충분하다.

성체방문 중에는 말 그대로의 특별성찰을 하는데, 20분 정도 할애한다. 일반성찰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요점, 곧 감사, 자기 잘못을 알고 미워하기 위한 기도, 부족한 점에 대한 검토와 진보에 대한 확인, 뉘우침, 결심이다. 두 가지 ‘준비기도’가 앞서고 ‘마침기도’가 따른다.

준비기도는 정신집중에 탄력을 제공하고 진정한 성찰을 하게 한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훈련과 하나의 시작기도가 포함된다.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훈련은 하느님의 눈길 아래서 겸손과 찰찔함이라는 생생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시작기도’는 성찰을 잘 하도록 짧막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이는 열렬한 기도라야 한다.

감사: 마지막 성찰 이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 특별하고 상세하게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에게 베푸신 선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108 기도: 특별성찰의 주제에 대해 모든 | 주의를 집중하고, 얼마 나

자주 잘못했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고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한다.

성찰: 잘못을 살피고, 그 횡수를 표시하며, 지난 번 성찰과 비교해 본다. 잘못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점을 고치고 나아지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점에 관해 정확한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위에서 설명한 성찰 내용에 관한 분명하고도 특별한 질문을 나열한 구체적인 질문지 사용을 권할 만하다.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같은 순서에 따라, 시간마다 또는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고, 지나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피하면서 분명하고 정확한 결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적당한 수첩에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비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더 쉽게 기억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오의 성찰 결산은 저녁의 성찰결산과 비교하고, 하루의 성찰결산은 다른 날과 비교해야 한다. 주간결산, 월간결산과 연간결산을 비교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교는 열성을 촉진하고, 그런 결산 작업은 싸움에 항구하도록 지탱이 되어주며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눕우침: 고해성사 때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 자신의 잘못을 109 미워하고 깊이 뉘우친다. 통회의 기도, 참회의 시편을 바치거나 십자가의 길 몇 처를 묵상함으로써 끝마친다.

결심: 속죄하고 정개(定改)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죄의 근원인 쾌락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보속 행위로써 속죄한다.

기회를 예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면서, 투쟁할 주제를 명확히 하면서 정개해야 한다.

자신의 선의와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많은 은총을 앗아가고 다시 경솔과 추락으로 내몰 수 있는 오만을 재빨리 제거하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을 의식하도록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하느님의 전능과 끝없는 선에 신뢰하며 의지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는 마침기도로 끝맺는다. 자기 죄를 한번 흘끗 바라보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는 [더욱] 겸손하고 주의 깊어야 한다.

110 성 이냐시오가 제시한 방법 외에 | ‘길 진리 생명’의 방법에 더욱 상응하는 방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신덕송과 준비기도를 바친 다음

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은총과 자신의 결점과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은총을 청한다. ‘진리’ 부분(5분)이다.

나) 잘못을 살피고 뉘우치며 결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성찰을 한다. ‘길’ 부분(10분)이다.

다) 풍부한 기도. ‘생명’ 부분(4분)이다. ‘주님의 기도’와 ‘하루를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²라는 기도(1분)로 마친다.

2.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신덕송과 준비기도(1분)를 바친 다음

가)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자신을 알고 고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지은 죄, 자신의 결점을 살피고 이를 겸손하게 인정한다. ‘진리’ 부분(7분)이다.

2.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어머니 마리아님, 제 머리 위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시어 제 지성과 마음과 오관을 지키시고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성화시키시어 나의 하느님이며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당신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게 하소서. 예수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 뉘우침과 결심의 기도. ‘길’ 부분(8분)이다. **111**
 다) 풍부한 기도. ‘생명’ 부분(4분)이다.
 ‘주님의 기도’와 ‘하루를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라는 기도를 바친다(1분).

3.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신덕송과 준비기도를 바친 다음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자신을 알고 회개하며, 결심할 은총을 청한다(4분).

성찰에 전념한다.

가) 잘못을 살핀다(8분).

나) 뉘우침과 결심(8분).

다) 기도(4분).

‘주님의 기도’와 ‘하루를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라는 기도를 바친다(1분).

오전에, 성체방문(가능한 한 정오쯤) 때, 저녁에 다시 특별성찰을 한다.

여기서는 성찰 자체가 아니라 일반성찰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그러나 성체방문 때 한 특별성찰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특별성찰을 위해 하루 세 번뿐 아니라 다른 시간이 있으니, 예를 들면 정오, | ‘성모송’이 울려퍼지는 시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112**
 일을 바꿀 때... 자기 영혼을 늘 살펴보도록 도와주고 참되게 영적 진보를 보장해 주는 신속한 성찰에 대해 언급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

113 제12장 사도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

출판사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특별한 모습은 분명 ‘역사의 여왕’이다. 다시 말해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한 처음부터 창조를 주재하셨고, 그 발전을 통해 주재하시며, 그 종말에 주재하실 것이다.

창조를 주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의 최종 원인이요, 본인이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왕권을 공유하신다. 목적인目的因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14 어머니이시기 때문이요 | 그분과 더불어 우리 구원의 원인이시며 은총의 모든 질서의 원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질서(창조)는 은총의 질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창조에 참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모님은 당신의 육체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목적인目的因으로서 하느님의 생각 안에 먼저 존재하셨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당신의 모든 활동의 시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에서부터 ab aeterno’ 존재하도록 예정하셨으며, 하늘과 땅,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에 앞서 마리아를 바라보셨다. 하느님은 당신 친아드님의 어머니요 소유자이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마리아는 창조된 모든 것의 여왕이시다.

이 때문에 교회, 교부들, 학자들은 성경말씀에서 표현한 강생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 내용을 동정녀께도 적용한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¹¹⁵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형상인 形相 또는 더 잘 표현하면 창조의 본보기, 곧 창조의 이상, 창조의 모델이시다. 사실 은총의 질서 안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느님이 모양을 만드시고 자연 질서에 따라 배치하신 모델이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강생하기 위해 창조된 영혼과 육신을 지니시면서도, 신적 위격을 통해 하나의 창조물이 되지 않고, 성삼위의 제2위격으로 남아 계시니,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느님’, 유일한 신 하느님, 세상의 창조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닮은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의 창조주시다. 우리 주님은 이 완전한 모델에 영원에서

1. 잠언 8,22-30.

부터 당신 정신이 머물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기쁨을 성 마리아 안에 두시고,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의 모든 창조에 형태를 주셨다.

- “마리아는 창조, 천사들, 사람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 안에 유포된 모든 은총의 전형이시고, 이미지, 샘, 수로시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당신의 사랑스런 영혼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신 마리아의 영혼은 | 전형이시고 모든 영, 특히 우리 영혼의 가장 완전한 귀감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육신은 모든 물질세계의 전형이듯이 우리 육신의 전형입니다.”²라고 몬시뇰 드 세귀르De Ségur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성부의 따님, 성자의 어머니, 성령의 신부로 선택되었고, 하느님이 당신의 완전함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피조물의 모든 자질과 다른 최상의 자질까지도 갖추어 계신다.

창조의 발전을 주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계획의 발전과 실행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하느님이 예정하신 대로 참 여왕으로 드러나신다. 구약성경에서는 표상과 예언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러하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강생의 신비를 통해 그분은 중심이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지상의 중개자medium terra’이다. 하느님은 ‘모든 세기의 작품’처럼 모든 것을 마리아와 연관지으시면서 그분에 대해 예언하시고 수많은 상징으로 묘사

2. Mons, De Ségur, 「교부들의 주석 안에서 본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La Ss. Vergine nei commenti dei Santi Padri*」.

하신다.

곧 첫 인간의 창조, | 지상 낙원, 홍수 때의 방주, 노아의 무지개, 117
세 분의 위대한 성조, 모세, 광야의 구름 기둥, 성막과 계약 궤,
만나의 황금 향아리, 아론의 지팡이, 성지, 예루살렘과 성전, 엘
리아의 구름, 유딧, 에스테르, 모세의 예언, 이사야, 예레미야, 다
니엘, 다윗, 많은 예언적 인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더욱더
상세하게 동정 마리아의 덕성, 직무,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뿐인가, 비록 변질되긴 했지만 고대 여러 거짓
종교들에서 마리아의 신비를 볼 수 있다.

마침내 시간이 차차 [마리아는] 새 계약의 여명, 당신의 원죄 없
는 잉태의 광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오시자 마리아는 그분을 맞아들이시어
그분을 지지하며 그분을 곁에서 도우신다. 그분과 함께 마리아는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마리아는 여왕이시다. “왕비는 당신 오른쪽에서 있습니다.”³

그리고 놀라운 신비가 계속 일어난다. 탄생 예고에서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강생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한 천사를 보내신
다. 마리아의 ‘예fiat’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오시고, 당신의
동정이신 태내의 감실을 제공하신 다음, 세상 곧(| 요셉, 목자들, 118
동방 박사들, 이집트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치신다. 30년 동안 그분을 가르치고, 공생활
초기에 첫 기적을 이루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갈바리아에서 사람
들을 위해 그분을 성부께 제물로 바치신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시어 찬미드리며, 승천을 통해 성부께

3. 시편 44,10: “Adstitit Regina a dextris tuis.”

다시 돌려 드리신다. 항상 당신의 하느님이요 아드님이신 왕을 지지하고 동반하시는 어머니요 여왕이시다.

승천 후에 마리아는 인간의 성화를 위해 구원 업적을 완성하고 적용하고자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협력하신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순절 때 교회의 어머니, 사도의 모후가 되시어, 모든 세기에 걸쳐 모든 사람의 어머니, 여왕, 스승이시다. 하늘과 땅의 여왕, 모든 은총의 분배자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께 기도한다: “여왕이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아베, 하늘의 여왕, 아베, 천사의 모후...”;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피조물의 완성을 주재하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하느님 창조활동의 완성 안에서도 여왕이시다.

- 119** 사실 성모 승천으로써 여왕이 되셨다. | 그분은 육신도 함께 승천하셨고, 구품 천사들이 칭송했으며, 새로운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인데, 하느님은 그분을 지식과 덕과 은총으로 풍요롭게 하시어 피조물이 그분께 지성, 의지,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태양의 빛을 받아 지상을 비추는 달처럼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지성을 지배하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전능한 힘이 주는 의지를 지배하신다.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이끄시고 빛으시며 풍요롭게 하시면서 마음을 지배하신다. “동정녀 당신은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분께 추천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십니다.”⁴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마리아는 성자 다음으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녀의 옥좌 위에는 오직 하느님의 옥좌가 있을 뿐이다. 하느님은 그분을 통해 충실한 모든 피조물에게 비전, 기쁨 그리고 충만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⁴라고 복음사가 요한은 묵시록에서 말한다. 달은 모든 피조물의 표징, 별은 사도들의 표징, 태양을 옷 입은 모습은 내적으로 은총을 입은 표징이며, 이 모든 것은 마리아의 영원한 존엄성을 상징한다.

지극히 거룩한 역사의 여왕이신 | 마리아에 대한 심오하고도 **120**
 완전한 연구는 은총의 분배자시고 우리 삶의 모범에 이차적 원인인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연구일 뿐 아니라 사도의 마음속에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 스승, 여왕에 대한 자녀의 신심을 심어줄 것이다. 신심은 참된 봉헌, 곧 그분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선물로 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가장 깊은 존경으로써 지성을, 절대적인 신뢰로써 의지를, 가장 자녀다운 사랑으로써 마음을, 그분의 덕 가운데 모방 가능한 덕을 가장 완벽하게 닮음으로써 존재 전체를 그분께 드릴 것이다. 한마디로 천상 스승과 그분의 성인들이 마리아의 자녀들이었던 것처럼 사도는 그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⁶

4. “Quod Deus imperio, tu prece, Virgo, potes.”

5. 묵시 12,1.

6. ‘교회학자들’은 그분께 배웠고(성 안셀모, 성 토마스를 기억하라), ‘성인들’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이 행했으며(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알폰소를 기억하라), ‘저술가들’은 그분께 자신의 펜을 봉헌했다(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성 베르나르도를 기억하라).

제13장 사도의 특징

출판사도는 ‘성경에 대한 공경의 예禮’라는 고유한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는 교회의 가르침, 성경, 성전 그리고 동기ragione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가톨릭교회의 성경에 대한 예에 관한 근본 개념을 빛과 안내처럼 제시하며 실천적 규정이 따른다.

성경에 대한 공경¹

성상에 대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 나름대로 공경의 예를 갖추어야
122 한다. 이는 | 교회의 가르침, 성경, 성전, 그리고 그 동기ragione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교회의 가르침: 제2차 니케아공의회(787년 10월 13일, 7차 회기)는 교령을 선포했다. “온갖 확신과 주의를 기울여 정의하는 바이다. 소중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와 대등하게 초상화로 그렸거나 모자이크 또는 다른 재질로 된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구세주, 하느님의 어머니, 천사, 모든 성인의) 성상은 교회, 제의, 집, 길, 벽에 그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성상을 자주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 정신과 마음은 더 열심해지고, 표현된 주체를 향해 고양된다.”

1.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서라는 ‘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대의 깊은 신심과 관습에 따라 이러한 십자가와 복음서, 다른 거룩한 대상에게 하듯이 성상에 입맞춤, 인사, 분향, 촛불봉헌, 무릎 꿇음, 엎디어 절함으로써 공경을 표한다. 그러나 이는 신앙에 따라 하느님께만 드리는 절대적 흠숭과는 다른 것이다.”²

그리고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는 교회법 3장에서 “모든 이의 해방자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상은 ‘거룩한 복음서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존경해야 한다.’고 반포하는 바이다. 복음서 안에 내포된 말씀을 통해 | 모두가 구원
123
에 이르듯이 채색된 성상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무지한 사람 모두가 거기서 분명히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글자의 배열을 통해 표현하고 가르치는 진리 자체는 색채의 배열에 의해서도 설명하고 마음에 새겨진다.”

“동기의 유사성과 오래된 전통을 고려할 때, 으뜸가는 대상을 경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거룩한 책인 복음서와 십자가에 하듯이 성상도 존경하고 또 경배해야’ 마땅하다.”³

성경: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율법판을 계약 궤 안에 넣어 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만나도 있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그 뒤에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판들을 넣었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그 안에 있다.”⁴

2. Denzinger 302.

3. Denzinger 337.

4. 신명 10,5.

율법서는 모세가 사제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드러나듯이 지성 소 안에 있는 계약 궤 옆에 있었다. “이 율법서를 가져다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 궤 곁에 두어라. 거기에서 이 책이 너희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라.”⁵

124 성경 인용에서처럼 하느님은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곧 성체성사의 표상인 만나와 진리와 같이신 그리스도, 곧 복음서의 기초요 표상인 성경에 속하는 십계명 석판과 율법서에 대한 존경과 예를 하나로 일치시키셨다.

하느님이 그와 같은 표상들을 규정하셨다면 실제로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과 비슷한 공경을 예로 드리되 상대적이어야 한다.

성전聖傳: 위에서 인용한 공의회, 곧 제2차 니케아공의회와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 법규 중 하나는 선조들의 전통을,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암시한다. 게다가 그 가운데 복음서에 대한 공경의 예는 이미 존재하던 명백한 표징인 구세주의 성상에 대한 공경의 예를 굳히기 위한 동기에서 취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는 공의회 법규 1장에서 포치오Fozio를 거슬러 기술하고 있다. “한결같고 고귀한 하느님 정의正義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며 타오르는 등불과도 같은 교부들의 말씀과 정의定義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복음서에 대한 공경의 예를 표명하려면 교부

5. 신명 31,26.

들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자취를 따라 걸어야 한다.

현행 전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공경의 예를 표한다.

125

가) 성무일도서의 대부분과 미사의 많은 부분이 성경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미사의 중요한 부분도 성경구절로 구성되어 있다.

나) 복음서에 입맞춤으로써.

다) 장엄미사에서 부제가 복음을 노래로 선포하기 전에 촛불을 밝히고 분향함으로써.

동기^{ragione}: 동기 또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탁월함에 걸맞는 공경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는 구세주의 성상에 대한 공경의 예禮 규정에는 성전聖傳 외에 십자가, 거룩한 복음서와 구세주의 성상에 공경을 표하는 동기가 유사하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 복음서와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한 공적 예는 거룩한 것으로 기릴 만하다.

그리고 구세주 성상에 공적 예를 표하는 것과 같은 동기로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에 공적 예를 표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공경의 실천

126

성경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처럼 인간 존재의 본성과 사회적 존재의 본성에 따라 완전해야 한다. 내적 예는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사적인 예가 필요에 따라서는 공적인 것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적 예의 실천은 외적 예에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

하며, 외적 예는 내적 예를 더 강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공적 예는 사적 예를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한다.

실제로 참으로 가톨릭적(보편적)이고 단순하며 강한 신앙행위로 이루어지는 ‘지성의 순종’⁶이다.

다시 말해 ‘가톨릭 신앙’은 천상 스승의 정신에 따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이 반드시 교회를 비추신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회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신앙교육을 충분히 [받아] 준비된 신앙은 교회가 승인한 해설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 지니셨던 바로 그 사랑과 영^靈으로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는다.

- 127 ‘단순한 신앙’. 마음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사도들의 마음, 거룩한 동정녀의 마음과 같은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강한 신앙’. 하느님 말씀은 사람을 회심시킨다. 그러나 길을 잃은 사람과 옆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느님 말씀을 권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통을 바칠 용기가 필요하다.

‘의지의 순종’은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 신적 윤리법에 대한 전적인 동의로 이루어진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책, 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인류의 구속, 은총과 구원이라는 가장 기쁜 선포로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그분을 통해 하늘이 건네준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 또는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 아드님의 목소리를 읽거나 듣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주 정중하게 복음을 경청해야 한다.”⁷고 코르넬리오 아 라피데(Cornelio a Lapide)는 말

6. Corneli, 「성서 입문 *Introduzione alla S. Scrittura*」.

한다.

‘마음의 순종과 우리 전 존재의 순종’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성인이 표양을 보여준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 성인들 중 즐겨 기억하는 분들로는 성 안토니오, 성 바실리오, 성 아우구스티노, 성녀 체칠리아 등이 있다.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당신 뜻을 드러내시며 당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반기신다. | 이 순종하는 **128** 마음은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호의를 기쁘게 그리고 곧바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다.³

아나스타시오 교황은 독일과 보르고냐 주교들에게 정중하게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 몇몇 사람이 앉아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적 권위로써 명하는 바이니 어떠한 식으로든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교회에서 복음서를 봉독할 때 사제들과 다른 모든 참석자는 앉아있지 말고 서서 그리고 독서대를 향해 정중하게 몸을 굽힌 채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충심으로 공경의 예를 표해야 합니다.”⁸

성경에 대한 공경의 외적 행위

성경에 대한 예의 외적 행위 가운데 격찬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렬, 9일 기도와 3일 기도, 기도, 현시, 입맞춤, 복음서에 대한 서약.

7. 3권, 3-4 참조.

8. Can. Apost. de Consecrat. dist. 1.

‘행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높이 들고 행렬을 하는 것으로 전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한다.

- 이 점에 관해서는 1933년 2월 19일자 <로세르바토레 로마 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되었다. “첸치오 카메라리오Cencio Camerario가 말하는 성경행렬 의식은 | 부제가 어깨 위로 성경을 높이 들고, 종려나무가지를 든 사람들이 이를 에워싸고 향을 피운 향로, 촛불집이, 시내 여러 학교 기수들 뒤로 ‘운반대 Portatorium’라 불리는 우아하고 빛나는 성경 받침대가 따르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과 비슷한 존경을 복음서에 적용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관습은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것으로,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다.

‘9일 기도와 3일 기도’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것이다. 이러한 신심은 여러 곳으로 확산되었는데, 가치 있고 특별한 은총을 가져다주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르의 성 그레고리오는 「교부들의 생애」 4장에서, 화염이 알베르니아 시를 휩쓸 때 성 갈로는 성당에 들어가 거룩한 제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어서서 복음서를 들고 불길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불씨 하나 남지 않고 불이 꺼졌다고 한다.

- 성 마르치아노와 니체포로는 유사한 기적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도의 한 형태로 유혹과 불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성경 전체나 한 부분을 품고다니는 것인데 이는 악마가 복음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성
- 130**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복음서가 있는 곳에는 | 악마가 감히 접근할

생각을 못한다고 강조한다.⁹

경배를 위한 ‘현시’-니체포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두 번에 걸친 니케아공의회와 칼케돈공의회 그리고 에페소공의회에서는 복음서를 회의실 한가운데 모셨는데, 그 이유는 교부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복음서를 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었다.¹⁰

마찬가지로 트리엔트공의회에서는 회의실 가운데에 성경을 모셔놓고 존경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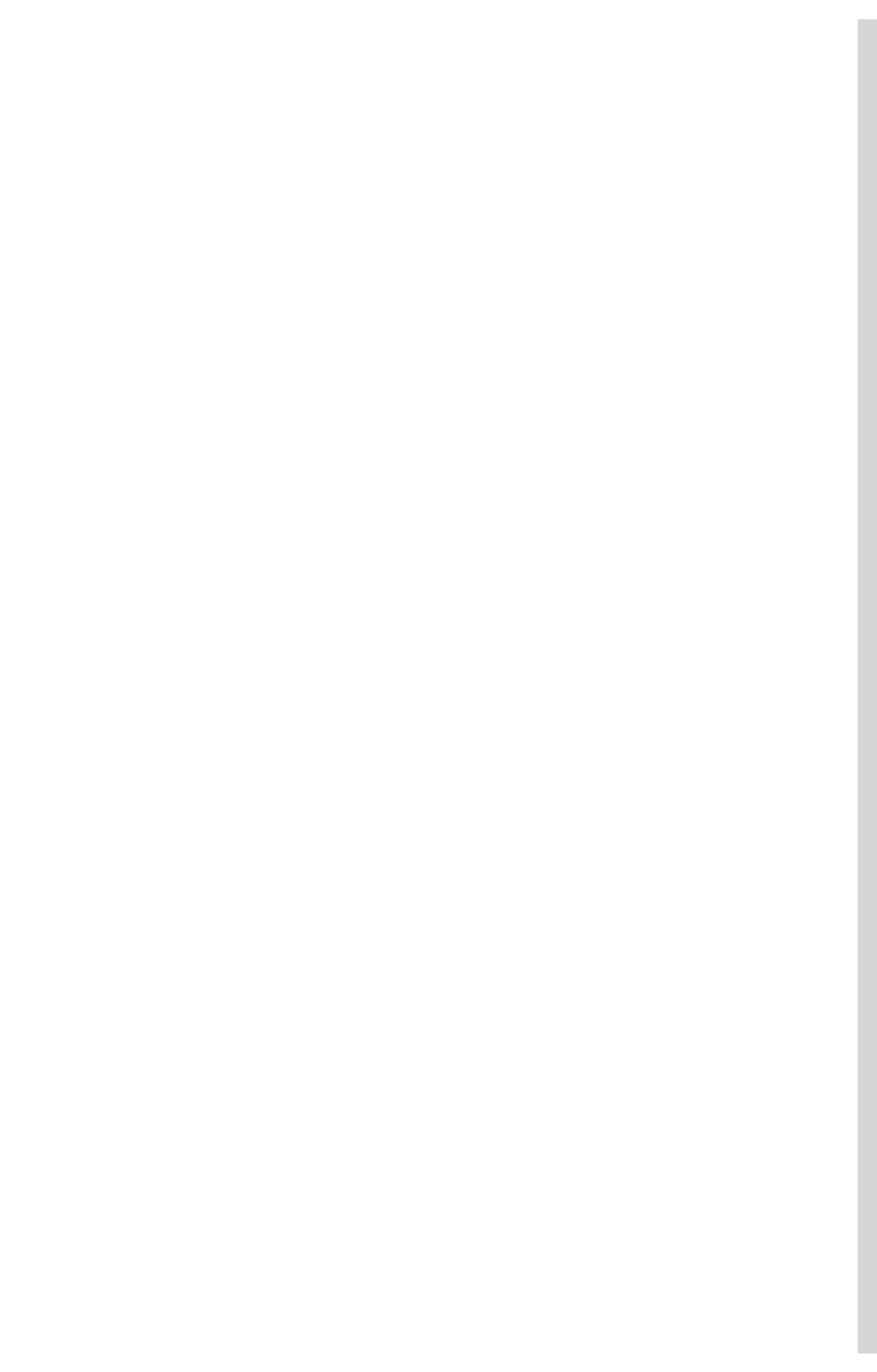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교회에서 신자들이 복음서에 입을 맞추고 읽도록 난간과 제대 앞에 복음서를 펼쳐놓도록 장려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가정에서는 적당한 장소에 성경을 펴놓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가 널리 확산되었다.

복음서에 대한 ‘서약’-가장 장엄한 행위로, 누군가가 단언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 진리이신 하느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나 약속한바를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한다.

이러한 신심은 교회법이 바라는 것으로 장엄한 서약을 할 때 복음서에 손을 얹도록 규정하고 있다.

9. Cf. 51 su San Giovanni Evangelista.

10. Cf. libro XIV, capo III.



제2편

출판, 영화, 라디오 사도직

제1장 출판 사도직의 기원과 발전

비록 새로운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출판 사도직은 그 본질이 하느님의 말씀을 인쇄하는 것인 한 하느님에게서 유래한 것이며, 교회가 받아들여 보편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의 사도직처럼 오래된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유래한 것

인쇄 사도직의 참된 창시자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분이 사도직을 명하셨고, 그분 몸소 영감을 주셨으며, 언제나 이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 자주 성경 저자들에게 명하 **134**
셨다. “너는 커다란 서판을 갖다가, 거기에 보통 글씨로 써라.”¹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²

그분 몸소 성경 저자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 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사실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것 모두를 그대로 쓰도록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1. 이사8,1: * “Sume tibi librum grandem, et scribe in eo stylo hominis.”

2. 탈출17,14: * “Scribe hoc ob monumentum in libro.”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³

하느님은 당신의 책이 세세대대로 완전히 보존되도록 그리고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회당에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 아낌 없는 도움으로 인쇄 사도직을 보호하셨다.

교회가 받아들인 것

교회는 언제나 인쇄 사도직을 알고 있었으며, 형태면에서, 시대와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쇄 사도직을 했다는 것을 역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한다.

- 135** 복음서와 사도들의 | 서간이 교회의 첫 교리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성 베드로의 모범을 따라 교황들은 사목적 교도권을 행사하면서 말과 글을 똑같이 그리고 풍성하게 사용했다. 초세기 교회의 성 클레멘스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고, 성 마르첼로는 감옥에서 편지로 로마의 여러 본당을 지도했으며, 성 소테로, 성 빅토르, 성 스테파노는 가톨릭 교의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글을 썼다.

그 후 성 대 레오, 성 대 그레고리오와 다른 교황은 그와 같은 수단으로 교황령, 회신, 칙서, 소칙서 그리고 특히 교황 교서로써 교회를 풍요롭게 했다.

신앙, 관습, 규율을 정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 사목자들의 회의인 세계 공의회는 그들의 정의(定義)와 행적을 문서로 우리에게 남겼고,

3. 2베드 1,21: * “Non enim voluntate humana allata est aliquando prophetia: sed Spiritu Sancto inspirati, locuti sunt sancti Dei homines.”

이를 더 많이 보급하고 대중화하고 적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교회는 비록 세속 인쇄물은 차치하고라도 출판 사도직에 관해서는 말씀의 사도직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점은 출판에 관한 다양한 교회법 조항이 증명해 준다.(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⁴

교회법 1385항은 일반적으로 신앙과 관습과 경신례에 관한 **136** 내용, 특히 성경, 신학, 교회 학문들의 출판을 규제한다.

교회법 1386항은 거의 서적, 정기간행물, 팸플릿 출판에 관련된 것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다.

특별 조항은 성인의 시성과 관련된 저술, 전례서적, 교황청의 교령전집, 성경 번역본, 주교회의의 도서 출판인가 등이다. 교회는 저술가 성인에게 학자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고유 축일로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 중 많은 이의 글을 성무일도서에 포함시켰다.

보편적으로 실천한 것

출판 사도직은 말씀의 사도직처럼 언제나 사용했다.

사도들에 의해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등 성인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은 다양하고 아주 심오한 저술로써 유다이즘, 이교, 이단과 맞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입증했고,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변호했으며, 우리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해 주었다.

미네Migne는 그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387권이라는 방대한 선집을 **137**

4. *여기서 언급하는 교회법은 분명 당시에 사용한 1917년의 교회법전*Codice di Diritto Canonico*(C.J.C.)을 가리킨다.

소개했으니 그야말로 거대한 작품이다. 이 선집은 인쇄 사도직의 기념비요, 호교론이다.⁵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저술을 이용했는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의 이 성인들은 필요할 때 또는 그들에게 요청이 있을 때 말을 통한 것 못지 않게 펜을 이용했다.

인쇄는 모든 사도직이 사용한 수단이다. 말과 펜을 통해 확산되지 않은 학문이 없듯이 모든 사도직과 신심도 그러하다. 가톨릭 액션, 선교단체, 교황청 단체, 자선단체, 기도의 사도직과 온갖 좋은 기획은 출판 사도직의 지지, 협력, 삶의 자극을 받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출판물에 의지하게 된다.

성좌는 그에 속한 신문과 인쇄소가 있다. 모든 주교도 인쇄소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본당신부는 주보를 발간하거나 공동 인쇄물을 보급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수도자들은 이 수단을 이용한다. 거의 모든 성직 수도회들과, 수도회, 수도가족은 그들 고유의 간행물을 가지고 있다.

138 가톨릭 신자들은 출판을 이용했다. 지구상 어디에든 | 가톨릭 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인쇄소, 정기간행물, 출판을 위한 교구 협의회, 가톨릭 도서관, 서점이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게다가 반대자들은 출판을 기술적으로 더욱 능숙하게 사용한다. 그들의 전략을 배우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대부분의 출판은 유대인, 개신교도, 무신론자, 프리메이슨, 소련 사회주의자, 이슬

5. * 유명한 「교부학*Patrologia*」은 두 계열로 구별된다. 「그리스 교부학*Patrologia Graeca*(PG)」과 「라틴 교부학*Patrologia Latina*(PL)」.

람교도와 믿지 않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⁶

그러므로 저작물의 이용은 참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6. * 이러한 표현은 이어지는 표현처럼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있기 몇십 년 전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새삼 기억할 필요는 없다. 실상 이 표현은 이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빛으로 해석하고 통합·수정된다.

139 제2장 출판 사도직을 위한 편집

출판 사도직은 편집, 기술, 보급 세 부분으로 나뉜다.

편집은 대량으로 인쇄하여 출판해야 할 저작물의 준비단계다.

편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집자 사도의 고유한 자질(성소, 적합한 준비와 초자연적 정신) 외에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다른 자질, 곧 교의에 담긴 진리, 윤리적인 선, 형태 안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¹

140 교의에 담긴 진리

하느님은 진리를 위해 인간의 지성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진리를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지향하며 오직 진리를 소유하는 데서 자신의 만족을 찾는다. 그러므로 만일 편집이 진리를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하는 과제인 사도직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직 활동은 진리에 관한 이중의 직무를 지닌다.

1. 가톨릭 진리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고 빈정대며 공개적으로 비종교적이고 불경한 출판물이 퍼뜨리는 오류와 베일에 싸인 예술, 세련되게 꾸며진 궤변, 적대적인 판단으로 가톨릭의 진리에 대항하는 출판물의 오류를 폭로할 것.

1. 이 장후의 자료는 호교론적 작품이랄 수 있는 B. Re S.J. 「왜 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없는가 *Perché non posso leggere tutto*」(초판)에서 대부분 발췌했다.

2. 세상 안에서 신앙의 스승이요 유일하게 거룩한 진리를 수호할 과제를 지닌 교회로부터 받은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고 보급하며 퍼뜨릴 것.

윤리적인 선

선은 우리 의지의 목적이요, 의지는 본성적으로 선을 지향한다.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욕망은 창조되고 제한되며 일시적인 선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오로지 최고 | 선이신 하느님을 절대 **141**적이고 확실하게 소유하는 데서만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

의지의 이러한 본래적인 경향을 고양시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길이신 천상 스승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한 사도직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향해야 한다.

1. 특히 공개적으로 비윤리성을 표방하거나 너무 노골적이고 부적합하며, 추잡하고 저속한 비윤리적인 출판물을 통해 유포된 악을 우선적으로 없앤다.

2. 우리의 완전한 귀감이요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표양에 따라 무한하고 창조되지 않은 선과 하느님의 투영이며 하느님께 인도해 주는 창조된 선을 열망하는 원의, 의향, 결심을 고양시킨다.

형태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진리의 광채요 선의 요청이며, 미적 감각과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바다. 우리 마음은 최고요 본질적 아름다움이신

하느님을 누릴 준비를 하며, 아름다움을 따르고 아름다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 142** 그러므로 진리와 선은 매혹적이고 우아한 형태로 | 그리고 고상하고 고양된 열망을 커뮤니케이션하며 강한 인상을 주는 형태로 드러내야 한다.

사도 저술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과는 달리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론과 활동에 맞서 싸울 것. 수려한 언어 구사와 우아한 문체로 표현하는 불경하고 비윤리적인 출판물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엮어매기 때문에 아주 해롭다.

2. 진리와 선을 잘 받아들이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작품의 아름다움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새로운 힘을 통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모든 저술가가 언제나 형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하느님 말씀을 언급하고 해설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사실 하느님 말씀이 동정녀들 중에 가장 거룩하신 분의 가장 순결한 태내에 강생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체를 귀중한 성합에 모시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에 가장 고귀한 형태의 옷을 입히는 것은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만일 사도의 작품이 교회의 인도하에 교의에 담긴 진리, 윤리적인 선, 형태의 아름다움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본성에

- 143** 도움을 준다면 잘 받아들여지기 위한 | 근본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러한 자질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지면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의 단언은 언제나 참되기 때문

이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²

사도에게 필요한 지적·윤리적·영적 준비를 갖춘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글을 쓴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작품을 기도와 희생으로 봉헌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차고 넘칠 것이다.

2. 1코린 3,6: * “Ego plantavi, Apollo rigavit; sed Deus incrementum dedit.”

제3장 위대한 진리

‘참된 교의’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한 진리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사도가 반드시 설명하고 수호하며 보급해야 할 건전한 철학과 신학의 본질적인 주요 내용을 내포한다.

그 내용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인간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섭리, 세상과 인간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신적 진리는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모든 것은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끝난다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은 당신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

145 곧 하늘·공간·바다·식물 | 동물,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의 존재를 확증하고 그분의 속성을 폭넓게 계시한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¹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 창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자연과 인간 역사의 과정 또한 하느님의 작품이다. 사실 감각할 수 있는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이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면, 그분은

1. 로마 1,20: * “invisibilia enim ipsius, a creatura mundi, per ea quae facta sunt, intellecta, conspiciuntur.”

역사 안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계시하시고, 모든 사물이 힘차고 우아하게 고유한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신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 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²

하느님은 자연을 통해 스스로 창조주임을 드러내시고, 역사 안에서 통치자임을 밝히시며 종말에 사랑으로 드러내실 것이다. 오늘 예시하시는 것은 언젠가 관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자연 질서와 초자연 질서 두 가지 모두를 당신의 지고한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당신 섭리로 바르게 확립하셨다.

하느님의 섭리는 자연 질서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리적 형성과 동물, 식물, 광물 분포를 통해 지질학 시대가 잇따라 완만히 일어난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일한 조상에게서 | 많은 민족이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학적 발전과 인간의 지적·윤리적·물질적 진보를 통해 지구상의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며 감탄하게 된다.

146

하느님은 당신의 자연섭리와 더불어 세상의 첫 순간부터 “새 하늘과 새 땅”³이 될 때까지 세상을 동반하시고, 지상낙원에서 마지막 심판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함께하신다.

하느님의 섭리는 초자연적 질서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최대한 분출되고, 그분의 손에서 초자연적 선물이 풍부하게 만들어지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친구인 인간이 지복직관을 누리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하느님의 창조

2. 지혜 8,1: * “Attingit ergo a fine usque ad finem fortiter, et disponit omnia suaviter.”

3. 이사 66,22.

계획을 깨뜨렸다. 그러자 하느님의 섭리는 처음보다 더 경이롭고 새로운 계획 곧 구원계획을 세우셨다. 그분은 구약의 전 과정을 통해 이를 준비하셨고,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실현하셨으며, 인류 안에서 이 구원계획을 교회를 통해 완성하신다.

하느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놓아두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영광을 바라셨고, 인간이 당신과 함께 역사를 이룩하는 데 참여하며, 은총의 질서를 통해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하느님은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함께 살게 하셨지만, 각자에게 적당한 값을 주실 것이다. 의인은 끝없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하느님의 자비를 누릴 것이며, 악인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며, 하느님 정의의 엄격함에 영원히 굴복할 것이다.

우주의 심판은 역사의 마침표가 될 것인데, 하느님의 섭리도 그러하고, 인류의 협력도 역사의 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이 관점도 두 가지 요소, 곧 자연적 요소와 초자연적 요소로 나뉜다. 자연적 요소는 국가가 교회에, 육신이 영혼에,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에 도움을 주듯 초자연적 요소에 도움을 준다. 이 두 요소는 후에 하느님의 영광에 도움을 주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에서도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될 뿐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고 결정하고 보존하며 유지하신다. 따라서 역사는 자연과 더불어 삶의 스승, 곧 진리와 정

의, 경신례의 스승이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의, 하느님이 우리 원조에게 주신 최초의 계시, 모세에게 내리신 계시, 성경, 성전, 가톨릭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느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윤리의 최대 표현인 이웃 | 사랑을 설파하면서 **148** 이교 문화의 개념을 바꿔놓았다. 그리스도교의 신적 초월성에 의해 윤리법에 새로운 기반이 주어졌다. 인간 행위는 이성뿐 아니라 신앙을 통해 영감을 받음으로써 초자연적 가치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은 노력뿐 아니라 은총의 힘을 통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선과 악의 숨은 심판관인 양심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교 윤리는 육체와 정신, 시간과 영원, 세상과 하느님을 대비시켰는데, 이 대비는 고대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

자연법의 규정은 그 자체로 (그 가치가) 재확인되었다. 성화된 가정, (안정된 사회), 인간과 국가의 관계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권위란 없다.”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인관계에 있어 첫째가는 근본 규정은 하느님과 이웃을 포용하고, 모든 윤리를 포함하는 사랑의 두 가지 계명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은 인간과 사회와 국제관계 안에서 개개인의 평화라는 일시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복직관, 하느님의 나라, 인류의 구원이라는 초자연적 목적을 지향한다. | 인간, 활동, **149** 제도, 온 인류는 영원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하느님을 향해

4. * 로마 13,1: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있다. 하느님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끄셨다.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 귀감, 수난, 부활과 영광, 교회의 설립과 성령강림도 똑같이 인도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 바오로의 열네 편 의 서간에서부터 여러 공의회와 최근의 교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인도하셨다.

교회가 여러 이단과 맞서야 할 때마다 하느님은 가톨릭 교의를 온전하게 수호하시기 위해 늘 교회를 지켜주셨으며, 문명의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이교인들에게 힘겹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탱이 되어주셨다. 절대군주, 만연하던 이교사상과 거짓 개혁, 철학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근대주의와 맞선 싸움에서도 그분은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

교의는 하느님 섭리적 도우심이 가져다준 결실이다.

하느님 섭리의 전지전능하고 보편적 주권의 규칙은 또한 성경적 의미의 정의(正義)인 윤리, 곧 개인, 가족, 국가 안에서의 윤리, 덕성, 성화다.

마지막으로 경신례도 하느님이 이끄신다. 여러 민족이 세기를 거쳐 오면서 종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신례의 외적 변화를 검토해 본다. 비록 본질적으로는 항상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행하고 있는 미사, 성사, 준성사와 전례 전체가 긴 세월을 걸쳐 이룩한

150 진보적 | 여정을 경탄해마지 않는다.

참되고 유일한 종교의 역사와 수많은 거짓 종교에 대한 역사의 비교는 참종교의 무한한 우월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하느님께 드려야 할 참된 흠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 귀착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과정이며 마침이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⁵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⁶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⁷라고 성 바오로는 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실 성부는 성자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그를 온 세상 왕국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인간은 하느님 찬미를 통해 피조물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다. **151**
그러나 그는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이 없었기에”⁸ 하느님께 마땅히 드러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안에 피조물을 수렴하시어 하느님 말씀에 일치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찬미를 능가하는 찬미가를 천상 아버지께 불러드렸다. 이로써 인간이 부른 그 찬미가는 신적 위격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 찬미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고, 갈바리아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5. 묵시 1,8: * “Ego sum alpha, et omega.”

6. 묵시 21,5: * “Ecce ego nova facio omnia.”

7. 로마 8,19.23-24.

8. 시편 48[49],21: * “cum in honore esset, non intellexit.”

세상 심판 때에 새롭고 일치된 조화를 띠게 되었다. 성자는 성부를 관조하고, 의인들도 성자를 통해 성부를 관상할 것이다. 성자는 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그 왕국의 신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인도될 것이다. 성부의 사랑이요, 성자의 사랑이신 성령은 이 복된 나라의 숨결이 되실 것이다.

하느님의 목표는 창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뛰어나게 이루어질 것이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총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신다.

결론: 저술가 사도가 자신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하느님 영광의 역사를 완수하고자 한다면 종교에 바탕을 둘 뿐 아니라, | 세 가지 원칙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연 법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수하는 사람이라야 하며,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눈길 아래에서 일하며, 하느님을 바라고 자기가 기록하는 모든 말을 진지한 양심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4장 독자들에게 대한 적응

153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목표는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요구한다. 곧 신앙의 진리에 대한 충실, 윤리규정의 실천과 은총의 수단에 참여, 다시 말해 구두설교 및 문서설교의 특수 대상을 형성하는 모든 것에 대한 충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수준과 완성도의 정도가 다른 주체들에게는 같은 내용이라도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러한 상이점을 생각하며 저술가 사도가 대상으로 삼는 주체, 곧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곧 초보자들과 숙련자들, 그리고 완성자들이다.

‘초보자들’은 출판 사도직의 순위로 보아 | 신앙의 아기들, 곧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걸음을 떼어 놓은 어린이들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가리키는데, 아우구스티노가 「초보자들을 위한 교리교육에 대하여 *De catechizandis rudibus*」에서 이야기한 이 들이다. 이들에 이어 장소와 시간을 통한 여정에서 점차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비신자들이 있다. 154

‘숙련자들’은 지식에 있어 청소년들이다. 다시 말해 성직 신분의 길 또는 전문직에 들어선 학생들로서 평균 교육수준의 젊은이들과 사회 고위층 성인들이다.

‘완성자들’은 성직자들 또는 신앙에 대한 심오하고도 완전한 공부를 한 평신도들이다.

각 범주의 특수한 필요성

세 범주 가운데 사도직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은 당연히 ‘초보자들’이다. 사실상 이들은 교리교육을 통해 진리의 빵과 그리스도인 삶의 빵을 쪼개어 나눌 필요가 있는 큰 대중이다. 근사치로 계산한다면 인구 20억 중 적어도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곧 18억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5 사도들은 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기울여야 하는데 마치 천상 스승이 그러셨듯이 | 가난한 이들과 겸손한 이들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¹

초보자들에 이어 ‘숙련자들’이 따른다. 이들에게 행해야 할 사도직은 그 숫자 때문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류의 2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윤리적 영향력, 다시 말해 소득이나 관계에서 오는 힘 때문에 사회의 지도층에 속할 터이기 때문이다.

대중을 지도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아니고 저술가도 아닌 여론 형성가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이끄는 것은 마치 군대의 장교들을 이끄는 것과 같다.

이 범주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불신과 좌절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한 가장 큰 기쁨과 훌륭한 결과도 체험했다.

적합한 교육과 훌륭한 지도를 받은 숙련자들은 일반적으로

1. 루카 4,18: “evangelizare pauperibus misit me.”; *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초보자들보다 신앙을 잘 이해하는데, 그만큼 많은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성에 입각한 새로운 기초로써 하느님께 더 충실하고 “찬미가를 부르는 것”²이 더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성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사도는 진리, 윤리, 은총을 “넘치게 얻도록”³ 더 광범위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을 양성하는 활동을 계속한다. 이것은 곧 그들 안에 신앙의 | 이성적 토대를 강화하고, 생명과 윤리의 참 의미를 발전시키며, 그들 삶의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은총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156**

이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교회가 지닌 가르치는 본분, 곧 질서와 법규의 교계 제도를 지닐 필요성, 믿지 않는 이들, 이단자들, 반대자들에 맞서 가톨릭교를 옹호할 능력을 지닐 필요성, 끝으로 유일하고 위대한 학교, 가톨릭을 형성하기 위해 지성, 의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시게 할 이니셔티브를 지닐 필요성이 명백해진다.

완성자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도직, 사명, 가톨릭 사상의 본질, 모든 학문, 문명, 예술, 관습, 법규, 학교, 출판 등에 새로운 누룩, 그리스도의 완전무결한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시편 47[46],8: “[psallite sapienter.”; 콜로 3,16 참조: * “하느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 미가를 불러라.”

3. 요한 10,10: “ut abundantius habeant.” 참조: *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실천적 방법

세 가지 큰 범주마다 영적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
157 일한 | 사도직의 대상, 곧 신앙, 윤리, 가톨릭의 경신례를 구성하는
바를 그들 각자에게 소개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곧 순환
적 방식인 ‘길 진리 생명’의 방법으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온전히 주는 것
이다. 각 계층과 범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교의, 윤리, 경신례에
관해 각자의 능력과 준비에 알맞는 진리를 점진적으로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꼭지점을 위로 향하고 있는 원뿔에 비길
수 있는데, 꼭지점 부분은 수많은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나타내고, 중간 부분은 숙련자들에게 유익한 교육내용,
아랫부분은 완성자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길 진리 생명’의 순환방법은 생명력이 있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각 계층에, 더 나
아가 개인 모두에게 종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곧 신앙, 윤
리, 경신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신경(神經), 계명과 은총의 수단에 관한 일반 기초지식으로 시작
하여 언제나 같은 원칙을 확대시키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이 방법은 인간의 신체적·지적·윤리적 성장 과정을 따르기에
자연스럽다. 실제로 이미 지성, 의지, 감정을 타고난 한 아이를
떠올려보라. 그 아이가 늘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158 있도록 우리 영역에서 그 아이의 성장과정 | 동안 이끌어 주며
동반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이다. 이론에서든 실천에서든 교회에서 계속 해오던 방법이다. 먼저 이론에 대해서는 이 방법의 박사인 성 토마스에게서, 실천에 대해서는 많은 성인 사목자에게서 드러나는데 그중에서 성 대 그레고리오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아직 모르는 것을 설명했다.

마지막 방법은 사목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공통의 필요에 더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쉬워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방법을 선호한다. 어린이들, 대중, 올곧은 사람들은 비록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황하고 세세한 이유를 찾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단순함을 좋아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단순함과 선함에 대한 반영이요, 인간 양심의 증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물론 그리스도교적이다. “영혼의 증거는 당연히 그리스도교적이다.”⁴

4. 테르툴리아노, *「호교론」17권 “testimonium animae naturaliter christianae.”

159 제5장 저술가 사도의 귀감이신 하느님

출판사도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의에 담긴 진리, 윤리적인 선, 형태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항상 종교에 대해 쓸 필요는 없지만 늘 그리스도교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저술가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그에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느님의 활동을 확장시켜야 할 특수한 사명이 있다.

160 그 모델은 바로 하느님이다. 성경은 인간을 하늘로 초대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내신 긴 편지다. 성경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성경은 실천해야 할 법, 믿어야 할 진리가 담긴 거룩한 책이다.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느님의 자녀답게 믿고 행동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을 권하고 계시하며 준비시킨다. 달리 말해 성경은 인간의 길 진리 생명이다.

사도가 쓰는 글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사도의 저술은 '길' 이라야 한다

자신의 글이 하늘로 이끄는 참된 길이 되도록 사도는 성경을 본보기로 삼거나 성경과 같은 목적, 같은 방식,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성경의 주제는 하느님과 인간, 곧 영적 성격을 지닌 모든 것에

관한 진리다. 그러므로 성부 하느님의 활동, 성자 하느님의 활동, 성령 하느님의 활동을 계시하고 명백히 설명하는 진리다. 성화의 모든 수단,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가장 숭고한 것, 계명, 복음적 권고, 성성에 포함된 인간에 관한 의무가 부가된다.

이러한 것은 바로 저술가 사도들이 다루어야 하는 주제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경의 방식 또는 진리요, 거룩함의 입장인 단순함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성경이 사용한 단순한 문체와 I 형태, 곧 세련된 문체, 예술적 형태라야 하지만 대중적인 형태, 분명하고 소박한 형태의 글을 써야 한다. “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왔다.”고 하신 당신 말씀을 일관성 있게 입증하는 천상 스승의 귀감을 따르는 꾸밈없는 단순성은 교단, 학교, 태도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고, 고상하거나 난해한 말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소박한 장소·청중·어조·문장·예화·비유 등을 원했다. 161

성체성사와 같은 단순성. 성체성사는 하느님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음식의 형태를 취한다. 출판사도도 그래야 한다. 책이나 종이라는 보잘것없는 형태로 꾸밈없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갖가지 처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진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빵처럼 모두가 살 수 있을 만큼 소박해야 한다. 이것은 때때로 큰 희생을 요구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친히 바라시는 희생이기에 관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출판사도는 자신의 글을 통해 하느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지니셨던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같은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하느님께 영광, 따라서 자신의 만족이나 이득, 자신의 영예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야 한다. 하느님께서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 받기를 원하십니다.”¹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당신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사도의 저술은 ‘진리’ 라야 한다

출판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학문적인 작품이나 문학작품을 써서는 안 되고, 자신이나 다른 이의 생각을 유포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교회가 제시하고 계시한 진리와 이 진리로 인도하거나 진리를 발산하는 것만 보급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성경의 출판을 늘리거나 성경에 담긴 진리를 주석하고 설명하며 서술함으로써 실행해야 한다.

사도는 자기 작품에 성경의 진리가 스며들도록 하느님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다. 그가 작품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시도록 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단언한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²

1. 1티모 2,4: “Deus vult omnes homines salvos fieri.”;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편집실을 꾸미는 가장 훌륭한 장식은 | 복음사가들의 그림이다. 163
 경신례의 가장 훌륭한 표지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펼쳐놓은 복음이다.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다.”³ 가장
 귀중한 참고서적은 교회의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의 광범위한
 주석이 담긴 성경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간파
 하게 하려면 저술가 자신이 성경의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교회의 인도에 따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계속한다면 그러
 한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일거리나 호기심에서
 가 아니라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여 천상 성부를 따르고 느끼기를
 바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마치 교회의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성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영에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굳은 의지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온 세상을 위해서라는
 복된 희망을 안고 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차츰 하느님 말씀의 놀랍고도 미묘함에 맞
 들어게 될 것이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쓴 글로써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도에게 영적 독서, 성체방문 때 잠심과 고양의 수단,
 으뜸가는 묵상서, | 모든 영적 필요와 사도직 그리고 사회의 필요 164
 를 위해 조언을 구해야 할 하느님의 신탁처럼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으
 려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례독서와 성무일도서를 따라 1년 중에
 성경 전체를 읽으라고 권한다.

2. 히브4,12 이하.

3. 루카8,11: * “Semen est verbum Dei.”

성무일도서로 기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지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러한 독서를 통해 교회의 공적 기도와 하나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을 위해 글 쓰는 방법을 하느님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다.

사도의 저술은 ‘생명’이라야 한다

교회 교부들과 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성화를 위한 빛과 깨달음을 얻었다. 성 안토니오 아빠스, 성 아우구스티노, 성 베네딕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이냐시오 등은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었고 완덕의 산에 올랐다. 성인들과 하느님의 책을 읽은 모든 이가 영적 빛과 힘을 찾았다. 곧

165 성경에는 주된 저자이신 하느님이 주시는 힘뿐 |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거룩하며 성경이 쓰여진 목적, 성경을 수호하는 교회의 기도에서 오는 신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판사도의 저술도 하느님 활동을 넓혀가는 것이기에 인간을 감동시키고 성화시켜야 한다. 출판사도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활동으로 어떻게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보자. 성사와 준성사와 기도는 갈바리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신적 원천에서 덕을 길어내는 만큼 효력이 매우 크다.

출판 사도직에서 서적, 정기간행물, 모든 출판물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복음서에서 효력을 얻는다. 그리고 이 출판물은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더 많이 길어내고, 가까이 다가가고, 의지하고, 재생산하고, 열심히 하며, 적용할수록 더 큰 효력을 낸다. 사도가 성경의 독서와 매일의 묵상 외에 이러한 목적을 이룬다면 하느님 앞에서 성인전기 작가들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성인전기 작가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했으며, 부수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과 인간의 영적 선을 지향했다.

기도의 정신과 올바른 지향: 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필 **166**
요한 조건이요, 사도가 “나는 하느님께 의지한다, 나는 하느님을 바란다.”는 계획을 확립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 선포하기에 정의, 진리, 질서에 따른 계획이다.

철학과 신학, 수덕신학과 체험, 교회와 여러 공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선포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도직에 앞서고 사도직을 동반하며 뒤따라야 한다. 사도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⁴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자기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도가 지니는 구원 효력에 참여할 것이다. 올바른 지향은 저술하도록 결정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도록 이끌어주는 동기라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도는 거기에 사랑에 넘친 열의를 쏟아부어야 한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성경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동기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⁵의 사랑이었다.

4. 요한 17,3: * “ut cognoscant te et quem misisti Jesum Christum.” 참조.

사도들은 “사랑이 나를 부추겨 말하게 했다.”는 그런 사랑으로 저술해야 한다. 하느님 사랑이 그의 존재 중심에, 곧 그분을 자주 생각함으로써 지성의 중심에, 그분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의지의 중심에,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아닌 것은 마음속에
167 남아 있지 않을 만큼 | 감성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한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성 바오로 사도와 함께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⁶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올바른 지향을 지니며, 기도로 굳건해지고 성경에 잠겨 사는 사도는 자신의 저술이 성경처럼 인간에게 빛과 인도와 지탱, 다시 말해 그들을 위한 길 진리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편집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5. 지혜 11,26: “Deus qui amas animas.”; *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6. 2코린 12,15.

제6장 성경

168

일반적으로 거룩한 책, 곧 성경, 특히 복음서는 교회가 준 것으로 출판사도가 행하는 활동의 본질을 이룬다. 이것은 실제로 사명 없는 사제직, 십자가 없는 성사, 뿌리 없는 식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성경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의 중요성, 성경에 관한 하느님의 뜻, 역사와 인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중요성

다른 책과는 달리 성경은 세상 속에서 떠도는 한가닥의 은실 앞에 놓인 황금 산¹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은 저자나 내용, **169** 생명을 주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이다. 성경 저자들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쓴 하느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경은 하느님의 책이다. 이것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다.

만일 어떤 책이 저자에 대한 관심과 내용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세상에서 하느님의 책보다 더 흥미로운 책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의 책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책도 하느님, 인간, 만물의 기원과 목적 등, 인류가 지닌 중대한 의문을 결코 풀어줄 수 없다.

이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진리,

그분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다.

이와 같이 오로지 하느님만이 미래의 일, 이 세상에 닥쳐올 사건, 영원히 계속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당신 외아드님의 강생과 수난과 죽음의 신비를 통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 결정을 드러내실 수 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신적 자녀로 높여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계시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기 위한 확실한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다.

170 또한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이루셨다. | 그렇다면 하느님의 책보다 더 흥미롭고 더 중요한 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마음속에 파고들어 생기를 주는 경향 때문에 다른 책과 차별된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의 위대한 성사다.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성령의 불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이 성사의 형태로 살아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덕徳의 천상 양식을 취하는 사람처럼 성경말씀으로 양분을 섭취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신적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 불길은 마음속을 파고들어 그를 영적으로 쇠신시킨다.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마땅한 준비를 갖추게 되며, 성경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사실 성경을 감도하시는 성령은 유한하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저작물에 관련된 정신과는 다르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또 당신의 책을 읽을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이시다. 성령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말씀, 마치 읽혀지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쓰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곧바로 당신 능력으로 고무되고 생기를 주는 말씀을 쓰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은 책이다. 이 책은 이교 백성과 | 여러 종교가 행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향력, 인류에게 아주 **171**
심오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예술과 문학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는 단테, 클롭스토크Klopstock, 밀턴과 다른 수많은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문학작품 중에 성경의 인용과 언급이 많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¹

법률, 제도, 윤리, 예식 등 모든 것은 성경에 의존한다.

성경은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주석서와 입문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작품은 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심오한 연구보다는 견고한 문학에 바탕을 둔 책으로서 모든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었다. 성경은 인류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성경에 관한 하느님의 뜻

성경에 관한 하느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다.

하느님이 직접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도록 독려하고 움직이셨다는 사실은 작품에 서려 있는 당신 도움의 | 흔적이 **172**
이러한 단언의 논리성을 우리에게 입증한다.

1. 「대백과사전*Grande Dizionario Enciclopedico*」, a cura del Prof. Giovanni Trucco(Vol. II).

이런 식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를 열렬히 바라시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표양을 보이시어 하느님의 뜻을 완수 하시며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활 초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셨다고 전해 준다.

천상 스승은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신 후 그 예언이 당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자주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예언된 말씀이 당신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성경을 알고 계셨으며,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상기시키셨다는 뜻이다.

부활하신 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²에 관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성경봉독에 관한 하느님의 뜻은 권위 있는 해석가인 교회의 가르침과 관습에 의해 더 뚜렷해진다.³

173 교회는 성경을 쉽고 효과적으로 읽도록, 장과 절로 세분하여

2. * 루카 24,27 참조.

3. 일반적으로 가톨릭교회가 단순한 신자들에게 성경독서를 금지했다고 비난한다. 이 관점은 사실과 다르다. 성경은 아주 어려운 책이고, 잘못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각주를 갖춘 승인된 번역본을 읽어야 한다고 교회가 요구했을 따름이다. 틀림없이 모든 이가 성경을 갖게 했던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마도—그 반작용으로—더 엄격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성경의 연구와 독서를 깨우쳐 주며 촉진해왔다.

우리에게 제시했다.

공의회는 많은 법규와 교황들의 여러 저서, 그중에서 특히 레오 13세의 회칙「극진히 섭리하시는 하느님 *Providentissimus Deus*」⁴과 베네딕토 15세의 회칙「위로자 성령 *Spiritus Paraclitus*」⁵은 성경봉독에 관한 교회의 열망을 드러내는 빛나는 증거다.

교회는 성경이 가톨릭 전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했다. 예를 들면 시편은 교회의 공식 기도다. 미사에서는 매일 선별된 복음구절을 읽는다. 성 바오로의 서간과 다른 여러 부분에서 발췌한 성경구절은 언제나 이른바 미사의 독서부분을 이룬다.

결국 하느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가르치셨으며, 이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

역사와 인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유일하고 거룩한 책, 탁월한 | 책이었다. 교회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174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생생하던 때, 초기 신자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다. 그 후 위험이나 박해 중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성경 전체가 아니라 적어도 거룩한 복음서나 복음서의 한 부분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들은 신앙에 항구할 수 있었고, 신앙을 위해 생명을

4. * 1893년, 성경연구에 대한 회칙.

5. * 1920년, 성 예로니모 1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회칙.

내어놓을 힘을 길어냈던 것이다.

그 후 차츰 초기 그리스도인의 전통을 잃어가면서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고, 성경봉독으로 얻는 결실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는 성경을 소홀히 하기에 이르렀고,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해로웠고 또 지금도 그렇다. 페두치Peduzzi는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문명의 진보를 자랑하지만 종교와 전통에서는 상당히 퇴보했고, 이미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삶의 방종과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위협하는 종교적 반감 현상을 통해 고대 이교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까닭은 지옥이 사회에서 영적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곧 악습과 이단, 이교가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무지로 인해 나중에는 개신교의 자유 사상으로 인해 복음서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떼어놓은 것이다.”⁶

위대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카셋타Cassetta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사회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과 업적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이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행동을 더는 보살펴주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오늘날 하느님에 대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종교는 확신과 느낌보다는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운유하고 지극히 경건한 비오 10세는 당신 계획 안에 이미 해결

6. Peduzzi, 「삶의 원천으로 *Alle fonti della vita*」.

책을 마련해 두었는데, 성 바오로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사회를 쇄신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회를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리는 것 외에 다른 행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전체, 곧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신 참 그리스도, 성경과 거룩한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야 한다. 비오 10세는 카셋타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건하려고 결정하는 순간 신자들에게 그저 자주가 아니라 매일 거룩한 복음서를 읽는 습관을 도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봉독이야말로 대망의 재건에 도달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길을 뚜렷이 | 보여주고 정확하게 인도해 줍니다.” 176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의 긴급한 요청뿐 아니라 거룩한 책의 봉독에 관한 초기 전통으로, 하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쓰신 위대한 책으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준다.

여기서 성경봉독에 관한 교회법 관련 몇 가지 교령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원편에 있는 천⁴ 단위 숫자는 덴징거의 번호다.

‘클레멘스 11세는 케벨Quesnel⁷의 오류⁸를 단죄했다.’

7. * 인용한 교회법과 교령의 이탈리아어 번역을 제시한다. 원편의 숫자는 휘너만P. Hünermann이 엮은 2개국어로 된 출판본(EDB 1995)인 이탈리아어 Denzinger의 번호임(역주: 한국어판에는 라틴어만 기재함).

8. * 제2차 바티칸공의회「계시현장*Dei Verbum*」의 빛에 따라 단죄받았던 다음의 선언들을, 더 이상 늘 ‘오류’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1429. -79. *Utile et necessarium est omni tempore, omni loco et omni personarum generi, studere et cognoscere spiritum, pietatem et mysteria Sacrae Scripturae.* - 1코린 14,5.

1430. -80. *Lectio Sacrae Scripturae est pro omnibus.* - 사도 8,28.

1431. -81. *Obscuritas sancta verbi Dei non est laicis ratio dispensandi se ipsos ab*

eius lectione. - 사도 8,31.

1432. -82. Dies Dominicus a Christianis debet sanctificari lectionibus pietatis et super omnia sanctorum Scripturarum. Damnosum est, velle Christianum ab hac lectione retrahere. - 사도 15,21.

1433. -83. Est illusio sibi persuadere, quod notitia mysteriorum religionis non debeat communicari feminis lectione sacrorum librorum, Non ex feminarum simplicitate, sed ex superba virorum scientia ortus est Scripturarum abusus, et natæ sunt hæreses. - 요한 4,26.

1434. -84. Abripere e Christianorum manibus Novum Testamentum seu eis illud clausum tenere auferendo eis modum illud intelligendi est illis Christi os obturare. - 마태 5,2.

1435. -85. Interdicere Christianis lectionem Sacræ Scripturæ, præsertim Evangelii, est interdicere usum luminis filiis lucis et facere, ut patiantur speciem quamdam excommunicationis. - 루카 11,33.

비오 6세는 신앙의 가르침을 이렇게 강조했다.

1567. -67. Doctrina perhibens, a lectione sacrarum Scripturarum nonnisi veram impotentiam excusare; subiungens, ultro se prodere obscuracionem, quæ ex huiusce præcepti neglectu orta est super primarias veritates religionis: - falsa, temeraria, quietis animarum perturbativa, alias in Quesnellio damnata.

비오 7세는 이렇게 가르친다.

1604. - Sane cum in vernaculo sermone creberrimas animadvertamus vicissitudines, varietates, commutationesque, profecto ex immoderata biblicarum versionum licentia immutabilitas illa convelleretur, quæ divina decet testimonia, et fides ipsa nutaret, cum præsertim ex unius syllabæ ratione quandoque de dogmatis veritate dignoscatur. In id proinde pravas teterrimasque machinationes suas conferre in more habuerunt hæretici, ut editis vernaculis Bibliis (de quorum tamen mira varietate ac discrepantia ipsi se invicem accusant et carpunt) suos quisque errores sanctiore divini eloquii apparatu obvolutos per insidias obruderent, "Non (neque) enim natæ sunt hæreses, inquit S. Augustinus, nisi dum Scripturæ bonæ intelliguntur non bene, et quod in eis non bene intelligitur, etiam temere et audacter assertitur". Quod si viros pietate et sapientia spectatissimos in Scripturarum interpretatione haud raro defecisse dolemus, quid non timendum, si imperito vulgo, qui ut plurimum non delectu aliquo, sed temeritate quadam iudicat, translatae in vulgarem quamcunque linguam Scripturæ libere pervolvendæ traderentur?..

그레고리오 16세도 이렇게 가르친다.

1630. - Perspectum vobis est vel a prima christiani nominis etate hanc fuisse

1429. -79.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사람에게 성경의 정신, 신심과 신비를 연구하고 아는 것은 유익하고 필요하다.

1430. -80. 성경봉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1431. -81.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의 난해함은 평신도에게 독서를 면제해 줄 동기가 되지 않는다.

1432. -82. 주님의 날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독서, 특히 성경을 읽음으로써 거룩히 지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독서를 멀리하려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1433. -83. 종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이 거룩한 책의 독서를 통해 여성에게 전달되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은 기만이다. 여성의 단순함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학문에 대한 우월함에 의해

propriam hæreticorum artem, ut, repudiato verbo Dei tradito et Ecclesiæ catholicæ auctoritate reiecta, Scripturas aut manu interpolarent aut sensus expositionem interverterent, Nec denique ignoratis, quanta vel diligentia vel sapientia opus sit ad transferenda fideliter in aliam linguam eloquia Domini; ut nihil proinde facilius contingat, quam ut in eorundem versionibus per societates biblicas multiplicatis gravissimi ex tot interpretum vel imprudentia vel fraude inserantur errores; quos ipsa porro illarum multitudo et varietas diu occultat in perniciem multorum, Ipsarum tamen societatum parum aut nihil omnino interest, si homines Biblia illa vulgaribus sermonibus interpretata lecturi in alios potius quam alios errores dilabantur; dummodo assuescant paulatim ad liberum de Scripturarum sensu iudicium sibimet ipsis vindicandum, atque ad contemnendas traditiones divinas ex Patrum doctrina in Ecclesia catholica custoditas, ipsumque Ecclesiæ magisterium repudiandum.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방어하며 장엄하게 결론을 내린다.

1631. - *Hunc in finem biblici iidem socii Ecclesiam sanctamque hanc PETRI Sedem calumniari non cessant, quasi a pluribus iam sæculis fidelem populum a sacrarum Scripturarum cognitione arcere conetur; cum tamen plurima exstent eademque luculentissima documenta singularis studii, quo recentioribus ipsis temporibus Summi Pontifices, ceterique illorum ductu catholici antistites usi sunt, ut catholicorum gentes ad Dei eloquia scripta et tradita impensius erudirentur.*

성경이 남용되었고 또 이단이 생겼다.

1434. -84.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신약성경을 빼앗거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박탈하여 성경의 접촉을 막는 것은 그들에게 말을 못하게 그리스도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1435. -85. 그리스도인에게 성경봉독, 특히 복음서의 봉독을 금지하는 것은 빛의 자녀에게 빛을 차단하는 것이요, 일종의 파문을 내리는 것이다.

‘비오 6세는 신앙의 가르침을 이렇게 강조했다.’

1567. -67. 진정한 무능력만이 성경봉독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가르침, 그리고 종교의 중요한 진리 위에 있는 이러한 일종의 규정을 잇고 모호함이 더 보급되었다고 부언하는 가르침은 거짓이며, 무모하게 인간의 평온을 앗아가는 것이고, 이로 인해 케넬의 사상도 이미 단죄받은 바 있다.

‘비오 7세는 이렇게 가르친다.’

177 1604. -지나치게 | 진보적인 성경번역으로 자국어를 통해 대단히 많은 불규칙성, 변화, 교체 등이 있음이 입증된다. 하느님의 증거에 적합한 그런 불변성이 확실히 전복되는 듯하고, 특히 교의의 진리를 단지 한 음절을 토대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단자들은 항상 그들의 사악하고도 증오심에 찬 계락을 삼입하는 습관이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성경 번역본들의 독특한 상이성과 불일치에 관해서는 그들 스스로 상호 비난하고 신랄하게 독설을 퍼붓는다.) 자국어로 출판된 성경은 하느님 말씀을 가장 거룩한 장식으로 둘러싸

자기네 오류를 감춘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다. “실상 이단자들은 위대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만 생겨났고, 성경에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무분별하고 경솔한 방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더욱이 신심과 지혜에 있어 가장 명망있는 사람들이 곧잘 성경해석에서 실수한 일로 우리가 가슴 아파한다면, 특히 분별없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서툴기 짝이 없는 대중에게 어떤 속어로든 번역하여 성경을 자유롭게 읽으라고 내어준다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레고리오 16세도 이렇게 가르친다.’

1630.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이래 잘 알려진 이단자들의 전형적인 술책은 다음과 같다. 전수받은 하느님 말씀을 부인하고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거부하며, 성경본문을 조작하거나 그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한다. 끝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력(功力)과 지혜가 요구되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성서위원회에서 마련한 번역본에는 많은 번역가의 기만이나 무지로 아주 중대한 오류를 퍼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오류는 번역본이 다양하고 많이 보급되어 많은 해악을 지닌 채 오랫동안 은폐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그런 종류의 번역본에서 독자들이 어떠한 오류를 섭취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비록 성경의 의미에 대해 무모하게 판단하고, 교회가 교부들의 사상에 따라 부지런히 수호하는 성전을 경멸하며, 동일한 교회의 교도권을 부정하는 데 차츰 익숙해지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수호하며 장엄하게 결론을 내린다.’

1631. -결국 이와 같은 성경학자들의 조류가 교회와 베드로의 성좌를 계속 중상모략하고, 마치 이미 수세기 전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 신자들을 멀리하도록 애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위원회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좋은 뚜렷한 증거가 있고, 최근에는 교황들과 또 그들의 인도하에 가톨릭 주교들은 글을 쓰고 전승된 하느님 말씀을 통해 가톨릭 신자를 활기차게 가르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7장 성경에 관한 활동

178

저술가 사도는 성경에 관한 기획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도록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급하기로 굳게 다짐한다. 실제적으로 그는 성경 출판, 해설서¹ 출판, 인격형성에 관한 출판으로 자신의 활동을 구체화할 것이다.

성경 출판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쓰신 편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가닿아 그들이 성경을 알게 하려는 열망을 품어야 한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만이 |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성경, 그리고 완결본을 이해할 수준이기 때문에 사도는 성경의 출판, 번역본, 요약본, 거룩한 역사서에 관해 일반적이고 특별한 필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79**

주석이 있는 번역본은 대중 라틴어 성경 본문을 다양한 언어로 충실하게 옮겨야 한다. 모든 번역본은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의 저서에서 발췌한 역사적·윤리적·사목적 특징이 있는 각주를 실어야 한다.

학교용과 가족용으로 출판된 요약본은 족보나 폐지된 법령, 학자들만이 관심을 갖는 부분을 빼거나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

1. *해석서.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요약본에도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한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의 거룩한 역사 전체가 실려있어야 한다. 사건에는 역사적 배경을, 예언서에는 시대적 상황을, 지혜서에는 그들의 위치를 설명하여 성경의 틀을 충실하고 효과적이며 좋아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은 매력적인 형태로 그림을 곁들여야 한다. 어린이들과 단순한 이들이야말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자세를 가장 잘 갖춘 이들이다!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요약본[=부분 출판]은 풍부한 입문과 주석을 곁들여야 한다.

- 180** 이들 가운데 첫 자리는 책들의 태양, 신앙의 |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전례의 가장 아름다운 부흥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요불가결함과 매일의 독서를 형성하는 복음서가 차지해야 한다.

해설서 출판

해설서는 성경이나 성경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분명한 방식으로 시작하고² 주석하고 설명하고 옹호하며 적용하는 등 모든 출판을 뜻한다. 출판물은 그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해진다.

-입문: 성경 전체 또는 특별히 몇몇 부분에 대하여

-설명: 예를 들어 다윗, 유딧, 막달레나 같은 몇몇 성경 인물에 대하여

-관계[에 관한 연구]: 성경과 세속 학문, 거룩한 학문, 역사와 예술과의 일반적이고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2. * 소개하고.

-다양한 저술 또는 해설, 화보집: 성경의 요점이나 진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책,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기사 등

-성경의 인용...: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저술가들은 그 저술과 설교집에 성경구절이나 인용문을 늘 삽입했으며, 어떤 이들은 독창적으로 편지 전체를 성경 인용의 조합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출판사도는 이러한 좋은 전통을 새롭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181**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은 성경으로써 설명한다.”고 했다. 반대로 하느님을 인간으로 대체시킨 책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사도는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더는 사도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교회 정신이다.

선택한 구절을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성경의 모든 책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근동의 형식이나 사고방식, 신학, 히브리식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테면 매우 깊이 있는 사상과 매우 아름다운 시로 엮어진 예언서부터 읽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책은 창세기, 그다음은 탈출기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권의 책에서 선택한 부분들, 열왕기, 역대기,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선택한 다른 여러 부분이다.”

“한편 룯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토빗기와 유딧기, 에스테르기도 그러할 것이다. 욥기는 최상의 철학적 노래이지만 아주 난해하다.”

“아가의 독서는 신비적 언어, 특히 근동의 언어를 잘 알아야 한다.”

182 “가장 숭고한 시인 시편, 잠언, 코헬렛, 지혜서, 집회서의 지혜를 맛들일 것이다.”

“예언서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별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복음서에 대한 권고사항은 오직 하나다. 곧 복음서를 읽고 또 읽어서 친숙해져야 한다. 사도행전은 매우 흥미롭다. 성 바오로의 서간은 아주 차원이 높고 자양분이 풍부하지만 난해한 구절들이 있기에 명쾌한 주석서가 필요하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톨릭 서간이다.”

“요한묵시록도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적합한 주석서를 따라 읽어야 한다.”

“어떤 구절들은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라틴어(대중라틴어 성경)와 그리스어(70인역 성경) 연구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

“공관복음서, 곧 합본 복음서의 이용도 권할 만하다.”

사도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성경 해설서를 준비하든 보통은 비판적이지 말아야 하고, 어떤 면에서든 새로운 학설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183 대중에게 | 하느님 말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하느님이 성경을 마련하신 사랑과 정신으로 준비해야 한다.

해설서는 학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소개해야 하고, 무엇보다 올곧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 지혜, 건전한 사회, 영원한 구원을 찾는 이들, 곧 ‘길 진리 생명’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만족

3. 「대백과사전 *Grande Dizionario Enciclopedico*」, a cura del Prof. Giovanni Trucco, vol. II.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서는 사목적 출판물이어야 한다. 사목적이라 함은 사도의 영혼으로 준비하는 것이기에 형태나 각주 선택에 있어 사목적이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엮가로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한 사목적인 것이다.

인격형성에 관계된 출판

성 대 그레고리오는 “성경은 우리의 영적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처럼 우리 정신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죄의 추함과 선행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완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는 표시가 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도 강조한다. “성경과 친밀해지지 않고서는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은 그대를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가 성경에 감싸여 있음을 느낄 때 성경은 그대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⁴

성 아우구스티노 또한 이렇게 말했다. | “거룩한 성경에 있는 **184** 모든 것은 위대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한 내 말을 믿으시오. 진리가 그 안에 모두 완전히 들어있고, 거기서 영혼을 기르고 우리의 힘이 될 탁월하고 고유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에 아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참된 종교가 요구하는 신앙과

4. * “Nemo potest sensum Scripturae sacrae cognoscere, nisi legendi familiaritate, sicut scriptum est: Ama illam et exaltabit te: glorificaberis ab ea, cum fueris amplexatus.”

신심으로 다가간다면 길어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봉독이 영혼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란다면 하느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활기찬 열망으로 성경을 읽고, 겸손, 신앙, 기도,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주 그리고 가능한 한 온갖 방법으로 성경의 중요성과 필요성, 읽는 방법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쓰신 글이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봉독은 중요하며 교회가 권고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곧 가난한 사람은 영원한 부를 약속하는 말씀, 자신의 궁핍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길어내기 위해,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건강한 사람은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다룰 것인지를 터득하기 위해, 병자는 힘과 인내를 길어내기 위해, 무죄한 사람은 선을 확인하기 위해,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스도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학자는 천상 지혜의 제자가 되기 위해, 단순한 백

185 성은 구세주를 더 잘 알고 |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결국 모두가 성경 안에서 그들을 향상시키는 좋은 말씀을 발견한다.

사랑과 진지한 신앙과 자신의 삶을 성경에 드러난 가르침에 일치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실하게 읽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느님의 책에 다가서는 이는 모두 저명한 프랑스 저술가 프란치스코 코페페(Francesco Coppee)가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잘것없고 무지한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순종을 내게 허락해 주십사 열렬히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거듭 읽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 다가오게 놓아두라고 하신,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어린이들처럼 나는 작아졌다. 나는 티베리아 호숫가의 어부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은 작은 뱃고물에 앉아 그 어부들에게 말씀하셨다. 차츰 거룩한 책에 쓰여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고, 성경 말씀이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 안에서 진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제시하는 독서의 순서 중 특히 세 가지, 곧 신학적 순서, 익숙한 순서, 전례적 순서는 권고할 만하다.

신학적 순서는 | 성경을 트리엔트공의회에서 정한 성경목록의 순서에 따라 읽는 것이다. 곧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탈출기 등 그리고 요한묵시록으로 끝마친다. 186

익숙한 순서는 많은 수덕신학 저자들이 권고한 순서다. 무엇보다 신약성경을 모두 읽고,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의 사고방식을 준비하는 데 가장 쉽고 가장 적합한 책인 역사서를 읽는다. 그 다음은 교훈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책인 예언서를 읽는다. 이어서 구약성경의 역사서, 그다음에 여러 지혜서와 예언서의 순서다. 전례적 순서는 전례를 통해 교회가 제시한 순서로서, 성무일도서와 미사 전례를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규칙은 거룩한 자모이신 교회가 보호하고 제시한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교회의 승인을 받은 본문만을 따르는 것이다.

제8장 교회 역사

신적 제정에 기원을 두지만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기도 한 교회 역사는 아주 특별하다. 한 편의 광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인간의 저항이 최상의 목적을 향해 경주한다. 곧 요한묵시록에서 천상 예루살렘이라는 밑그림이 그려진 승리의 교회 구도를 향하고 있다.

이제 일반적 의미에서 역사가 ‘삶의 스승’이라면 교회가 그 창립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특수 사명 때문에 교회 역사는 그 의미와 방법과 척도에서 특별하다.

- 188**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 세기를 통해 교회 | 역사의 그 신적 동기와 발전 그리고 그 결과를 염두에 둘 때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교회 역사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실천규범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가 깊이 꿰뚫고 있어야 할 개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논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개념, 이러한 개념의 발전을 전제해야 한다.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교회 역사

교회 역사의 신적 동기는 창립자요 머리시며 인도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 인류는 원죄의 탓으로 모든 초자연적 선물과 은총의 상속을 박탈당함으로써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천국에 도달할 희망 없이, 비참하게도 죄악의 가장 짙은 어둠과 절대로 재기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하느님은 죄지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를 복원하기를 원하셨으며, 신적 경륜의 끝없는 풍요로움 안에 구원계획을 실현하셨다. 지상에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가르치심으로써 인간을 다시 비추시고, 표양으로 길을 제시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다.

구세주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사명에 따라 **189** 인류의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분은 ‘길’이시다. 그때까지 이방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덕의 모든 본보기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길이 되셨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곧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계명과 복음적 권고를 완전히 준수하셨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분은 공생활 3년 동안 군중과 사도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진리가 되셨다. 교회는 이 신앙의 진리를 교의신학, 윤리신학, 수덕신학과 사목신학 안에 수렴하고 설명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인류가 잃은 은총을 되찾아 주시고, 성사와 기도를 통해 인간에게 그 은총을 다시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분 스스로 영원한 행복의 문이 되어주심으로써 생명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짧았으며, 팔레스티나라는 제한된 좁은 지역 안에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설교 초기부터 당신 주변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모으셨고, 당신 뜻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으며, 그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두머리로 선택하셨다. 가르침, 권한, 질서에 관한 당신의 신적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인간 구원을 완수할 때가 다가오자 그분은 당신 자신을 성체 | 성사로써 그들에게 남겨주셨고, 베드로를 우두머리로 정하셨으며, 사도들에게 세상에서 당신 사명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¹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창립하셨고, 당신 구원사명의 과제를 교회에 맡기시어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시간적으로 연장케 하셨다.

스승의 짧은 지상 일정이 끝나자 당신 신비체인 교회의 긴 일정이 시작되었다. 창립자요 우주의 으뜸이신 분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교회는 세기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진정한 수호자요 스승이 될 것이며, 그분 권능의 상속자요, 그분 몸과 그분 피의 보관소가 될 것이다. 지옥문은 교회를 거슬러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의 후계자들 안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교황은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²로서 모든 분쟁에서 최후의 발언을 하고, 진리를 오류 없이 정의(定義)하는 권한을 갖는다.

1. 마태 28,18-20.

2. 1티모 3,15: “Columna, firmamentum veritatis.”;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교회 안에 교황과 주교들과 함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윤리 지침, 다양한 학교가 아니라 유일한 학교, 곧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191

교회를 통해 갈바리아의 희생이 계속 새롭게 될 것이며, 성사가 집행될 것이다. 세례성사는 사람을 초자연적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견진성사는 사람을 굳건하게 하며, 성체성사는 그를 양육하고, 고해성사는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키며, 병자성사는 중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한다.

교회는 거룩한 성직자를 배출하기 위해 성품성사를 집행하고, 하느님의 자녀를 인류 안에 확산시키기 위해 혼인성사를 거행하고 축복한다. 교회는 하느님을 어떻게 흠송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발전을 통한 교회 역사

투쟁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창립자요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사명에 충실하도록 위탁받은 교회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인간의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면서 구원활동을 계속했고, 또 계속하고 있다. 성인들의 영웅적인 | 덕의 실천과 복음적인 삶으로써 교회는 192 ‘길’이 되었고,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진리’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통해 얻은 은총의 보화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이 되었다.

복음적 윤리 실천이라는 교회의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탄할 만한 것이다. 이민족이 들이닥치자 교회는 신속히 그들을 교육하고 진정시키고 중세 도시국가 시대를 준비하여 변화시켰다. 사실 도시국가의 깃발을 가져다준 사람은 교황 알렉산드로 3세였다.

연이어 교회는 황제들의 전제주의와 맞서 싸워야 했다. 이 전쟁의 가장 유명한 희생자인 그레고리오 7세는 유배지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으로써 승리했다.

다른 남용과 다른 스캔들이 교회를 황폐케 했다. 가장 심각한 예는 프랑스 혁명,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사회적 해악을 들 수 있지만, 교회는 항상 승리자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인간 사회에 그리스도교적 해결책으로 먼저 참된 자연적 처방을, 나중에는 초자연적 처방을 제시했다. 레오 13세³, 비오 10세⁴, 비오 11세⁵는 회칙으로써 이를 마음에 새겨 주었다.

당대 문명이 발달되고, 더 체계화되고 문명화 된 여러 나라는 이 **193 회칙들의 | 원칙에 많이 부응했다.** 이 여러 원칙들은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회칙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은 스스로 단죄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언제나 가정 성화의 모체였다. 사실 교회는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쳤고, 출생을 보호했으며, 순결을 수호하고 학교와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젊은이들을 교육

3. *레오 13세(1878-1903)는 60여 개의 회칙을 반포함.

4. *레오 10세(1903-1914)는 16개의 회칙을 반포함.

5. *비오 11세(1922-1939)는 28개의 회칙을 반포함. 1944년까지, 비오 12세(1939-1958)는 이미 6개의 회칙을 반포했는데, 그가 반포한 회칙은 모두 41개에 이른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기서 13개의 회칙을 반포한 베네딕토 15세(1914-1922)를 언급하지 않았다.

했다.

가정을 거부하는 노예제도를 철폐했다. 항상 고되고 느리지만 끊임없는 진보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다.

아주 중요한 업적은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법규라 할 수 있는) 로마법을 변형시킨 것으로서, 그 법조항 중 건전한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고 차츰차츰 그리스도교 법규로 다듬어 간 것이다. 더는 인간적 권위나 인간적 힘과 특권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권위, 종교와 신앙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법이 고안된 것이다. 성인들의 시성도 빛나는 업적으로서, 시성은 매번 윤리 발전의 위대한 일깨움이 되었다.

결국 교회는 사회, 가정, 개인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교 윤리 원칙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큰 열성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교회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관해 | 그리스도교 교리의 가르침, 194 설교, 출판 사도직, 사명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 곁에서 세기에 걸쳐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전파하면서 천상 스승의 계시적 사명을 계속해 왔고 또 계속하고 있다.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교회의 활동이 어떠했는지 알기 위해,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장해야 했던 투쟁에 대한 기억, 3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단과의 투쟁 기간 동안 그리고 루터와 트리엔트공의회에서부터 비오 10세에 이어 오늘 우리 시대까지 교회가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 신경의 각 조항은 이단과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대변해 준다. 그동안 열린 20여 차례에 걸친 공의회 중 가장 으뜸가는 것은 트리엔트공의회로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부인한

근본 교의를 정의했고, 성직자를 위한 로마 교리서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황의 무오성 교의로써 세상을 진정시켰다.

진리의 진정한 수호자요 스승인 교회는 언제나 모든 시대의 모든 오류를 폭로하고 단죄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세기에 걸쳐 교회 한가운데에서 출몰하는 마른 가지인 무수한 이단과 이교를 | 잘라버릴 필요가 있을 때 결연히 그 일을 감행했다.

신앙을 보존하는 활동에, 신앙을 유포하는 활동 또한 결합시켰다.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끊임없이 일했다.

성 베드로, 성 바오로와 사도들은 지역을 나누어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첫 선교사들이다.

이들을 계승하여 각 시대마다 선택된 열정적인 사도들과 선교사들의 무리가 줄을 이었고, 이들은 언제나 신앙과 가톨릭 선교의 중심인 로마를 머리로 삼았다.

교회는 말뿐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도 선교했다. 이것은 사도들, 교부들, 교회학자들, 교회 저술가들, 교황들, 성인들, 가장 열정적인 사목자들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네의 작품만을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방대한가! 하지만 그는 2천 권에 이르는 작품을 집필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모든 교의신학, 윤리신학, 수덕신학, 신비신학, 사목신학의 모든 학술서와 거룩한 학문의 모든 책을 추가해야 한다.

196 끝으로 교회는 구원을 통해 얻은 은총을 인간에게 | 나누어 주면서 성사와 가톨릭 경신례 분야에서 ‘생명’이신 천상 스승의

임무도 계속해 왔고 또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의 위대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곧 성사, 주로 거룩한 의식인 준성사와 기도다.

사람들에게 은총의 생명을 전달하는 데 교회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는 각 성사와 그리고 준성사와 전례기도의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교회의 목표는 항상 신자에게 정신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는 신심을 가르치는 것을 지향했다.

영원으로 향하는 교회 역사

순례하는 교회는 승리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며 그 나라는 끝이 없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⁶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널리 전하는 신앙, 복음의 가르침과 기도에 따라 마음에 새겨지는 계명 준수라는 초자연적 수단을 통해 하느님의 복된 기쁨, 소유, 비전, 초자연적 목적으로 인간을 인도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모으시는 것!”⁷이기에 | 한 개인이 아니라 **197**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신비체의 지체로서 인도한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다음에 선택된 이들의 머리이신 구세주가 먼저 하늘에 들어가실 것이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분을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한 이들이 무리를 이룰 것이고, 사랑

6. * 루카 1,33: “Et regni eius non erit finis.” 참조.

7. 에페 1,10: * “instaurare omnia in Christo, quae in caelis et quae in terra sunt.”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원히 그분을 소유할 것이고, 누릴 것이다.

실천적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침, 윤리, 성화라는 세 가지 행위로써 세상을 구원하셨다. 교회는 인류를 최종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치고, 판단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행위를 계속한다. 따라서 모든 완덕의 귀감, 우리 삶의 보상자, 진리의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저술한 것을 의미한다. 진리를 가르친 교회처럼, 덕으로 인도한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커뮤니케이션한 교회처럼 가톨릭교회의 역사를 쓴다는 의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곧 직접 또는
198 교회를 통해 | 원죄가 파괴한 것을 바로 세우는, 새 인간 그리스도인을 형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리실 것이고, 착한 사람은 평화를 누리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무엇보다 따라야 할 훌륭한 표양, 믿어야 할 진리, 참여해야 할 은총의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세 가지 역사라기보다는 유일한 역사의 세 부분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원칙 위에 견고하게 기초를 둔 저술가 사도는 교회 역사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은 실천규범을 따라야 한다.

1. 인간 사회와 그 생활환경을 지휘하고 판단하는 자연 원칙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피할 것.

2. 인간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듯이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유한한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늘 모든 요구에 응할 준비된 교회를 드러낼 것.

3.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은총을 첫째가는 최대의 선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문명, 과학, 다른 선은 교회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다. 반면에 으뜸가는 목적은 항상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⁸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적이다.

4. 교회 역사의 전 시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199** 첫째는 세상에 진리의 전파와 확립에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고, 둘째는 인간의 윤리적 향상과 성화 활동을 요약하며, 셋째는 전례와 기도를 전개하는 일이다.

나아가 각 부분에서 두 가지 요소, 곧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교회의 신적 요소는 인간을 인도하는 가르침, 윤리, 은총이다. 인간적 요소는 따르고 배우는 백성과 이들을 이끄는 교계제도다.

그러므로 한편에는 가르치고 성화하며 구원하는 교회의 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응답하려는 인간의 노고가 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시기를 통해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인간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기에 걸쳐 이어가는 일이다.

8. 요한 10,10: “ut vitam habeant et abundantius habeant.”

200

제9장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술가 사도는 어떠한 주제를 다루든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하느님께 더 큰 영광과 인간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 경향에서든 어떤 특별한 지적 경험에서든 특수 사도직에 대해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특수 사도직을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헌신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과 같다. 그 대신 내적 삶을 열렬히 사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일치와 관련된 주제를 놀라운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다룬다. 어떤 이들은 신학적·철학적·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201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관심 가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뤄야 하는 주제, 곧 인간의 가장 내밀한 열망에 이르게 하는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주제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제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신심, 곧 인간이 그분을 찬미하고 본받으며 마땅한 공경을 드리도록 참된 신심을 널리 전하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앙

이것은 마리아 신학의 대상, 곧 하느님 어머니의 존엄성에 대한 앎과 거기에서 유래하는 결과에 기원과 바탕을 두고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든 부분적인 면에서든 이러한 주제로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서적을 집필했고, 아직도 새로운 서적이 나올 여지가 많다. 이미 나온 것을 보존하고 전하며 우리의 감미로운 어머니를 알리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사도에게 주어진 몫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아주 방대하므로 더욱 다양한 저술에 이용될 수 있고, 모든 이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계시와 전통, 지상 삶, 가르침에서, 공경에서, 전례에서, 신심에서, 성전에서, 발현에서 성모님에 관해 고찰하는 내용 중 못다한 말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마리아에 관한 진리 가운데 모두가 |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매우 감동시키는 것은 하느님, 인간 창조, 특별히 각 개인에 대한 그분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202

하느님에 관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그분의 친족 관계의 고리, 다시 말해 성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따님은 강생신비의 활동에 협력하셨고, 성자의 어머니는 구원활동의 협조자이셨으며, 살아있는 성전, 특권을 누리는 성전, 성령의 신부시다.

창조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인目的因이자 형상인形相因이시다.

구원에 관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므로 인간의 공동 구원자시다. 구세주께서는 신적인 몸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인류의 머리시다.¹

특히 모든 사람에 관해: 비록 부차적이지만 그리스도인 삶의 표양과 공로의 원인이시고 은총의 분배자시다.

1. * 이 구절은, 첫 출판본에서 한 구절을 건너 뛰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맥상의 의미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 1950년 출판본에 첨부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본받음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특권에 대한 특별한 인식의 결과인 그분께 드리는 존경은 최고의 존경이어야 한다. 곧 본받는 것이다.

203 예수 그리스도의 완덕에 관한 드높은 신적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경탄할 것이다. | 그러나 영원한 말씀의 성성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성인들 가운데 강생하시어 (인간들이) 당신을 쉽게 분석하고(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본받도록) 하기 위해 거의 분해되셨다²(스스로 부서지셨다: 역주-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과정을 그렇게 묘사한 것).

이제 성인들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는 예수님 다음가는 가장 아름다운 귀감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 안에 사셨던 성령께서는 성모님을 성자의 살아 계신 복사본으로 만드셨다.

마리아께 다가가는 것은 곧 예수께 다가가는 것이다.

사도는 위대하고 위안을 주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에게 진리를 전달해야 하며, 천상 어머니의 덕과 모범을 본받기 위해 항상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진리에 고무되어야 한다. 마리아의 성덕은 엘저베르토 아빠스 Elgeberto Abate의 표현대로 은총의 보편성, 특권의 독창성, 탁월한 존엄성 때문에 성인들과 하늘의 천사들보다 무한히 뛰어나시다.

성 토마스는, “다른 성인들은 특별히 몇 가지 덕에 뛰어나다. 그러나 복되신 동정녀는 모든 덕에 뛰어나시며 그 덕 하나 하나에서 우리의 귀감이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시대, 모든 신분,

2. * ‘해체되었다 scomposta’를 ‘분해되었다 Decomposta’로 대체함.

특히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들의 귀감이시다.”라고 말했다.

복음은 마리아의 놀라운 덕성들을 | 예를 들어 소개한다. 동정 204
 녀의 몇몇 측면들에 대한 짧은 언급들이지만 그녀의 감추어진
 위대한 면모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번쩍이는 섬광과도 같다.

사도는 때와 장소에 맞게 거룩하신 동정녀의 내적 삶을 바라보
 도록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부분을 걷어 낼 줄 알아야 하고, 그
 분이 얼마나 단순하고 차분하며, 천사들조차 부러워하는 분이신
 지 드러내야 한다. 그녀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상이라 할,
 곧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본질, 다시 말해 “마
 리아를 통해 예수께 ad Jesum per Mariam”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와 공경

마리아께 대한 찬미와 본받음에서 공경을 떼어놓을 수 없다.
 공경은 미신이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가 바
 라는 정당하고 거룩한 것이다. 내적·외적 공경, 사적·공적 공경
 은 깊은 존경, 절대적 신뢰와 자녀다운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 존
 경은 하느님 어머니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또 거기서 도출되는
 결과에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그녀가 하느님과 동등하거나 은총
 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그녀를 풍요롭게 한 특은을 통해 그리고
 모든 | 은총의 분배자라는 직무를 통해 그분 안에서 하느님께 205
 영광을 드리게 한다. 강생하신 말씀께서 어머니로서 존경하시고,

성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딸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성령께서 사랑의 성전으로 바라보시는 그분께 드리지 못할 공경이 과연 있겠는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신뢰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힘과 어지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분의 중개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다.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그분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시고 또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인 우리 위에, 신비체의 머리인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 성자께 주신 애정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어머니의 어지심, 산고로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의 어지심은 그분께 공동 구속자라는 칭호를 드리게 했다.

마리아의 위대함, 덕과 특권을 흠족해하며 거룩한 동정녀의 신심이 모든 이의 마음을 차지하고 불태우기를 열망하는 기도와 자애로운 사랑. 우리에게 유익한 선익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고마운 사랑.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마리아의 뜻에 합치시켜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일치 사랑.

마리아에게 대한 공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그 자체로: 그분의 정당성, 본성과 본질적 행위들, 결실과 필요성

206 -그분께 드리는 전례적 예식을 통해: 마리아에게 바치는 거룩한 시기, 그분을 공경하며 바치는 기도와 찬미

-세기를 통한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문학과 예술이 우리에게 증명한 것들

-마리아에게 드리는 특별한 신심을 통해: 마리아의 특별한 계시

나 특은의 대상이 되는 다채롭고 수많은 신심과 비록 교회가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하게 놓아둔 신심은 교회가 승인하고 통괄한다. 그 가운데 일부는 마리아의 자비에 토대를 두고 있다(영원한 도움의 성모,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 섭리의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 어진 의견의 성모께 대한 신심, 위로자 마리아께 대한 신심,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 세 번의 성모송 봉헌). 다른 신심은 특히 그분과 구세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예수 성심을 위한 성모 신심, 거룩한 성체를 위한 성모 신심).

또 다른 신심은 특히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관점에서 마리아를 칭송한다(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또는 사랑의 거룩한 종들의 여왕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

이 모든 신심에 추가해야 할 것은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현대적 신심(기적의 메달, 루르드의 원죄 없으신 성모님 메달)과 마리아의 표시를 몸에 지니는 신심(마리아의 스카폴라에 대한 신심, 마리아를 기리는 순례)이다.

이러한 신심에 마리아를 기리는 신심단체(젊은이를 위한 마리아 수도회, 마리아의 딸들), 마리아의 전국대회와 국제대회가 있다. **207**

이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모든 시대가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라고 할 수는 없다. 사도는 “마리아께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³라고 한 성 베르나르도의 말을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어디에서든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찬미, 본받음과 공경을 설명할 모든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죄인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하고, 자비의

3. “De Maria nunquam satis.”

여왕께 그들을 의탁해야 한다.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많은 신심행위 가운데 몽포르의 복자 그리뇽Beato Grignon de Montfort이 제시한 ‘마리아께 드리는 완전한 봉헌’이라는 신심, 곧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심에 마땅한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장 거룩한 신학

209

성경과 성전Tradizione 다음으로 신학은 저술가 사도가 마음 써야 하는 학문으로서 성직자를 위한 필요성, 신자들을 위한 유용성을 알아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할 몇 가지 실천규범을 따라야 한다.

사목자를 위한 필요성

사목자 양성에서 거룩한 신학 연구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신 데서 입증된다. 성 바오로는 사목적 소질을 열거하는 가운데 학문을 포함시켜 이를 명시했다.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이 이를 나타내고 | 사목자의 존엄성과 인간의 영성적 필요가 이를 요구 **210** 한다.

참된 사목자가 모범적인 태도와 지식, 특히 신학적 지식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그의 가르치는 직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비로소 그는 계시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사명과 하느님 앞에 있는 양심의 판관이라는 사명에 부합할 것이다. 하느님 백성은 사제에게서 교의적·윤리적 개념을 길어내며 올바르게 사는 규범을 배운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¹ 그러므로 거룩한 신학의

연구는 사목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교의신학 연구는 사목자가 거룩한 설교를 할 때 교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총체적인 규범을 통해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시대의 필요에 대면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신학 연구는 사목자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고, 상처를 치료할 수단을 습득하게 하며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나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통해서 그를 완덕으로 이끌어 준다.

211 끝으로 신학 연구는 사목자 스스로 그리스도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는데, 이방인의 |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준 권고를 따른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²

신자들을 위한 유익함

신학은 으뜸가는 학문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학문이다. 사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³

신학은 신앙 정신을 고양시켜주므로 품격을 높여주는 학문이고, 모든 정의의 토대요 뿌리로서, 신학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1. 말라2,7: * “Labia enim sacerdotis custodient scientiam, et legem requirent ex ore eius.”

2. 1티모 4,16: * “Attende tibi et doctrinae: insta in illis. Hoc enim faciens, et teipsum salvum facies, et eos qui te audiunt.”

3. 마태 4,4.

헤드리며 신자들의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학은 지속적인 힘과 위로의 원천이다. 지복직관의 여명이요, 징조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⁴ 비록 너울에 가려져 있으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느님의 심오함을 꿰뚫어 알게 하고, 한 분이신 삼위의 하느님을 알게 한다.

더 나아가 신학은 하느님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렇다면 성 바오로의 말씀이 명확해질 것이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⁵ 끝으로 신학은 은총에 참여함으로써 |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어 이방인의 사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⁶

212

신학에 관한 지식은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더 나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이를 비추어 주고 강화시키며 구원하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우리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 말씀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⁷

4. 요한 17,3.

5. 1코린 4,16: * “Imitatores mei estote, sicut et ego Christi.” 더 정확한 것은 1코린 11,1을 보라.

6. 갈라 2,20: * “Vivo autem,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

7. 마태 16,26.

실천적 규범

신학을 소개하는 최상의 방법에 관해 모든 사람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에 주목하게 되는데 첫째 경향은 통합하고 요약하며, 모든 것을 간략하게 하는 데 비해, 둘째 경향은 구분하고 세분하는 경향을 띤다. 둘 다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글쓰는 이의 의도와 목적에 달렸으며, 또 그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게 달렸다.

둘째 경향을 따르는 사람은 신학 전문가들로서, 학자들과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일반 대중을 지도하는 경우는 —이것이야말로 출판사도의 주요 213 사명이다— 논쟁과 비판을 피해야 한다. 항상 | 교회가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를 제시해야 하며, 그 진리를 모두 주어야 한다. 독자들의 정신을 비추는 것만 찾지 말고, 그들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은총의 샘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 또한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의신학 측면에서 가르치는 교의를 고수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사와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은총의 도움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윤리신학 측면에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자신을 맡겨야 함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신학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이 라틴어를 알고 있다면 라틴어를 써야 하지만, 대중을 위한 것이라면 대중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좋은 해설을 이용하는 것은 유익하다.

나아가 신학은 언제나 가톨릭교회가 전수하는 성경과 성전 Tradi-

zione인 원천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설, 논리의 증명과 합당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고, 특히 독자가 이를 요구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

사도는 특별히 교리서와 더불어 교의신학, 수덕신학, 신비신학과 사목신학, 논문, 교양서적, 상황이 요구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신학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제11장 수덕신학과 신비신학

출판사도는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의 이론과 실천에 관해 ‘네 가지 큰 인간 범주’에 직면할 수 있다. 곧 반대자들, 무지한 이들, 무관심한 이들과 내적 삶에 목마른 사람들이다.

반대자들과 맞설 때는 ‘수호활동’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무지한 이들과 무관심한 이들에 대해서는 ‘계발과 격려’의 활동을, 열정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실천적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수호활동

우리 시대에도 어떤 조건에서든 묵상, 기도, 내적 삶을 목말라
215 하는 사람들이 있고 | 그리스도교 수덕신학과 반대되는 사상과 삶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가끔 수덕신학에 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 활동과 물질적 쾌락이라는 이교적 개념은 정신의 우월한 가치와 가장 고귀한 선을 손상시키고 강렬한 쾌락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특히 이교적 사고방식을 일으키는 개념은 젊은이들 안에 침투하여 삶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추하게 만들고 파멸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수덕-신비적 원칙과 대단히 훌륭한 귀감, 곧 성인들을 거슬러 영성은 위선이며 삶을 부정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건강을 악화시키고 자연을 해치며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를 파괴한다고 비난

한다.

때로는 참된 비난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과 이와 유사한 반론에 대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논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 주제는 항상 그리스도교 영성의 가르침과 실천을 설명하고 옹호해야 한다.

철학과 과학에 근거를 둔 경험에 의해, 특히 신앙에서 빛을 받은 논리,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제를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때에 제시할 것이다.

한편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톨릭 원칙을 확산시키고 재강조하면서 비난과 반론에 대부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216** 그리스도교 수덕은 고유한 삶의 조건에 따라 실천하며, 자신을 다스리고 물질적 재화의 올바른 사용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놀랄 만큼 강하게 하고, 개인을 위해 형언할 수 없는 만족, 가정 복지, 국가를 위한 번영의 원천이다. 수덕은 사람 안에 뿌리내린 종교적 감정의 결실로서 삶의 신성한 의미를 널리 전한다. 그리고 육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결작, 영혼의 도구 이기에 가장 고귀하게 여기며, 은총으로 의롭고 정직한 사람 안에 거처하시는 하느님의 성전인 육체를 존중하도록 설득한다.”

“이러한 정서에서 품위의 의미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전혀 위선이나 인위적 또는 상투적인 상부구조가 아니라 악의 유혹에 대항하는 견고한 방어요, 인격의 아름다운 장식이며, 자신 안에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싸우는, 윤리적으로 건 강한 인간의 자발적이며 필수적인 자기 표명과정과 같은 것이다.”¹

1. Cavassa, 「그리스도교 수덕과 현대생활 *Ascetismo cristiano e vita moderna*」.

계발과 격려 활동

반대자들과 비판자들보다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들이 더 많다.

- 217** 물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 영성적 학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수덕신학에 관한 글을 전혀 읽지 않았음에도 완덕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비록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구엘 몰리노스²와 귀용 부인³이 그 예다.

이러한 예는 좀 지나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완덕에 대해 모르거나 편견 때문에 완덕의 길로 투신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되기 위해 은총의 상태에서 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죄만 피하면 된다고 달리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완덕을 소수의 특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도하려 하지도 않는다.

수도자들과 사제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내적 삶이 고귀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이를 포용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이는 그러한 삶을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을 앗아가는 명어로 여기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영웅적인 열정으로 성덕의 길에 투신
- 218** 했다가도 | 결국 단념하고 마는데, 패배로 낙심하여 이렇게 투덜

2. *Miguel de Molinos(1628-1696), 스페인 신학자로서 정적주의로 기소당한 그의『영성 안내*Guia Spirituale*』를 통해 단죄됨.

3. *J. M. Bouvier de Guyon(1648-1717), 프랑스 신비가. 그 또한 정적주의로 기소됨.

거린다. 불가능한 일이야! 역류를 헤쳐 가는 꼴이야… 하느님도 너를 버리고, 사람들도 너를 버렸어. 늘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풍부한 경험과 능력에서 나온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을 통해 사람들을 계발하고 격려해야 한다.

권위와 신앙에서 빛을 받은 논리에 토대를 두면서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더는 은총 안에 머물 수 없다. 영성생활에서 진보하기 위해, 적어도 복음적 권고 중 몇 가지를 어느 수준까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적 삶의 실천은 주어지는 희생을 점차 기뻐하게 된다. 천상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⁴ 그리고 이 거룩한 멍에는 세상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많은 경우 삶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의혹의 고뇌, 후회, 비탄…)을 쫓고,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전혀 관련 없는 고통을 가라앉히고 가치를 부여한다.

대부분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영성생활은 합당한 모든 기쁨 곧 (자연에 대한 관상, 학문의 기쁨, 예술의 깊고도 황홀한 감미로움, | 아주 다양한 지상의 선물과 열매의 맛, 가족에 대한 기쁨, 219 건전한 오락에서 오는 즐거움)을 허용할 뿐 아니라 향상시키면서 강화시킨다. 영성생활 자체는 아주 순수하고 표현할 길 없는 기쁨이라는 보화, 하느님을 소유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결과를 낳는다.”⁵

4. 마태 11,30.

5. Cavassa, 「그리스도교 수덕과 현대생활 *Ascetismo cristiano e vita moderna*」.

지도자의 역할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내적 삶을 열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끔 실의에 빠져 좌절하고 길을 잃으며, 또는 모호하고 무분별한 감상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하느님께 각별한 선물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느님과 일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비록 냉담은 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러한 관계를 형성한다.

사도는 사람들의 권리 회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그들을 완덕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하면서 영성생활의 이론과 실천의 세 가지 길, 곧 정확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를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과 단체, 일반신자 또는 특정 신자에게뿐 **220** 아니라 특히 수도자들과 사제와 같은 | 완덕을 지향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전념해야 한다.

수도자들은 그들의 신분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의무는 세 가지 서원과 자기 수도회 회헌에 바탕을 둔다.

사제들 역시 영혼을 성화시키는 책임을 맡은 자기네 직무와 사명을 통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모든 권위 있는 문헌에 비추어볼 때 사제는 수품 전에 일정 단계의 성덕을 갖추어야 하고, 사제가 된 후에는 항상 더 높은 완덕을 향해 계속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실천적 규범

사도는 수덕적 또는 신비적 주제를 다루기 전에 지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적인 면에서는 수덕신학과 신비신학, 그 신학의 원천과 토대(교의신학과 윤리신학)에 관한 깊고 진지하고 철저한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

윤리적인 면에서 사도는 보통 이상의 완덕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 마음에 관한 깊은 체험과 은총의 초자연적 | 영향으로 그 **221** 마음에 일어난 다채롭고 놀랄 만한 효과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마음, 현명과 비추임 받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분별력 없이는 활동을 완수하는 데 위험이 따를 것이고, 헛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⁶ 그리고 사도는 자기 자신과 사람을 위해 쓸데 없는 의문과 완덕의 본질에서 빗나가게 하는 위험한 무질서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항상 교회의 일반 가르침에서 길어내고 확실한 원천, 곧 성경과 성전, 신앙과 체험에서 빛을 받은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 물론 성경에서 영적 가르침의 요점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가르침, 계명, 권고, 기도와 예화의 형태를 취한 풍부한 문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통상적인 장엄한 교도권을 통해 드러나는 성전Tradizione은 출판사도에게 성경을 보충하듯이, 성경을 진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며,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진리를 제시한다.

신앙의 빛으로 인도되고 완벽해진 논리는 성경과 성전의 자료를

6. 정적주의자들과 거짓 신비주의자들의 역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

222 정리하는 데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성인들이 어떻게 영성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원칙과 일반규칙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사람들의 기질, 성격,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신분상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또한 영의 식별에 관한 규칙에도 주의하면서 은총의 초자연적 매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도는 인간의 능력뿐 아니라 인간 전체, 곧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닌 인간 완성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동시에 인간이 믿어야 할 진리, 따라야 할 길, 자기 소명에 따라 믿고 활동할 은총을 하느님에게서 얻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영성생활은 방법이 아니므로 성령께 기민하게 순응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영성생활은 무질서하지 않으므로 잘 알려진 좋은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좋은 방법을 제때에 적용하게 되면 성숙함과 완덕,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로 이끌어 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 안에 한몸이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일치를 이루는 삶, 그분을 향해 영적으로 들어 높여⁷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의 토대요, 뿌리라는 근본 요점을 항상 강조해야 한다.

7. * ascési(그리스어 áskesis = 윤리적 투쟁에서 유래함)는 분명히 여기에서 ascensioní(고양)를 의미한다.

제12장 전례

223

전체적인 면에서든 부분적인 면에서든 항상 종교문화의 풍요로운 보화, 윤리적 가르침이라는 건강한 목초, 은총의 부요하고 풍부한 샘을 제시하는 예술과 전례학은 사도에게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성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가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에 따라 전례적인 모든 시도 안에서 전례에 대한 지식, 사랑과 전례적 삶의 실천을 보급하기로 결심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전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교 초기에 잔인한 로마 황제들이 | 신생교회를 유혈로 224 억압하는 동안 다양한 동기에서 비밀규율이 필요했던 반면, 전례 문헌은 매우 축소되었다. 당시에는 대중에게 전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신자들이 자연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전례 언어와 의식을 잘 이해했으며,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신자들은 미사 전례의식과 주요 성사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자유를 선포한 후, 전례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례의식이 복잡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례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특별규칙이 필요했고, 그 결과 첫 전례서가 나오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전반적으로 문학이 쇠퇴했는데, 전례에서도 이를 느끼게 되었으며, 새로운 세대는 전례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어서 해석, 억압, 단순화와 개혁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윽고 18세기의 오류들¹이 전례지식을 훼손시키며 신자들을 장엄한 전례거행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교황들은 거룩한 전례적 토대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225 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 그들의 후원으로 | 특히 경신례의 내적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위대한 부흥작업이 전개되었다.

그와 동시에 전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례의 역사적 평가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필사본과 단행본 또는 전집으로 출간된 고대 전례서적의 탐구가 급증했다. 이러한 작업에서 단연 우위를 차지 한 것은 성직 수도자들, 학술모임 임원들과 개별 연구가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베네딕도 회원들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다.

그 후 20세기 초, 전례 사도직 운동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황 비오 10세는 근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경신례의 경건한 의식의 신적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전례와 연계되는 —전례에 대한 [멜로디와 음악적] 표현— 교육을 하면서 성음악에 대한 ‘자의교서’² Motu proprio²로 교황의 첫

1. * 세속문화 부분에서는 무신론적이고 혁명적인 계몽주의, 가톨릭 분야에서는 안세니즘.

2. *「사목 직무에 대한 염려」*Inter pastoralis officii sollicitudines* (1903).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전례부흥을 향해 방향을 잡은 다른 개혁에 착수했다.

베네딕도 15세와 비오 11세는 이러한 재건운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교황들의 호소는 주교들, 종교단체, 출판물 등을 통해 큰 지지를 얻었고, 민중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출판물, 잡지, 신문들의 개화기를 맞게 되었다. 전례주간이 확산되어 그리스도교 쇄신의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운동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큰 진보를 가져왔다. 사목자들을 위해서나 민중을 위해서나 거룩한 경신례의 공적 조직은 계속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분야였다. **226**

사목자들 가운데 많은 이는 아직도 전례연구를 그저 기술적이며 예배의 장식부분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전례의 참된 연구는 학술분야가 실천분야를 선행(先行)하며 역사-주석방법에 토대를 두어야 했다. 실천은 분명 필요하지만 한 부분일 뿐이다. 학술은 방법론적 연구를 통해 예배행위에 대한 이해, 이성적 인식을 제공할 것이다.

역사-주석방법은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역사적 방법은 전례개혁을 거듭하면서 진보하는 가운데, 전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서 하느님께 드린 확고한 경신례, 자기 고유의 목적을 지닌 독립적인 참된 신학학문임을 입증할 것이다.

주석방법은 의식, 예절과 형식의 의미를 제시할 것이다. 그 의미가 고유한 본성에 따른 것인지, 처음부터 기원이 그런 것인지 또는 제정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 주관적이거나 이상 **227**

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참되고 과학적인 상징 주의라는 것이다.

전례학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식을 심화시킨 성직자는 대중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쉽게 알아듣도록 가르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전례는 닫힌 책이 되어버렸다! 사회적으로 모든 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례를 반대하는 이들 외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전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그밖에도 대다수의 사람이 ‘전례’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 넓고도 심오한 의미를 무시하고 전례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고작 신학생들이나 새 사제들의 관심거리라고 밀어놓는다.

그러므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가톨릭 연맹이나 신심단체로 활동 범위를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례는 복음서처럼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 해설과 적용에도 충실해야 하며, 그 활동을 모든 사람에게 확산시키고 본당, 곧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나아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요, 인간
228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 우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정한 분야에서 그리고 경신례의 모든 체계, 일치와 유기적 통일의 개념을 통해 경신례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전례에 대한 사랑

의지의 일치에 이르기 위해 종교적 진리는 먼저 지성의 동의와

마음의 감동을 얻어내야 한다.

사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신과 복음이 선포하는 가르침에 대해 매력을 느끼면서도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지만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생생한 사랑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전례에 대한 사랑은 전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깊은 통찰에서 솟아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랑은 전례학에 대해 특별히 탐구할 가능성과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대중뿐 아니라 성직자와 학자들도 전례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에 앞서 외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전례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 먼저 전체적인 개념, 이론적 진리와 윤리적 완전함을 결합하는 내밀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전례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한 필요성, 위대함, 아름다움, 감미로움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29

실제적으로 경신례에 대한 설명과 신자들의 전례예식 참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효력을 제공한다.

경신례에 대한 설명은 전례예식과 규범의 내적 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이끌어 준다.

전례 참례에 대한 관심은 사제권에 유보된 행위를 수행하도록 의무지워진 성직자뿐 아니라, 사제가 행하는 최상의 직무인 전례예식을 통해 은총과 일치를 얻는 평신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텅 빈 형식주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주는 수단, 고풍스러운 관습이나 미적 요소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생생하며 애정이 담겨야 한다.

이와 같이 전례는 “미처 몰랐던 심오하고, 놀랍고, 조화로운 진리를 밝히 드러낼 것이고, 광대한 지평을 열어줄 것이며, 아름다움과 영적 즐거움을 통해 인간을 고양시킬 것이다. 또 전례야말로 인간이 가장 절실히 느끼는 필요와 가장 고귀한 열망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례를 살 것

230 | 전례에서 학문적 만족이나 시적 만족을 찾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학문과 예술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전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전례는 살아있고 또 살게 만드는 것이요,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 그 자체다. 이 때문에 그분은 스승, 제사장, 번제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곧 인간의 길 진리 생명으로 당신과 교회 안에 계속 현존하신다.

그러므로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 성덕의 학교, 은총의 샘이다.³

하느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전례 안에서 틀을 갖추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나누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안에서 모든 전례 모임을 뚜렷하게 이해하게 하는 세 명제를 발견하게 된다.

3. Finalpia, 「전례 잡지 *Rivista Liturgica*」, 1935년, 1938-1939년 참조.

4. 사도 2,42: * “Erant autem perseverantes in doctrina Apostolorum et communicatione fractionis panis et orationibus.”

세 명제의 용어 중 하나는 ‘가르침 Doctrina’이다. 기록한 교부들이 신자들을 계속 교육한 것처럼 교회도 전례를 통해 계속 교육을 한다.

그렇다면 전례서에 담긴 하느님 말씀의 원천은 무엇인가! 매일 출판시장을 공략하는 다양한 성격의 서적인 잡다한 많은 오물을 대면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성무일도서, 미사 전례서, 예식서와 | 다른 모든 전례서에는 **231** 하느님 말씀의 찬란한 보물이 담겨있다.

구약성경에 있는 영감 받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소개한다. 성인들과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하느님의 말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실현된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비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 없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은, 아니 교회의 사상 자체는 조용한 설득력을 지닌 언어, 종종 말씀 자체보다 더욱 마음에 닿는 언어, 모든 기도 형태와 의식과 예식 안에서 활짝 꽃을 피운다.

성덕의 배움터: 성덕은 그 개념 안에 성별(聖別)과 확고한 봉헌, 곧 하느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 또는 단순히 이질적인 모든 것에서 하느님께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계된 일에 자신을 확고하게 봉헌함은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성화에 계속적 점진적인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장소, 시간, 사람과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전례를 통해 영원히 실현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성별과 봉헌의 탁월한 귀감이다.

232 이러한 성별과 봉헌의 배움터는 | 전례의 각 부분과 전례 전반에서 드러난다. 전례의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의 삶을 인간 안에 확장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지상 생애 동안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의 뛰어난 이상을 확산시켰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 것처럼 오랜 세기를 거쳐 전례를 통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인을 신비롭게 끌어당기신다.

은총의 원천: 전례는 교의를 표현하고 성성의 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성의 원천이다.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전례는 사람에게 신앙정신, 모든 자연계가 일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 찬미와 신뢰로써 하느님께 간청할 필요성을 촉진하며 하느님의 생명, 그 원천인 성성까지도 커뮤니케이션한다.

성성의 원천은 미사요, 이 미사를 통해 예수님은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되풀이하신다. 성사는 성덕을 거의 가시화하는 도구요 원천이다. 성사는 우리를 영혼의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혼에 생명을 주며, 거룩한 미사를

233 통해 효력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 행위다. 준성사도 하느님 어지심의 커뮤니케이션이며, 비록 부차적이지만 참생명의

5. 요한 17,23: “pro eis sanctifico meipsum ut sint et ipsi sanctificati in veritate… ut sint consummati in unum.”; * 요한 17,19-23 참조.

원천, 성성의 원천이다.

전례기도는 정화하고 비추어주고 견고케 하며 일치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전례기도는 교회의 기도요 모든 이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다. 출판사도는 전례 활동으로 전례적 삶을 알고 사랑하고 살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례 생활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도의 노력 또한 각 사도직 활동의 특별 목적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례생활을 해야 한다.

‘전례를 살게’ 하려면 위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전례를 다룰 때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신을 비추는 진리를 설명해야 하고, 의지를 움직이는 실천적 가르침을 찾아내야 하며, 하느님을 칭송하고 하느님과 하나되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전례의 본질이나 실천적인 면을 다루든,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루든, 사목자, 학생, 신자, 믿지 않는 이를 대상으로 하든, 대중을 향한 | 설명을 자세하게, 또는 간단 **234**한 형태로 전개하든, 역사적·교의적·수덕적·문학적·상징적 관점에서 생각하든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례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온전한 흠숭을 드리게 될 것이다. 정신은 알고 관상하며, 의지는 하느님께 생명과 존재를 봉헌하게 한다. 마음에서는 사랑이 솟어나오는 동시에 이러한 정성과 헌신의 노력이 깊이 스며들고 지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흠숭하며, 모든 사람 위에 거룩하게 하는 전례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제13장 거룩한 교부들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이라는 용어는 교회 초기 모든 주교를 가리켜 교부라고 부르던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고 세월이 흐른 다음 모든 신자에게 신학사상을 설명하고 수호하고 명확히 하고 전개하기 위해 영적 의미의 교부들이라고 확대시켜 생각하던 의미도 아니다. 이와는 달리 교회의 교부들이라는 칭호는 정통 사상, 거룩한 생애, 교회의 승인, 고대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가톨릭 저술가를 가리킨다.

교부들은 그들이 작품에 사용한 언어에 따라 동방교부와 서방교부로 분류된다. 또한 그리스도교 사상의 발전시기에 따라 사도교부들, 논쟁을 주로 한 교부들, 신학을 체계화한 교부들로 나누기도 한다.

236 이 교부들과 더불어 교회학자들, 다시 말해 교부, 신학자, 영적 스승의 권위와 탁월한 중요성 때문에 교회가 이들에게 영예로운 이 칭호를 수여한 이들이 필연적으로 합류된다.

사도는 이처럼 뛰어난 저술가들과 교부들, 사상가와 그들의 작품은 이미 죽은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비판자들의 사고에 동조해서는 안 되며, 학자들에게 유보된 것을 다룬다고 단언하는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그는 교부학의 역사적·문학적 시기에 속하는 거룩한 교부들은 거룩한 성전 聖傳의 증거자들이요, 개척자들이기에 모든 이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이에게 교부들을 제시할 것¹

거룩한 교부들을 모든 이의 손에 맡기려는 열망,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의 참된 보물을 학계, 학교,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밖으로 끌어내려는 열망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교부학은 19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꽃을 피웠지만 그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강력하여 다양한 기획을 통해 대부분 구체화되었다.

몇 권의 원서 출간으로 시작하여 차츰 귀중한 전집을 편찬하게 되었다.

널리 보급된 원서 전집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후르터Hurter의 237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 선집*Sanctorum Patrum opuscula selecta*」으로, 신학생의 교재처럼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본Bonn[= H. Rauschen, Bonn]의 「교부들의 문헌 발췌집*Florilegium patristicum*」과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비치니G. Vizzini가 편집한 「신학 입문자들과 일반 성직자들에게 적합한 거룩한 교부들의 장서*Bibliotheca Ss. Patrum theologiae tironibus et universo clero accomodata*」가 뒤를 이었다.

다른 기획들은 독서를 즐기는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독되던 것으로, 강의실에서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을 마음에 새겨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 전집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에 이르렀다. 처음 나온 작품은 옥스퍼드 운동Tractariani diOxford에 관한 것으로, 당대에 알려진 교부들의 저서 대부분이 들어있다.

1. 참조: 「가톨릭 문화*La Civiltà Cattolica*」, 1938년 10월호; * A, Ferrua S.J., 「모든 이를 위한 지극히 거룩한 교부들*I Ss. Padri per tutti*」-「가톨릭 문화」 89 (1938), vol. IV, quad. 2119, 46-57에 발표.

영국에서는 니케아공의회 이전 교부들의 작품이 번역되었고, 뉴욕에서는 니케아공의회 교부들과 니케아공의회 이후 교부들의 작품이 계속 번역되었다.

이와 유사한 계획이 독일에서 「교회 교부들의 장서 *Biblioteca dei Padri della Chiesa*」라는 표제가 붙은 작품으로 구체화되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종류가 나왔다. 이탈리아어 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거룩한 교부들의 목소리 *La voce dei Santi Padri*」로서 설교가들과 강연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거룩한 교부들의 선집이다. 번역된 교부들의 원서 전집은 이중의 목적, 곧 | 평신도 계층에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것과 특히 문학적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간된 것들 중 큰 성과를 거둔 피오렌티나 출판사의 「신앙서적 *I libri della fede*」과 국제출판협회에서 출간한 「고대와 현대 그리스도교 서적 *Le pagine cristiane antiche e moderne*」, 칸타갈리 *Cantagalli*의 「그리스도교 고전 *I classici cristiani*」 등이 있다.

238

최근의 것으로는 그리스 교부 원서와 라틴 교부 원서 전집이 이탈리아어 대역으로 출간된 「살레시안 교부 화관 *Corona Patrum Salesiana*」이 있는데 이는 각주와 서론과 색인까지 곁들인 것으로 학술적 작품과 순수 대중을 위한 보급 작품 사이에서 중도를 선택했다.

인용한 기획과 작품은 교부들의 생애와 작품을 보급하는 일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사도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항상 가톨릭 신자들에게 거룩한 교부들을 더 널리 알리는 일에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이가 교부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하며, 그들 작품에 담긴 풍부한 가르침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이에게 거룩한 교부들의 저서를 읽도록 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자들에게는 주석, 신학, 철학, 과학, 역사 등의 연구에 교부들이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사목자들에게는 | 교부들이 교의, 호 239 교론, 설교학, 윤리, 수덕과 전례 분야에서 자기네 양성을 통합하게 해야 한다. 신학과 교회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과목의 논문 안에 체계적으로 설명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풍부하고 더 순수한 개념을 포함한 원천에서 직접 길어내는 데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 종교서적 읽기를 즐기는 평신도들에게는 그리스도교 역사를 알게 하는 열쇠요, 영적 삶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는 안내서인 성경을 이해하고 맛들이기 위한 효과적인 도움을 교부들에게서 얻고 배우게 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긴 세월 동안 이어온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의 세속적 작품을 능가하는, 모방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교 작품을 알리자.

이단자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참된 종교를 사랑하도록 거룩한 교부들의 저서를 권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성전^{聖傳}의 증인들

모든 이에게 교부들의 저서를 권해야 하는 근본 동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과 교회의 가르침을 수집하고

해설하고 주석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신적 사도적 전통의 증인들이기 때문이다.

240 그들은 우리 종교를 구성하는 것, 다시 말해 신앙, 윤리, 경신례의 증인들이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교가 모든 시대의 역사-문화와 맺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교의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의 도입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난해하여 교회가 제시하는 의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설명을, 진리에 대한 구두 설명과 문서설명으로 그리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두전승으로 전해 내려온 계시된 진리를 정착시킴으로써 가능했다.

그뿐 아니라 교부들은 사적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탁자인 교회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교도권의 합법성을 문서화했다.

교부들은 하느님 계시의 본질과 순수한 의미를 지칠 줄 모르는 열망으로 열심히 계속 연구하여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냈다. 교부들을 통해 성경의 연구가 용이해졌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황금 웅변, 성 예로니모의 강력하고 확실한 폭넓은 지식, 성 아우구스티노의 탁월한 변증법, 성 바실리오의 고귀하고 진지한 가르침,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의 통찰력 있는 시를 안내서로 삼는다면 성경에 맞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241 교부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을 | 비취주는 참 빛이요, 오류의 어둠 사이에서 꺼지지 않는 햇불이요,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거룩한 불꽃이다. 그리스도교 역사, 그리스도교의 발전사와 이교를 압도하는 그리스도교 역사를 알기

위한 확실한 안내자다.

교부들의 편지, 그들의 논쟁, 변론은 그리스도의 불변하는 가르침을 비춰주는 가장 빛나는 거울과 같다. 그들의 가르침은 특히 이단의 공격에서 교회를 수호해야 했을 때는 구세주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거룩한 교부들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증인들이다. 교부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로써,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가장 다양한 은총으로 조화시킬 줄 아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이상형을 제시한다. 그중 일부는 활동가고, 일부는 학자다. 전자는 호교론자와 철학자요, 후자는 신학자와 신비가다. 대다수는 설교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강력하고 당당한 인격에 이러한 성향을 종합적으로 두루 갖춘 이들도 있다. 한편 모든 교부는 성인이다.

교부들의 작품에는 훌륭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충만하다. 그들 작품은 그것을 읽는 사람 안에 놀라운 효력을 넣는데, 그것은 그 작품의 저자들이 | 신앙의 순수한 본질에서 자양분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바로 그 원천에서 직접 그리고 풍부하게 길어낸 초기 정신에 흠뻑 젖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풍부함에서 자연적으로 신선함이 발산될 때에는 숙고하고 묵상한 것보다 풍요로운 경우가 자주 있다. **242**

교부들의 생애와 그 작품을 읽는 것이 가톨릭 윤리 연구 대상인 동시에 실천적 지침일 때 그 자체는 생생한 주석이 된다.

그밖에 거룩한 교부들은 내적·외적·사적·공적 경신례를 통해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참된 신앙 실천을 표양과 말, 작품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톨릭 경신례의 증인들이다.

그들은 어디에서든 그릇된 신과 거짓을 일삼는 신을 없애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어 가면서 참하느님께 드리는 경신례를 도입하고 건설하는 것을 지향했다.

특히 교부들은 가톨릭 전례의 발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경신례의 실천과 공적 기도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참된 정신 안에서 이를 실행하고 또 법규를 제정했다.

243 사실 구세주는 | 미사와 여러 성사 제정으로 신약성경의 경신례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 이후의 발전은 사도들과 또 그 후계자들에게 남겨주셨다.

교부들은 사도적 전통을 수집하고 보급하여 확장했으며, 또 그들의 저서에 그 전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례학, 전례의 원천, 전례문학과 그 역사의 기초를 남겨주었다.

교부신학과 교부 문헌학, 교부들의 생애와 작품의 연구는 출판 사도에게 인간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는 적합한 주제인 무한한 보화를 제공한다.

실천적 결론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은 신앙의 스승, 교의, 윤리, 경신례의 옹호자요 보급자, 호교론의 본보기, 확실한 주석가, 영성의 스승, 계시의 해설자요 수호자, 교회사의 원천이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이다. 그들의 작품이 시대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편적 문제와 논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며, 특별한 문제점을 다루었다면 논

리적 근거를 고양시키고 그들의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순수함, 교회에 대한 애정, 사상의 명료함 등은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따르게 하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244**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의 작품과 사상을 알리는 것은 지혜롭고 확실한 길로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보람 있는 일이다.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을 통해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의 저서와 사상을 알리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가치로우며, 인간의 선을 위해 유익한 것이다.

사도는 먼저 자신을 위해 그들 불멸의 작품을 읽어야 하며, 그런 다음 겸손한 자세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이 소중한 저서를 단순히 정신의 휴양이나 사색적 방편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과 모든 가치를 계속적으로 숙독한다면 그 안에 담긴 가르침과 지혜의 풍요로움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복음 정신, 사도적 정신, 교회 정신, 다시 말해 그들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는다면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주제, 목표, 기획에 따라 신학적·철학적·전례적·논쟁적 또는 역사적 성격의 주석을 갖춘 교부들의 저서를 원어나 번역본으로 보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언어로 번역된 완전한 작품 전집을 통해 대중에게 | 교부들과 그들의 저서를 알리는 일에 **245**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번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²

이렇게 하면 단순히 원문에 대한 독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적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원문의 사상과 문법 구조를 명확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소위 문학적 번역은 번역된 작품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번역본은 사상을 충실히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할 경우 원문의 표현양식도 드러나게 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완벽한 번역방법이지만, 특히 개인만의 독특한 문체를 사용하는 작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상을 전체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각주와 다양한 구분으로 풍요롭게 하고, 형태보다 사상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사도는 이런저런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각 사람의 유익을 찾아 모든 이가 풍성하고 순수한 이 원천에서 길어내도록, 모든 신자가 교부들을 알고 사랑하며 따르게 하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가톨릭 문화」, 1938년 10월호 참조.

제14장 교리교육 활동

246

교리교육 활동¹은 교회의 지혜로운 인도로 대중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활동과 노력 전반을 포함한다.

이는 사도직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에 첫째 가는 것인데, 그 까닭은 첫 교리교사요 가장 위대한 교리교사이셨던 천상 스승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교리교육이 가장 근본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 목적인 하느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고, 또 그분께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며 모든 사람, 신자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이다.

교리교육 활동은 언제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군중에게 주신 가르침에는 | 중심 주제가 있었고 **247** 유연함과 생생한 형태로 묘사한 교육학적·교훈적 근본규범이 있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뒤를 이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²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 삶의 이야기 안에 틀을 갖춘, 스승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세례를 주기 위한 교리교육이었다.

1. 본 장章은 Tonolo의 「교리교사의 지침서 *Il manuale della Catechista*」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함.

2. 마태 28,18-20.

사도들은 부제들과 몇몇 평신도의 협력을 받았다. 사도들 [결에] 교리교육을 위해 새로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을 모아 그들을 신자답게 살도록 가르치며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입교예식을 가졌다.

그후 중요한 교리학교가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로마에 세워져 교회 안에 탁월한 교리교사들을 꽃피웠는데, 그중에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 테르툴리아노,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구스티노 등이 유명하다.

중세 때에는 교리교육 계획이 현저하게 빈약해졌는데, 이러한 상황은 가톨릭 개혁과 교회의 규율과 법규를 바탕으로 트리엔트공의회에서 종교교육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기까지 248 계속되었다. 그후 교리교육은 유명한 교회학자들과 사목자들의 인도로 참되고 고유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로마의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밀라노의 성 카를로 보로메오, 파도바의 복자 그레고리오 바르바리고 등이다. 첫 교재 중 대단히 실천적인 작품들은 독일에는 성 피에트로 카니시오의 것이, 이탈리아에는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의 것이었다.

그러나 교리교육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긴 했어도 비오 10세가 회칙 「너무도 어려운 시대 *Acerbo nimis*」³⁾(1905)를 반포하여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위한 엄격하고 정확한 규범을 제시하기 이전까지는 가톨릭에 대한 참된 인식과 보편적인 방향을 정립하지 못했다.

출판사도는 모든 시도를 통해 교리교육 활동에 기여한다. 확신

3. * 이 회칙은 그리스도교 사상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포되었다.

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의 특수목적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교리교사에게 직접 협력하든, 특히 교리교육, 교리교사 양성, 교리교육기구 등 세 가지 큰 활동으로 협력하든(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 이러한 활동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교리교육

교리에 관한 가르침은 교리교사들과 피교육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리교사 직무는 본래 사제여야 한다. 그러나 좋은 교리교사가 되기 위해 | 훌륭한 신학자인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249 점은 교회법(교회법 1564§ 3)이 신학교에서 교리교육 방법에 관한 실습을 하도록 규정하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와 같이 ‘신학교 교육성’*Congregazione dei serminari*(편집자주: 오늘날의 ‘가톨릭 교육성’의 서한)에서는 성직자의 교리교육에 대한 양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므로 훌륭한 교리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직자를 위해서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사제들에게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화 활동에 교계제도와 공동 협력하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들에게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교리에 관한 가르침은 교리교사뿐 아니라 교리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식 문헌은 비오 10세의 두 가지 문헌, 곧 「그리스도교 사상의 교리 *Catechismo della dottrina cristiana*」와 「그리스도교 사상의 기본 요소 *I primi elementi della dottrina cristiana*」가 있다. 이 두 문헌은 지금까지 참고가 되었으며, 특별한 필요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문헌들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취하면서 실제로 설명, 기도, 삽화, 실천적 적용을 확장하거나 부유하게 할 수 있다.

250 교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 학교교육을 위한 길잡이로 이용해야 한다.

피교육자를 위한 가르침은 교리교재다.

양쪽 모두 적합하고 완전하며 방법론적이어야 한다.

사람들과 주변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비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를 대상으로 한 교리의 가르침은 당연히 이단자들과 이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어른을 위한 것과 어린이를 위한 것은 달라야 하고, 문맹인이나 무지한 이를 위한 것과 학생이나 지식인을 위한 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교리 내용은 ‘완전’해야 한다. 곧 가톨릭 교의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곧 신앙, 윤리, 은총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교리교육은 ‘교수법’, 다시 말해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저술가 사도는 좋은 모든 방법을 소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 순환방식을 선호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활동주의를 지적·조직적·협력적 그리고 생명을 주는 모든 측면과 결부시켜야 할 것이다.

교리교사 양성

교회가 의도하는 교리교육은 피교육자를 그리스도인 삶으로 양성하는 하나의 학교라야 한다. | 그러한 양성은 다분히 교리교 251 사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오늘날 ‘교리교사’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교리공부가 사제의 통제하에 앵무새처럼 외워야 하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리교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리교육이 부분적으로 학교와 같은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리교사는 사제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을 합당하게 완수하기 위해 특별한 소명과 양성을 받아야 한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 교회, 자기 장상인 사제에게 온순한 사람, 마음속에 “군중이 너무 가엾구나!”⁴라는 예수님의 탄성을 듣고 사는 사도적 영혼, 온유한 사랑을 지니면서도 다른 이들을 지휘할 줄 아는 용기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완전한 양성은 교리적 양성, 교육학적 양성과 내적 양성을 포함한다.

교리적 양성이란 가장 어렵고 미묘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고, 시골 학교에서도 필요하다. 삶의 동향과 많은 사람의 구원은 대체로 교리교육에 달려있다.⁵

4. * “Misereor super turbam.”: 마르 8,2 참조.

5. 비오 10세는 교리에 관한 훌륭한 회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와 같은 종류의 설교는 노고와 목상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다른 종류의 설교보다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기릴 만한 교육을 하는 교리교사를 찾는 것보다 유창하게 연설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설교자를

252 위에 언급한 양성에는 이중의 준비, 곧 먼 준비와 가까운 준비가 필요하다.

전자는 방법론적이어야 하며 가톨릭 교리의 세 가지 근본 부분인 신앙·윤리·은총,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거룩한 역사, 적어도 기본적인 교회 역사, 전례 역사, 교회의 전례적 삶을 포함한 종교교육의 전 과정을 요청한다.

후자는 각 수업의 직접적인 준비다. 교리교사를 위한 안내서, 일지의 활용과 지속적인 공부, 쇄신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교육학적 양성은 교리교사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다.

253 심리학과 교육학의 공부를 포함한다.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을 지닌 심리학은 교리교육에 적합하고 도움이 되며 완전하게 하는 방식을 가르칠 것이다. 현명하고 쇄신된 교육학이라면 사람에게 유익한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도록 자연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하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교리는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리교사는 아동 심리, 다시 말해 그들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세세하게 알아야 한다.⁶ 어린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으므로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본성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성찰을 통한 준비 없이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교리교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무례를 담보로 삼아 이러한 일을 태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중이 무식할수록 더 많이 연구해야 할 의무가 크고, 일반 서민의 지성에서 그렇게 숭고하고 그렇게 멀기만 한 진리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 더욱 근면해야 할 의무가 커집니다. 지식인들과 무지한 이들,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그들처럼 어린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시기에 자신에게 가장 감명을 준 일과 말을 기억하기 위해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교의적 교육학 양성은 내적 양성과 분리할 수 없는데 그것은 초자연적 효력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리교사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력한 기도에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결합시키는 능력을 갖추도록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교리교육 활동에 헌신하는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마련된 위의 규범에 따라 적절한 | 양성을 받은 다음) 교리교사 양성에 254 기여할 것이고, 또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피교육자의 양성에도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리교육 기구_{機構}

현행 교리교육에 관한 기구는 1935년 2월 11일, 공의회(현재 성직자성)에서 반포한 교령 「건전한 권고를 대비함*Provido sane consilio*」에 의해 마련되었고, 교리교육에 관한 지혜로운 대작이라 할 수 있다.

이 교령으로써 교리교육에 관한 조직과 방법을 더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 오게 되었다. 합법적인 관련기관은 로마에 본부를 둔 ‘교리 교육 사무국 *Ufficio Catechistico*’과 주교 직할인 ‘교구교리교육 사무국’이다.

6. 페네풀Fénelon은 어린이의 두뇌는 바람에 노출된 장소에 켜놓은 촛불과도 같아 그 불꽃은 항상 깜빡이며 흔들린다고 한다.

교령 「건전한 권고를 대비함」은 제1부에서 교리의 근거를 위해 교회가 행한 업적을 제시한 다음, 제2부에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단을 제시하면서 행해야 할 임무를 정한다.

세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가 본당에서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교회법 1333조 1의 규정에 따라 “본당신부는, 그에게 합당한 사

255 유가 있다면 | 본당구역에 거주하는 신학생들, 필요하면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나 본당 안에 설립한 그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한 신심 깊은 평신도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사제들과 다른 신학생들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관대하게 참여하도록 특별히 호소한다.”는 교구 통례법의 제재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거룩한 활동을 통해 본당신부를 도와야 할 것이다.

‘본당 교리학교’는 참되고 적절한 학교로 생각해야 하며, 다른 학교보다 수준이 낮으면 안 된다. 오히려 단정한 분위기, 수업방법과 인격적인 면에서 경쟁할 만해야 한다.

‘어른을 위한 주일과 축일 교리’는 교회법 1332조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실시해야 하며, 트리엔트공의회 모든 교리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교령은 지혜롭게 몇 가지 실천적 방법을 고위 성직자들에게 제안한다.

가) 이탈리아의 모든 교구는 1929년 12월 12일자 서한으로 공의회(성직자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재확인한] 대로 ‘교리교육 사무국’을 개설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전통 형식에 따라 그리고 책임자에 의해 그리스도교 256 교리를 가르치도록 마음 쓴다.

2. 교리대회의 거행을 촉진한다.

3. 본당 학교와 공립학교를 위한 교사들을 양성하고 숙련시키기 위한 종교과정을 공시한다.

나) 교리수업을 잘 하도록 주의 깊게 지도해야 한다. 주교는 감독 역할을 하는 사제들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톨릭 액션 교리교사를 많이 배출한다. ‘이 분야에서 이미 많은 일을 했다.’

라) 모든 본당은 ‘그리스도교 교리의 날’(성사, 강연, 출판, 자선 모금 등)을 개최해야 한다.

마) 교구장은 5년마다 교리교육 학습과정에 관한 24개 항목으로 된 설문지에 답하여 성직자성에 보고해야 한다. 언제나 교회의 지침에 충실해야 하는 사도는 교회가 제시하는 실천적 규범을 연구하고 따르며 널리 전해야 한다.

제15장 교 황

교황들의 생애와 업적을 다루는 것은 풍요로운 원천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황들에 관해 쓴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의 업적을 해석하고 계승하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과 같다.

사실 교황은 박식한 사람, 외교적 수완이 뛰어난 인물, 또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또 그와 같이 드러나야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분쟁에 관해 조언하는 세계 교회의 수장이다. 수장으로서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 진리의 빛을 받아 하늘로 인도되도록, 그리고 은총의 관리자인 교회를 통해 은총에 참여케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황은 정의의 귀감, 진리의 스승, 은총의 관리자다.

정의의 귀감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 가르치셨고, 당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은 그분의 대리자로서 인류를

1. 사도 1,1: “Jesus cepit facere et docere.” 참조.

주재하면서 앞서 모범을 보인다.

사실 거룩한 교황이 얼마나 많은가! 교황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조는 없다. 초기 3세기 동안 그들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³ 하는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의 인도자가 되어 앞장 섰으며, 거의 모두 순교로써 모범을 보였다.

각 시대의 역사는 교황들 가운데 위대한 학자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문화를 혁신하고 계속적으로 백성을 복음정신으로 교화시키며 백성들의 좋은 | 자질과 몇몇 정치적 **259** 사회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증명해 준다.

그러나 교황들이 늘 그들의 사명의 최고봉에 있지는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인간적 나약함의 뚜렷한 증거요, 하느님이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⁴라고 하신 약속에 따라 당신 교회를 도우신다는 증거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교회 또한 자주 모든 인간 제도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하느님이 제정하신 단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주재하는 교황의 무류성은 관습에도 널리 적용된다. 역사는 가톨릭 윤리를 위해 교황들의 부단한 열성이 세기에 걸쳐 얼마나 잘 완수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다.

교황들의 이러한 유익한 업적이 항상 인정받은 것은 아닌데,

2. 요한 14,6: * “Ego sum Via.”

3. 마태 10,28.

4. 마태 28,20.

그것은 사람들의 무지와 특히 국가들이 교황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교황들의 성덕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들이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 충만하고 숭고하며,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법적 권한을, 교의적 | 법률적 · 전례적 세 분야에서 사회 전반의 선, 특히 인간의 선을 위해 행사한 예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진리의 스승

더 나아가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⁵

그는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진리를 수호하고 옹호하며 널리 알린다. 이러한 그의 사명을 법률상의 교도권과 사도직의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가르친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가톨릭 가르침을 수용하는 데 반대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행사한다. 신자들을 위해서는 장엄하고 통상적인 교도권으로 스승들과 사목자들을 도와주며, 연구와 저술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한다.

교황의 이러한 사명 또한 널리 알려지고 진가를 인정받게 되어 모두가 진리의 스승인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게 할 필요가 있다.

각 시대마다 이단과 이단자들이 있었으므로, 교황은 늘 그들에

5. 요한 20,21.

맞서 이겼으며, | 진리의 수호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생명까지 바쳤으니,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⁶라고 말씀하신 착한 목자의 귀감을 따랐다. **261**

더 나아가 교황은 각 시대마다 저술과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활동을 격려하고 활기를 줌으로써 가톨릭 신앙전파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활동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으며,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 우리가 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⁷

그러므로 저술가 사도는 역대 교황이 이룩한 진리의 보급과 수호와 설명에 관한 업적을 드러내야 한다.

은총의 관리자

끝으로 교황은 가톨릭 경신례 분야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사업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얻어주셨다. 교회는 이러한 은총을 신적 권리로서 교황에게 속하는 성사의 힘과 전례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교황은 | **262** 이러한 권한을 교회의 몸에 속하는 이들, 곧 신자들뿐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만 교회에 속하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가르치는데, 성사의 힘은 은총을 자아내고 증가시키도록 제정되었기

6. 요한10,11.

7. 요한10,16: “et fiet unum ovile et unus pastor.”

때문이다. 따라서 그 권한은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교황의 최대 권한으로서 초자연적인 목적 달성으로 지복직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삶을 위한 초자연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지상 삶에서 적합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는 하느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다시 말해 교회의 성사적 권한으로 전하는 초자연적 선물인 성화는총으로도 이루어진다.

전례에 관한 최대의 권한은 교황에게 속한다.

사도는 교황의 이러한 사명이 그의 본질, 그의 역사, 필요성 그리고 실천에 있음을 신자들이 알게 하여 신자들이 몸으로만 아니라 교회의 정신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방법과 차원에서 성사의 은총과 준성사의 은총을 누리게 해야 한다.

263 실천적 규범

교황들의 삶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쉽게 다루는 방법은 바로 인류에게 남기신 천상 스승의 활동을 계승한 이들의 사명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원칙 위에 기초를 두고 사도는 교황들에 관해 기술할 때 세 가지 목적을 정해야 한다.

-그들의 모범적인 삶과 업적을 가톨릭 윤리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법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들이 가톨릭 진리의 수호자, 해설자, 보급자임을 입증한다.

-전례 분야에서 그들의 업적이 인간의 성화를 위한 것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교황의 전기를 집필할 때 곧바로 그의 활동 추이 곧 ‘인생 여정 curriculum vitae’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런 다음 그의 활동 상황의 정치적·사회적·지적·종교적 원인에 대해 숙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 그의 활동을 성공시킨 드러나지 않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는 단계로 옮겨간다. 따라서 만일 제1부에서 ‘역사적 개관 conspectum historicum’을 살펴본다면, 제2부에서는 사상적·정치적·사회적 체계로서(오류, 이단, 교의적 투쟁, 교육제도의 발전, 진리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내적 정신, 전례(기도), 종교적·교육적·예술적 행위 등을 다룬다. **264**

또는,

천상 스승을 충실히 본받는 사람으로서 교황의 재능, 그의 덕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법적 활동, 가르침, 지도, 전례법이나 의례법, 그의 신심과 성사적 전례활동을 통해 그의 생애를 소개한다.

부록에는 교황들이 새로 공표한 예식과 새 미사 양식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장 성인전과 전기

일반적으로 전기, 특히 성인전은 인간에게 대단히 매력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대중의 취향이 일반 역사 연구, 특별히 전기 종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때 더욱 그러하다.

저술가들과 편집자들은 이러한 본성의 자연적, 문화적, 시대적 요청에 부응코자 온갖 종류의 전기와 성인전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발간하고 있다.

전기와 성인전은 자주 소설화되어 진리와 실재의 줄거리에 제멋대로 다양한 환상을 접목시켜 왜곡된 역사의 이미지를 제시하곤 한다.

266 저술가 사도는 이러한 문학양식이 매혹적이고 감동적이며 설득력 있음을 확신하면서 인간에게 모범, 권고와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제국의 창시자들, 백성의 통치자들, 군대의 지휘관들, 신대륙과 감탄할 만한 발명들, 천재적인 문학과 예술가들, 자유와 정의의 수호자들, 과학자들, 탐험가들, 박애주의자들, 발명가들, 식민지 건설가들, 단순한 사람들 등 이들 모두가 자주 인간에게 신앙과 덕을 향해 대적할 수 없는 매력을 행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삶을 이끌어 간 인물들과 특히 가장 순수한 형태, 가장 고귀하고 영웅주의에 무관심함의 화신인 성인들이야말로 위와 같은 기회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양식의 첫 자리는 단연 성인전이 차지하는데, 성인전은 아직 ‘여정 중 *statu via*’에 있는 이들의 경탄과 모범과 공경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거룩한 인간의 삶을 밝히 보여준다.

성인들에 대한 지식

때때로 성인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상스럽고도 잘못된 편견으로 혼란과 그릇된 | 모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267**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학문과 가치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을 선망하기 때문에 사도는 덕성에 뛰어난 사람들, 곧 성인들이야말로 가장 잘 알아야 마땅한 인물들임을 시대와 장소에 알맞게 부각시켜야 한다.

세상의 시각에 따라 위인들은 자주 결점, 잘못, 적지 않은 오류로 점철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대신 성인들은 항상 초인간적이고 투명하며 진지한 빛을 발한다. 그들의 기억은 불멸하고 영원하다.

성인들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성인 개개인의 역사, 성인의 부류(순교자, 증거자, 동정녀 등)를 알아야 하고,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시대와 영향력을 통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거룩한 역사를 알리는 것이 유익하다.

특히 성덕의 본질에 관한 가톨릭 가르침의 명쾌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성인전은 좋은 의도라지만 성인의 겸손, 순종, 특별한 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성의 가장 탁월한 덕이라

민게 하려고 정형화된 말로 우리에게 역설한다.

- 268** 겸손과 순명 없이 신앙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 성덕은 겸손과 순명과 고행이다. 이러한 덕성들로 거룩함이 더해 간다. 겸손, 순명, 고행 자체는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요 토대며 조건이다. 그러나 성덕의 절정이요 본질은 애덕, 곧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또한 때때로 성인들의 인물됨과 성덕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잘 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도 유익하고 필요하다.

성인들은 몇몇 사람이 말하듯이 결코 태만하거나 사회에 무익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윤리적인 면에서 때때로 시민으로서도 사회를 완전하게 하는 데 가장 소중한 봉사를 한다.

그들은 결코 자살주의자들이나 부분적 자해주의자들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들의 엄격하고 자발적인 금기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이요, 다소 건강에 해롭다손 치더라도 이는 그 결과가 빛나는 큰 영적 선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자연 질서상 월등한 것은 월등한 것에 종속되고, 논리의 질서상 월등한 선을 이루기 위해 선과 물질적 만족을 희생하는 것이요, 신체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과 육신의 고통은 인간 본성을 유린하지 않는다.

- 269** 그뿐 아니라 결혼은 | 개인을 향한 명령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독신은 윤리적으로 결혼보다 | 고귀하며, 인간 종족의 번영을 질적 양적으로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결을 지키는 이들, 다시 말해 자발적 독신을 서약하는 이들을 해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성인들은 게으른 이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유린하는 이들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류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후원자들이다. 많은 사람의 식량, 학문, 문화, 은총과 구원이 이들에게 달려있다.

성덕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성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들의 위대함을 경탄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성인들을 본받음

행복하도록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오직 하느님을 찾고, 그분으로 항상 더 충만해진다면, 한마디로 성인이 된다면 자신의 목표에 이르게 된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생하신 말씀의 위력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성성은 놀랄 만큼 숭고한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 투쟁해 270 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와 가까운 한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성성을 거의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성성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성인은 성덕의 단순함을 보여주며, 성령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부합하는, 한정된 관점에서 하느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존재다. 성인은 모두 선을 고무하고 형성하는 참되고 실제적인 배움터다.

전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 개개인을 통해 모범으로 제시하여 그 모범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주님, 당신 성인들의 모범이 저희를 다그치오니,

1. * 1테살 4,3: “Hæc est voluntas Dei, sanctificatio vestra.”

그들의 축일을 거행함으로써 저희가 그들의 행동 또한 본받을 수 있게 하소서.”²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는 성인들을 본받도록 제시해야 한다. 사도는 성인들이 어려서부터 초월적 존재로 보이거나 성인들의 윤리적 특징을, 예외적인 상황과 고차원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성인전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성인전은 성인을 오직 후광을 두른 모습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멀리 있는 존재,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늘에 떠 있는 존재로 만들 뿐이다.

사도는 성인의 활동 연대를 축소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영적이
271 고 영원한 요소가 드러나지 않게 세속적이고 우연적이며, |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를 극대화해 나열해서도 안 된다.

지나친 숭고함은 실망을 안겨 준다. 지나친 인간성은 결코 성성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성인의 인간적 노력과 일치하여 작용하며, 그가 기울이는 노력에 따라 활동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려면 성인도 우리의 지상 삶에 밀접히 속해있음을 느끼고, 또 느끼게 해야 한다.

은총은 구별, 선호도 또는 인간적 특권 같은 계산 없이 합당한 사람을 돕는다.³ 신앙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면 성성은 화관으로서,

2. * “Sanctorum tuorum, Domine, exempla nos provocent, quatenus quorum solemnia agimus etiam actus imitemur.”

3. “은사는 여러 가지이다 divisiones gratiarum sunt.”(1코린 12,4)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Deus vult omnes homines salvos fieri.”(1티모 2,4)는 말도 그에 못지 않게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이를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성인이란 승리한 투사다. 교회는 그들 덕행의 영웅성을 선포했다. 그리고 투쟁, 아주 강력한 투쟁이 없는 곳에는 영웅적 행위도 없다.”

따라서 성인의 영웅적 덕행이나 관상의 높은 경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를 아담의 후손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모든 활동을 하느님 안에 확립하기 위해 | 성 바오 272
로가 말한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기까지 (때로는 느려서 답답하더라도) 인내롭게 작업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소개한다면 성인은 덕행, 성성의 실제적인 배움터가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을 매우 자주 반영하는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자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독자와 비슷할 때 독자는 결코 성성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위대한 승리자요 투사인 성 아우구스티노가 어느 날 던진 “저들이 해냈다면 왜 나는 안 되는가?”⁴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자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곤 한다.

성인들에 대한 공경

사도는 성인들에 대한 경탄과 모방 외에 교회가 가르치고 전례를 통해 실천하고 있듯이 두 가지 행위로써 [성인들]에 대한 공경을 더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은 곧 ‘공경과 기도’이다.

모든 사람은 성덕에 부르심 받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하느님의 자유로운 행위에 부응해야 한다. 성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4. * “Si isti et illæ, cur non ego?”

공경: “성삼위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고, 덕행과 은총으로 영혼을 장식하며, 가치 있는 행위를 하도록 그들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시고, 또 인내라는 탁월한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에 적합한 성삼위의 살아있는 성전^{聖殿}으로 공경한다.

—성부께 특별히 사랑받고, 그 자상한 부성에 둘러싸여 있으며,
273 성덕과 완덕에 | 조금씩 다가가면서 응답할 줄 아는 입양된 자녀들로 공경한다.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된 충실한 지체로서, 그분에게서 영적 생명을 받았으며, 사랑과 항구함으로 그 생명을 일구어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공경한다.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영감에 자신을 내어 맡긴 성령의 성전이요 온순한 도구⁵로서 ‘공경’한다.

이러한 근본 진리는 성인들을 공경함으로써 그들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흠송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각 성인 안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빛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인데 어떤 성인에게서는 더 많이 그리고 어떤 성인에게서는 덜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기도: 그뿐 아니라 성인의 통공이라는 위대하고도 위안이 되는 교의와 그들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더 쉽게 얻기 위해 성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한다.

유일하게 필요한 중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뿐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들은 기도로 신비체에 참여함으로써 그분

5. A. Tanqueray, 「수덕 신비 신학 개론 *Compendio di teologia ascetica e mistica*」[n. 178].

의 기도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비체는 하느님의 마음을 흔들어 재촉한다. 성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 그리고 예수 **274** 그리스도는 성인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느님의 벗이요 우리의 친구인 성인들은 그들이 처했던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형제인 우리에게 지탱이 되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꺼이 우리를 도와준다.

사도가 집필했거나 출판한 모든 성인전과 성인에 관한 서적은 사람들에게 성인을 알리고 본받고 공경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성인전, 특히 성인의 생애는 성인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성인들의 덕행과 그들의 저서나 가르침을 소개하는 목적은 그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는, 특히 전례기도나 교회가 승인한 기도가 따르며,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신자들의 마음에 흠숭과 탄원이라는 두 가지 신심을 불어넣는다.

제17장 거룩한 호교론

저술가 사도의 과제는 이미 여러 번 되풀이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가톨릭 신앙, 윤리, 경신례를 순박한 백성과 대중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 가톨릭 진리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거룩한 호교론은 이같은 특별한 경우에 사도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거룩한 호교론의 필요성

거룩한 호교론의 필요성은 현재 종교적 상황에 의해 현저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명백해지는데, 그리스도교는 실제로 그 초기부터 자신을 수호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당신이 ‘반대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276 예언하셨다. 십자가의 출현으로 모든 인간적 관심, 모든 열정, 곧 히브리인과 이방인, 공권력과 사회적 영향력, 선입견과 비방, 철학과 여론이 그분을 거슬러 들고 일어났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대한 적대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반대가 많아졌으며,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수호자들 또한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호교론자들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이후에는 순교한 원형극장에서, 학교 강의실과 교회 안에서 각 시대마다 옹호하는 목소리가 강력하여 군주들과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2세기의 크고 작은 호교론자들의 기념비적 학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들은 사도 교부들의 뒤를 이었고, 후에는 각 시대의 교부들, 교회학자들, 신학자들이 다양한 오류에 맞서 교회를 수호했다.

호교론자들은 오늘날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 있는 작품들 중 다음의 것들을 기억하자.

헤팅거Hettinger의 「그리스도교 호교론*L'Apologia del cristianesimo*」, 발메스Balmes의 「가톨릭 교의와 프로테스탄트교의 비교*Protestantesimo comparato al Cattolicesimo*」, 몬시뇰 부고Bougaud의 「현대 그리스도교II *Cristianesimo ai tempi moderni*」, 몽사브르Monsabre의 「교의에 관한 강연*Le Conferenze sul dogma*」, 몬시뇰 덜스트드Hulst의 저서, 그라트리P. Gratry의 저서, 알리몬다 추기경G. Card. Alimonda의 저서, | 277
라코르테르Lacordaire의 저서 그리고 몬시뇰 보노멜리Bonomelli의 저서, 몬시뇰 베송L. Besson의 강연, 바오로 스칸즈Paolo Schanz 박사의 「그리스도교 호교론*l'Apologia del Cristianesimo*」, 바이스 Weiss (R.P.A.)의 저서와 아우구스티노 제멜리P. Agostino Gemelli의 저서.

호교론 작품은 점점 더 발전하여 가톨릭 대학이나 설교대에서 행한 강연의 주제가 된 것처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기사, 논문의 주제가 되었다.

비록 호교론이 일반적이거나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저작류는 아니지만 시대와 필요에 적합한 것임에는 틀림 없었다. 호교론이

오늘날 이전보다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반대자들이 그리스도교를 가정에서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제외시키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인문주의와 더불어 발생한 이런 노력은 프로테스탄트 사상으로 강화되어 오늘날 거대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많은 것을 정복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악한 상황에서 진리를 통해 빛을 받고 종교생활 준수로 강화되며 은총의 원천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출판사도는 말씀의 사도 못지않게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에 다가서고, 거룩한 호교론으로써 그리스도교의 빛과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알려
278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 출판사도는 특히 말씀의 사도가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의무가 있다.

성직자성은 가톨릭 사제단에게 회람을 보내 호교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두로 행해져야 하고, 또 그와 같은 경우 설교가는 주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만 허용된 것이었다. 반대로 호교론에 대한 저술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도가 이러한 선을 행하는 데 소홀하다면 자신의 사명을 충만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대중적 작품이 더 많이 보급될 것이고 더 필요해질 것이다. 그 대신 호교론 작품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에 더 많은 준비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코 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하느님께 사람들을 데려가야 하는 것이 사도직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은 그 누구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며, 개개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유익한 것, 정확되고 하느님께 고양되는 것을 주도록 재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도는 자기 사명의 정상에 이르고,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란 저서를 통해 표현하고, 출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증가시키고자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279**

일반 규범

가톨릭 호교론이 거룩한 교의에 대한 수호와 예찬인 만큼 저술가 사도는 직접적인 호교론과 간접적인 호교론¹ 두 가지 형태로 봉사할 수 있다.

첫째는, 신앙의 진리를 알릴 목적으로 반대자들의 공격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의혹의 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둘째는, 분명한 오류를 직접 공격하는 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논쟁으로 진리를 증거하면서 권위 있고 절대적인 주장으로써 근본 진리를 설명하고 반론을 풀어가는 것이다.

직접적인 호교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개념,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제시한 것에 대한 정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는 | 반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연구, 철학적, 역사적, 과학적, 원칙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반 **280**

1. 「대백과사전 *Grande Dizionario Enciclopedico*」, Giovanni Trucco 교수 편찬 참조.

드시 그러한 사실과 원칙의 참된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반박하는 진리가 입증된 것인지, 학문적으로 정말 그러한지 또 단순한 가설은 아닌지, 개인의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한다.

신앙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는 단순한 의견인지, 교회가 확정된 교의인지 구별하고 진리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다음, 신앙과 앎의 상호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이성 사이에는 참된 모순이 있을 수 없고, 상호관련이 있다고 명백하게 표명한 [제1차] 바티칸공의회 of the 정의를 염두에 두고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앙은 오류에서 이성을 수호하고, 획득한 진리를 통해 이성을 확증하며, 더욱 높은 개념으로 고양시킨다. 경우에 따라 이성은 신비를 제시할 수 없다 해도 신비는 불합리한 것이 아님을 단언할 수는 있다. 사실처럼 사물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신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적합하고 유사한 이유로써 그리고 신학적 이유로써 신비를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유일한 체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직접적인 호교론의 논제나 강연은 반대자를 반박하는 데 유용하
281 게 사용할 수 있다. 반대자들의 오류와 |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은 다양해진다. 호교론이 통상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철학과 자연신학에서 추론한 본질적인 논제, 곧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본성 및 속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철학과 가톨릭 철학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종교에 관한 논제 [또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호교론이 초자연적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초자연적 주제, 곧 교회의 교의, 성경, 성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역사적 증명과 신학적 이유를 첨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절대적 본질적 완덕, 효력, 기적과 예언의 실현에 의해서뿐 아니라 순교자들의 증거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교의 신적 토대 위에 바탕을 두며 논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반대자들의 부류에 따라 다양해지는데, 반대자들은 히브리인, 합리주의자, 이단자, 믿지 않는 사람... 일 수 있다.

간접적인 호교론은 이와 다르다. 반대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면서 오직 권위 있는, 절대적인 주장과 강력한 논쟁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철학자, 학자, 논쟁자, 호교론자의 작품은 간접적 호교론이 된다. 모든 교의, 윤리와 경신례의 주제를 포용하며, 한편으로는 끌어당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논박하면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시에 다가간다.

이러한 형태의 논쟁에도 첫 번째와 비슷한 준비와 동일한 규범이 필요하다. **282**

특별 규범

현대 호교론에서는 주관적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은 주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상과 시詩에 기초를 둔, 감정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호교론도 있다.

출판사도는 전자를 피해야 하며, 후자의 한계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의 작품은 완전해야 하며, 종교의 일체성과 인간 본성에 상응해야 한다. 호교론에는 교의부분이 지배적이어야 하지만, 변화시키고 고양시키는 실천부분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지성에 관해 언급해야 하나 의지를 고무하고 마음을 촉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호교론이 쉽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말씀과 저술 양식임은 자명하다. 호교론은 사도의 주된 관심사라야 한다. 위대한 호교론자 라코르데는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지적 준비를 한 다음, 이어서 기도와 보속이라는 실제적인 준비를 했다. 저술가 사도는 그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까닭은 만일 생기 있는 말이 때로 **283** 사람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데 비해 | 글은 항상 그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적합한 지식과 교양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 호교론자로서 맡은 일을 완수하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의 활동에 많은 기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늘 필요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상황이 한 가지 규칙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나서 유능하고 확실한 저자들에게 문의한 다음, 진리로 이끄는 설명 방식을 찾으며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의 말은 거룩한 삶으로 가치 있게 되고, 은총으로 강화되어, 호감을 갖도록 숙련된 기술로써 반대자를 설득할 뿐 아니라, 반대자의 마음과 상상을 자극함으로써 의지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적합한 것만을 말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자를 공격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황금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는 분명하고도 인간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8만 명의 이단자를 회개시켰다.

사도는 이렇게 할 때에만 그의 활동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호교론자로서 자기 사명을 만족스럽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제18장 일간지

특히 우리 시대 저술가 사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출판분야 중 하나는 ‘일간지’다.¹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문임은 자명한 일이다.

사도는 지혜롭고 풍요롭게 이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확고한 원칙 위에 토대를 두고 일해야 한다. 먼저 일간지 전반에 대해 그리고 특히 가톨릭 일간지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 면학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285 일간지의 가치

일간지는 다른 출판물에 관한 문제와는 다르다. 서적, 정기 간행물 등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 대신 일간지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일간지는 모든 독자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룬다.

일간지는 정치, 논평, 보도기사를 현상황의 전개나 예상을 망라하여 상세히 알려준다. 문학 평론란에는 최신 사조와 신간을

1. 이 장후과 그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소책자「흑과 백 *Nero e bianco*」, Sales, Roma에 게재된 논고의 개정이다. *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해 이 책의 부록에 첨부된, 1921년의 「좋은출판물협력자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 회지에 실린 논고도 읽기 바란다.

소개한다. 단편 작가는 최근 유행하는 형태의 가벼운 읽을거리를 쓴다. 영화계 통신원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갈채를 보낸다. 이러한 이유로 일간지는 벌써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알고자 하고, 확인하려 하고, 정보를 얻으려 하고 또 읽고 싶어 한다. 신문을 읽는다.

일간지는 곳곳에 도달한다.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장악하고, 가판대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기차역, 도로 그리고 인파가 몰리는 거리를 휩쓰는 수많은 신문 판매원에게 일자리를 준다.

일간지는 수천 장의 종지로 배가되는 목소리요, 이는 수천 명의 입에 오르내리며 뇌리에 각인되어 증가한다.

관념과 사상의 전파, 곧 행동의 싹이다. 관념, 사상, 행동은 건전한 정신에서 발생하는가 부패한 정신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 선이나 악을 싹트게 한다. 여기에서도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²는 천상 스승의 말씀이 적용된다. 286

보통 독자 대다수가 신문을 집어 들고는 아무런 분별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신문을 읽으면서 약이나 독을 별걱별걱 마신다. 누구에게 탓을 돌릴 필요도 없이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 것들이 이미 새롭게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차츰 지성과 양심이 형성된다. 그만큼 신문의 외적 활동은 부지불식간에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우리의 부패된 본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악은 더욱 쉽게 침투하고, 결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가 생긴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하지

2. 마태 7,17.

않고, 게다가 저널리즘은 너무나 자주 단순한 관념의 수집가일 뿐 아니라 오류와 악의 온상으로 변한다.

가톨릭 일간지의 사명

신문이 양심이라는 가장 민감하고 논리적이며 감동을 주는 나
287 무를 | 키우는 데 필요한 주요 수단 중 하나라면 | 가볍게 준비해
서는 안 된다.

불건전한 신문이 일으킨 악이 매일같이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욱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불의의 전문가가 되어버린
지는 오래다.

얼마나 많은 증오, 얼마나 많은 부도덕함이 그리스도교적 원칙
과 기준에 따른 영감을 받지 않은 신문 컬럼에 떠돌고 격찬을 받
는지!

신문은 특히 중산층에 침투하며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대중 안에 스며들어 공공연한 오류와 부도덕함은 아니더라도
행동원칙을 교시하여 사고와 결심의 바탕을 이루며, 치명적인 비
관주의에 빠져들게 한다.

잉크로 더럽혀진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 자체를 보면 아
무것도 아닌 신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서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개인과 대중의 양심을 형성할 특수 사명이 있는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가톨릭 일간지는 마치 친
구처럼 읽혀지고 찾게 되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문이며,
농락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있어 낙관주의적 의미로 인간사를 생각하는

정신을 키우며,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느님을 생각하게 하는 신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오직 가톨릭 신문만이 할 수 있으니, 조잡한 **288**
관심사는 멀리하고 |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세 명제로 요약된 복음
적 계획을 좌우명으로 한다. 이러한 신문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복음적 윤리에 따라 지성, 의지, 마음을 형성한다.

가톨릭 일간지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지만 힘이 너무 분
산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가톨릭 저널리즘은 특히 오늘날
더욱더 자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
은 사람이 빛과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대리자의 말씀을 원하는 대중
에게 주어야 한다. 허기진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은 최악이
요,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조금만 주는 것은 사랑 본연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문은 예를 들어 새로운 소식이 부족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기술부분이 부족하다, 해외소식이 부족하다
는 등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천적 규범

1937년 성령강림절에 열린 제2차 가톨릭 저널리스트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지금은 교황 비오 12세인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
Card. Eugenio Pacelli은 가톨릭 저널리즘의 활동을 전투로 비유했다.

전사, 적과 무기 모두에 대해 명시했다. “여러분은 | 전사입니다. **289**
현대적 삶을 이교화하는 것은 적입니다. 무기는 교황청 문헌의

보급과 설명입니다. 지금은 전투 기간입니다. 전쟁터는 이성과 감성 사이에, 꿈과 같은 환상의 우상과 하느님의 진정한 계시 사이에, 네로와 베드로 사이에, 그리스도와 빌라도 사이에 전개되는 대립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시간이 새로울 따름입니다.”라고 저널리스트들에게 말했다.

따라서 저널리스트 사도는 전투요원이다. 전쟁에서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평함, 진지함, 일관성, 연구와 학문,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교황에 대한 헌신과 같은 요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일간지에 관한 저널리스트 사도의 활동은 소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소극적인 활동은 가톨릭 원칙에 따른 영감을 받지 않은 일간지의 출현이나 보급을 봉쇄하는 것이요, 적극적인 활동은 이미 존재하는 가톨릭 일간지를 촉진하고 보급하며 유지하는 일과 필요하다고 여기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장소와 시기에 따른 일간지를 창간하는 것이다.

이는 저널리스트에 의해 좌우되고 또 합법적인 것이니만큼, 반대자에 필적할 뿐 아니라 그를 능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좌와 주교단의 지침을 따르면서 독자들 안에 가
290 톨릭의 양심을 |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확고한 생각으로써 윤리의 순수성을 보장해야 하고, 윤리를 훼손하며 가정과 젊은층을 위험에 빠뜨리는 보도기사와 화보 사용을 단호히 멀리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비추어 그날의 사건을 언급해야 하고, 독자들이 그 사건을 각자 그리스도인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인도하며, 독자들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성실한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피하게 한다.

그가 종사하는 진리는 모호함이나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석판에 새겨진, 결코 지울 수 없는 윤리규범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땀과 피를 값으로 치뤄야 할 때에도 그러하다.

문학, 연극, 영화의 논평에서 좋고 합당한 것과 해롭고 부당한 것을 제시하여 확실한 안내를 해야 한다.

가톨릭 일간지가 진리에 대한 사랑을 고대하는 모든 이에게 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어디든지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언제나 출판에 관한 현행법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결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가능한 수단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신문의 생명을 가압류와 중지처분의 위협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³

3. * 이러한 마지막 권고는 1942년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한 체험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그해 신부는 주간지 La Domenica Illustrata -당시 진행중이던 전쟁 동안, 평화의 성탄을 위한“신의 휴전tregua di Dio”을 제안했다- 에 실린 당신의 인터뷰 기사 때문에, 파시즘 홍보 장관Ministro della Propaganda fascista에게 체포 위협을 받았고, 정기간행물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 조치를 받고 정간되었다.

제19장 잡지와 정기간행물

여기서는 신문과 그에 준하는 형태뿐 아니라 잡지나 평론지에 준하는 출판물, 곧 인쇄된 여러 장의 종이 묶음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급하는 모든 간행물이나 책을 말한다.

잡지와 정기간행물 보급

모든 것이 신속하고 규격화되는 우리 시대에 독자들은 많지만 심오한 연구를 위해 시간과 수단을 갖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292 대다수가 간단한 정보를 찾으며, 복잡하고 | 다양한 문제는 재빨리 대강 훑어보려 하고, 즉흥적이고 헛되며 현란한 교양을 쌓으려 대가를 치른다.

그러므로 정기간행물과 잡지, 곧 화보를 곁들인 것과 화보가 없는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 계간지의 정기간행물과 잡지가 우세하다. 오히려 화보가 없는 정기간행물과 잡지는 대부분 과학적이며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급된다.

모든 것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 전문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가능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루어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그 수를 늘려간다.

저렴한 가격, 용이한 구입,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 다루는 주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책보다 선호한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문화가 책과 실질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때로는 책이 차지하는 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할 수 있다. 중산층의 개인소장 서가를 장식하는 특징은 다른 어떠한 출판물보다 우리 시대의 성급함, 취향, 알고자 하는 열망과 지식을 얻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 그럴 원의도 별로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현대적이고 호의적인 독자층의 변신과 증가에 대응한다.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가치

293

정기간행물의 독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읽은 것을 거의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신의 생각, 추론, 대화를 위해 힘이 되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독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대중적 여론의 많은 부분이 사람에게 또 그에 못지않게 지식에도 자주 매우 해롭다는 것을 성찰하지 않은 채,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음식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¹

이 모든 것은 단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식 보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저널리스트의 책임이 막중하다면 잡지와 정기간행물 집필자의 책임은 더 중차대하다. 그들에게는 능력뿐 아니라 그들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밝지 않은 이들,

1. 물론 거의 항상 아주 막강한 유용성을 이루어내는 과학 잡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덜 받은 이들, 맡은 일에 맹목적으로 바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정기간행물과 잡지는 책보다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책은 독자가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 선택한다.

294 그리고 실제로 비록 적절한 선택을 했다 | 하더라도 특별한 주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낮다. 또한 책은 쉽게 독자를 지치게 하거나, 적어도 쉽사리 다시 읽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경향 때문이다.

반대로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훨씬 매력이 있으며, 화보는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러나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할 이러한 다양성이 자주 독약의 운반자가 된다. 잡지가 모든 이의 구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은 자주 율리시스의 말馬(역주: 치명적인 취약점이라는 의미)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 오류와 나쁜 징조가 사람들 안에 스며든다.

그러나 잡지와 정기간행물이 진지하게 잘 만들어지고 기초가 단단하면 많은 문제를 대중화하는 위대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만들어진 매체는 지속되고 널리 보급되며,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실이 풍성한 사도직 수단이 된다.

사도를 위한 규범

사도는 사람들이 종교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읽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활동 외에도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좋은 매체들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매체를 창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잡지와 정기간행물에 대한 도움은 | 합당한 **295** 것이다. 사도는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가 수도자라면 더더욱) 청빈서원의 실천은 그의 상황에 따라 그러한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유지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요, 비록 수동적이지만 진정한 선을 완수하기 위해 예정된 것이다. 이것은 빵으로 행하는 애덕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실천하는 애덕이다. 이 애덕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노출되는 위험 때문에 종종 비난을 받겠지만 늘 영웅적인 애덕, 최상의 애덕이다. 그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상급을 마련해 줄 애덕이다.

또한 사도는 방법과 가능한 조건을 갖추어 영적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적 필요에 부합하는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창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간이 배척받지 않고 오히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 편집분야, 보급분야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으로도 독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출판물 가운데 잡지와 정기간행물이 아마도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울 것이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일종의 집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자주 미숙함을 보이는 중간 정도의 의식을 지닌 이들에게 응답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은 세 단계, 곧 편집, 인쇄, 보급 그리고 관리를 직접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는 | **296**

유능한 편집장이 필요하다.

특히 편집장은 다양한 ‘편집’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마음써야 한다.

사도가 발간하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특수 목적은 종교교육이다. 편집장은 종교적 주제를 그 어떠한 다른 주제보다 우월하게 여겨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주제는 다른 해로운 독서보다 더 선호하도록 다루어야 하고, 독자들이 정신, 의지, 마음을 하느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전념해야 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신앙, 윤리, 가톨릭 경신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독자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사이에 각자의 신분에 따라 그리스도교 삶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종교 원칙에 영감을 불어넣으면서도 역사적 사실이나 당대의 유명한 인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를 논하고 또 때때로 다루어야 하며, 가끔씩 운동, 시, 예술, 과학, 다양한 특집 기사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마음써야 하기 때문이다. 단조로움은 안타까운 일이다!

- 297** 호기심에 부응할수록 (독자는 언제나 다소 아이와 같이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질문자다.) 오늘날의 상황에 답변을 제시하는 문제를 더 많이 다루게 될 것이며, 잡지는 더 큰 만족을 안겨 줄 것이다.

따라서 편집장은 단순하게 페이지를 메우려 하지 말고, 다양한 관심거리를 위한 지면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인 기사와 더불어

독자 통신란을 마련하여 마치 학교에서 교사나 설교대에서 설교가가 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독자들을 알고자 노력하며, 그들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자료를 택하여 독자들이 그 출판물을 흥미롭게 읽고 기다릴 뿐 아니라 열망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주제, 잘 통용되는 표현양식, 논쟁보다는 개략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비록 부차적인 것이지만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호감이나 반감이나 의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레이아웃, 적절한 서체 선택, 균형잡힌 구성, 눈길을 끄는 표지와 제목, 그밖의 모든 것이 매력을 끌도록, 그리고 외적 느낌이 인상적이도록 특별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원고 교정, 인쇄, 표지, 발송 및 관리를 주의 깊게 감
독해야 한다. **298**

편집장의 일은 편집과 기술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급’분야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독자들은 편집장의 특별한 제자들이요,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그의 영적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다루어야 한다.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적으로 또는 신문 컬럼을 통해 그들과 잦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소망과 필요한 사항을 자기 것으로 해야 한다. 독자들이 그의 부성적 애정, 강력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도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결코 독자들의 숫자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학교에는 정원이 없다. 고정 [독자들]과 함께 새로운 독자들을 찾는 데 전념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선전문², 논평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에게 홍보용 서신을 보내어 새로운 구독자를 찾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실제 경험과 열정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장은 독자 개개인의 도우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것, 모두를 감독해야 한다. 그는 스승이다.

정기간행물의 생명은 대부분 ‘관리’에 달려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편집장은 직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기구독 신청을 관리해야 하고, 정기간행물이나 잡지가 폐간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2. * 여기서 광고문 대신에 선전문으로 대체했다.

제20장 본당주보

299

가톨릭 정기간행물 가운데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본당의 정기간행물 또는 ‘본당주보’다.

주보란 무엇인가

본당주보는 하나의 소식지가 아니다. 일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을 알리는 소식지, 농민 소식지, 경제 소식지, 산업 소식지가 아니다. 또한 문예지, 자화자찬이나 자기방어 수단, 반대자들이나 반대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비방하는 유인물도 아니다.

그 보다는 본당신부와 본당활동의 스피커, 자녀들을 본당으로 조용히 불러모으는 종지로 만든 종鐘이며, | 영적 생명으로 태어난 **300** 공동의 아버지 집으로서, 가장 장엄한 순간을 사는 곳, 죽은 이들이 가장 먼저 속죄와 명복을 비는 기도를 받기 위해 거쳐가야 할 집이다. 행여 잊을까 저어하여, 자녀들에게 건넬 자기 이야기를 종이 위에 새기고자 하는 사목자의 사랑을 나르는 수단이다. 모든 사람 곧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도달하도록 성전의 벽을 뛰어넘는 사목적 열성의 장이다.

본당주보는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보가 출간 되는 시기, 형태, 내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주보를 발간하는 기간은 주1회, 격주, 월1회, 격월, 연2회, 연1회일 수 있다.

형태는 낱장, 공고지, 본당서신¹, 교회의 문이나 벽에 붙이는 대자보, 신문형태, 단순한 또는 화보를 곁들인 4쪽, 8쪽, 16쪽 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이며, 대체로 본당 고유의 것이고, 일부 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일부분은 본당 고유의 것일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여러 본당과 동일한 경우다. 대체로 고유하다는 것은 본당신부가 다 | 썼거나 그를 대신하는 이가 쓴 경우다. 일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일부분은 고유한

301 | 내용이란, 한 교구나 여러 교구를 위한 공동주보에 본당신부가 자기 본당에 관한 내용을 신기 위해 몇 단이나 몇 페이지를 보유한 경우다.

주보의 유용성

본당주보의 유용성, 더 나아가 주보의 필요성은 주로 주보의 실천 목표에 따라 나타난다.

주보는 본당신부와 본당신자들 사이에 가장 강한 유대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에서 신부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그 말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정확하게 인쇄하여 그들과 유대를 맺는 것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맺는 유대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고

1. 이러한 형태하에서는 본당주보를 타자기로 쳐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또 그래야만 하는 사목자의 아버지다운 호소와 추억을 그들에게 전한다.

신앙에 관한 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반대자들, 필요하다면 이주자들과 맺는 유대다. 많은 반대자가 그들의 깊은 내면에서 그들과 그들의 선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한 본당신부에게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경험이 보여주었고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해도 많은 사람이 그들이 듣지 않으려 했고 그릇된 편견을 가졌던 말씀을 그들 집에서 비밀리에 읽으며 즐길 것이다. **302**

게다가 많은 후보가 이주자들에게 유익하리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조국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생각해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모든 본당신자의 손에 들려있는 후보는 그들 사이의 형제애의 표지요, 참사목자의 양 떼라는 표지일 것이다.

사목자가 손에 들고 있는 후보는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생생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생생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희생과 대담한 용기에 이르게 하는 그의 열성의 진술서일 것이기에, 본당주보를 시작한다는 것은 때때로 큰 희생과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무관심, 종교적 이기주의와 무절제한 독서가 만연한 상황에서 자기 본당에 후보를

도입하는 데 성공한 본당신부는 자기 직무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303 그리고 본당주보의 목적은 | 본당의 모든 이니셔티브에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사실 본당계획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지탱해 주는 인쇄물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창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문화활동, 상업, 스포츠, 학문, 예술, 종교활동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선교활동, 자선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의 무게처럼 그런 ‘달콤한 무게’, 곧 새를 날게 해주는 그 날개 자체의 무게 같은 것이다.

주보는 유치원, 병원 등과 같이 본당활동을 지지해 주고, 본당활동 지원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 예수 성심께 바치는 첫 금요일의 신심, 40시간 기도, 선교활동 등과 같은 종교적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교리교육 기구를 발전시키고, 가톨릭 액션, 신심단체, 자선단체, 다양한 계층의 기구를 활성화한다. 간단히 말해 본당주보는 크게 외치는 목소리, 지속적인 목소리, 글로 쓴 목소리, 사려 깊고 적절하게 인간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는 최상의 조건을 지닌 목소리다.

304 어떠해야 하는가

본당주보가 그 거룩한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집,

2. dulce pondus.

자료, 외형, 관리와 보급 면에서 적절한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적어도 본당에 관한 부분은) 본당신부가 편집해야 하며,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보는 설교의 형태를 띠므로 하느님 말씀이 영망이 되지 않도록 사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서는 설교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보는 모든 이를 향해야 하고, 본당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당신부는 사적 감정에 좌우됨 없이 말해야 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요 사목자로 드러나야 한다. 글을 통해 자기 영혼과 마음이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도유, 초자연적 애정을 뽐내야 한다.

단순한 형태, 경우에 따라 대화체, 이야기체, 많은 일화를 담은 문체...로 편집해야 한다.

자료는 윤리적 종교적, 곧 사목적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일부분은 고유한 부분, 다른 일부분은 공통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부분은 가능한 한 본당신부가 쓰지 말고 전문적인 사람이 쓰도록 해야 한다. 고유한 부분은 본당의 특별한 일을 다루어야 하는 본당신부에게 할당된 부분이다.

여백을 채우거나 부록 같은 부분인 아주 짧은 본당 소식란은 **305** 본당신자들이 관심 갖는 것, 적어도 간접적으로 신자들의 선, 본당신부와의 일치, 주보에 대한 애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부분은 반복되는 본당교육, 전례시간, 출생과 결혼 및 부고란 그리고 특히 교황과 주교의 담화문 등이 차지해야 한다. 아무리 교황이 말하거나 주교가 사목서한을 보낸다 해도

신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후보에 명료하게 설명한 신앙 진리에 대한 대중적 호교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실리기 바란다.

후보는 가톨릭 액션, 신심단체, 종교사업과 자선사업, 도서관, 공연이나 본당 영사실 등 본당 모든 기구의 메아리라야 한다.

항상 온갖 악담, 쓸데없고 비위에 거슬리는 아부는 단호히 피해야 한다. 반대로 유쾌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후보 ‘관리’가 적절한 형태로 운영된다면 채무를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본당사업과 다른 모든 활동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며, 부담스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기구독을 정착시킬 수 있지만, 특히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후보를 보낼 필요가 있다. 유지비는 대부분 | 자발적인 회사로 이루어진다. 때때로 모금, 바자회, 자선 공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 ‘전달’도 가능한 한 사목적이어야 한다. 우편을 통한 발송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열심한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본당에서 출판 사도직에 협력하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배포하는 일은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이나 여러 회원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달방법이 어떠하든, 후보가 모든 가정에 도달하도록 배려해야 하고, 특히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가정과 반대자들에게 다다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당후보에 관한 출판사도의 과제는 위에 나열한 원칙에 따라 충고하고 용기를 주며 필요할 경우 일방적인 부분을 작성하고, 인쇄와 보급을 돌보는 것 등이다. 사도는 모든 본당이 본당후보를 갖기 전까지 결코 편히 쉬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1장 즐거운 독서

307

‘즐거운 독서’라는 이름으로 소설, 단편소설, 수필, 일화, 동화, 우화, 비유, 모험, 여행, 역사 이야기 등과 같이 사람을 끌고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직의 유용성

출판 사도직을 위해 흥미로운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특히 천상 스승의 귀감에 바탕을 둔 지혜로운 방법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들의 경향에 항상 적합하고 호감을 갖게 하는 일화, 비유, 암시를 사용하면서 당신의 교의를 가르쳐 주셨다.

흥미로운 문학작품은 가장 많이 확산되고 선호하는 출판양식을 이룬다. 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곧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학생, 전문가, 학식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젊은이들은 근심걱정이 없으므로 즐거운 문학작품을 즐기고, 어른들은 걱정거리를 누구러뜨리기 위해 흥미로운 문학작품을 찾고, 학생들은 교과서보다 더 좋아하며,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소일거리로 읽는다. 308

서점, 도서관, 가판대 그리고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학양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학작품은 가장 막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출판물이다.

감정에 호소하고 특히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읽을거리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좋은 책이라면 덕을 실천하도록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 나쁜 책이라면 가차 없이 악습으로 끌어내리는 깊은 인상을 새겨준다.

사도는 그 어떤 다른 양식보다 즐거운 문학작품을 나쁜 출판물에 대항하여 좋은 출판물을 보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출판물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아주 개략적이지만 인상적인 통계가 있다.

소설류의 서적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이탈리아에서만 연간 1만 309종의 소설이 출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각 신간은 1천 부에서 최고 5만 부 (특히 서점에서 소화한 부수를 통한 집계)에 이르는 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한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만, 매년 50만 부 이상의 대량 판매 부수를 기록하는 소설이 있다. 이런 책은 거의 모두 한 권당 두 사람 이상이 읽었을 것이다. 게다가 공공도서관에 비치한다면 날개 돋힌 듯 읽힌다.

그런데 이 소설 중, 5분의 1도 안 될 정도만이 권장할 만한 것이고, 5분의 3은 부정적인 것이며, 5분의 1 정도는 부분적으로나마 평범한 것이다.

이 경우 ‘무기에는 무기로 대응할 것’, 또는 소설에는 소설로, 작품에는 작품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레오 13세의 지침이 되는 말을 적용해야 한다.

그밖에 즐거운 문학작품은 아주 많은 경우, 비록 간접적이지만 선의 계기를 제시한다.

도미니코 줄리오티Domenico Giuliotti라는 한 가톨릭 작가는 다음

과 같이 쓰고 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 곧 (논리 안에서 구체화되는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교가 참되며 생명력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작품 중에, 예를 들어 「약혼자들 *Promessi Sposi*」의 경우는 말씀이 살아날 뿐 아니라 생명이 되고, 예술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신적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도는 이러한 읽을거리를 나쁜 출판물의 독성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영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떠해야 하는가

310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목적 달성을 위해 사도가 준비한 즐거운 문학작품은 적어도 좋은 주제,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한 것, 매력을 느낄 만한 형태라는 세 가지 근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주제’는 글의 양식에 따라 또는 그 작품이 겨냥하는 사람의 범주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제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작품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원칙,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관념 등을 제시한다.

전개부분은 줄거리나 구성이 의도한 주제를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해야 한다.

작품이 겨냥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능력’은 지성과 마음, 또는 그보다 더 부수적 능력인 상상이나 감각뿐 아니라 지성, 마음, 의지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능력이라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

따라, 그중 하나 또는 다른 부분에 우위를 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을 악에서 완전히 구하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본성에 따라 그가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바
311 라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지성, 마음, 의지로 | 각각 알고 사랑하며 바라기 때문에, 그는 이 세 가지 능력을 동시에 그리고 마음을 다해 개발해야 한다.

‘형태’는 이야깃거리를 형성하는 주제, 문체, 서체, 삽화 등, 이 모든 것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범주에 적합하며, 장소와 시대, 상황에 어울리고 특히 인간 본성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한다면 호감을 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주제는 성경과 역사에 바탕을 둔 이야기, 고전 걸작의 개작이나 개정, 독창적인 작품, 교훈적인 작품, 교육적인 작품, 흥미 위주의 이야기 등 아주 다양하다.

지식과 언어가 근본 목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면서 배워 알게 된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법이다.”라는 지혜로운 격언을 소홀히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강세, 정확한 철자법, 더 엄격한 정통 문법과 문장론, 세련된 어휘, 구두점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 부분 사이의 균형,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전이,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는 여러 부분을 구분하는 순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면서 타당한 이념의 선택이 따라야 한다.

끝으로 이야기가 뚜렷하고 단순하며, 색조 있고 활발해지도록

생각의 명확성, 독작성, 간결성, 적합성 조화 | 그리고 일종의 312
우아함도 있어야 한다.

실제 사건을 다룰 경우, 그 동기와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항상 명확히 하고 구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허구를 다룬다면, 그럴 듯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고안해야 한다.

역할을 맡은 인물, 사건이 전개하는 장소와 시간의 상황을 부각시키고 모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생략해야 한다.

영감을 받은 모델

많은 모델 중, 세 가지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약혼자들」*I Promessi Sposi*과 「토빗기」*Libro di Tobia*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약혼자들」은 세속 문학분야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이 종교-윤리적 소설에는 만초니Manzoni가 제시한 주제가 분명히 드러난다. “오만한 사람들에게 뽐박받는 무고한 사람이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반면에 권력자와 비겁한 자는 어느 날 된서리를 맞게 된다. 그후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위에 은혜롭고도 우위를 차지하는 종교가 높이 세워지니, 오직 종교만이 억압받는 이들의 고통을 진정시키고, 억압하는 이들 또한 회개시키는 참된 권능을 지녔다.”

소설의 전체 구상은 그 단순함이 감탄할 만한 것으로, 모두 목적 313
을 향해 있다. 그렇지만 더욱 생기를 주기 위해 저자는 일부 중요한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크리스토포로 신부P. Cristoforo의 “그날이 올 것이다”, 무명인의 회개, 돈 로드리고don Rodrigo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초와 루치아Renzo e Lucia의

새로운 가정 등이다.

저자는 작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고, 거의 극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며, 가장 다양하고도 어려운 장면을 묘사하고 또 인간에 대한 심오한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충실하고 생생한 방법으로 역사적 배경을 묘사하며, 여러 장소의 그림 같은 풍경 묘사, 아본디오 신부Don Abbondio, 돈 로드리고, 크리스토포로 신부, 페데리고 추기경Cardinal Federigo, 두 주인공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물과 아주 독특한 성격을 부각시키며, 그에 못지않게 독자의 정신, 의지, 마음에 심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으니, 그 목소리는 부지불식간에 독자로 하여금 저자와 함께 생각하고 느끼며 원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작품의 형태에 관해서는 비평가들의 그 어떤 비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토빗기」는 문학의 보석이다. 거기서 제안하는 ‘주제’는, “하느님의 섭리는 비록 의인을 시험에 들게 하시더라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지상 삶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아주 | 단순한 줄거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가난하고 눈먼) 토빗과 (일곱 남편이 악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사라의 불운을 묘사한 다음, 하느님의 섭리가 대천사 라파엘을 보내어 토빗의 아들에게 메디아로 가서 가버엘이라는 사람에게서 10탈렌트를 받아오게 인도한다. 대천사는 토빗의 아들을 물고기에게서 구해주고, 사라를 마귀에게서 구하여 그에게 신부로 주며, 마침내 토빗에게 시력을 되찾아 준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토빗은 의로운 사람,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능력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의 정신은 하느님의 어지심, 천사들의 존재와 보호,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의 은혜로운 효과 등, 위로를 주는 진리를 향해 드높여진다. 의지는 거룩한 본보기를 숙고하면서 영혼 안에 생성된 느낌에 의해 선을 행하라는 초대를 받고 자극을 받는다.

작품의 형태에 관해서는 걸작이요 섬세함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저술가 사도는 이러한 본보기를 자기 모델로 삼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즐거운 문학작품 분야의 협력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요구해야 한다. 협력자들의 도움은 오히려 유익하고, 특히 소설을 쓰기 위해 그러하다. 그는 일화, 수필, 단편, 역사 이야기 그리고 특히 전기와 성인전을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안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315 제22장 유년기와 유아기를 위한 문학 작품

어린이를 위해 쓴다는 것은 아주 드물고 힘든 예술 활동으로서, 특별한 소명 외에도 사도에게 적합한 준비와 지혜로운 활동을 요구한다.

적합한 준비

적합한 준비란 ‘윤리적’ 준비, 곧 좋고 순수하며 쾌활한 성격을 의미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큰 사랑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진지하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다룰 줄 모른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얼마나 많은 유능한 작가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을 주면서도 어린이를 무관심하게 버려두는가!

- 316 ‘지적’ 준비는 편집 사도직이 요구하는 종교 및 세속 학문의 자질 외에, 어린이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 어린이문학의 역사와 어린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적 윤리적 관점: 어린이문학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비판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어린이에게 기본적 자양분을 제공한다.

-어른의 책임(부모, 교육자,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하는 사람들): 유아기를 위한 작품의 선택과 방향이 어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체제: 어느 정도 학교 교육 체제에서는 문학이 교육과 양성의 기초를 이룬다.

문학사는 오래된 것인 동시에 최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래된 것이라 함은 본성, 심리적 태도, 인식방법을 표현하는 놀이와 행동, 어린이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묘사가 고대문학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우리 시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발견되기 때문이다. 곧 호메로스Homeros에서 조반니 파스콜리Giovanni Pascoli에 이르기까지, 이솝우화에서 오늘의 비행기 묘사에 이르기까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 문학 역시 문학 예술이 317 장구한 만큼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것이라 함은 거의 모든 현대 국가에서 이전에는 그다지 많이 탐구하지 않던 어린이세계에 대한 연구와 관찰 결과 어린이를 위해 쓴 책과 신문으로 형성된 아주 방대한 문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서두르듯 어디에서든 신속한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도처에 만연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문학은 어디에서든 직접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 교육의 동인 역할을 수행하려 했으며, 항상 더욱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예술적이기를 지향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세 가지 기본 시기인 유년기, 유아기, 사춘기의 어린이 심리학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유아기는 어린이의 첫 6년을 포함하며 세 단계로 드러난다. 첫 단계는 출생부터 15개월이다. 무엇보다 언어 습득으로 특징지어진다. 초기에는 별로 구별되지 않고, 뒤이어 자기네 특성에 따라

획득하게 되는 감정과, 아이가 사는 환경을 형성하는 사람과
318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더욱더 명확해진다. 둘째 | 단계는 세 살에서 끝난다. 이 시기에 아이는 큰 모방자의 기질을 드러낸다. 셋째 단계는 세 살부터 여섯 살까지 확대되며, 아이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유아기 세 단계에서 교육의 목적상 그리고 문학의 목적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왜’라는 형태를 통해 드러나는, 채워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듯한 호기심이다. 여기에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에게 이야기한 것과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이의 뜻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변덕스러움이 겹쳐진다. 유아기는 여섯 살부터 거의 열두 살까지 지속되는 유년기에서 꽃봉오리를 맺는다.

유년기는 교육과 지도의 시기인데, 이미 스스로 사회생활에 결부되었다고 느끼는 어린이는 신체적 활동과 윤리적 활동을 실행하는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발달과 완성을 위해 쓰여지도록 이러한 에너지를 인식하고 북돋우며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유년기에 이어 사춘기가 뒤따르는데, 이 시기는 열두 살에서 거의 열다섯 살까지다. 매우 결정적인 인간 성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제2의 탄생이라고 정의한다.

지적 분야에서 사춘기는 대부분 주관적이다. 다시 말해 다소 덜
319 현실적이거나 | 어린이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 현실은 허구에서 수정되었거나 그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으로 채색된 상상의 창조다. 따라서 사춘기에는 상징과 거의 환상, 의식儀式, 외적 표징, 상징 부호를 좋아한다. 감성적인 그의 삶은 아주

풍요롭다. 호감이 에로틱한 감정으로 변하고, 때때로 불건전한 감정으로 바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의지는 자주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

사춘기에는 거의 하나의 상징적 계시라고 생각되는, 본성에 대한 관조에서 나오는 심미적 감정과 예술, 특히 음악과 시에서 나오기도 하는 심미적 감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하느님에 대한 그의 개념은 심판관이라는 생각, 곧 제재의 개념에서 생겨나지만, 아직은 철학적으로 귀납법과 연역법에 의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남성의 사춘기는 여성의 사춘기와는 다소 다른데,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지적 줄음이랄 수 있는 공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때로 울적함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것은 남성 사춘기에서는 드문 현상으로서, 남성은 더 활동적으로 운동경기나 게임에서 배추구를 찾는다.

더는 어린이도 아니요 아직 젊은 청년도 아닌 소년소녀는 사춘기 동안 그의 고유한 인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그의 요구에 상응하는 | 다양한 형태의 자기 표현을 통해 그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한편, 320
그러한 경향을 억압하지 말고 그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서 삶에 대한 올바른 개념으로 그를 인도해야 한다.

지혜로운 활동

어린이문학 분야에서 저술가 사도의 활동이 아이의 종교적 윤리 양성을 지향한다면, 곧 지상의 조국을 위한 좋은 시민으로 그리고 천상의 조국을 위한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준비한다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제작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로운 출판물에서의 ‘보호’. 이미 존재하는 고대문학과 현대 문학의 여러 가지 연속 기획물의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에 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작품이 그리고 특히 현대문학이 더욱 더 예술적이며 흥미 위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는 한, 한계를 넘어 천박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더 나빠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좋고 교육적이며 윤리적인 소수의 작품 사이에서 텅 비고 실체도 없는 다른 작품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이름으로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책 또는 신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실제로 사도는

-소년소녀의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학교 교과서와 독서용 책과 만화잡지를 구별하도록 일반 권위직과 종교 권위직에 있는

321 사람들, 가정 특히 어머니들을 | 설득해야 한다.

-교육자들이 유아기와 유년기를 위해 좋고 아름다운 문학서적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주어야 하는 판단기준을 중히 여기도록 납득시켜야 한다.

-설화적이든 상징적이든 고상한 예술형태를 통해 교육하고 양성하는 작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이러한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알고 주의를 기울이며 사랑하게 하고, 책이 중요한 선물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이의 필요에 부응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도는 이러한 방침에 자기 ‘제작’이라는 적극적인 작업을 첨가

해야 한다.

제작에 있어서는 늘 자기 사명에 일관성 있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특별한 종류의 제작에 국한시키거나 장소, 조건, 특정 나이 등 젊은 계층과 자신을 결부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소년소녀들, 작은이들, 더 큰 이들, 가난한 이들, 부자들, 가톨릭 신자들, 이단자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결같은 열정을 가지고, 항상 자기 목적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

저술의 종류, 방법과 원천¹⁾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2**

유아기와 유년기를 위한 문학을 구성하는 ‘모든 양식’은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특성이 있는 작품이나 원칙적인 이론서 그리고 윤리적 삶을 살았거나 구체적인 삶에 관한 저술, 역사적 성격을 띤 작품이나 전기, 사회적 특징과 환경에 관한 출판물, 동화, 전설, 모험소설과 공상소설, 모험과 과학 지식에 대한 공상적인 묘사나 이야기, 대중과학 서적, 유머와 레크리에이션 서적, 시집, 저널리즘 등과 같은 성격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도 자신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은 그림, 이야기, 비유와 직유다. 이러한 양식은 다른 것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활발하게 감정, 공상, 호기심과 유머감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이나 삽화]는 본문을 앞세워야 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이것은 특히 어린이, 어른 문맹인, 언어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1. Borla, 「어린이의 종교교육 *La formazione religiosa del fanciullo*」 참조.

유익하다. 화보, 전단지, 신문 등의 형태로 소개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채색된 것이라야 한다.

- 323** 어린 아이들은 소년이나 | 소녀 모델(그 모델이 성인聖人이라면 더 좋다)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 그림에서 소년은 자기 나이에 받아들이기 쉬운 행동과 표시에 마음을 빼앗기며, 마음에 들어 한다. 이를테면 아이를 안고 있는 동정 마리아, 어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 아이들 사이에 있는 예수와 같은 성경 장면, 성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그림, 곧 예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아네스, 장미 화관을 쓴 체칠리아, 바퀴 위의 [알렉산드리아의] 가타리나... 동정성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열망, 죄에 대한 증오, 허무에 대한 경멸, 나쁜 친구를 피하는 모습 등이다.

두번 째로는 신경信經의 열두 조항, 계명, 성사, 준성사, 기도 등 신앙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쉽게 기억에 남기고 오래도록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의 정신과 마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

아름답게 꾸며지고 잘 전달된 이야기는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를 낳는다. 능력 있는 사도라면 어린이의 정신에 더 고차원적인 진리도 새겨 넣을 줄 알 것이다.

어른들도 진리가 사실과 연결되었을 때 그 진리를 더욱 쉽게 마음에 새기게 된다!

‘비유’는 그 자체로 알아듣기 어려운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유를 통해 진리와 만나고 쉽게 친숙해진다.

- 324** 비유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설명과 종교적 정서를 키우는 데 유익한 것은 ‘직유’와 ‘비교’다.

이야기, 비유, 직유와 어린이를 위한 모든 형태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복음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 곧 단순하고 적합하며, 통찰력 있고 점진적이며 대화체라야 한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는 비록 일화가 많고 묘사가 장황하더라도 다양하고, 늘 새롭고, 짧고, 단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쉽게 그 리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짧을수록 윤리적 효과는 크다.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서 주제를 택하셨다.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나 이상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 않으셨다. 마치 모든 시대의 우화작가들이 사용한 것처럼, 동물이나 식물이 말하게 하지 않으셨으며, 생명력이 없는 것에 사람의 감정을 불어넣지 않으셨다. 늘 참된 현실에 머무르셨으며,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최상의 가르침과 윤리의 주제를 취하셨다. 예를 들어 되찾은 아들의 비유보다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직유는 어린이들이 잘 아는 사물, 그들의 환경에서 다룰 수 있는 사물에서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시골이나 산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어린이가 이러한 기계장치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

325

비유 또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며, 아주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쓰기 위해 저술가 사도가 ‘선호해야 할 원천’은 성경, 교부들, 성인들의 삶, 건설적인 전기다.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다룰 수 있으며, 어린이의 지성에 적합하고 평이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기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만족스러울 것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 곁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고, 작은 일을 거들고자 하는 나자렛 집에 있는 예수,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는 예수를 보여주어야 한다.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의 예수를 소개해야 하고, 그의 양부의 작업장에서 겸손하고 인내로우며, 아주 순종적으로 일하는 예수에 주목하게 해야 한다.

교부들의 저서와 교회 저술가들의 작품도 무궁무진한 원천인데, 그중 아주 많은 부분을 모든 시대와 장소, 모든 나이와 어린이들을 위해 알맞게 수정하고 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26 세 번째 원천은 모범적인 어린이의 삶, 젊은 성인이나 성인들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의 삶 등이다. 이를테면 성 루이지, 성 타르치시오, 성녀 아네스, 성녀 아기 예수의 데레사 등의 어린 시절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린이의 모범이요 놀라운 전형이다.

이러한 세 가지 근본적인 원천에 다음과 같은 다른 부차적인 사항, 곧 역사, 일상생활, 풍습, 유명한 사건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역사와 일상생활은 모두 풍요로운 일화와 공적이고 친근한 일화를 담고 있으며, 저술가 사도의 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서, 적합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해야 한다.

무의미한 내용도 있다. 이러한 것은 한쪽으로 밀어둘 필요가 있다. 교육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반면에 정신을 일깨우며 마음을 건드리는 것, 그래서 더욱 향상시키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만을 모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관습(인사, 존경의 표시와 같은 것), 일상의 사건, 자연은 어린이가 이해하도록 직유의 놀라운 요소를 제공한다.

유명한 사건도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영혼에게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원천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 비록 그 원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27**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사도를 통해 늘 개정되어야 하고, 연약한 어린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하느님이 약속하신 상급 외에 어린이가 따르고 기억하고 기대에 보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도 어느 정도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제23장 선교학

선교문제는 대부분 저술가 사도가 고심하고 열중하는 문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가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면 참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흠숭할 줄 모른 채 수억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사실 앞에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종족이 아직 그들을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죽으셨으며, 그들이 은총, 행복, 영광의 상속자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가!

실제로 사도는 지식, 협력, 기도로 독자를 인도하면서 선교사명에 전념한다.

329 선교에 대한 지식

선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교회에서 의도하는 '선교'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화로 신앙을 전하기 위한 파견.

-선교활동의 '이중 목적':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지향하는 일반목적과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특수목적.

-교의적 서술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선교학 연구': 일반분야에 대한 가르침은 선교적 사고가 근본 바탕이다. 곧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가톨릭교회는 성경적 교부학적

교의적 윤리적 전례적 사도적 토대인 신앙을 선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표현방법에서 선교활동을 포괄하는 특수분야는 법률(법적 분야)과 교수법이 포함된다. 서술적 연구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묘사, 곧 선교기술학(宣敎記述學)(타종교 연구, 유비, 선교지리학, 선교 통계학 등) 연구를 말한다.

실천선교학은 실용선교학뿐 아니라 협력선교학을 말한다. 전자는 | 선교에 임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교계제도가 이미 잘 갖추어진 나라에 사는 가톨릭 신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330**

이러한 전반적인 지식은 선교에 관한 수단과 방법과 편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완성된다.

선교 ‘수단’은 시기, 장소, 사람,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라는 상황에 따라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많은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선교지역 연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어떤 곳으로 갈 것인가?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떠한가?

선교 ‘노선’은 마음의 노선이다. 선교에 있어서 큰 성공이든 큰 실패든 대부분이 이 노선을 발견하고 따랐는지 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에 달려 있다. 사도들과 위대한 선교사들은 이러한 점에서, 예를 들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자캐오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군중을 매료시키는 방법을 통해 보여주신 천상 스승의 통찰력과 섬세함을 본받았다. 이러한 노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해지며 연구, 경험, 적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싸이아¹Massaia는 에디오피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의술을 펼쳤다. 민지 않는 이들은 천연두를 고치기 위해 그에게 갔고, 그는 이를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331 초창기의 | 예수회 회원들은 천문학을 이용하여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선교사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자선을 베풀었다. 그 증거로서 많은 병원, 요양원, 고아원, 학교, 구호활동 등 거의 모든 선교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시작했다.

선교, 선교사, 선교사의 활동에 관한 ‘편견’과 ‘오해’는 대단히 많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사상과 영향력을 퍼뜨리는 중요한 유포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앙에 반대하는 이들이 선교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의 복음 활동이 아니라, 이 머나먼 지역에 자기 나라의 정치적 영향과 상업적 교역의 영향을 전달해 줄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자기 나라에서는 종교인들을 박해하는 한편, 국외에서는 정치적 또는 상업적 성격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돕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 대신 해외로 민족주의만을 가져가는 선교사는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유포 내용을 오염시키고 불모화시켜버린다는 사실을 수세기의 경험이 증명한다. 그럼에도 그가 정치적 선전에 연연해하지 않고 좋은 선교사 역할을 한다면, 비록 직접은 아니더라도 자기 조국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1. * Guglielmo Massaia(1809-1886), 피에몬테 출신의 카푸친 수도회 선교사로서, 1884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는데,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를 대단히 칭찬했고, 영화 <Abuna Messias>(1938)를 그에게 헌정하려 했다.

‘선교에 대한 지식’은 어떤 이에게는 필수적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선교학은 성직자, 선교사, 호교론자, 학자, 반대자… 들에게는 **332**
‘필수적’이다.

‘성직자들’에게는 사목적 사명과 목적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신학과정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선교사들’에게는 그가 미래에 전개할 활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이미 그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학자들’에게는 이론적 학문적 관점에서나 실천적 관점에서 선교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호교론자들’에게는 교회의 반대자들, 특히 그들의 오류를 펴뜨려 우리 분야에 침범하고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수확물을 약탈하는 개신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과 맞서 투쟁하는 일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반대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선교활동을 마비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 필요하다.

게다가 선교에 대한 지식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 지배자와 종속자 등 모두에게 ‘유익’하고 중요한데, 이는 누구도 선교를 막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돕도록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다.

선교 개념에 깊이 통달한 저술가 사도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선교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333 선교를 위한 협력

선교에 대한 지식은 협력을 통해 더욱 넓어진다. 여기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르는 것은 존중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다.”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다.

협력수단 중 선교사 성소와 토착인 성직자, 후원금, 교황청 전 교기구, 다른 모든 단체와 연합회 등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상기해보자.

성소: 선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외선교를 배가시키고 토착인 선교활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소, 곧 쌍방에 남녀 수도자, 사제, 평신도, 남녀 교리교사가 필요하다.

저술가 사도는 성소를 고무하고 지탱할 뿐 아니라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거룩한 이유 때문에 자기 자녀를 기꺼이 봉헌하도록 부모를 독려할 것.

-하느님의 섭리는 신자들이 재정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선교 사도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리 유복하지 않은 조건이나 가난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 성소를 일으킨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이해시킨다.

-그러므로 선교단체와 선교활동을 위해 장학금, 연금, 갖가지

334 헌금과 같은 재정적 기부를 통해 | 관대하고 사랑에 넘친 협력에 동참하도록 설득한다.

후원금: 비오 11세는 회칙 레룸 에클레시아*Rerum Ecclesiae*²에서 이렇

2. * 1926년에 발간된 회칙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의 선교 전개에 관한 내용.

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거의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후회하지도 말아야 한다.” 람벨리Rambelli는 「작은 선교교리*Piccolo Catechismo Missionario*」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원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복음화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할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는 선한 사람들에게 열렬히 호소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모든 후원금 형태로 선교의 필요에 대비하도록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협력의 특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교를 위해 개최하는 선교나 비선교를 주제로 하는 다과회(슬라이드 영상, 영화상영, 발표회, 연극, 낭송회), 성물과 제의 제작, 선교 전시회, 후원금 접수대, 선교를 위한 저금통, 사용한 우표와 사용한 엽서 수집, 은박지 등, 선교 개념에 대한 구두 및 문서 홍보, 영세자들을 위한 헌금, 선교단체를 보살펴 주는 신자들의 단체, 토착인 신학교를 | 335 보살펴주는 신학교, 특정선교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본당, 대목구나 지목구를 맡아 돌보는 교구, 협력하는 특정활동을 원하는 어린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가 선교를 도와주고, 관대한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방법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선교단체: 더 나아가 사도는 열성을 다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교황청 선교기구인 교황청 선교회,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다른 성직자 선교단체, 노예제도 폐지론

-모든 일반 단체와 특수 단체, 다시 말해 모든 선교활동을 도와주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나 일정한 사명 또는 선교활동의 특정한 측면을 도와주는 단체.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협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나열한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 외에도 이를 테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협력의 의무,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의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서 도출되는 설득력 있고 매력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336 선교를 위한 기도

‘기도’는 모두에게 항상 어떤 장소에서든 가능한, 선교를 위한 수단 중 가장 첫째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선교 협력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교황청 문헌에는 선교 사도직 분야에 관해 쓰면서 기도에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기도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복음서, 신학, 역사는 형언할 수 없는 기도의 효력을 증명한다. ‘복음서’는 스승의 요청, 호소, 충고, 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좋은 것을 청할 때 항상 들어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청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곧 성부께 “온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가 어디에서든 인정받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청할 때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학’은, 선교 사도직의 최종 목적인 ‘초자연적 삶’은 은총 안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 은총은 구원의 | 길을 아는 하느님의 지혜, 그 구원을 실현할 줄 아는 하느님의 권능,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어지심에 호소하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 **337**

마지막으로 ‘역사’는 수도원과 제대 앞에서 행하는 명상을 통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바친 희생이 신앙 전파를 위해 기여했는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한다.

선교를 위한 기도의 큰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신하는 사도는 사람들과 특히 어린이들과 수녀들이 추수의 주인께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천상의 빛과 은총으로 도와주시기를 청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모든 이가 주님의 기도에서 청원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adveniat regnum tuum*’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해야 하며,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 기도 사도직의 위대한 활동, 지속적인 기도로 삶을 변화시킬 필요성과 방법을 촉진해야 한다.

기도의 협력에 대한 일치는 ‘고통’의 동참으로 이어진다. 사도는 고통의 본질, 필요성과 효력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선교를 위해 고통의 나날을 승화시키고, 특히 자발적인 고통의 관대한 봉헌을 독려하며, 생명까지 봉헌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속죄와 사랑의 희생제물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 그들을 비추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 **338**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기도와 활동의 협력을 통한 모든 신자의 일치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 * *

선교에 관한 저서는 아주 다양하다. 그 가운데 지리적 배경, 종교적 배경, 전기적 배경이 담긴 서적은 권할 만하다.

첫 번째의 경우,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인종 지리학과 그곳의 지배적인 윤리에 관한 것을 다루어 독자가 그 나라 국민에 대한 연민을 갖도록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선교활동에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오직 수도자들만이 이런 활동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우는 위대한 선교사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을 통해 선교사명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선교활동과 선교를 위한 기도로 이끌기 위해 선교를 알려야 하는 이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확신에서 오는 관대함이 따르기 때문에 근본목적은 하나라야 할 것이다.

제24장 학술서적

339

학술서적도 출판 사도직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종교적 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든, 세속적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든 공부는 하느님을 추구하고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도가 학술서적에 마음 쓴다는 것은 거의 지도자, 다시 말해 군중을 가르쳐야 할 사람에게 마음 쓴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마음 쓴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다. 지도자의 양성자이셨던 천상 스승의 귀감이 이를 증명한다.

어떤 서적을 다룰 것인가

사도는 모든 연령층과 모든 | 상황의 학생과 교사를 위한 서적, **340**
 곧 모든 학술서적, 모든 거룩한 학문과 세속적인 학문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다 겨냥할 수 없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곧 가톨릭 신앙과 건전한 윤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것과 학문을 통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들어높이는 일이다.

종교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을 추방하는 일은 때때로 필요하다. 사실 몇몇 나라에서는 지식층이 그리스도인다운 교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이 학술서적을 통해

윤리적 타락과 지적 부패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오류와 많은 이단이 사람과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심지어 어른들이 겪는 극심한 동요와 혼란은 한권의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때가 자주 있었다.

공부를 통해 하느님께 들어높이는 일은 저술가 사도에게 있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동기가 명성이나 또는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충만한 애덕에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가 준비하는 학술서적은 반대자들의 서적, 반가톨릭 서적, 비가톨릭 서적이거나 무관심한 서적을 압도할 만큼 우수해야 한다.

- 341**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 영적 가치, 문학적 품위, 교육적 효과와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영적 가치: 다시 말해 그러한 서적을 선택하는 사람의 영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되고, 학문과 종교분야에서 가능한 한 그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문학적 품위: 신앙이나 윤리적 이유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한 다양한 시대와 그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는 학문과 예술의 가장 뛰어난 모든 규칙에 부응해야 한다.

교육적 효과: 시대, 장소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참된 인간, 시민,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실천적 규범

위에 나열한 세 가지 특징은 모든 서적을 통해 제시해야 하는 주제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곧 학문과 본성을 통해 하느님께 들어높이는 것이다. 이는 다양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다양하게’, 곧 여러 학문분야에 적합할 것. 사실 어떤 것은 물리학(일반 물리학과 특수 물리학)에서, 어떤 것은 수학(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에서, 또 다른 것은 철학(논리학, 형이상학, 미학, 윤리학, 역사학)에서 도출한 가르침일 수 있다.

‘훌륭하게’, 곧 상처를 주지 않고, 지치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유쾌하고 흥미롭고 설득력 있으며 매력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

제25장 지리학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문과 예술 가운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리학이 포함된다.

사도가 지리학을 개인과 사도직에 도움이 되게 할 줄 안다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리학을 다루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리학

창조, 땅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며 특히 땅과의 관계가 그러하므로 그 누구도 지리학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다.

지리학에 대해서는 다소 폭넓은 이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343**가 하면, | 실천적 지식에 국한된 사람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나 지리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는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께 들어높이기 위해 이러한 보편적 사실을 가치 있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 지리학과 지리학의 여러 분야 (천문 지리학, 물리 지리학, 정치 지리학, 상업 지리학, 인문 지리학, 민족 지리학, 윤리 지리학, 종교 지리학)에 관한 연구 서적과 논문을 통해 독자에게 이리저리한 하느님의 진리를 상기시키면서 알맞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늘

제시해야 한다.

가끔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가톨릭 교의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¹ 곧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다른 존재와 공존 하도록,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게 하시고자, 당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다른 이에게 전달하며,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시기 위해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드셨다.”²

그리고 가끔은 피조물의 선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무익하지 않으며, 근원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땅에 그리고 땅의 일부에 국한시켜서 사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땅을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 선사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연구와 관상, 자연과 자연의 각 부분에 대한 단순한 관찰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께로 들어높일 수 있는 기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344**

예를 들어 쾌청한 하늘, 꽃들의 아름다운 환호, 새들의 지저귀, 태양에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 푸른 바다의 광활함 등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할 만큼 드높은 곳이 있겠는가?

자연이라는 책은 모든 범주의 사람, 모든 연령층, 모든 삶의 조건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히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의 소유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읽고 또 이해한다.

1. 창세 1,1: * “Deus creavit caelum et terram.”

2. 잠언 16,4: * “Universa propter semetipsum operatus est Dominus.”

예를 들어 산山은 피에르 조르조 프라싸티P. G. Frassati의 영혼에 강렬함을 불어넣었다. 그는 산에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관상했다. 하늘을 배경으로 뾰족하게 우뚝 솟은 그 바위에서 세상을 벗어나 하느님을 만나는 쉬운 방법을 찾았다. 그곳에서의 기도는 더욱 감미로웠으니, 자신의 목소리가 자연의 목소리와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창조된 세상은 하느님 안에서 정신과 마음이 황홀해지는 하나의 조화로운 노래였다.

그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말해준다.

오, 사도는 창조주께 창조의 [찬미가]를 읊어드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노래, 별과 땅, 자연의 모든 노래에 자기 마

345 음의 노래를 | 합치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도에게 도움이 되는 지리학

사도에게 있어서 지리학은 하나의 특별한 과제를 지닌다. 곧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되게 하소서.”³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기 위해 자기 존재를 알도록 분발시키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목적 방법으로 지리학을 소개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리학의 개요와 논문이 일반과학 소식과 함께 사람의 학문적 운

3. 요한10,10. * 더 정확하게는 요한17,3과 10,16 참조.

리적 종교적 상황에 관한 발전을 가져다준다면 사목적인 것이 될 것이다.

학문적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한 교육차원의 소식으로는 불충분하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생각, 현재의 철학사상, 결과적으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중성인지 저널리즘과 출판 전반의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톨릭 신자들, 특히 | 수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지), 영화, 라디오 등에 관한 정확하고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그 글의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46

학문적 상황처럼 윤리적 상황도 나라마다 다양하다. 모든 민족은 모든 개인이 그러하듯 저마다 고유한 특성, 고유한 전통, 고유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톨릭에 대한 희망, 이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법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실제로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라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은 정당정치를 하는가? 윤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정치체제는 그리스도교적인가? 통치자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가? 정치풍토는 건전한가? 사법부는 올바른가? 법률이 공중도덕을 보호하는가? 상거래와 계약체결에 도덕이 지배하는가? 계층과 신분 간에 협력하고 투쟁하는가? 교황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정에서 정직하고 평화로우며 서로 존중하는가? 개인이 방종과 위험, 쾌락을 피하는가?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는가?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해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믿는 다양한 종교, 가톨릭 신자, 성직자, 수도자의 숫

347 자, 조직, | 진보, 어려움과 수월함, 선교사들의 숫자, 그들의 활동과 단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특별히 선교지역에 대해 다루면서, 교회의 교화 사명에 대해, 선교활동이 인류 발전에 미친 학문적 지리학적인 지대한 공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선교사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신앙과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사도일 뿐 아니라, 인류 발전의 지대한 공로자인 동시에 탐험가, 과학자, 개혁자, 문명의 교화자라는 것을 상기함은 이로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호감이 가는 방법으로 소개하여 사람들이 분발케 하고 거룩한 이상에 젖게 해야 한다.

출판 사도직이나 선교 사도직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책을 준비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젊은 학생들의 정신이 위대한 이상과 그들의 눈이 광활한 활동 지평을 향해 열리도록 기여하는 바를 다룰 것이다. 사람들을 **348**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와 희생과 자선활동이라는 | 애덕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제의 사명, 수도자의 사명 그리고 관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얼마나 숭고하고 광범위한지를 알게 해야 한다.

종교와 무관한 한 예가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테느Taine는 자신이 그동안 몰두하여 지리학에서 얻은 연구 결과의 많은 부분을 위대한 정복자인 나폴레옹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세 개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상상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첫 번째 지도는 참모본부의 지도처럼 자세한 지형도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만든 군사지도로서 요새의 세밀한 평면도와 육군과 해군

등 모든 군대, 모든 군수품, 연대, 포병대, 병기고, 군수품 창고, 현재와 미래의 보유 인원, 말, 마차, 무기, 탄약, 식량과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배치도다.

두 번째 지도는 국가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두꺼운 책과 같은 문화 지도로서, 일반 및 특별 수입과 지출, 세금, 국유재산, 연금, 공공사업에 관한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권한의 계보, 교회의 교계제도, 사법, 각료, 각 기관장, 교수들의 모든 계보 및 각자의 직위, 거주지, 권한, 급여 등이 나와 있다.

세 번째 지도는 거대한 인명사전 및 윤리 사전으로서, 마치 경찰서의 기록보관소처럼 모든 저명인사, 모든 지역의 단체, 모든 직업 | 또는 사회계층 그리고 각 사람의 현재 조건, 필요한 사항, 이미 행 349
한 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의 특징, 미래에 취할 수 있는 태도와 예상되는 행동 등을 요약하여 명시해 놓은 각 사람의 작은 서류함이 들어있다.

정복이 끝날 무렵에는 이 세 개의 지도가 더 확장되었음에도 그 전체가 여전히 위대한 나폴레옹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전체적인 개요와 특별한 요점까지 알았을 뿐 아니라, 모든 세부사항까지 숙지하고 있었다. 그는 늘, 매시간 그것을 읽었다. 자신이 직접 다스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 다양한 나라, 그가 정복했거나 거쳐 간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부분과 종합적인 면을 보았다. 처음에 프랑스는 벨기에와 피에몬테로 확장했고, 그 다음은 그가 머물렀고 귀환했으며 자신의 형제 조제프 Joseph에게 맡긴 스페인으로 확장해 갔다. 남부 이탈리아에는 조제프 대신 뮈라 Murat를 임명했고, 로마가 위치한 중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에는 그의 부책임자인 에우제니오 Eugenio를 앉혔다. 그의 제국에

합병시킨 달마티아Dalmatia와 이스트리아Istria, 두 번에 걸쳐 침략한 오스트리아, 그가 조직해서 이끌었던 라인 연방Confederazione del Reno, 그의 형제인 루이Louis와 제롬Gérom을 총독으로 임명한 웨스트팔리아Westfalia와 네덜란드, 승리한 후에도 손에 넣지 못한 프리시아Prussia는 | 요충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것이 위대한 정복자의 비결이다.

성 바오로와 그리 다르지 [않다.] 성 바오로를 다음과 같이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 이방 세계의 지리학적 파노라마에 눈길을 두고, 밤낮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소진하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향기를 모두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⁴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사도의 영혼은 이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사도에게 도움을 주는 지리학은 만물의 첫 근원이요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께 정신, 의지, 마음을 인도하는 데 걸맞는 수단이기에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사람들의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한다.

4. *마르 16,15.

제26장 서지학 잡지

351

출판사도직은 그 특수목적에 따른 작품을 제작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다른 것 중에서도 국제 출판물과 국내 출판물, 특수 출판물 제작에 관해 사람들의 정신과 양심을 이끌어 주는 과제도 떠맡는다. 이 점에 있어 나쁜 출판물을 단죄하고 좋은 출판물을 지지한다는 이중의 목표를 제시한다.

5대륙에서 매일 수백 권 그리고 수천 권의 책과 잡지가 출간된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가 필요하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 거짓 교사 참된 교사나에 따라 선이나 악, 진리나 거짓을 가르친다.

가르치는 교회는 이처럼 방대한 모든 출판물을 즉각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 대신 사도는 교회의 지지, 교회와의 의존관계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다. **352**

목적에 더 적합한 활동은 물론 국제 출판물과 국내 출판물을 위한 서지학 잡지와 특수 출판물을 위한 서평이다.

서평에 대한 주제는 다음 장으로 미루고, 지금은 두 가지로 제시하는 서지학 잡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하나는 국제 출판물을 위한 일반 잡지고, 다른 하나는 국내의 지역출판이나 특별한 양식과 저자의 출판물을 위한 잡지다.

일반 잡지

전 세계 출판물(적어도 영향력 있는 출판물) 제작은 사람들의 정신과 양심을 이끄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출판물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원칙에 토대를 둔 권위 있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런 다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교회와 사회에서 대중과 독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잡지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매우 섬세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1. 가톨릭·복음적·그리스도교적 원칙에 따라 출판분야에서 전개하는 모든 활동을 검토한다.

353 2. 필요한 신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며, 거짓 학문에서 참된 학문을 구별하고, 자연과학에 계시의 빛과 희망을 비추어 주며, 새로운 필요에 가톨릭의 가르침을 적용한다.

3. 현대사상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 어떠한 작품과 정기간행물이 적합한지 지시하고, 아직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이제 결론에 이른 주제 및 이론^{異論}이 없는 주제를 언급한다.

4. 배제해야 할 주제와 작품, 다루어야 하고 보급해야 할 기품있고 중요한 주제와 작품에 관하여 저술가, 편집자, 서적 판매원, 보급자를 비추고 인도한다.

5.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원천에서, 부도덕한 그릇된 선생에게서 보호한다.

6.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사상과 거룩한 삶의 원천에 대해 명시한다.

7. 결국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돕고

구원하기 위해 출판을 이용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고안한 하나의 잡지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독립된 개체로는 부족하다. 권위 있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시의적절하게, 공정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편집자들의 단체가 필요하다. 매일 수없이 발행되는 모든 학문, 모든 형태, 모든 문학 장르의 출판물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 잡지

354

특수 잡지란 잡지형태나 평론잡지 형태일 수 있다. 이것은 저술가, 출판업자, 서적상, 보급자 그리고 특히 책임을 맡은 부모, 교육자, 사서, 사목자를 인도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면에서 실천적 목표를 지니고 있어 때때로 필요하며 실제로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종류의 잡지로 이탈리아에는 카사티Casati¹의 「독서잡지 *Rivista di Letture*」가 있다. 특히 윤리적 종교적 측면에서 대중 서적의 내용을 평가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대중의 독서를 안내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실천적 규칙을 제공하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책, 곧 어른을 위해 유보된 책이나 특별한 독자층을 위한 책 그리고 가톨릭 도서관에 넣어야 할 책을 분류해야 한다.

언급한 잡지는 길고 고달픈 작업 결과로서, 해로운 독서의 심각

1. * Giovanni Casati(1881-1957)는 밀라노의 신부요 저널리스트, 사회 지도자로서, 1904년에 이탈리아 연합 가톨릭 순회 도서관 기관지인 '가톨릭 도서관 회보'로 창간된 「독서 잡지 *Rivista di Letture*」를 1912년에 인수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1921년에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도서관 총 연합”을 창설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잡지는 1946년에 추기경 슈스터Card. Schuster에 의해 산 페델레 San Fedele의 예수회에 양도했고 「독서 *Letture*」라는 새로운 표제로 창간되었다. 1994년 6월부터 성바오로 잡지사에서 출판하고 있다.

한 위험에서 비전문가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 건전한 원칙에서 영감 받은 작품을 읽도록 제시하고, 부모, 사서, 교육자와 영혼의 지도자에게 실천적이고 확실한 안내가 된다.

종교적 대중적 분야에서 열성적인 이탈리아 사제가 제시하는 본보기는 지적 목적이든, 윤리적 경제적 또는 여가 선용의 목적이든 모든 종류의 제작물을 위해 아마도 모든 나라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355 특수 잡지는 일반 잡지의 목적과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특징을 지녀야 한다. 곧

권위: 이 때문에 작가, 편집자, 서적상과 독자는 아무런 동요 없이 확신과 비추임을 얻게 된다.

정확도: 주의 깊은 검토와 객관성에 상응하는 판단.

명료함: 사상적 윤리적 그리고 예술적 가치에 관한 균형있고 확실하며 판단이 정확하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곧 ‘사목적’, ‘객관적’ 특징으로 (난해한 표현으로 과시하거나 쓸데없는 과찬, 굴욕적인 지나친 비난이나 단순한 문학비평도 아닌, 그야말로 균형 잡힌 객관적 판단이어야 한다.)

시의 적절함: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출판물에 대해] 제때에 현재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들에게 도달하는 시간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공평함: 잡지의 명성과 그에 따른 보급을 보장해 준다. 잡지는 이를테면 어떤 저자나 편집자에게, 어떤 단체나 정당에 ‘매수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시대와 상황이 잡지의 표제, 발행 간격, 특성을 시사할 것이다.

제26장/2 서평

356

여기에서 ‘서평’이라는 용어는 작품의 장점과 가치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새로운 작품에 대한 ‘논평’이라는 과학적 의미와 ‘비평심사’라는 실천적 의미를 지향한다.

출판 사도직에서 서평은 독자와 보급자를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전자가 책의 선택을 통해 비추어 준다면 후자는 보급을 지혜롭게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완전한 서평’, ‘양심적인 서평’, ‘전문성을 갖춘 서평’이어야 한다.

완전한 서평

357

서평이 저자, 작품의 제목, 출판사, 판형, 인쇄 디자인, 페이지 수, 내용 요약 및 사상적 윤리적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면 완전하다.

새로운 작품의 ‘저자’는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이름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대신 다른 많은 경우에는 저자의 양력을 상기시키는 것과 이미 대중이 알고 있는 작품을 나열하는 것이 유익하다.

어떤 특정한 작품으로 유명한 저자일 경우, 예를 들며 「고백성사와 영적 지도의 점진적 실천 *Pratica progressiva della Confessione e della Direzione*

1. 「빵과 독 *Pane e tossico*», la stampa U.D., di A.C.I., Roma 참조.

*spirituale*²의 이탈리아 저자에 대한 것처럼 그 작품을 언급하면서 저자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저자, 비록 학식이 깊은 저자도 당대에 존경받지 못하거나 그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에 휘둘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 알폰소에 관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작품은 비난받았고 동시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다.

저자에 대해, 곧 그가 생존자인지 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인지, 국적, 신분(평신도, 성직자, 수도자인지),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특기 사항과 공적에 대해 그리고 그의 작품의 가치 등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

358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인쇄소다. 이러한 사실에서 | 흔히 기술적인 면과 같이 내용에 관해 그 책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 잘 조직된 모든 출판사의 출판물은 다른 출판사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형’, ‘페이지 수’, ‘가격’도 서평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독자들은 자주 이러한 정보를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용’은 독자가 서평에서 주제의 완전한 개념과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흥미로운 문학작품을 다룰 때에는 요약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요약·제시하기 어려운 작품을 다룰 때에는 차례나 전체적인 도식을 소개해야 한다.

2. *A.M.D.G. - 레오폴도 보드농 추기경 Leopoldo Beaudenom,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의 방법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정신에 따른 고백성사와 영적 지도 *Pratica progressiva... secondo il metodo di Sant' Ignazio di Loyola e lo spirito di San Francesco di Sales*」 vol. II, 3a ed., Marietti, Torino-Roma 1931.

‘판단’은 작품의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내적 가치는 적합성과 종교적 과학적 의미에서 내용을 다루며, 작품의 특징을 부각시켜야 한다. 외적 가치는 미적 관점에서 다룬다.

사도가 내려야 할 판단은 반드시 사목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대상이나 권할 만한 사람의 특정 범주를 실제로 언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급의 실용적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양심적인 서평

359

서평은 사람들에게 정의(正義)와 관련된 일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서평가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곧 ‘양심적으로’ 읽을 것. 특히 소설, 설화의 부적합하거나 모호하거나 미흡한 표현이나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다른 작품을 다룰 때에는 작품 전체를 ‘철저하게’ 읽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논평해야 할 작품의 저자, 출판사 또는 양식에 대해 가질 법한 호감이나 반감에 따라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사도는 자신의 흥미나 다른 사람의 기호를 찾지 말고, 오히려 작품의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작품에 결함이 있는데도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적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 작품이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구별할 때 ‘명료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이 권할 만한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을 위해 적합한 것인지, ‘전부 허사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수정이 필

요한지, 겨우 봐줄 만한지, 또는 절대로 배제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작품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을 명시함에 있어 ‘정확해야’ 한다.

출판되었다는 | 이유만으로 출판된 작품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360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이 판단하고 선택할 줄 모르는 채 무슨 작품이든 경솔하게 다 읽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톨릭 관점에 ‘기초’ 하고 뛰어나게 집필한 것이라 해도 모든 책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숙한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하겠지만, 젊은이에게 권하기에는 부적절한 작품일 수 있다. 오해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수준, 일정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책도 있다!

그리고 ‘소년소녀를 위한’ 책을 서평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잘 모르는’ 책이 그들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고, 그들이 동료에게 정보를 얻도록 부추기는 일이 허다하다.

그들을 혼란시킬 만한 것은 아예 없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야기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공상으로 이끄는 모험담은 권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 반대할 여지가 없지만 때로는 그림이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어른에게 적합한 주제를 다루면서 형태나 그림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361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 자기 책임을 이해하고 서평하는 사도는 논평해야 할 작품의 모든 요소를 항상 신중하게 숙고해야 하고, 득실을 평가해야 하며, 최소한의 단어로 가능한 한 가

장 완전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주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단을 종합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서평

위에 나열한 내용으로 보아, 서평은 무능한 사람이 실행할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오직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서평을 독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는 해당분야에 관한 부분만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서평가는 저자를 판단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학술서적 저자의 서평을 한다면, 그가 다루는 주제를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분야의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학술서적 저자의 작품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서평이니만큼 이러한 특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분명한 사상이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세상에 범람하는 수많은 출판물에서 선이나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사도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62

판단기준은 한시적이거나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확실해야 하며, 특히 종교분야에서는 절대규범을 확립시키는 기준이어야 한다.

신앙에 대한 주제에 있어 절대적 기준은 교의다. 계시된 진리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만 벌이거나 조롱을 허용하는 출판물은 말할 것도 없이 거부해야 한다.

관습에 대한 주제의 절대기준은 윤리법(자연법, 십계명, 복음, 교회법)이다. 이러한 법에 반대되고, 관습에 반기를 드는 출판물은 금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출판물은 가능하면 교회법과 금서목록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교회 검열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다른 실천적 판단기준이 유익할 것이다.

- 저자
- 출판사
- 상식

363 - 출판물의 간행 시기. 다른 시대와 관련된 판단을 자기 시대의 | 사람들과 사물에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다.

- 출판물이 간행된 배경
- 출판물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정 계층
- 출판물을 넘겨 받아야 할 사람들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특히 종교적 도덕적 양성.

제27장 정치학, 사회과학, 철학

정치학과 사회과학(사회학, 법학, 경제학), 철학은 신앙, 자연 윤리, 그리스도교 윤리의 수호와 전파가 필요할 때 저술가 사도가 다룰 수 있는 주제다.

다음 규범은 필요할 경우 일반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학

복음은 이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지니고 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¹ | 이는 비
365

둘기의 단순함을 겸한 뱀의 술기로움으로 사도가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특별히

1. 사도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두 개의 완전하고 독립된 사회요, 각기 영역이 있으며, 공통의 주체가 있다. 이 두 사회 사이에는 반대나 평행선상에 있기보다는 조화가 있어야 한다. 종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교회에 종속되어야 하고, 간접적 소극적 적극적 의존관계를 갖는다.

2. 사도의 정치학은 교황의 정치학과 같은 노선을 취해야 한다. 신앙과 윤리를 다룰 때에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가) 부당하지 않은 법에

1. 마태 22, 21.

순종해야 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 부당한 법일 경우, 충실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법에서 면제된다. 그리고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라면 하느님, 교회,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발하게 주장해야 한다. 직접 방어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와 희생에 의지해야 한다.

사회과학

여기서는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특히 사회학, 법학, 정치 경제학 세 가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66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방법과 우연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과학은 사회 구성원인 인간의 행동을 절대적 윤리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윤리부분에 속하며, 따라서 사도직의 고유하고 직접적이며 당면한 주제다. 가톨릭 저술가는 마치 성 토마스나 성 알폰소가 이 주제를 다룬 것처럼, 자기 주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상황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음 사항을 다룬다. 사회 사건을 일반법으로 풀어내는 방법(사회학) - 법률과 그에 대한 연구의 모든 것(법학) - 부유, 정치, 정의에 따른 사회운동을 운영하는 예술(경제학).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은 사도직의 간접 대상으로서, 사도직은 신앙과 종교를 거스르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다루게 된다.

사회과학은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지지해야 하듯이, 교회와 종교에 그런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사도는 어떤 경우에도 교황의 가르침에 포함된 복음의 사회적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사도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활동에 관한 교황청 문헌을 규범과 길잡이로 이용해야 한다.

이 문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교황 비오 9세에서 | 비오 12세 사이에 반포된 교황문헌을 꼽을 수 있다. 77년 367이라는 그 기간은 지금까지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시기였으며, 그 시기의 교황문헌들은 주로 사회를 재건하려는 교회의 열망과 인간의 인격, 가족, 가르침, 일, 자본, 소유권, 사회관계, 국가, 교회에 관해 다룬다.²

철학

철학 특히 윤리학은 사회과학 분야에 속한다.

사도는 철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교회에서 | 받아들이고, 가톨릭 신학 토대와 골 368

2. 문헌은 다음과 같다:

비오 9세: *Quanta cura*(1864), *Sillabo*.

레오 13세: *Inscrutabili Dei consilio*(1878), *Quod Apostolici muneris*(1878), *Arcanum divinae Sapientiae*(1880), *Diuturnum*(1881), *Immortale Dei*(1885), *Libertas*(1888), *Sapientia Christiana*(1890), *Rerum novarum*(1891), *Inimica vis*(1892), *Graves de communi*(1901).

비오 10세: *Il fermo proposito*(1905).

베네딕토 15세: *Pacem, Dei munus pulcherrimum*(1920).

비오 11세: *Ubi arcano*(1922), *Divini illius Magistri*(1929), *Casti connubii*(1930), *Quadragesimo anno*(1931), *Nova impendet*(1931), *Caritate Christi compulsi*(1932), *Vigilanti cura*(1936), *Divini Redemptoris promissio*(1937).

비오 12세: *Summi Pontificatus*(1939), *Radiomessaggio per il cinquantenario della Rerum novarum*(1941), *Radiomessaggio di Natale*(1941).

Giordani, 「사회 대백과사전[*Le Encicliche sociali*], Studium, Roma 참조.

격을 구성하는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 철학을 따라야 한다. 사도는 물론 두드러진 반대 철학 체계를 설명할 수 있고, 사상의 분기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그 철학의 슬픈 결과뿐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 대신 간접적으로 다룰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철학을 따라야 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도움과 증거³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 철학이야말로 참된 철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은 사도의 의무다.

사실 참된 철학이라는 이름은 우주, 자연과 인간생명의 문제에 관해 오류가 없는 걸맞는 이름이다.⁴

그리고 그리스도교 철학만이 이러한 모든 오류에서 자유롭게 하는 계시의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리스도교 이후에만 철학이 삶에 관한 근본문제에 대한 오류를 피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을 통해서만 성 토마스 데 아퀴노와 영원한 철학의 추종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진보가 가능했다.

정치학과 사회과학, 철학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369 사랑이라는 모든 인간의 두 가지 위대한 의무로 대중을 |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 학문들을 그 의미대로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 나열한 특별 규범은 다른 학문, 특히 전문적인 학문을 다루기 위한 안내로도 이용할 수 있다.

3. * 원문의 단어는 'probatico'.

4. 「기톨릭 문화」, 1월 1935, 2029호(quaderno) 참조.

제28장 일러스트레이션

370

일러스트레이션, 다시 말해 생각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그림, 도형은 그것의 심리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알맞게 사용했을 때 사도직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심리적 잠재력¹

미美적인 의도 외에 그 어떠한 양식이든, 그리고 소개하는 형태가 어떻든 일러스트레이션은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것, 의지를 움직이는 것, 감정에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라는 세 가지 목표 중 적어도 | 한 가지를 제시한다.

371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인간은 언제나 이해뿐 아니라, 쉽게 동화²되도록 비록 거친 목판화나 동판화일지라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건을 이론과 문학적 과학적 대중적 작품을 설명하고 동반할 필요를 느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모든 분야에 열려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는 마치 초자연적 자연적 세상을 향해 개방된 문과 같다.

사실 삶과 세상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움, 힘, 지혜와 업적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가장 높은 진리인

1. 「그림의 심리학 *Psicologia dell'illustrato*」 di S.T. Serini, in 「흑과 백 *Bianco e nero*」, Sales, Roma 참조.

2. * Apprendimento(습득), assimilazione(동화).

신앙, 윤리, 은총을 표현하고 설명해 준다.

인간의 크나 큰 열망 중 하나에 상응하는 초자연적 영적 자연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고, 비록 상상의 형태지만 경이롭고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숭고함과 바다의 심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밖에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했던 모든 것, 아주 먼 미래에 존재할 것까지도 제외시키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뿐 아니라 교훈, 교육, 양성 분야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글이나 인쇄된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372 책 한 페이지가 비록 잘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이 파놓을 수 있는 고랑보다 더 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서는 상상을 감동시키지만, 일러스트레이션은 눈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바와 같이 “반짝이는 눈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³

그러므로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상, 욕구, 지성과 의지에 말하기보다 먼저 호감이 가는 방법으로 감각에 말을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좋은 철학이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지성은 “우리에게 현실을 형성시켜주는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⁴ 이해하기 때문에 인쇄물 자체가 갖지 못하는 더 매력적인 암시의 힘을 갖는다. 관념은 감각을 통해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제시하는 이미지가 인상적이고 더 생생한 만큼 더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마음[속에] 스며든다.

3. 잠언 15,30.

4. * “per conversionem ad phantasmata.”

사도직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용성

인간의 모든 천재적 발견처럼 일러스트레이션 자체는 진리와 거짓, 악습과 덕성, 하느님과 사탄에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힘이다.

사도의 손을 통해 초자연적 수단, 은총에 협력하면서 지성을 | **373**
신앙으로, 의지를 삶의 성화로, 마음을 하느님과 의 일치로 자극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연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가톨릭교회에서 항상 [성화]에 대한 공경을 선언했고 옹호했으며, 옳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작품과 제4차와 제8차 세계 공의회 교령을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편 매일의 경험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역사와 관습이 이를 입증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주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영적 요람기와 다른 고결한 가르침 등을 가장 단순한 사람들에게도 접근하기 쉽게 해주었다.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강생의 신비와 같은 가장 높은 신앙의 신비를 어린이들도 납득하도록 도와준다.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 앞에 서면 하느님의 섭리와 정의의 참된 의미를 수락하도록 이끄는 초자연적 힘을 느끼게 된다.

계명들에 대한 묘사, 성인들의 생애와 덕행에 대한 그림은 선에 대한 의지의 확고한 제안을 쉽게 깨닫게 한다.

신실한 영혼에게 유보된 상급과 불충한 이에게 주어질 징벌을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 순교자들과 증거자들과 같이 | 하느님을 위 **374**

해 일하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은 계명 준수, 그리스도교적 덕의 실천, 수도서원 실천에 합당한 하나님 뜻을 관대하게 끌어안도록 자극한다.

십자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위대한 책이다. 계명들에 대한 그림은 사람이 계명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마음을 갖게 한다. 미사나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한 그림은 신심, 명상, 신앙, 애덕을 불러일으킨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사랑, 고통, 겸손, 기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천사, 성인들의 성화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까지도 매우 우아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복자 안젤리코의 성모 마리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레포의 예수 성심 성화 앞에서 그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교의, 윤리, 성사, 준성사, 기도는 예술을 통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사도를 위한 규범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사용하라.’ 하나의 그림은 하나의 논문, 한 권의 책에 비길 만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미개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창조,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75 의 강생, 수난, | 죽음, 부활, 성령강림, 십계명, 칠성사, 사말 등 52개의 성화만으로도 신앙의 핵심을 모두 줄 수 있다.

자연적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모든 주제는 화가를 설교가, 선교사, 스승의 품격으로 고양시킬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선용하라.’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록된 본문에

이용할 때에는 저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혼자들 *I promessi Sposi*」을 일러스트레이션화해야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저자가 제시한 주제와 일치되게 해야 할 것이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뽐박당하는 무고한 이가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반면, 오만한 권세가는 어느 날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토포로 신부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페스트에 걸린 돈 로드리고가 렌초에게 용서를 받고 죽는 장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첫 요람에서 기뻐하는 아네스와 함께하는 렌초와 루치아의 새 가정 등, 중요한 장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책이든 단순한 기사든 하나의 본문을 설명하는 그림은 그 본문의 근본 목적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도가 직접 제작했거나 감수한 모든 일러스트레이션은 교의적 윤리적 전례적 목적을 제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세 가지 모두를 함축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을 예술적으로 사용하라.’ 일러스트레이션은 | 376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위험한 원칙에 반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워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중적일 수도 있지만 항상 품위 있게 표현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화가를 성스럽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9장 출판 기술

여기서 ‘출판기술La tecnica nella stampa’이라는 표현은 문학형태 외에, 원고가 확장하도록 필요한 조판, 인쇄, 포장, 발송 등 종합적인 활동과 알맞는 방법으로 독자에게 도달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출판사도직의 둘째부분이다. 품격으로 치자면 편집부분과 보급부분에 비해 낮다. 그러나 말씀을 배가하고, 고정시키고, 가시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갖고 싶게, 매력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좋은 문학형태와 호감이 가는 인쇄 디자인은 사도직의 귀중한 공통요소다.

- 378 실제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한 다음, 사도는 사도직을 위해 우수한 작가를 찾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출판을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에 마음을 쓰며, 건전한 독서의 진가를 알고 사랑하며 흡수하도록 독자의 취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수한 작가 발굴

사도직에는 우수한 작가가 필요하다. 사도가 목표로 하는 하느님의 영광이 이를 요구하고, 사도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이를 요구한다. 사도가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가 이를 요구한다. 끝으로 스승이요, 아버지요, 사도인 저술가 자신의 품위가 이를 요구한다.

우수한 작가는 예수 성심 안에 깊이 젖어 있어야 하며, 최상의 문

장 규칙에 따라서 종이 위에 옮겨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는 우수한 작가는 사람의 지성을 만족시켜야 하고, 의지를 잡아당겨야 한다. 작가는 그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시대, 환경, 주제, 계층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작품이 얼마나 많으며,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작품이 독자들의 경탄을 자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불쾌감, 따분함, 무관심, 때로는 분노케 하는지!

마치 인내를 가지고 입도록 요구하는 듯한 기톨릭의 어떤 좋은 출판물은 더 뛰어난 한 출판물이 힘겹게 쌓아올린 명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저술가 사도가 사용하는 예술형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우 **379**
아한 것이어야 한다.

인쇄작업에 마음 쓸 것

인간, 기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학문과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과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최고의 출판인들을 선택해야 하고, 그들 가운데 출판 사도직을 위한 출판작업의 목적을 그들 신분이 요구하는 자기 성화의 주된 목적에 일치시키는 남녀 수도자를 선호해야 한다.

한때 수사들은 옛 양피지 사본을 베끼는 일로 그들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성 바오로의 제자들은 그의 편지가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배가시켰다. 수도자들,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하느님 말씀을 증가시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

사도직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내어놓는 부유한 평신도의 활동이 이러한 활동과 결합된다. 많은 가톨릭 활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활동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일은 특히 출판분야에서 증명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도움이 부족하고 아직 그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80 기계라는 수단은 시대와 문명이 제공하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속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뉴스와 그림을 수집하기 위해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인쇄와 포장 을 위해 가장 발달된 기계, 선교를 위해 가장 신속하고 가장 광범위한 수단이라야 한다.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 찬미가를 드리도록, 하느님의 섭리가 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쓰레기에서 장미와 백합을 자라게 할 줄도 알고, 못 쓰는 휴지를 복음을 위한 종이로 변화시킬 줄 알만큼 독창적이어야 한다.

독자의 취향을 지도할 것

비록 기술분야에 모든 중요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기술부분이 독서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형적인 가톨릭 신자가 아닌 저자와 출판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음을 납득할 필요가 있다.

독을 금 접시에 담는다 해도 독은 항상 독이요, 좋은 빵을 대단한

우아함이나 세련됨 없이 평범하게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영양가가 없어지지 않고 유익함과 필요하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이 종교적 윤리적 | 관점에서 나쁘다면 기술형태에 결 **381**
함이 있는 다른 책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은 일반적으로 그리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과 또 자주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출판물이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키거나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지적 활동이 몸에 배어 있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소유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형태와 취향, 인쇄, 포장에 결점이 있는 출판물을 오히려 그 반대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의 취향을 조금씩 키우기로 결심해야 한다.

- 좋은 출판물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전히 유익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 독자의 공통된 사고방식에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흡잡을 만한 결점이 없는 출판물을 제공하면서

- 한 작품에 대해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감 받은 아이디어, 채택한 문학형태, 독서가 자아내는 감동, 책의 장정 등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도와 독자가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지닐 때 사도직 안에서 기술은 성사와 준성사를 통해 감각적 요소를 지닌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30장 선교

선교La propaganda는 출판 사도직의 셋째 부분으로 앞의 두 부분, 곧 편집부분과 기술부분은 이 부분을 향해있다. 사도는 목적을 변질시키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도직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미 설명한 선교의 본질과 중요성과 수단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다.

선교의 본질

사도에게 있어 선교는 천상 스승의 사도적 활동에 대한 공간적 확장이며 시간적 연장이다.

- 383**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다. 당신의 신적 사명을 완수하신 다음, 당신의 활동을 계속할 과제를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맡기신 후 성부께로 귀의하셨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시고, 성무를 통해 당신의 신비로운 권위를 지속하는 것처럼, 좋은 출판물 보급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지속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근본적으로 상거래나 구결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상품과 돈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이 아니며, 수익, 다시 말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

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는 사람과 국가의 가장 큰 영적 윤리적 필요를 연구하며, 교회의 설교대에서 설교가가 하듯이 출판의 설교대에서 글을 쓰고 보급한다.

선교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걸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에게서 거져받은 것을 거져 내어놓는다.

그가 청하는 헌금은 거의 언제나 고정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미사예물과 비슷하다. 미사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협력하려는 봉헌자의 의지를 의미하는 한편, 사목자의 생활비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다.

그러므로 선교를 통해 받는 헌금-정가는 구매자의 좋은 의지의 **384** 표현으로 사도의 생활비에 도움을 주고, 사도직의 경비를 충당하며, 신앙에 무지한 사람에게 진리의 자선을 베풀고, 특히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빈곤한 사람에게 영적 빵을 제공한다는 실천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교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 닿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사도는 충실한 양 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며,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착한 목자처럼 되어야 한다.

사도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반대받는 사람들, 설교대에서 많은 신자에게 주는 쪼개어진 빵을 받아 먹을 용기가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참하느님 -구원사역-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출판물계,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통하여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탐꾼들의 해로운 활동을 통해 신앙이 훼손된 사

람들, 통치·직무·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 회의론자들을 우선해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운명과 구원의 길을 상기시키는 은혜의 천사, 오로지 지상의 것에 마음 쓰는 하느님의 자녀에게 하느님과 천상 것에 대해 말하는 천사가 되어야 한다.

중요성과 필요성

385

선교는 출판 사도직의 큰 과제다. 편집과 기술이 선교를 향해있듯이, 선교에서 편집과 기술이 방향을 잡는다. 선교는 사도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진리, 더 나은 표현을 빌리자면 천상 스승의 마음에서 샘솟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 닿게 하는 수로라고 말할 수 있다.

선교사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맡기신 보화를 교회에서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자¹다.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²

분배자는 자신의 활동을 소수의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확장시키는데, 교회가 소유하는 보화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배의 필요성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일별-뵈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날 지상에는 20억(말씀하실 당시)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6분의 1정도만 가톨릭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들의

1. * dispensatore(관리자, 분배자).

2. 1 코린 4,1.

태양인 로마에서 빛을 받고 자양분을 취하고 자극을 받는다.

이것은 로마가 신앙을 잃어버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의 | 믿 **386**
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³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도 틀림없다. 로마의 윤리가 부패해서도
아니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모든 시대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교회
는 마르지 않는 보화를 분배하는 보고寶庫요 또 여전히 보고로 남아
있으며, 거룩하고 또 여전히 거룩하게 남아있다.

참된 이유는 분배자가 부족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밖
에 있는 양들을 부르고 구세주의 예언, 곧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⁴라는 예언의 성취를 앞당기는 하느님의 목소
리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 부족한 것이다.

이 양들에게 선교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사도는 단호하게
이들을 겨냥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분배자들을 찾고 양
성해야 한다.

책과 출판물은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의 교리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교재로도 인류의 90퍼센트에게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에
게 이를 가져가고 알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급과 선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보급 없는 출판 사도직은 뒷박으로 덮어 놓은 등불, 자식 없는 가
정에 비길 수 있다.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
처럼 좋은 출판물이 창고에 쌓여 있다면 사람들을 비출 수 없다. 그
리고 마치 많은 자녀는 부모의 활력 지수요 | 광활하고 풍요로운 **387**
미래의 보장이듯, 폭넓은 선교는 사도직을 완수하는 참된 사도적

3. 루카 22,32: “Rogavi pro te (Petre), ut non deficiat fides tua.”

4. 요한 10,16.

영혼의 지표요, 풍성한 결실을 보장한다.

일단 참된 사도직 정신을 갖추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출판물이라고 확신한다면 보급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의 중대한 잘못은 바로 진리의 큰 탈렌트⁵, 신앙, 교부들, 교회의 부유함이 묻혀있는 데 반해, 하느님과 사람의 적대자들은 칭찬받고 보상받으며 가라지를 마구 뿌리는 것이다.

선교 방법

사도에게 있어 선교의 중요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르쳐 주었고 또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가르치셨다. 사도는 스승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도시, 지방, 가장 멀리 있는 외딴 집까지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도록 초대받았으므로 산을 넘어야 하고, 바다를 건너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 각 사람, 각 가정, 각 본당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점을 열고, 열성적인 사람을 훈련하고, 모든 단체에
388 들고, 공장장, 학교장, 권한이 있는 사람 등을 | 설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어려움, 희생, 위험뿐 아니라, 뱀 같은 슬기, 비둘기 같은 단순함, 순교자의 충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잊을 줄 알아야 한다.

순교자 성 타르치시오를 귀감, 수호자로 모실 수 있다.

5. * 잇따르는 개정판에서는 '재능talento'을 '보화tesoro'로 대체함.

더 나아가 교회는 선교를 행할 실천적 방법을 가르친다. 출판 사도직은 거룩한 사목자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보충하고 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를 최대한 확장하는 것은 사목자의 의무요 권리다.

이 때문에 교회는 출판 사도직, 곧 선교가 제일 먼저 교회의 권위 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평신도들이 하는 선교는 반드시 교회 권위 기간에 의존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마치 본당의 남녀 교리교사가 본당신부의 지도하에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며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과 같다.

시대 상황, 반대자들의 조직과 투쟁할 시급성은 오늘날 가톨릭 출판물의 보급을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을 봉헌하는 열성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 모든 것을 구비한 무리가 필요함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무리는 시간의 연속성을 지녀야 하고, 공간이라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활동해야 한다. 이 무리는 교회, 교구, 본당, 선교단체를 도와야 하고, 아직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 진리의 빛을 전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결연히 움직여야 한다.

389

결국 출판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봉헌한 사람으로서 평신도 협력자들과 결속하는 수도자들의 무리가 필요하다. 이 수도자들은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느님이 일으키셨으며, 교회가 그들을 신비의 포도밭에 받아들여 그들의 활동을 축복하고 인도한다.

제31장 선교사

‘선교사(Propagandisata)’가 단순한 ‘분배자’를 의미한다면, 선교는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선교사 사도는 단순한 분배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선교는 각 사람의 특별한 필요에 알맞는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실천적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어린이, 사춘기, 어른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 지식층이 요구하는 필요성은 일반인의 필요성과는 다르다. 전문가는 노동자나 농부가 만족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똑같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391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 본성도 하나뿐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가! 두 사람이 완벽하게 똑같은 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모두가 같은 시작과 끝, 동일한 구원의 수단을 가졌지만, 각자 나이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특수한 필요성과 경향이 있다.

선교는 이러한 필요성을 통찰해야 하고 적합한 책과 리플릿을 통해 만나야 한다. 이는 그에게 특별한 준비, 올바른 지향, 재치와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한다.

특별한 준비

이것은 선교의 실행 면에서 볼 때 가까운 준비인 이론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이 있다. 비록 이러한 준비는 사람과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하지만, 몇 가지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의 가장 필수적이고 으뜸가는 자질은 하느님께 대한 위대한 사랑과 교회 장상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이 따라야 한다.

적어도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선교방법에 대한 지식’.

스스로 연구를 해서든 그러한 목적으로 쓴 서평을 통해서든 ‘선교학 출판물에 대한 지식’.

선교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민법과 교회법에 대한 지식’ **392**

스스로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경험에서 얻은 실천적 수단을 펼쳐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식’.

이미 숙련된 선교사의 인도하에 행하는 ‘실천적 훈련’.

기쁘고 즐겁게, 사심 없는 마음으로 전적인 헌신을 하는 자연스러운 또는 노력하여 몸에 익힌 ‘태도’.

합법적인 장상에게 대한 자녀다운 신뢰와 그의 지침에 최대의 충실을 드러내는 ‘온순함’.

이렇게 이해하여 특별한 준비를 잘 하면 선교사의 자연적 재능이 완성될 것이다. 이 재능은 창조주께 이르기 위한 사다리요, 사도직의 풍요로운 수단이기에 선교사에게 초자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때때로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사도직 실천에서 예기치 못한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권능으로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없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1코린 1,27 참조; 역주: 우리말 성경에는 28절에 해당함) 주님께 우선 그 일을 의탁해야 할 것이다.

393 올바른 지향

자신의 숭고한 사명에 항구하고 충실한 사도는 선교를 창고의 재고 처분을 위한 수단,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고상한 목적, 예를 들어 사도직을 위해 새로운 수단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옳음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머지 다른 모든 활동과 사업은 이러한 최상으로 방향지어진 것이다.

선교해야 할 출판물은 성경, 교부들의 작품, 교회학자들과 교회 저술가들의 작품, 신학, 전례, 성인들의 생애, 종교교육에 관한 서적과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의 첫째가는 기원이요, 영원한 관리자,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출판물, 곧 거룩한 학문을 우선해야 한다. 세속 출판물은 사도직의 특수 목적에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취급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자주 의뢰하더라도, 예를 들어 재미있는 문학작품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우처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독자들 가운데 선택해야 할 대상은 길 잃은 양에서부터 산길을 헤매는 양, 우리에게 갇힌 아흔아홉 마리의 충실한 양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사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서 신자들까지다.

어려움, 실패, 노고는 사도적 정신으로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며, **394**
 이방인의 사도의 말씀으로 단언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¹

결국 사도직을 장사로 바꿔놓지 않고 애덕과 기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으로 성화하는 올바른 지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폭넓은, 그리고 깊이 감추어져 있으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도직을 다른 많은 사도직보다 선호하고 사랑한다!

그는 독자가 적절한 시기에 책, 잡지, 신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며, 마치 전적으로 이러한 선택에 효과가 달려있는 것처럼 면밀하고 주의 깊게 보살피는 한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 [그들을] 고양시킬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써 굳건해진 올바른 지향은 나누어준 리플릿이 버려지고, 기쁘게 받아든 책은 아마도 처음 몇 쪽을 넘기지 못하고 방치되며, 대부분의 경우 그의 노력이 쓸모없이 되리라 생각될 때도 그를 지탱해 준다. 어쨌든 그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목하시며 갠아주신다 생각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는 다만 몇 줄이라도 |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 보게 해주시며, 자신 **395**
 의 구원과 성화의 기원이시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1. 로마 8,35 참조.

재치와 사람에 대한 통찰력

리플릿, 책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공하려는 대상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그 대상의 필요, 고통, 열망을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은 참으로 깊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나 그들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도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 없는 출판물만 그들의 손에 쥐어줄 때는 더더욱 그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거룩한 사람은 이런 초자연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친구이신 주님과 친근한 대화를 통해 이 지식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선교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느님께 그들을 위한 빛과 은총, 의견과 지혜의 은사를 청해야 한다. 이렇게 그는 긴 세월과 고통을 통해 제대 발치에서 배우는 초자연적 섬세함과 재능으로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알게 될 것이다.

396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결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보지 않은 사람, | 묵상과 성찰을 통해 자기 감정을 검토하고 숙고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선물을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사물을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는 가볍고 생각 없는 사람은 결코 영혼의 성전에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합당치 않을 것이다.”²

2.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는 목소리 *Voce che diffonde il regno di Cristo*」, G.C.I.G.F., Milano.

제32장 선교 형태

397

사랑은 창의력을 풍부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교 형태는 각 선교사의 개별적인 창의력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해진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선교, 양성하는 선교, 활동적인 선교의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적 선교

이는 일반적으로 지휘 센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가지 주요한 측면, 곧 사도직 영역을 형성하는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직의 이니셔티브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연구’는 사도직을 촉진하거나 |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주변상황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수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활동의 출발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을 만나는 교육학적 방법과 심리학적인 적절한 시기에 대한 연구다. **398**

‘조직적인 이니셔티브’는 사도직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일반적으로 흔히 ‘광고’라는 것을 구성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확장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해지는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많은 것 가운데 서지학 잡지 — 일반 도서목록과 특수한 도서목록 — 가톨릭 일간지, 신문 그리고 더 중요하고 널리 읽히는 여러

잡지에 대한 서평 — 책에 대한 서평 — 서점, 본당, 단체와 개인을 위한 전단지, 포스터와 일러스트레이션, 친척과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 무료 견본 등을 기억해보자.

양성하는 선교

이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어려운 선교방법이기도 하다. 그 목적은 사도직을 위해 협력자들을 찾고 양성하고 조직하며 지도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399 기도, 희생, 활동과 기부 등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도와 희생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렇지만 특히 내적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저술을 통한 편집분야에 제조기술, 기계조작, 다양한 장비, 노하우, 인쇄작업 등의 사도직에서 요청되는 기술분야, 사도직 출판물 보급을 위해 선교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보급분야는 많은 인력이 요청되는데 (크고 작은) 모든 중심적인 곳과 온갖 사회적 신분을 망라하여 선택해야 한다.

협력자 양성은 사도의 양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다시 말해 지적 윤리적 기술적이어야 한다.

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직에 필요하거나 적어도 사도직에 유익하며, 종교와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외에도 출판 사도직에 대한 지식, 목적, 범위, 확장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윤리적 양성은 협력자를 그리스도인 사도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신자, 신앙생활의 실천자라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활동으로 증거할 줄 알아

야 한다. 기술적 양성은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장 설득력 있게 사도직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된다.

성공의 비결은 협력자에 대한 조직과 지도에 | 달려 있다. 이것 400
은 유일한 지도부의 지도하에 결속력 있고 강한 무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무리는 적(나쁜 출판물)을 무너뜨리고, 보화(출판물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영혼들)를 얻는다는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므로 협력자들은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사도직의 지도체계를 따라야 한다. 그들 모두를 위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규칙서가 있어야 한다. 사도는 그들 모두를 깨어있는 눈으로 항상 보살펴야 한다. 그들 모두에게 안내자요 지지자의 활동이 미치도록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할 수도 있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방법 중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본당에는 5명(젊은 남성 1명, 젊은 여성 1명,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남성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된 ‘좋은 출판물’ 그룹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자기네 본당 출판물에 전념한다. 본당 그룹은 교구 그룹이 지도하고, 교구 그룹은 전국 그룹이 지도하며, 전국 그룹은 총 지휘의 지시만을 따른다. 본당 그룹과 교구 그룹은 그들에게 속한 협력자를 둘 수 있다.

활동적인 선교

401

이것은 사도가 직접 행하는 선교형태다. 직접 주문에 따라 행하는 활동과 파고드는 활동이라는 이중의 행동지침이 있다.

주문에 따라 직접 행하는 발송, 통신, 회계업무를 포함한다.

발송은 개별발송과 정기발송(책, 잡지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정기 구독자들을 위한 경우처럼)일 수 있고, 특급열차 배송과 완행열차를 통한 배송, 수하물, 소포, 우편, 택배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세분된다.

통신은 주문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이를테면 품질, 불가피한 지연의 이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과 같은 정보를 주어야 한다.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와 기록, 목록 작성과 대차대조표 작성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영관리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업무다.

발송, 통신, 회계는 신속·정확해야 하고 규칙적이어야 한다. 실수, 불상사, 불편사항 등은 사랑과 정의를 손상시키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과 충돌하고 멀어지게 한다.

여기에서 파고드는 활동은 조직적인 선교와 양성의 선교를 의미
402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사람들과 맺는 직접적인 관계다. 따라서 방문선교, 협력자 방문, 전화, 라디오와 영화의 활용, 보급 센터의 설립과 조직, 도서관 설치와 지도, 사도가 직접 행하는 모든 선교를 포함한다.

다양한 상황의 필요성뿐 아니라, 자유로운 이니셔티브와 특별한 열의에 [여지를] 남겨두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선교방법의 근본형태인 ‘보급 센터’, ‘도서관’, ‘방문 선교’, ‘천상 승의 축제’에 관해 짧게 언급할 것이다.

제33장 보급 센터

403

‘보급 센터’는 사도직 수단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참되고 고유한 서점을 의미한다. 이 보급 센터는 사람을 비추고 뜨겁게 데워줄 빛과 은총을 발산하는 사도직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양성과 조직

위에서 말한 의미의 보급 센터는 교구와 본당에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각 본당마다 적어도 한 곳 또는 각 교구마다 적어도 한 곳에는 있어야 할 것이다.

보급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교회 권위 기간 또는 민간당국의 활동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센터 조직은 관리와 정돈에 관한 것이다. 관리는 센터 전반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센터는 사도나 그의 협력자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404

정돈은 보급을 위한 물품공급, 구별되는 특징, 센터의 유지 및 장식에 관한 사항이다.

보급 센터를 위한 물품은 사도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작품과 모든 이니셔티브와 가톨릭계 모든 출판사의 출판물이다.

물품공급은 도착 방법, 소포의 개봉과 확인, 서적과 헌금-정가를

기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도서 분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은 주제별 분류다. 이 경우에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의 출판물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대형 센터에서는 많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는 세분된 그룹이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에 소형 센터에서는 성경, 신학, 교부학, 설교, 교리, 수덕신학, 신심, 성인전과 전기, 교육, 문화, 청소년을 위한 서적, 성인 남녀, 젊은이,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문학작품, 정기간행물과 기타 다양한 출판물과 같은 분류로 충분할 것이다

405 센터의 유지와 장식은 매우 중요하다. 보급 센터는 교회, 학교와 같이 거룩한 | 장소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 청결과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

센터 내부, 서가, 책의 정리정돈과 청결. 자주 서가, 진열창/진열장, 의자, 서적의 먼지를 털고 소독해야 한다.

특히 진열창/진열장, 대중에게 진열된 출판물에 대한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도록 전시해야 한다.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눈에 서적의 다양한 주제별 분류를 알아보고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열창/진열장에 진열된 서적은 시기와 축일에 알맞게 자주 바뀌어야 하며, 종교적 주제에 관한 서적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보급 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이 관리하는 하느님 말씀과 사도의 존엄성,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과 애덕이 요구하는 정리정돈과 청결과 장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능

보급 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주변 상황과 출판물에 대한 지식, 신자들을 이끄는 방법과 관리가 필요하다.

주변 상황에 대한 지식은 적합한 출판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교회 권위 기관과의 관계나 협력자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출판물에 대한 지식은 서적을 제 위치에 배치할 줄 알고, 신자들에게 알맞는 서적을 권하기 위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서평, 서지학 잡지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406

신자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센터가 두루 갖춰져 있어야 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신자들에게 책을 권하고 잘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는 능력, 좋은 전략, 출판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량, 선교의 기회를 모두 활용할 줄 아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진열창/진열장에 대한 교육, 전시대, 시사용 작품 발송, 방문선교, 선교용 출판물 발송, 전화 활용, 직접 배달...

진열창은 행인에게 효과를 주어, 그들이 멈추어 서서 들어올 수 있게 전시해야 한다.

전시대 위에는 약간의 책을 진열해야 하며, 신자들이 그 책을 살펴볼 수 있게 배치해야 한다.

시사용 작품 발송은 신자, 수도자, 성직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받아 보게 하려면 사람들, 특히 신간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주소를 기록해 두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다. 그런 다음 모든 신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 잡지, 도서목록, 출판물, 광고 등을 참조해야 한다.

방문선교는 아주 유익하며 때때로 필수적이다. 친구들, 지인들, 407

협력자들, 나아가 본당신부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교, 병영, 단체, 조합, 병원, 교도소, 사무실, 직장 클럽, 공장 같은 곳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는 신혼부부, 신생아 부모를 방문하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은 미래에 유리한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한 최상의 기회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언론 보도, 영화나 라디오를 이용한다.

선교를 위한 자료 발송은 우편을 통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명단, 회원, 협회, 단체의 목록에서 주소를 얻을 수 있다.

선교를 위한 편지는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다. 그 편지에 개인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유익하고, 손으로 서명하여 상업형태를 피하고 사적 편지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센터에서 매체를 권하는 경우, 고객이 계산대에 있는 이가 사도적 정신을 지닌 숙련된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는 재치와 주의가 필요하다.

신자들을 대하는 솜씨는 예의 바른 품위 있는 태도로서,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보급을 위해 몇 가지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다.

- 408** 우선 사도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는데 몸가짐, 예의, 개인의 위생과 단정한 복장 등에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함, 특히 사도다운 섬세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기민함을 요구한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 사람에 대해 겸허하고 신속하게 분석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을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인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보급을 위한 근본 규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찾으세요?”라는 피상적인 질문은 하지 말 것.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역주: 한국의 경우, “찬미 예수님!”)라고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시작하면서 각 사람에게 적합하고 특수한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

-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그가 만족할 만큼 도와주도록 할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경우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구해주겠다고 약속할 것.

- 언제나 모든 사람, 어린이에게도 정중하게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 언제나 현금-정가를 유지해야 하고, 쉽게 예외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편파성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기록, 재고 목록과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 **409**

이 점에 관해서는 현명함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결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며 방법론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종교기관과 민사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규범과 총지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실천과 상황은 특별한 규범과 실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제34장 도서관

도서관 업무는 사도에게 있어 아주 놀랍고 좋은 이니셔티브다.

그러므로 사도는 항상 더 큰 필요와 더 큰 효과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일에 마땅한 가치를 부여하며, 그 중요성과 형태에 대해 연구하고, 설립과 조직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이 업무에 열의를 다해야 한다.

중요성과 효과

양성과 보편적 교육을 과제로 삼는 책의 영향은 항상 주목할 만하다. 때때로 결정적인 것으로 도서관의 중요성, 더 나아가 수많은
411 출판물이 계속 범람하고, 갈수록 읽으려는 욕구가 커져가는 것이 확인되는 시대에서 미룰 수 없는 필요성을 충분히 말해준다. 오늘날 최신 도서관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 한때 지식층과 부유층의 소수 사람에게 유보되었던 독서가 이제는 보편적인 것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좋은 서적의 폭넓은 보급이 필요하다. 이로써 나쁜 서적이나 다소 쓸모없는 서적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보급수단 가운데 도서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실 도서관은 책을 어떠한 범주의 사람과도 만나게 해 주고, 책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든 새로운 독자에게 책의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면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많은 유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상의 의미를 책에 부여한다.

그뿐 아니라 도서관은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하고 발전시키며, 개인의 양성과 사회문화를 촉진하고 교육의 책임과 노력을 통합하며, 독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직한 독서용 서적과 연구 서적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러므로 예방의 역할뿐 아니라 건설적인 역할과 사도직도 행하는 것이다.

도서관 형태

도서관은 비록 본질적으로 독서용 책과 잡지의 수집처이지만 | 직 412
접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범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순회 도서관, 본당 도서관, 공공 도서관, 시립 도서관, 국립 도서관이 있다.

출판 사도직은 가능한 한 이러한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이들 각 도서관은 보존하고 건설한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도직 활동은 진리와 그리스도교적 삶을 보호하고 비추는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한 도서관인 가정 도서관, 순회 도서관과 본당 도서관을 특히 염두에 두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정 도서관’은 교양 있는 가정들에서뿐 아니라, 대중의 일반 가정들에서도 늘고 있는데,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더 향상된 지적 수준으로 이끌려는 경향을 지닌 가정이 이미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이 없는 곳에서도, 특히 복음서와 성경 봉독을 촉진하기 위해 가정에서 좋은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하다.

출판 사도직을 통해 가정이라는 성전에 제때에 들어가야 한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

‘순회 도서관’은 교도소, 기관, 병원, 요양원, 기숙사, 노인 휴양
413 시설 | 자선단체, 종교단체, 가톨릭 액션 단체 등을 방문한다.

도서관은 자주 공동체 회합, 곧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문화의 중심,
영성생활 모임, 사도직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학교 도서관’은 모든 학교(보육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생
과 교사를 위한 것으로, 교육을 완전하게 하고 삶과 덕을 양성한다.

‘본당 도서관’ 또는 사목 도서관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당신부의 활동을 도와주고 보완한다.

가장 작은 본당이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본당이라 하더라도
본당마다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설립

하나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가장 어려운 활동 중 하나, 아니면 불가능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뜻, 용기 그리고 때로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가정 도서실’을 차리기 위해서는 가정 내부에 들어가고, 각 구성
414 원의 정신적 필요와 요구를 알고, 반대를 | 극복하고, 책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때로는 밀고 나갈 수 있는 은총과 전략이 필요하다.

‘순회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도 그에 비례하여 같은 사항을 언급
한다. 단체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이질적인 구성원
들로 이루어진 더 큰 가정이다. 여기서도 침투하고, 알고, 조연하

고, 설득하고, 이끌어야 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실력과 역량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은 그들의 교육과 양성을 통합하려는 목적이 있다. 교사들을 위한 도서관은 교육을 위한 교양을 보충해야 하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관과의 충분한 동의와 계획을 토대로 한 책의 선택과 적합성 때문에 실력과 역량이 필요하다.

‘본당 도서관’ 설립은 늘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특별규범은 이들 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안내로 이용할 수 있는 한편, 다른 형태의 도서관 설립 방법에도 빛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당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당신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 책을 선별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

성직자, 특히 본당신부는 아직 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 414
없었을 것이므로, 도서관의 목적과 필요성을 사랑과 현명함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앞에 반대자들은 폭넓은 활동영역을 확보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난관, 새로운 일, 새로운 걱정 그리고 본당신부가 이미 안고 있는 많은 문제 등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홀히 한다면 더 어지러운 많은 염려와 완수하기가 더 힘든 어려운 일들이 따를 것이다.

본당 도서관은 잘 납득해야 하고, 본당신부의 사업계획 목록에

들어있어야 한다.

책의 '선택'은 늘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사도 자신에게 속하는 의무다.

다음과 같은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원칙이다. 곧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책이란, 건전하고 도덕적인 취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책장에 방치하거나 장서 목록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책의 '선택'은 교육수준, 본당의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을 수 있다.

416 주로 수덕에 관한 도서 : 예를 들어 고해신부의 활동을 보조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둘 경우 | 신자들의 영적 필요에 적합한 독서용 서적.

주로 재미있는 교육적인 도서 : 나쁜 독서를 저지하고, 좋은 독서를 하도록 마음을 끄는 것을 특별히 목적으로 할 경우.

주로 교양 도서 : 중산층이나 학생층을 대상으로 할 때와 문학적 학문적 전문적 문화환경을 확산시키기를 원할 경우.

주로 종교 또는 사목을 위한 도서 : 종교교육과 종교문화에 관한 책을 통해 본당신부의 활동을 통합할 목적이 있을 경우.

마지막 경우가 일반적으로 선택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책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곧 성경, 교부들, 교회학자들과 저술가들의 작품,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 교리, 수덕신학, 전례, 성인들의 생애, 교훈적 전기, 선교사들의 작품, 그림이 있는 종교적 정기간행물의 연감 및 전집...

사람들이 영적 작품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이러한 작품을 즐기고, 원하며 이해한다. 한편 메르치에르 추기경Card. Mercier이 말한 바가 항상 옳다. “사람들을 높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취향은 사서의 취향을 따르게 마련이고, 또 사서가 책을 권할 줄 알 때는 취향에 맞고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처음에 느끼는 어려움 앞에 무기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수덕과 교양에 관한 수많은 책은 | 열정을 갖고 읽는 만큼 417 영혼에 스며든다. 그렇다면 소설의 매력적인 흥미를 능가할 정도로 재미있는 성인들의 생애와 전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주로 종교서적 외에도 재미있는 문학작품, 곧 소설, 단편집, 여행 이야기 등이 필요하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책이지만, 항상 건전하고 도덕적인 책을 의미한다.

자주 덜 건설적이고 사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도, 말하자면 해독제를 대신할 것이고 차츰 더 본질적이고 더 교육적인 다른 책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히려 재미있는 문학작품에 정신을 향상시키고 선을 이루게 하는 다른 책을 신속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소설을 선택함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은 자주 겨우 몇 줄밖에 안 되는 문장 속에 숨겨져 있지만, 한 영혼의 평화를 빼앗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악과 파괴로 몰고 가는 온갖 종류의 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제외시켜야 한다. 가능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공허와 불만을 남기고, 쾌락과 일탈로 삶을 주도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지나치게 공상적인 소설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부류의 책은 하느님을 운수와 숙명으로 바꾸어놓고, 오로지 지상 행복이라는 이상으로 몰고 가며, 모든 종교개념을 도외시하게 만든다.

젊은이들이 아직 모르는 악습을 규탄하는 책은 어른을 위한 책으로 유효해야 한다. 도서 선별을 위한 | 모든 실천적 판단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곧 금서목록, 교회 인가, 가톨릭 잡지와 서평 안내, 상식, 시대와 장소의 상황, 독자의 범주.

‘지금 조달’은 자주 피할 수 없는 암초로서, 이 앞에서는 멈추어서게 되고 때때로 가장 멋진 이니셔티브조차 중단시켜버린다.

비록 소규모의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자금은 도서관 설립과 설치를 위해 필요하며 필수적이다. 이는 기부금, 복권, 자선복권, 학회, 작은 바자회, 기부금, 그밖에 다른 이니셔티브로 마련할 수 있다.

도서 보급을 통한 이익금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록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은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가르쳐 주는 바로는,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행하면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곳에서는 해마다 부담금을 불입해주는 후원자들의 위원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조 직

피해야 할 오류는 도서 선별을 잘 하여 일단 설립된 도서관은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419 도서관은 하나의 씨앗과도 같으며,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은 것

이다. 그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싹이 트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 생명체의 발달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발전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의 좋은 조직은 전문적인 적합한 설비, 운영방법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 일하는 방법, 사서의 교육을 포함한다.

도서관을 위한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적어도 초기에는, 가능하면 문이 달린 하나의 책장이나 진열대를 마련할 것이다.

운영방법을 위한 준비는 언뜻 보기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당신자, 전문가들, 교사들, 부모들, 젊은이들, 가톨릭 단체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일치와 전반적인 관심이 온갖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신간 서적을 기부하게 하고, 강연회, 선교의 날 그리고 기초 자금을 위해 제안한 모든 수단을 행하도록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서관이 활발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과 분리된 독자적인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독자를 위해서나 도서관 경비를 위한 자원을 얻어내는 본당의 모든 활동으로 여겨야 한다.

활발하며 발전적인 활동은 본당의 모든 활동처럼, 본당신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과 지도는 “정당하게 그에게*ex iustitia*” 속한다. **420**

수많은 도서관이 처음에는 번성했지만, 본당의 다른 활동에서 밀려나게 되고 본당신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도서관의 생명은 대부분 도서관의 ‘기능’에 달려 있다. 사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도서관은 실패한 기업과도 비슷하다.

기능의 조직은 도서관의 종류, 장소, 투입된 사람, 독자와 다른 많은 특별한 요인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확장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며, 향상될 수 있고 또는 다양한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단순하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도서 대장 : 현금-정가와 함께 입수된 서적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으로 도서관의 발전을 확인하는 데 이용한다.

- 알파벳순 색인 : 저자별, 주제별 색인작업으로, 이 안에 책과 정기간행물의 모든 내용을 표기한다.

- 인명록 : 독자에게 제시할 관련 ‘통신문’과 함께 대여 상태를 표시한다.

421 - 대출 카드 : 서가 번호, 이름, 저자, 작품 | 제목과 대출자의 주소를 기록하여 대출한 책의 서가 위치에 놓아둔다.

- 겹표지 : 책 위에 커버를 입혀 항상 정돈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수첩 : 원하는 책을 표시해 두고, 새로운 책 구입을 위한 안내에 이용한다.

- 의무 규정 : 책의 대출과 반납을 위한 규정.

이밖에도 원활한 기능을 위해 ‘자격을 갖춘 고정적인 사서’가 있어야 한다. 본당 도서관의 경우에는 본당신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에게 직접 속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

가정 도서실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것

이다. 순회 도서관의 경우는 총책임자를 대리하는 민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교사 자신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사서는 책의 '분배'라는 중요하고도 섬세한 또 다른 직무를 맡게 된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작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 뿐 아니라, 독자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연령, 교육상태와 교양수준, 기질과 성격에 따라 적합한 독서를 위해 지혜롭게 분배할 수 있다.

책이 각 개인의 필요에 부합할수록 독서는 효과적일 것이다.

[도서관] 설립이 이루어지고 원활한 기능을 위한 안내가 주어지면 422
 먼 빠르게 진보하겠지만, [사도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될 때마다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고, 도서관과 직접 교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전해주고 도와주며, 새롭고 더 광범위한 선교를 위해 교육할 것이다.¹

1. 성바오로수도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서관 총연맹un'Associazione Generale Biblioteche(A,G.B.)을 설립했다.

“가정 도서실, ‘학교 도서관’ 그리고 특히 ‘분당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독자들의 다양한 필요성에 따른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 맞는 가장 좋은 서적의 보급과 유통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교육적 윤리적 학문적 교육에 더 광범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독립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도서관에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출판물의 최근 신간을 공급해야 한다.

도서관의 설립, 발전, 기능을 위한 실천적 규범과 충고를 제시해야 한다. 그 규범은 비록 일반적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각 도서관의 종류와 필요성에 따라 다양해진다. 성바오로수도회 출판사와 다른 출판사의 사상적 윤리적 예술적 가치에 관한 확실한 판단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성바오로수도회의 서적과 잡지 그리고 다른 출판사의 서적 및 잡지를 구입할 때 할인과 특별 구매 기간을 일치시켜야 한다.”

제35장 방문선교

방문선교(La propaganda a domicilio)는 사도직의 출간물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각 개인과 각 가정과 단체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선교는 실제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효과적인 수단

‘이 분야도 선교분야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선교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가 직접 사람들을 찾아 가지 않는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를 찾지 않는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찾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좋은 서적, 좋은 신문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아주 많은 사람이 받아보지 못할 것이다.

424 더 나아가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사도는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적합한 작품을 권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 충고와 | 안내의 말 그리고 부드러우나 긴장감을 주는 말로 그들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많다. 성바오로딸 수도회 수녀들이 행한 선교 중에 있었던 많은 사건 가운데 선별한 실례를 들어보자.

수녀 두 명이 말씀이 실린 전단지 를 나누어 주기 위해 개신교 신자가 경영하는 약국을 매달 방문했다. 그 주인은 아무말 없이 전단

지를 받은 다음, 공처럼 구깃구깃 뭉쳐 그것을 준 수녀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두 수녀는 말없이 그것을 집어 들고 그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나왔다.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는데 개신교 신자는 결국 머리를 숙인 후 전단지를 읽은 다음 두 명의 수녀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세례를 받고 열심한 신자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한 대도시 빈민가의 어느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재정난과 외아들의 병 때문에 절망한 어느 가난한 노동자는 자기 가족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매 속에 비수를 감추고는 아들의 병상에서 아내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 아내를 죽인 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죽을 생각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의 결심을 알리 없는 아내가 달려 갔다. 잠시 후 아내는 전단지를 들고 와 이렇게 말했다.

- 두 명의 선교사 수녀가 가져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읽어 보세요. 425

그는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기분전환이라도 하려는 듯 읽었고, 조금 후에 변하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의 육신을 구원하여 영혼을 다시 선사한 것이다.

시력을 잃은 한 젊은이가 하느님의 은총과 마음의 평화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 선교사 수녀가 젊은이의 누이에게 몇 권의 책을 구입하게 하

여 그가 실의에 빠진 순간에 읽어주라고 권했다.

그러한 독서가 젊은이의 영혼에 은혜로운 이슬처럼 내렸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교회로 돌아와 성사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고통의 영웅적 행위에 자신을 바칠 수 있었다.

어느 기차에서 몇 명의 젊은이가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한 선교사 수녀가 읽어보라고 하며 말씀이 실린 전단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일부는 거기에 응했다. 20세가량의 한 젊은이는 주의 깊게 읽고 전단지를 내려놓더니 잠시 생각한 다음 동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사였는데 지금은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는 자기 결심에 충실했다.

산악지대의 한 젊은 여성은 높은 곳을 향해 고귀하고 위대한, 정의의義할 수 없는 이상을 향해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 젊은 여성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 불안에 싸여 있었다. 그런데 | 출판물을 가지고 온 선교사 수녀가 전한 예기치 않은 한 권의 책이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그 젊은 여성을 비추었고, 영적으로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었다.

유사한 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도 찾지 않고 간청하지도 않았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재촉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윤리적

도움과 자주 물질적 도움도 받게 되었다. 개인, 가족 전체가 하느님께 돌아왔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병자들이 위안을 받았고, 많은 영혼이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빛을 찾았다.

보람 있는 활동

방문선교는 가리지 않고 아무런 구별없이 저택과 오두막, 도시와 시골, 평야와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한 집 한 집 가 닿는 것을 말한다. 곧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큰 포기의 삶인가! 여행과 굶은 날씨의 불편함,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출판물, 도움과 의지가 절실한 상황,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윤리적 영적 불행에 직면함, 문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거부감, 비난, 거절에 대한 굴욕, 사람들의 필요에 적합한 책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감, 좋은 표양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 불만 등.

그렇다. 특히 불만도 감수해야 한다. 글 쓰는 사람, 출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병자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항상 자기 노고의 결과를 증명하는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누가 선교사에게 그 노력의 열매를 돌려주는가? 때로는 위에서 인용한 경우처럼 밖으로 드러나면 힘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난 다음 수확의 위안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둔다. 그는 오직 모든 것을 보시고 자기의 사도적 여행의 격랑 속에서 남몰래 흘리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께만 의탁한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준 물 한 잔을 보상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겪은 희생에 후히 갚아 주실 것이기에, 그 많은 희생에 합당한 공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방문선교는 희생과 보속과 함께 사랑의 위대한 실천이라 생각할 수 있다. 잘 한다면 영원한 상급의 날을 위해 놀라운 많은 일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그때 선교사를 위해 시편 저자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¹⁾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행복하다!

1. 시편 125,6 * [126,66]: “Euntes autem ibant et flebant... venientes autem venient cum exultatione portantes manipulos suos.”

제36장 복음의 날

428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복음의 날’이며 ‘천상 스승의 날’이고 ‘좋은 출판물의 날’이다.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이미 여러 교구와 여러 본당에서 반기고 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소식에 대한 열렬한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신앙에 다시 눈뜨게 했으며,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결실을 가져왔다.

천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날이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이 날을 통해 사람들이 경청해야 하는 ‘성부의 말씀’, ‘영원한 지혜’, ‘사랑받는 성자’를 흠송한다.

여기에 진리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와 | 거짓인 악마 사이에 투쟁 429
이 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학교와 악마의 학교 두 가지 학교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도들을 파견하시지만 악마는 수많은 정탐꾼을 거느리고 있다.

이제, ‘천상 스승의 축일’로, 천상 스승 주변에 회중을 모아 장엄한 전례를 거행하고, 그분이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기에 그분을 경청하도록 결의할 것을 단언한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²

스승 예수의 가르침은 말씀과 출판을 통해 전파할 수 있다. 두 가

1. 요한 13,13.

2. 요한 6,68.

지 모두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양편 모두 인간의 악의로 타락했고, 그들의 조물주이신 하느님을 거슬러 등을 돌렸다.

출판 사도직을 말씀의 사도직처럼 제대와 감실 주변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미사와 영성체에 다시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미사에서 사제는 복음서를 읽고 입을 맞춘 다음 영성체 예식을 거행한다. 또 교회는 미사 중에 사제가 설교를 하고 성체를 분배하기 바란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만 완전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지와 마음을 통해 양육된 인간으로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 주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천상 스승의 축일이 얼마나 유익한가!

- 430** 위에서 말한 이 축일은 천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나 며칠 간의 기도 그리고 복음서의 연구와 보급으로 이루어진다. 이 축일을 통해 복음서가 모든 가정에 들어가게 하여 가정에서 복음서를 읽으며 살기를 바란다.

실제적으로 지역교회 교구가 정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실천적 조직을 위해, 상세한 안내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준비

면 준비 : 공지를 통한 준비, 인쇄물을 통한 준비, 영적 준비, 조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지를 통한 준비-사람들에게 몇 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인쇄물을 통한 준비-목적에 알맞는 책, 팸플릿, 포스터와 전단지
지를 배포해야 한다.

영적 준비-축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특별한 기도에 초대
해야 한다. 신심 깊은 사람들, 병자들, 고통 받는 이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거룩한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도
록 조언해야 한다.

조직적인 준비-축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모든 가정
에 복음서가 | 들어가도록 제안해야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경의 431
의 표시로 나쁜 서적, 나쁜 정기간행물, 나쁜 신문과 온갖 나쁜 출
판물을 모아 없애도록 제안해야 할 것이다. 작은 도시에서는 본당
신부 자신이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준비 : 설교를 곁들인 다음과 같은 방법의 3일 간의 기도
로 이루어진다.

- 오전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복음서(복음서를 제대 위에
펴놓음)의 장엄한 현시, 영원한 진리에 관한 묵상.

- 오후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한 교육과 성체 강복. 성
체조배는 계속적으로 남성, 여성, 젊은이, 어린이가 이어간다.

묵상 주제는 성체, 노자성체, 심판, 영원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또
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개한다. 곧 천국을 위해 창조된 인간, 길
을 잃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다시 알려주시
면서 영원한 영광에 도달할 능력을 주는 은총을 베푸시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을 위해 길, 진리, 생

명이 되어주셨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돌아오실 것이고, 착한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악한 이들은 영원한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또한 오후 교육시간에는 다음 주제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의 표양을 따라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

432 위에 언급한 내용 대신,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수도 있다.

1.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뜻에 따라 당신의 지상 삶을 통해 참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본성상 스승이시다. 영원한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넓혀간다. 그러나 교회는 출판물, 담화, 복음과 반대되는 학파와 동향을 통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³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가르침의 효과는 세상(회개와 문명), 인간(구원과 성덕), 영원(듣는 이에게는 천국, 듣지 않는 이에게는 지옥)을 통해 확인된다.

2. 두 개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탄의 제자들이라는 두 개의 큰 무리로 나뉜다. 과연 우리는 어느 깃발을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 교회와 함께 느끼는 것, 종교교육, 좋은 강의를 토대로 실제적인 검토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굳건히 속하기 위해 사탄의 학교를 증오할 필요성.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⁴

3.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속하는가: ‘악을 피함으로 써.’⁵

3. * 마태 13,28 참조: “inimicus homo: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4. 마태 6,24.

사탄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로 잡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몰아낼 것인가? ‘선을 행함으로써.’⁵ 복음을 알고 사랑하며 살 것. 인내, 곧 경계와 기도(미사, 고해성사, 영성체)의 수단과 결심을 | 선택할 것.

433

그리고 하느님 말씀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톨릭 액션 회원, 신심단체 또는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인 남성, 여성, 젊은이, 어린이를 위해 별도의 모임을 주최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제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준비된 평신도의 강연을 결부시킬 수 있다. 이들은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유일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품위를 지녀야 한다.

성체조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대리자인 교황의 가르침을 들어 알고, 말씀의 사도직과 출판 사도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절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교회와 제대는 축일에 맞게 장식하고, 무엇보다 신자들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쉽게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행사 당일

3일 기도으로써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면, 축일을 더 쉽게 조직할 수

5. 시편 37[36],27: “Declina a malo” 참조.

6. 상동: “Fac bonum” 참조.

있을 것이다.

434 오전에는 모든 신자가 영성체하기 | 전에 입문을 결정한 미사, 상황에 맞는 설교를 갖춘 장엄 미사, 성체현시와 복음서 현시.

오후에는 장엄한 성체조배 시간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려는 진지한 결심, 그분의 아주 부지런한 제자들과의 일치, 복음서에 대한 경배, 봉독과 보급, 미사와 영성체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천상 스승께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진지한 결심으로 마칠 것이다.

본당의 가정 숫자만큼 많은 복음서를 축복하고, 그 복음서를 가장에게 분배한다. 3일기도 동안 그리고 축일에 현시한 복음서에 입 맞추고, 다음과 같은 장엄 서약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교회를 알고 사랑하며 따르고자 한다는 서약

- 복음서와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서약

-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를 경건한 자리에 모시겠다는 서약

- 본당의 종교교육에 동참하겠다는 서약

- 자녀와 가족의 종교교육을 돕겠다는 서약

- 가톨릭 출판물을 모든 방법을 다해 보급하겠다는 서약

- 비윤리적인 영화 관람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435 모든 예식을 성체강복과 함께 마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다음의 이니셔티브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교회에서 복음서를 받지 못한 가정에 복음서 분배

- 참여자들이 ‘복음서를 매일 봉독하는 협회’⁷⁾에 등록하도록

7.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곳: 성바오로수도회, 로마.

- 출판 사도직 그룹이나 협력자 부서 구성, 다시 말해 좋은 출판물 보급에 본당신부와 협력하는 평신도의 그룹 형성
-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서를 선물하고, 출판 사도직을 돕기 위한 모금.

436

제37장 성바오로수도회를 통한 출판 사도직 실천

출판 사도직과 출판사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가 행하는 실천규범을 덧붙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¹

회원 양성

성바오로수도회는 회원에게 종교-윤리적 지적·기술적 양성을 한다.

- 437 ‘종교-윤리적’ 양성은 회원의 그리스도인 삶, 수도생활, 수도회의 특수 사도직 순으로 규정한다. 청원기와 수련기, 그리고 수도생활의 처음 몇 년을 통해 완성된다. 회원들이 사랑에 기초를 둔 견고한 내적 삶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²까지 몸에 배인 하느님과 친숙한 일치로 이끌어 준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천상 스승의 귀감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도록 이끌어 준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

1. 언급한 수도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는 쪽번호 56 이하를 보라.

2. * “vivere summe Deo in Christo Jesu.”

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³

‘지적·기술적’ 양성은 사도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종교과목과 일반과목에 대한 정규과정으로 완성된다. 사도직에 도움이 되는 양성을 위해 아주 근본적인 과목으로는, 특히 종교에 대한 면학을 폭넓고 깊게 배려해야 한다.

면학 시간은 사도직 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사도직 시간에는 주로 인쇄기술과 제본기술⁴의 이론과 실습을 습득한다.

사도직 실습

438

성바오로수도회 회원은 사도직의 모든 분야, 곧 편집, 기술, 보급에서 출판 사도직을 실습한다.

편집: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시험에 곧바로 좋은 결과로 통과한 회원은 양성에 필요한 일정 기간을 보낸 다음 편집실로 파견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에 겸손, 신앙, 온순한 정신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바오로인 저술가 수도자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보급, 곧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과 윤리와 그리스도교 경신례에 관한 진리의 보급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 이야기, 예화… 그밖의 다른 모든 주변 사항은 사람들이 읽을거리에 마음을 더 잘 열 것을 지향하고, 그들을 위해 사다리나 조명이 되어주어야 한다.

3. 1요한 3,16.

4. * ‘제본’과 제본소에서 말하는 제본기술은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우아하고 오래 가는 겹표지를 입히기 위해 한 작품의 여러 접지를 한데 모으는 기술과 예술이다.

일반규칙으로 그들은 무익한 질문, 고차원적 주제와 세속적인 주제를 피해야 한다. 그 대신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진리를 따르며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모범을 본받으면서 그 진리를 명확하고 단순한 형태로 설명해야 한다. 그들의 출판 범위는 대중, 어린이 | 그리고 문화인들 가운데서 선교지역이나 “진리에 대한 사랑”⁵이 가장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책, 신문, 팸플릿, 전단지, 일러스트레이션 …, 출판 등 다양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439

– 교황청 문서와 교리, 전례서와 기도서, 종교 관련 저술 등에서 제시한 교회의 가르침

– 성경, 특히 복음서

– 교부들, 교회학자들, 교회 저술가들의 작품, 성인들의 삶과 성전聖傳.

언제나 사도직에 산업적 상업적인 온갖 부류와 무관한 영적 특징을 보장하기 위해, 성바오로수도회는 회원이 장상에게 완전한 순명을 하고, 수도회 회원과 협력자가 쓴 작품이나 교회 권위 기관이 원하는 작품만 출간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원고든 두 가지 검열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결코 출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곧 수도회 자체의 검열과 교회 권위 기관의 검열로서, 반드시 ‘교회인가(Imprimatur)’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수도회에서 출간해야 할 작품에 대한 검열은 자격을 갖춘 책임자에게 유보되며, 수도회의 정신, 시간, | 장소, 사람의 상황에 비추어 교의적 윤리적 가르침과 출판의 실제적 가치를 검토한다. 그뿐 아니라 그 작품이 단순하게 인간적 예술적 산업적 상업적 온갖 목

440

5. “Caritas veritatis”; 참조: 1코린 8,1; 1요한 2,5.

적을 배제하고,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지향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항상 교회법⁶을 따라야 하고, 헌장 「업무와 직무 *Officiorum ac munerum*」⁷의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신앙 교리성의 최근 훈령과 일치해야 한다.

수도회에서 행한 검열의 판단은 간략하고 명확해야 하며, 원장이나 그 대리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제외시켜야 할지 수정해야 할지, 또는 교회 검열기관에 제출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은 출판 허가를 위해 결정적인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저자가 서명한 모든 원고는 인수한 날짜를 기입하여 수도회 문서고에 보관하고, 원본은 돌려주지 않으며 복사본으로 대체한다.

기술 : 성바오로수도회에서 출판의 조직과 수단은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신속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과 출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인쇄와 제본 작업은 | 허황되어 화려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마음에 들 만한 형태로서, 신앙의 진리를 소개하도록 적절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441

(일반적으로 정가라고 하는) 헌금-정가는 모든 출판물에 명시해야 하는데 편집, 인쇄, 포장과 보급의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도생활비와 사도직 발전을 위한 경비도 생각해야 한다.

6. 교회법을 보라: 1345 (n. 1, 2, 3), 1386,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개정된 현행 교회법 이전의 교회법 조항들이다.

7. * 1897년 1월 25일자 레오 13세의 헌장.

8. * 원본의 단어는 '불명확한 *indefinitiva*'임.

선교 : 성바오로수도회는 선교를 통해 출판된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든 가장 먼 곳까지 특히 사제의 가르침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스며들도록 지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선교의 가장 다채로운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서목록, 광고용 정기간행물, 서평, 보급 센터, 도서관, 방문선교를 우선해야 한다.

도서목록, 광고용 정기간행물, 신간 서평은 구원 대상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는 출판물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급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급 센터는 수도회 회원이 운영하며, 성직자와 신자들을 위해 대중에게 개방된 서원이다. 교구와 본당에 있는 작은 센터는 수도회

443 회의 중앙 관리부에 | 소속되어 거기서 활동과 조언을 받아 소극적이며 적극적인 출판 사도직을 실천한다.

보급 센터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수도회 모든 출판물의 완전한 구비
- 도서관과 본당주보 및 전단지를 위한 활동 센터
- 더 나은 가톨릭 신문과 정기간행물뿐 아니라 수도회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구독 접수 센터
- 가톨릭계 여러 출판사의 유익하고 확실한 출판물 정보와 보급에 대한 봉사
- 나쁜 출판물을 알려주어 신자들이 피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활동과 충고
- 성화, 성상과 성물 구비.

보급 센터는 신지들에게 편리하게 봉사하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며 결정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수도자들은 수도회의 사랑에 찬 주의 깊은 보살핌과 보호는 물론, 그곳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의 계속되는 호소에 깨어 있어야 한다.

외부인을 위한 표시, 가구와 성물의 내부 전시, 성화와 복음서의 특별한 전시로 이곳이 상점이 아니라 출판물을 통한 하느님 말씀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 거룩한 장소임을 드러내야 한다. 443

수도자들의 언어습관은 소박하고 진지하며, 그들의 태도는 (교리 수업때 요구하듯이) 하는 일에 열중하며 현금-정가는 고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성바오로수도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문선교는 대중이 종교의 근본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에는 종교적 윤리적 성격을 띤 인쇄물을 적어도 한 장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을 하나의 규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수도회의 수도자들이나 협력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수도자들이 수행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이러한 직무는 진지하고 원숙한 서원자에게 맡겨야 한다.
2. 성좌가 부여한 경우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탁발과 유사한 지시를 내릴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의무다.
3. 보급자는 개인의 역할과 통상적 직무를 인정받은 권위 있는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이를 흔쾌히 제시해야 한다.

4. 결코 헤어지는 일 없이 항상 두 사람씩 함께 있어야 한다.

5. 자기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져 지낼 경우 | 호텔에 묵어서는 안 되며, 다른 수도회 수도원에 손님으로 묵게 해주기를 청하든가, 예 444

외의 경우, 신심과 덕망이 높은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 가정에 머물러야 한다.

6. 두 달 이상 수도원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돌아와서는 부재 기간만큼 공동체에 머물러야 한다.

7. 가까운 지역이나 왕래가 가능한 지역일 때는 매일 저녁 또는 적어도 매주 수도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8.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든 겸손과 소박함, 청결이 드러나야 한다.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장소에 드나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록 공동체 밖에 머문다 하더라도 수도자의 규칙과 실천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9. 집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⁹ 마음으로 건네는 음료수나 필요할 경우 물을 제외하고 수락해서는 안 된다.

10.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적절한 주의를 주는 장상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요약: 편집, 기술, 선교는 성바오로수도회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해 행해야 하는 유일한 사도직의 세 부분을 이룬다.

445 수도회의 | 목적에 따라 사도직은 완전해야 한다. 곧 시기와 사람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사도직이어야 한다.

사도직은 ‘길 진리 생명’이라는 복음의 세 명제에 대한 깊은 이해, 동화(同化), 설명이라는 고유한 표징을 지닌다.

9. * 이러한 규정은 ‘방문선교’ 개념과 모순되는, 원천이 이상한 규정이다.

제38장 출판물이 일으키는 죄

446

출판물이 악용되어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해로운 출판물을 확산시키는 점에 대한 염려는 성바오로수도회 사도의 마음속에 강한 열정의 불꽃을 지피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수도회는 회원에게 그러한 죄의 본질, 죄의 심각성에 대해 자주 성찰하도록 촉구하며, 죄를 피하고 기워 갚을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바오로인 사도에게 주어진 지시와 지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죄의 본질과 심각성

나쁜 출판물은 진리의 왕좌에 맞서 거짓 권좌를 일으켜 세운다. 다시 말해 |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부를 거역한다. 당신의 지상 생애 대부분에 걸쳐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신 성자를 거역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거역한다. 447

나쁜 출판물은 인간의 생각에 독을 주입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파멸을 그 뿌리에서부터 시도한다.

그리고 나쁜 출판물에 의해 생긴 죄는 아주 심각한 악의를 품고 있으므로 하느님의 진리 자체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생각

1. 히브1,1.

에 독을 주입하여 영적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또한 중대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계획적인 죄가 쉽게 급증하므로 교회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계획적인 죄 : 일반적으로 글은 정열적인 충동의 결실이 아니라 고요하고 냉정한 정신으로 행하는 긴 준비가 필요하다.

사실 이득이나 야심, 또는 증오 그리고 끔찍한 타락에 의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으로 종이를 더럽히려
448 고 | 밤낮 없이 몇달 몇년을 보내는 저술가 집단이 있다. 그들 작품의 배후에는 나쁜 길로 이끄는 큰 출판협회가 있어 그들의 작품은 막강해졌다. 이러한 저널리즘의 조직이나 기업, 서점의 조직 등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일에 다른 모든 사적이며 개별적인 사업이 합류한다.

공적인 중대한 스캔들을 일으킨다 : 윤리신학²은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해로운 스캔들 중 해로운 글을 쓰고, 출판하고, 판매하고, 대여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열거한다. 여기에 부도덕한 그림을 개인의 집이나 더 나쁘게는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화가, 조각, 사진작가, 판화가들이 합류하는 것이다.

쉽게 널리 퍼지고 있다 : 스캔들이라는 죄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라면, 나쁜 출판물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 문제가 아니요, 제한된 숫자의 학생에게 강의하는 학교의 문제도, 자제할 수 있는 청중에게 행하는 강연회의 문제도 아니다.

449 여기서는 책의 부수에 따라 증가하는 죄, 또는 더 좋게 말해 스캔

2. Mark, 「알폰소 윤리학 법령 *Institutiones morales alphonstianæ*」, t. I, par. 37 참조.

449 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는 숫자에 따라 증가하는 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 하나의 연설로 인해 비롯되는 스캔들보다 훨씬 심각한 죄다. 신앙이나 도덕과 사랑을 침해하기 때문에 곱절의 악을 품고 있는 죄다.

교회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 출판물이 일으키는 죄의 스캔들과 더 심각한 몇 가지 형태는 교회법 자체가 설명해 준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교, 이단, 분열을 옹호하는 배교자들, 이단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의 작품을 발행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작품이 유통되는 순간부터 성좌에 유보된 ‘특별한 방식’으로 파문된다. 위에 언급한 책이나 성좌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책을 퍼뜨리는 자나, 고의로 합당한 허가 없이 읽고 소유하는 자는 파문의 대상이다.

합당한 허가 없이 성경, 성경 주해 또는 성경 주석서를 출판하는 저자와 출판사는 ‘유보 없이*nemini reservata*’ 파문 대상이다.³

죄를 어떻게 보속하고 피할 것인가

출판물이 일으킨 죄를 보속하고 피할 가장 탁월한 방법은 출판사도직을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행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면 : 저술가, 출판사, 서점, 보급자, 독자인 대중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확신에 찬 행위로서 그와 같은 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저술가에게 그리고 가까운(직접적인) 협력자들(주주, 책임자, 식자

3. * 그와 같은 제재는 1917년판 교회법이 분명하게 경고하였고, 앞에서 상기한 모든 유사한 훈령처럼, 새 교회법에서는 폭넓게 수정되었다.(교회법 1311-1322 참조)

공, 인쇄공, 원고 교정자)이나 먼(간접적인) 협력자들(인크 공급사, 지업사, 트랙터와 다양한 재료 제공자, 포장 담당자, 발송 담당자, 보급자)로 구성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납득시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 나쁜 서적, 해로운 의약품, 위험한 연예 프로그램, 가톨릭이 아닌 단체 등의 광고에 협력함은 심각한 죄라는 것.

- 악과 오류의 유포를 유일한 근본 목적으로 삼는 인쇄업에 협력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당하다는 것과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

-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간접적인 협력자들은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드물게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지만, 어떤 오류나 해로운 내용을 출판하는 직접적인 협력자인 인쇄업자에게는 똑같이 말할 수 없다는 것.

451 - 나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 자기 돈으로 그 신문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

- 교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서적이거나 외설적인 출판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고, 팔고, 주고, 인쇄하고, 운영하는 것은 악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이므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 합당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금지된 도서를 마련해 주는 것은 죄라는 것.

- 정당한 허가 없이, 온갖 종류의 출판물을 어떤 고객에게나 구별 없이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 등등.

적극적인 면: 활동, 기도와 희생을 통해 출판 사도직에 직접 종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활동의 적극적인 면은 책 전체를 다룰 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은 ‘기도’와 ‘희생’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주님은 기도와 희생의 삶으로 나쁜 출판물의 죄를 보속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를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보속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1. 매일의 미사참례와 영성체
2. 사적이고 공적인 성체 흡수시간 452
3. 월피정, 고해성사, 죄를 보속하기 위한 영성체와 하느님 말씀의 묵상으로 이루어진 천상 스승께 바치는 매달 첫 주간 신심 실천
4. 매일 복음의 한 부분을 봉독함
5. 작은 희생과 자발적인 고행
6.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중에 그리고 미사 후에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기도서 124-125쪽)를 바침
7.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목말라하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다음의 기도를 매일 바칠 것.

“주님, 오늘 미사성제를 드리는 모든 사제들과 하나되어 거룩한 제물이요 성체이신 예수님과 저 자신을

1. 부패한 급류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종이라는 강물이 흘러들듯 매일 많은 인쇄기를 통해 출판해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성모독과 오류와 외설을 보속하기 위해

2. 영혼을 목말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출판물이 타락하거나 무고한 많은 독자에게 당신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청하며

453 3. 모든 가르침,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 활동의 원천을 독으로 오염시키면서, 천상 | 스승을 거슬러 권좌를 일으킨 많은 저술가와 출판인, 사탄의 눈먼 사목자, 거짓 스승의 회개를 위하여

4. 천상 성부께서 흘러 넘치는 당신 사랑으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선포하시며 세상에 주신 그분만을 흠송하고 사랑하며 경청하도록

5. 예수님만이 완전한 스승이시라는 것, 환히 비추시는 진리요, 길이며, 온갖 성덕의 귀감이시며, 영혼의 참생명, 곧 성화의 은총이심을 알도록

6. 이 세상에 출판매체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급하기 위해 봉헌된 사제, 남녀 수도자가 많아지도록

7. 이러한 출판물의 저술가와 종사자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고, 지혜와 열정으로 충만하도록

8. 가톨릭 출판물이 나쁜 출판물의 중독성 있고 설득력 있는 소음을 뒤덮을 정도로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발전하고, 보급되고, 도움을 받고 많아지도록 당신께 청하며

9. 저희 모두가 저희의 무지와 가난, 탄원의 눈길로 고개 숙여 늘 당신의 거룩한 감실 앞에 머물 필요를 알기에, 오! 주님, 빛과 신앙과 자비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제1장 영화와 수도자의 사도직

영화는¹ 수도자의 사도직에 새롭고 광대한 활동과 책임 영역을 열어주었다.

이 영역의 확장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이미 455 나타났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진 형태로 종이에 고정된 이미지를 보는 데 길들여졌던 흑백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려는 호기심 때문에 자극을 받았다.

1. 본장과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 참조: <로마 본당사제들에게 한 교황 연설 Discorso pontificio ai Parroci di Roma>(1931년 2월 16일); <교육영화 소비 조합 대표자들에게 한 연설 Discorso ai rappresentanti del Consorzio Utenti Cinematografo Educativo>(1933년 3월 18일); <교황청 국무원장 추기경 파첼리가 브뤼셀의 주교 브로케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Lettera di Sua Em. il Card. Pacelli, Segretario di Stato di S.S. al Can. Broché [= Brohée] di Bruxelles>(1934년 4월 24일); <국제출판영화연합회 대표자들에게 한 교황 연설 Discorso pontificio ai rappresentanti della Federazione Internazionale della Stampa Cinematografica>(1934년 8월 2일); <국제출판영화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교황 연설 Discorso pontificio ai Delegati del Congresso Internazionale della Stampa Cinematografica>(1936년 4월 21일); 회칙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Pio XI, 1936년 6월 29일); Civardi, 「가톨릭 신자들과 영화 *I cattolici e il cinematografo*」; Civardi, 「윤리 앞에서의 영화 Il cinema di fronte alla morale」; 「영화 지식 *Coscienza cinematografica*」(영화 윤리를 위한 날. 광고를 위한 규범과 지침 La giornata per il cinema morale. Norme e sussidi per la propaganda); 「영화 잡지 *Rivista del Cinematografo*」(1938-43년); 「영화 추천 *Segnalazioni cinematografiche*」; 「영화 목록 *Indice cinematografico*」; 「가톨릭 문화 *La Civiltà Cattolica*」(1943); 「선한 목자 *Pastor Bonus*」, Pia Società San Paolo(1942년 11월); <L'Osservatore Romano>(1938-43년).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영화가 ‘오락’의 관점에서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것으로 대중이 받아들였을 때 참된 각본으로 영화제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의 단계로 올라섰을 때 영화제작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사운드 트랙 필름 도입으로 더욱 고차원적 목적들 가운데 하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삶을 충실하게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사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영화의 힘이 학교, 설교대, 출판의 힘을 능가하여 언제나 더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인간 재능의 이러한 발명의 범위와 효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범위는 개인, 가족, 사회, 지성, 도덕과 종교, 문학과 예술, 경제와 정치, 곧 삶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456 젊은이와 대중에게 사상과 교육을 유포하는 온갖 | 수단을 능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사실 영화는 인간을 온통 사로잡고 감각적 정신적인 힘 전부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단순한 소설에서도 요구할 법한 장면의 재구성, 생각, 상상같은 것마저 영화는 관객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영화가 미치는 범위와 결합해서 그 효력은 좋은 영화나 나쁜 영화나에 따라 인간 사회의 네 가지 기둥, 곧 젊은이와 가족, 사회질서와 종교질서를 강화하거나 심각하게 흔들어놓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특성은 불행하게도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 돈벌이와 욕망을 자극하는 일을 부추기고,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악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비오 11세는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에서 강조한 “모든 사람은 나쁜 영화가 영혼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알고 있다. 이 나쁜 영화는 욕망을 찬미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악의 길로 이끌고, 그릇된 삶을 보여주며, 이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순수한 사랑, 결혼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애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의 기회가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 편견과 | 국가, 사회계층, 457 인종 간에 쉽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사건들이 이를 입증한다.

한 통계²는 비록 냉혹하지만 매일 받아들여야 하는 많은 영화의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헤아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진보를 가속화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의무가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준다. 사탄에게 부당하게 정복당한 광활한 땅을 되찾고, 하느님께 당신 권능의 위대한 선물을 되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간의 파괴에 폭넓게 이용된 도구를 영혼의 선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비오 11세는 이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좋은 영화 상영은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의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가선용의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삶에 대한 고상한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중한 가치를 퍼뜨리며, 매력적인 형태로 진리와 덕을 소개하고, 국가와 사회계층 간에 이해를 도모하거나 다소 장려하며, 정의로운 국가를 촉진

2. <이탈리아 문화, 문학, 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II Raggiaglio dell'attività culturale, letteraria ed artistica dei cattolici in Italia>, Istituto di Propaganda Libraria 참조.

하고, 덕에 대한 요구를 다시 일깨우며, 세상의 더 나은 윤리와 사회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458** 실제로 사도는 합법적인 교회 권위 기관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이미 존재하는 대중영화의 그리스도화와 가톨릭 영화 제작에 협력하도록 결의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장 영화를 그리스도교화할 것

459

여기서는 주로 영화 제작자, 민사당국, 부모, 교육자, 대중을 향한 설득력 있는 활동을 하면서 반그리스도교 영화를 제작하는 악을 저지하는, 대부분 소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다룬다.

제작자와 민사당국을 향한 활동

영화 제작자(기획자, 배급업자, 대여자, 감독, 극장 지배인, 보급자)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직접적인 활동은 자신과 사람들 그리고 |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에 호소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활동은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윤리에 일치하지 않는 영화 상영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460

관할 민사당국에 대해서는 지도 및 검열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하고 설득하는 사도직을 할 수 있다.

검열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서뿐 아니라, 특히 윤리와 종교¹에 관해서도 통제해야 하며, 그밖에도 제작물을 예술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측면에서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1. 종교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제에 정통한 사람, 곧 가톨릭 사제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와 교육자를 향한 활동

젊은이들이 세상의 모든 추한 면을 알게 하는 아주 타락한 영화를 보게 허용하는 것과 그들이 어떠한 영화도 보지 못하도록 금하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면서 아이들에 관련하여 올바른 수단을 택하도록 교육자와 부모를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덕은 중용에 있다.”²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461** 사실 영화는 | 언제 어디서나 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신앙과 도덕이라는 명목으로 단죄할 수 없는, 현세적 삶의 표현에 물드는 것을 항상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의식 있는 부모와 교육자는 선별하여 알맞게 배분하고, 동반하고, 교정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선별할 것 : 자기 자녀를 위해 좋은 영화나 다소 무해한 영화를 선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알맞게 배분할 것 : 비록 극장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너무 자주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덕적인 이유와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다. 도덕적인 이유란 빈번한 극장 출입은 영화에 쉽게 빠져들어 해로운 열정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생상의 이유란 영화의 자극적인 힘은 자주 아이들의 신경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영화는 포상이나 예외처럼 허용되어야 한다.

동반할 것 : 비록 영화 장면이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 분위기가 항상 해롭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동반해야 한다.

교정할 것 :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릇된 인상을 바로잡

2. * “In medio stat virtus.”

아주어야 한다.

관객을 향한 활동

관객에게 행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행해야 하는 활동은 광범위하며 | 대부분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더욱 의무를 다해야 한다. 462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목적으로 문서와 입광고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발명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선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영화를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장소에서든 대중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야 한다.

- 좋은 생활습관, 가톨릭의 가르침과 사회질서에 반대되는 불경하고 외설적인 영화를 멀리하도록 할 것.

- 그러한 종류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지 않도록 할 것.

- 각자 가능한 한 이러한 영화 상영이 표출하는 위험에 대한 공중의식이 생기도록 힘을 모을 것.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상물에 관한 영화 의식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몬시뇰 치바르디 Mons. Civardi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오늘날 확인된 사실은 아주 슬픈 일이다. 가톨릭 신자들, 종교 예찬론자들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극장이든 들나들며, 윤리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마치 목을 축이거나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호텔에 가는 사람처럼 무심한 자세로 영화관을 드나든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관객에 대한 윤리적 피해와 | 포르노 영 463
화에 대한 간접적 협조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사목자의 목소리에 순명하는 신자들에게 임의대호가 아니라, 종교적이며 교육 목적에 어울리는 판단에 따라 영화를 선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의무를 이끌어 내는 영화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³

올바른 영화 의식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 수단 가운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는 영화 상영에 관한 ‘서약’이다.

비오 11세도 「주의 깊은 관심」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직접 권고했다. “모든 영혼의 목자들은 그들의 미국 동료들처럼 매년 그리스도교 진리와 윤리에 어긋나는 영화 관람을 자제한다는 서약을 하여 신자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⁴

“이러한 의무나 서약은 자기들의 막중한 책임을 자각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려 깊은 협력을 통해 본당이나 학교를 매개체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킬 수 있다. 그밖에 주교들은 | 여기서 말하는 서약의 아름다움과 효력을 설명할 가톨릭 출판물을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히 기억될⁵ 교황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용기⁶를 얻은

3. Civardi, “영화 예술에 대한 비평 문제 Questione critica dell’arte cinematografica” in 「선한 목자 *Pastor Bonus*」, società San Paolo, novembre 1942.

4. 1934년에 미국 주교들은 영화 상영의 남용에 대하여, 소위 ‘품위 있는 무리 *Legione della decenza*’라고 명명하는 하나의 개혁운동을 공표했다. 수백만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윤리와 올바른 삶의 규정을 저해하는 그 어떤 영화 상영관에도 입장하지 않겠다고 의무화하면서 서명했다. (회칙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

5. s.m.

6. 교황 비오 11세는 회칙 「주의 깊은 관심」에서, 미국에서 ‘품위 있는 무리’에 의해 좋은 결실을 맺은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영화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혁운동의 현저한 성공을 부각시키는 것은 최대의 위안이 됩니다. 범죄와 악습이 줄어들었고, 죄가 더는 공개적으로 허용되거나 환영받지 않게 되었으며, 삶의 그릇된 이상이 젊은이의 불꽃같은 영혼에

바 있고, 미래를 위한 최상의 희망을 안겨줄 모든 의식 있는 가톨릭 신자에게 요청한 서약이다.

「가톨릭 문화*La Civiltà Cattolica*」는 이렇게 공고한다. “영화 서약이 더 많은 대중에게 퍼져나가고 지속된다면, 분명 다른 어떤 윤리적 개척 사업을 능가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질서를 | 465 타도할 의도를 지닌 반대 세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서약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부도덕한 볼거리를 심의하고 파기하는 사람들의 개별적 단체적 개입이 없다면, 다른 모든 기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부언하는 바이다.”⁷

그러나 서약이 참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양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확고한 결심이 따라야 한다.

고매한 몬시뇰 에바시오 콜리Mons. Evasio Colli는 이렇게 썼다. “경험은 이러한 서약이 영화 상영에 관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잘 알려 준비를 갖춘다면 눈부신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⁸

그렇게도 오만한 방식으로 더 이상 소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입에 오르내리는 일부 소문은 영화계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품위 있는 무리’의 주장에 의해 심각하게 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반대로 ‘품위 있는 무리’가 영화를 예술적으로 더 고상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고, 고전적인 작품 제작과 평범하지 않은 가치의 창조적 독창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화사업의 재정적 투자도 근거 없이 예견된 것처럼,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화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온 많은 사람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해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고결한 영상물을 보았을 때, 다시 영화관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 「가톨릭 문화」(febbraio 1943) “영화 서약과 영에 관한 윤리의식*La promessa cinematografica e la coscienza morale sugli spettacoli*”, F. Pellegrino s.j., p. 151.
8. 1942년 7월에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보낸, “가톨릭 액션” 운영에 관련된 추기경 위원회의 편지.

그러므로 영화의 본질, 그리고 영화 자체와 그 윤리적 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영화 서약의 핵심과 수반되는 의무, 악마의 활동과 허영을 끊어버린다는 세례성사 약속의 논리적 결과를 이해시킬 준비가 필요하다.⁹⁾

- 466 이러한 준비는 영화대회, 설교, 강연을 통해 시행할 수 있고, 이탈리아의 여러 교구에서 조직하여 서약하는 것처럼, 영화 윤리의 날을 거행함으로써 가능하다.

9. 교회 권위 기관이 승인한 서약 양식은 다음과 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존엄성과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를 의식하면서, 나는 복음의 가장 순수한 윤리에 반대되는 원칙을 주장하거나 상영하여, 그리스도인의 덕성과 삶에 위험을 형성하는 영화를 지탄합니다.

그와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출입하지 않을 것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내 가족도 출입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버라이어티쇼를 제공하는 영화관에도 드나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와 활동을 통해 위에 언급한 것들이 대변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의식을 대중에게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는 하느님께 대한 경의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 영혼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이탈리아 국민의 육체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과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이러한 나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가톨릭 영화를 제작할 것

467

가톨릭 영화란, 거룩함과 세속적인 주제, 교육적, 또는 여가선용 등 그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가톨릭 가르침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획에 있어 유익하고 가능한 활동은 기도와 실천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 도

하느님의 권능과 지혜의 선물을 인류에게 선사하신 은덕에 대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다.

영화는 인류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관대한 선물이며, 교육과 | 사 **468**
도직의 귀중한 수단이다. “한 편의 좋은 영화가 설교보다 더 심오한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인간 영혼 안에 파멸을 가져온 것을 보속하기 위해 바치는 ‘속죄’의 기도다.

많은 영화가 감각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기거나 생활과 가족, 결혼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암시하는 장면과 일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년소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영화는 불갈한 영향을 행사한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러한 윤리적 파멸의 가능성을 보고 거의 전율하면서 선포했다.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영혼의 대학살 앞에서,

영화관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작은이들의 파괴자를 거슬러 우리 주님이 내리신 무시무시한 단죄가 뇌리를 스친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통해 구원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영화를 남용하는 사람들, 곧 제작자, 배우, 기업주, 의식 없는 관객, 무심한 부모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한다.

469 결국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주신 그분의 참된 선물을 인정하는 | 예술과 학문의 진보를 간청하는 ‘탄원’의 기도요, 부모, 교육자, 모든 관객 그리고 영화를 윤리적 교훈적 교육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하느님의 빛을 간청하는 기도다.

희생과 결부된 기도다. 그러므로 비오 11세는 그의 칙서 「그늘진 곳에서 *Umbratitem*」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계속 기도와 보속의 활동을 봉헌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발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경작하는 사람들보다 교회의 발전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²⁾

활동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특히 성공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가

1. 회칙 「주의 깊은 관심」.

2. * 원서의 각주는 회칙 「주의 깊은 관심」에서 인용한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 사실 본문의 인용은 1924년 7월 8일, 교황 11세가 반포한 「그늘진 곳에서 *Umbratitem*」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AAS 16 (1924) 385-389 참조.

톨릭 영화관 개관과 조직을 들 수 있다. 선교용 영화작품, 그리고 영화 관련자들의 종교교육과 지원, 가톨릭적으로 영감받아 제작하도록 지지함을 종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가톨릭 영화관의 개관과 조직은 특히 본당의 경우에 나쁜 영화의 해악과 위험에서 신자들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목적뿐 아니라, 좋은 영화를 통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 지도하는 **470**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 이니셔티브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직무 수행을 위해 성직자의 손으로 효과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영화필름 대여처럼 물질적 이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영화제작의 윤리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신앙과 윤리 원칙에서 영감받은 영화제작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주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받아 기술적으로 완벽한 예술, 문학, 가톨릭 출판물과 더불어, 그 어떤 성스러운 또는 세속적인 주제, 교육적이거나 여가선용의 주제를 가톨릭적 관점에서 다루는 가톨릭 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큰 제작사가 납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거의 언제나 재정적 성격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를 개인 또는 단체로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득력 있는 주제는 경험에 의해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곧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영화는 오로지 전염성이 있는, 관능을 부추기는 것을 지향하는 영화보다 대중의 호감을 더 많이 사게 되는데, 가장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인간 마음의 그 바탕에는 언제나 선을 향한 비밀스러운 동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하고 자질을 갖춘 기관의 감독하에 가톨릭 원리에서 영감받은 영화를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상영하도록 허락받기 위해서는

471 국제적 상호협력을 |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이로운 것이다.

영화 제작자, 감독, 배우에게 종교-윤리적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살지 못한다면 순수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교-윤리적인 생각을 구상하고 해석하며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영화는 가장 위안이 되는 것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다.

비교적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그리스도교 사도직의 전위병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영화를 이용할 줄 알았고, 여전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욕망과 돈벌이의 자극은 권해서는 안 될, 스캔들이 될 영화를 미개척지까지 도달하게 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탄식과 비탄에 잠겼고, 정부 관계자들도 덜 문명화된 사람들 사이에 부패한 영화가 저지르는 풍기 문란한 활동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영화는 관객의 정신에 백인종은 모두 악인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472 가톨릭 신자들, 선교사들이 | 그 분야를 제일 먼저 확보하며 그 선교지역에 무한한 영적 이익을 산출해야 한다. 시대와 상황, 좋은 의지가 다른 활동수단을 이용하게 해줄 것이다.

제4장 출판과 영화

473

출판은 영화에 관해 책임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협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책 임

비오 11세는 1936년 4월 21일, 국제영화출판대회 참석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출판의 책임을 밝혔다.

“영화는 출판이 처음부터 항상 신중하고 엄중한 방식으로 따라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 출판이 언제나 덕, 진리, 정의에 따라 찬사와 비난을 예상하고 배포하면서 자기 역할을 완수했다면 현재의 영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그와 같은 책임은 줄어들지 않으며, 미래를 고려한 474
다면 오히려 더 커진다. 사람들은 내일의 영화는 당연히 오늘의 출판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협력의 가능성

대중영화의 그리스도교화 작업과 가톨릭 영화의 육성은 대부분 출판의 힘에 달려있다. 사실 출판과 더불어 활동과 수호의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니셔티브 가운데, 특별히 출판에 유보된 이니셔

티브가 있다. 어떤 영화가 볼 만하고 어떤 것을 제외시켜야 할지를 미리 알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영화 추천에 관한 것이다.

추천작업에는 유통되기 시작한 영화에 대한 검열과 윤리적 가치에 따른 등급의 분류가 우선한다. 검열과 분류는 일반규정에 따라 교회 권위 기관에 의해 직접 임무를 맡은 기관이 하기 때문에¹ 사적인 작업이 아니다.

한편 추천작업은 출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히 출판 사도직
475에 속해 있다. 이미 인용한 교황청 국무원장 | 추기경 에우제니오 파첼리Card. Segretario di Stato Eugenio Pacelli가 브뤼셀의 주교 브로케 추기경Card. Broché[= Can. Brohée]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가톨릭 신문이 좋은 [영화]는 칭찬하고 나쁜 것은 비난하기 위해 영화에 관한 컬럼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판 사도직은 먼저 합법적인 검열기관에 맡겨, 위 기관의 판단을 되풀이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결코 그 기관에 반대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듯 임해야 한다. 사람들과 결부되지 않고, 틀림 없이 정말 나쁜 작품은 나쁜 영화로 분류해야 한다. 윤리적 원칙과 미적 견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은 영화를 보러 가는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좋은 작품을 선호할 것이며 제작자, 배급소 그리고 극장 소유주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1. 이탈리아에서는 가톨릭영화센터Centro Cattolico Cinematografico(CCC)에 위임했고, 센터는 현재 로마에 있으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Corso Vittorio Emanuele, 337.

부도덕한 작품에 대하여 떠들썩한 반응을 보이거나 관람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일은 바라던 바와 반대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영화 사도직에 봉사하고 협력하는 출판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 작품을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라디오와 종교문제

비록 최근에 탄생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출판과 영화처럼, 아니 라디오는 그보다 더 이미 탁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문화와 사상의 ‘보편적 전달수단’이라는 논의할 여지가 없는 자신의 특성을 통하여 ‘세상에 자신의 낱알이 움트도록 선과악의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라디오가 세상에 뿌려 놓은 그리고 뿌리는 좋은 씨앗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많은 경우 그 씨앗은 교육, 교양, 문명, 세계적 형제애, 사도직의 놀랍고도 풍부한 도구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주 나쁜 씨앗을 뿌렸고 또 뿌리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출판과 영화의 경우처럼 사탄의 왕국을 위해 희생자를 속출시키는 치명적인 무기인 셈이다. 사실 얼마나 많은 윤리적 | 재난의 원인 477
을 제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종교심과 매우 파렴치한 윤리 주제의 충동을 입증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수많은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파괴의 이 산^h 앞에 세상 각 분야의 많은 사람이 거의 공식적으로, 거의 설득력 있게 항의하지만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만다.

몇몇 사람들은 고귀한 이상을 품고 나서기도 했지만, 정작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는 해결해 나아갈 용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낙심하거나 체념하며, 그저 하느님 섭리에만 의지한 채 문제가 흘러가는대로 그냥 방치한 이들도 있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가 하면, 대다수의 청취자는 논의의 주제, 음악과 코미디가 그들의 종교적 정서를 해칠 때에도 이를 포기할 힘이 없다.

소수의 사람만이 분명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가졌을 뿐이고, 이러한 일에 열의를 가졌던 일꾼이 언제나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 곧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며 자주 거대한 세상을 이용하거나 남용하기 위해서였다.

478 방향 설정의 필요성

위에 설명한 내용에서 가톨릭 신자의 개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결론이 나지 않은 비판이나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협력적 지적 조직적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기도, 희생, 활동으로써 가능한데, 이미 세워진 건물의 일부를 허물어 고상하고 세련된 자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의 종교, 곧 가톨릭의 교의, 윤리, 경신례가 제공한다.

결국 수호 활동, 도움을 주는 활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수호활동 : 라디오로 인해 야기되는 스캔들과 죄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기관, 국내외 라디오 방송국의 책임자들, 대중을 향한 설득력 있는 활동을 지혜롭고 사랑에 넘친 방법으로 행하는

것. 라디오 방송은 단순히 듣는다는 성격 때문에 영화보다 덜 위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볼 수 없거나 읽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도움을 주는 활동 : 가톨릭 방송, 특히 바티칸 라디오 방송을 알리고 보급하는 것.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 | 강력한 선물을 봉헌하기 위해, 결국 사도직의 강력 479한 수단이 되도록 모든 초자연적 자연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 “예술, 학문, 완전한 기술 진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을 향해 질서지어져야 한다.”¹

가톨릭 방송국을 설립하고, 종교방송을 배가하며, 세상에 라디오 방송을 점차 침투시켜 일반 프로그램이 가톨릭의 취향, 정서와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 양성된 경영자, 기술자와 구성작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제시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조직 앞에서 반대자들은, 라디오는 다른 모든 발견과 발명처럼 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사용하고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고백하는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행하는 작업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라디오 청취자들 대다수가 그들과는 정반대의 취향을 드러내면 자신들은 가톨릭 조직의 도입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무익한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톨릭 신앙이 자연 윤리와 진리에 가장 부합하기에 |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 480려고 전력한다 해도 틀림없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1. 비오 11세의 회칙「주의 깊은 관심」.

가장 탁월한 해결책은 하느님만을 신뢰하면서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한 예로 북미에서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들 수 있다. 거의가 개신교 신자인 상황에서, 선별된 가톨릭 신자 그룹이 라디오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라는 제안을 받아 방송에 무상으로 간여했다. 문제는, 처음에는 실현불가능해 보였지만, 매일 미국 청취자들의 주목을 끌었고, 참으로 예기치 않은 윤리적 물질적 이익을 이끌어 냈다.

왜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이러한 실례를 모방할 수 없을까?

첫 시도와 새로운 신기루

특히 라디오 방송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가톨릭 사도직 활동이 이탈리아에서는 라디오의 첫 사도, 곧 지금은 트리폴리의 주교인 빅토리오 파키네티 신부P. Vittorio Facchinetti에 의해서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잡지「프란치스코 수사*Frute Francesco*」에 하느님의 이 경탄할 만한 선물을 사도직에 바칠 필요성을 발표했다.

481 게재된 기사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 그 자신이「라디오와 수도자의 사도직*La radio e l'apostolato religioso*」이라는 책에서 말한다.

그의 정확한 표현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문시놀 케틀러Mons. Ketteler가 준 주석[문장]을 해설하면서, ‘성바로로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신다면 저널리스트가 되실 것이다.’ 우리 성인들 중 가장 위대한 분들은 열정적인 정신과 기쁜 마음으로 선과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오늘 마이크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가 생각과 말의 놀라운 전달 수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들의 복음화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놀라운 도구를 활용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 사용하고자 시도함은 적절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가 낫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² 하고 명하신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스승의 명령을 거의 글자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유보되었음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하느님의 예언을 살아 있고 실천적인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조용하고 작은 방에서 시작하여 음향기기에 모인 설교가의 목소리는 전광의 속도를 타고 소리 파장의 능력이 도달하는 어디에나 널리 퍼져나가고, | 우리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수신 안테나를 두드리며, 우리가 사는 집의 벽을 통해 거의 조화롭고 선명한 목소리로 우리 귀와 우리 마음에 도달한다. 이 목소리가 어떻게 하늘의 어두운 심연에까지 오르고, 무한한 공간을 뛰어넘고, 폭풍우와 태풍의 요란한 소리를 이겨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말이다. 그 목소리는 비록 우리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변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 특히 몇 년째 교회를 멀리하고,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라디오는 그들을 냉담함에서 흔들어

482

2. *마태 10,27 참조.

깨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성찰을 통해 삶의 변화를 생각하여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파키네티 신부는 자신의 고귀한 생각을 굳힌 다음 용기 있게 교회 권위 기간을 직접 찾아가 하느님 말씀을 마이크로 선포하는 허가를 얻어냈다. 처음에는 제한된 허가였지만, 그 후 협력자들의 협회로 인기를 받았으며, 차츰 확장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열정이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도직을 일으켰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었는지는 이미 인용한 483 | 빅토리오 파키네티 신부의 「라디오와 수도자의 사도직」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수집한 건설적이고 감동적인 편지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열성적인 프란치스코 회원에 의해 시작된 활동은 사도직과 사제직에서 그의 많은 동료에 의해 계속되었고, 가장 큰 갈채를 받을 만했으며, 이탈리아에서 큰 발전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본받을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든 라디오를 보급하여 교육과 문명의 풍요로운 도구로 사용할 뿐 아니라, 특히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라디오는 가톨릭 사도직에 약속된 충만한 미래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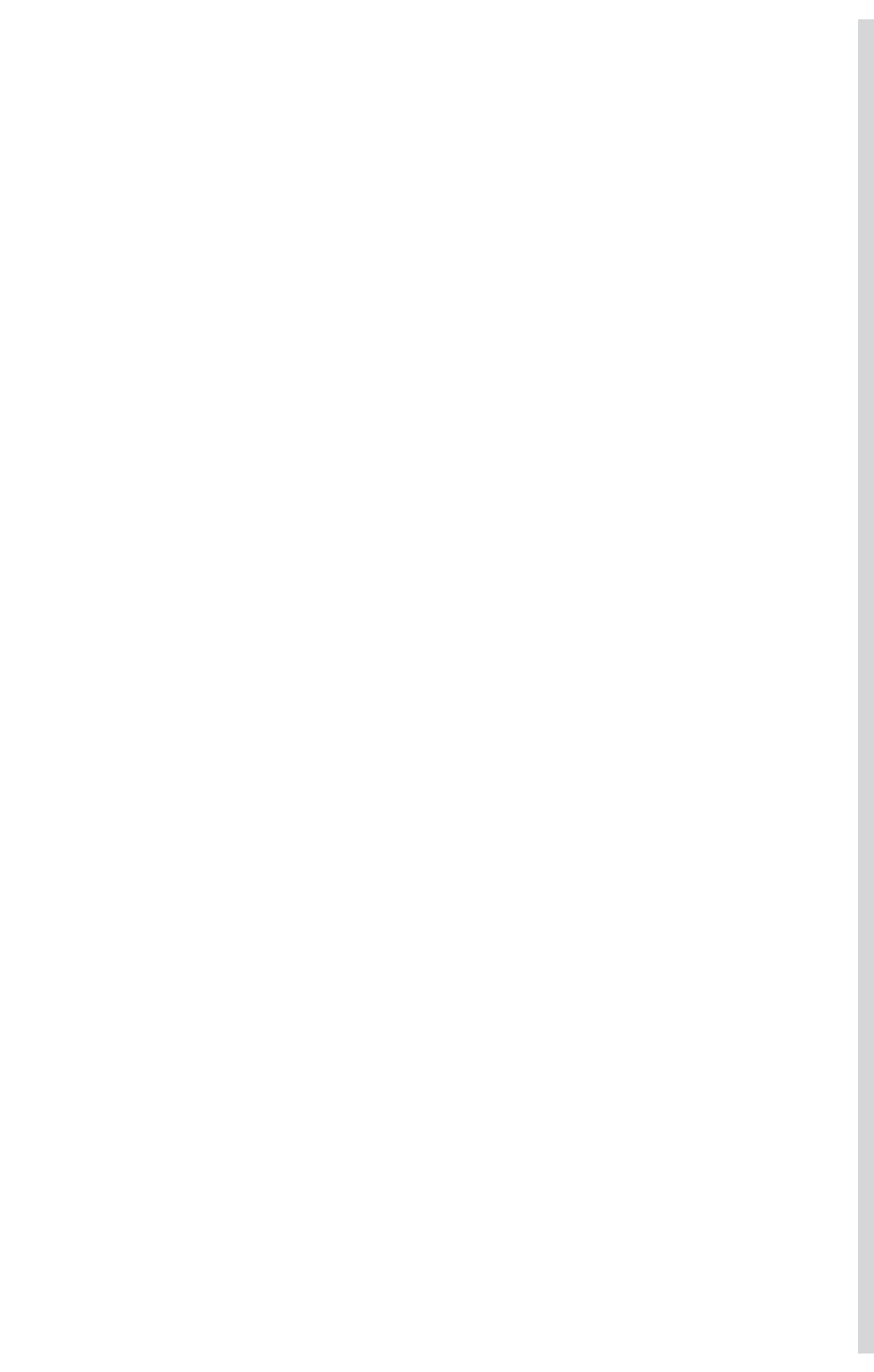
맺음말

출판, 영화, 라디오는 오늘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신속하며 가장 효과적인 가톨릭 사도직 활동을 구성한다.

더 나은 다른 수단을 사용할 시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도의 마음이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선사하기 위해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사도 성 바오로의 전구를 통해 천상 스승께서 관대한 사람들의 무리를 일으키시어 그들의 모든 기도, 활동, 희생, 영웅적 행위를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도직에 쏟아 붓기 바라며,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Gloria Deo, pax hominibus”¹라는 구원 계획을 유일한 목표로 제시한다.

1.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참조.



부 록

주註

여기에 옮겨 놓는 자료는 처음부터 알베리오네 신부의 모든 작품을 통찰하게 해주는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격월간 회보인 「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 특호 (il n. 5 [15 luglio 1921] Anno III [IV])를 첨부했다. 『바오로인의 봄 *La Primavera Paolina*』, 137-150 참조) 이 회보는 알바의 주교 몬시뇰 주세페 프란치스코 레 Mons. Giuseppe Francesco Re에 의해 1918년 9월 29일 승인된, 협력자회의 회규 전체를 실으면서 창간되었다.

그 다음에 제시한 ‘인쇄학교 *Scuola Tipografica*’라는 내용은 새 수도회의 초안으로서, 그때부터 계속 “성바오로수도회 *Pia Societa San Paolo*”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다. 보고서는 수도회가 전개한 출판 사도직 활동의 예언적 연설로 끝난다.

회보 전체는 1921년 사제수품 50주년을 거행한, 몬시뇰 레에게 헌정했다. 여기에 회보 방침을 게재한다.

“저명하신 알바의 주교, 지극히 공경하올 몬시뇰 레 주교님께 헌정합니다. 몬시뇰께서는 시대의 요청을 심오하게 인지하신 분이며, 넓고 진지하고 심오한 정신을 지니신 분이므로서 알바 인쇄학교 *Scuola Tipografica*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며, 특히 그 학교를 위해 두 명의 사제 [알베리오네 신부와 자카르도 신부]가 일하게 하셨습니다. 몬시뇰께서는 출판 사명의 가장 공정한 평가자이시고, 정신적 지지와 물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시기에 금경축을 맞이하시는 주교님께 금년 들어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주교님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모든 거룩한 카리스마를 위해 겸손히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6에서 발췌)

I. 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

[1918]

정관

1. 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Unione Ccooperatori Buona Stampa는 성 바오로의 보호 아래 알바에서 설립되었다.
2. 그 목적은 좋은 출판물을 돕는 것이다.
3. 수단: ㉠ 기도, ㉡ 기부, ㉢ 활동(글을 쓰고, 좋은 출판물을 보급하며, 나쁜 출판물에 대항할 것).
4. 본회는「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회보를 기관지로 갖는다.
5. 본회는 알바 인쇄학교 곁에 본부를 둔다.
6. 수호성인의 축일은 6월 29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거행한다.

규정

1. 개인뿐 아니라 단체(신용협동조합, 동호회, 본당 등)도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 등록 시 좋은 출판에 어떤 수단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3. 모든 회원은 축일에 영성체를 할 것이다. 본당에서 좋은 출판에 관한 설교나 강연회뿐 아니라, 모두에게 영성체를 장려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본당신부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가톨릭 출판물의 구독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축일을 12월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인쇄학교 내 성당에서 매달 첫 월요일에 모든 회원을 위해 미

사를 봉헌한다.

5. 세상을 떠난 회원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바칠 것이다.
6. 가능하면 강연회, 회합, 대회 등을 준비하고, 출판에 도우며, 구독신청을 받고, 대중 도서관 등의 일에 협조할 것이다.
7. 회원들에게 좋은 출판을 위해 자주 기도하도록 성 바오로의 성화聖畫를 배부한다.

좋은 출판의 시급성을 인식하면서 제안한 이 협회를 승인하는 바이며, 이 협회에 가입하는 사람이 교구 안에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1918년 9월 29일, 알바

+ 주세페 주교

II. 좋은 출판을 위한 집 [1921]

이즈음[1921년 7월] 알바 인쇄학교의 집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100여 명을 수용할 정도다. 따라서 이 새 집의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출판 사도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있다.

하느님의 활동, 알바 인쇄학교의 집

공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1층은 벌써 마무리되었고, 2층도 만족할 만한 시점에 있으며, 3층과 4층의 배열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작업은 서서히 진행되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되었다. 견고한 건물을 원했는데 실제로 그 건물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다.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각 층을 구분했으며, 각 부서를 분리하면서도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모든 학생에 대한 위생과 조명이 편리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건물과 회원이 일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건물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같은 이점이 보장되어 있음을 모두가 납득하게 된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특별한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현대적 사명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집이요, 마치 인간의 첫 능력, 곧 지성의 첫 자양분인 진리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교회와 같다. 집은 쾌적하고 평온하며 정숙하게 맞아들이는 분위기여야 한다. 장

식은 적게 하되 아름다워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숭고하게 들어 올려주어야 한다. 성 바오로는 수호자요, 그분은 마치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별처럼 모든 세기에 걸쳐 거룩함, 교의, 열성으로 빛나는 분이시다.

집에 들어서면서 그 누구도 공장, 작업장, 사무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초자연적 영에 감싸이는 것 같이 느껴야 하고, 모두가 당연히 [머리에서] 모자를 벗어야 하며, 침묵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기계는 설교대요, 사도직터는 성당과 같고, 일하는 사람들은 설교가들이다. 이것이 바로 새 집에 있는 사물이 갖는 새롭고 특수한 의미다. 성당들도 벽돌로 지었지만 배치, 양식, 형태에 있어서 평범한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 앞에 있음을 드러낸다.

방 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곧 집의 필요에 걸맞는 계단이 앞에 있음을 보게 된다(지금은 1층에 임시 문이 있음). 오른 쪽에는 50×70[cm] 크기의 종이를 인쇄할 수 있는 네 대의 작은 인쇄기가 구비된 인쇄소가 있다.

그 다음에는 폭이 10미터, 길이 20미터에 이르는 좀 더 큰 방이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가운데에는 인쇄 작업자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150센티미터의 넓은 복도가 있다.

양편에는 여러 인쇄기들이 두 줄로 놓여 있다. 오른쪽에는 Export 70×100 한 대와 Optime 80×115 세 대가 자리 잡고 있다.

1. *마태 5,15: ut luceat omnibus.

그 왼쪽에는 Phoenix 35×50 한 대, Ideale 28×40 한 대, Optima 70×100 한 대, 다른 Optime 90×130[cm] 세 대가 정렬되어 있다.

뒤로 돌아가면 계단 옆에 제본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금박기계 한 대, 50센티미터 길이의 절단기 한 대, 제본기 한 대, 접지기 한 대, 철선 재봉기 두 대, 카드 절단기 한 대, 압축기 한 대가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조판실이 있다. 오른쪽에 두 개의 작은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학생들을 방문하는 친지들을 위한 응접실 겸 사소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 방은 정기간행물이나 원고 교정을 위한 편집실이다.

좀 더 앞으로 가면 큰 조판실이 나오는데 양편으로 기둥들이 두 부분으로 늘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은 복도로 사용한다.

오른쪽에는 ‘라이노타이프Linotype’(자동주조식자기) 모델 15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현재 비어 있는 자리는 런던에서 9월 초에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 ‘모노타이프Monotype’가 그 자리에 놓일 것이다. 왼쪽에는 두 대의 라이노타이프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모델 L이고, 두 번째는 모델 4다. 앞으로 더 가면 오른쪽에는 우선 사회적 성격의 정기간행물 부서가 있고, 두 번째는 팸플릿, 세 번째는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 네 번째는 「가제타 알바」와 그 편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왼쪽 첫 번째는 단행본 부서, 두 번째도 단행본 부서, 세 번째는 다양한 작업을 위한 사무실, 네 번째는 본당 주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같은 층 계단 옆에는 관리실이 있으며, 이어서 세면실, 화장실 등이 있다.

기계들

라이노타이프는 여섯 명의 조판공이 손으로 할 일을 기계 한 대가 해내는 미국제 기계다. 이 기계는 비교적 작은 기계지만, 아주 섬세하고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9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니 어떤 기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기계는 한 줄의 활자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판짜기를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서 활자의 주소, 조립, 제판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편집주: 국어사전 인용) 놀라운 기계로서, 오늘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상태에 이르렀는지 말해 준다. 특히 신문을 위해 사용되며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들은 거액의 보수와 우대를 받는다. 알바의 인쇄학교에는 그 기계가 세 대 있는데 오늘날 가격이 300,000리라에 이른다. 모델 15, 모델 L과 모델 4다. 기계마다 두 명씩 여섯 명의 학생이 일하고 있다.

모노타이프는 조판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발명한 인쇄술이다. 라이노타이프와 달리 활자 한자 한자를 조판하는 것이 다르다. 동시에 두 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한 명은 키보드를 다루고 다른 한 명은 활자 주소기를 다룬다. 이것 역시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불행하게도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환율이 아주 높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100여 대 가량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 인쇄소에서는 인건비가 들지만,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본다.

알바 인쇄학교는 학생들이 '모든' 인쇄술을 완전히 배워 익히고 좋은 출판물 위해 가장 뛰어난 설비를 갖추기를, (적어도 나쁜 출판

이 갖추는 정도만이라도 갖추기를) 열망하면서 기계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미 런던에서 출발하여 운송중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9월 중순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 가격은 100,000리라다.

인쇄기는 알바 인쇄학교에는 현재 15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제인 Phœnix는 작동이 수월하고 아주 튼튼하여 최상의 결과를 낸다. 국산인 Ideale는 작은 판형의 인쇄물을 대량 생산하는데 일상의 작업, 특히 상업용 작업을 위해 사용한다. 그 다음 같은 형태인 10대의 다른 인쇄기를 사용하는데, 토리노의 Optima Nebiolo(Augusta)는 다양한 판형을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3대는 50×70cm, 1대는 70×100cm, 3대는 80×115cm, 3대는 90×130cm 크기의 종이를 인쇄할 수 있다. 처음 3대는 보석 같이 아주 우아하며, 마지막 3대는 각각 100퀀틀(역주: 1퀀틀=100킬로그램)이나 되는 것으로 아주 견고하다. 강제 제동 바퀴가 있어 그 중량 때문에 움직일 때는 가히 장엄하다고 할 정도며, 정확하게 최상의 효과를 낸다. 중간 형태의 인쇄기 3대는 처음 3대만큼 우아하고 견고하며, 중간 크기의 인쇄작업에 더 많이 사용한다. 또 전혀 다른 세 대의 인쇄기가 있는데 하나는 발명가의 이름을 붙인 Rapida dilusso로, 50×70cm 크기의 종이를 인쇄하는 운전기로서 오일 받침대가 있다. 다른 하나는 Export인데 비록 그다지 견고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유 때문에 Optime에 견줄 만한 인쇄기다. Marinoni는 포스터 인쇄와 평범한 작업을 위해 적합한데, 앞의 다른 인쇄기들은 모두 금속 롤러 형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이 기계는 평면운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쇄학교의 젊은이들은 인쇄기를 다루는 이론을 배운 다음 기계

하나를 익혀 간다. 인쇄기 하나하나가 저마다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모터가 달려 있으므로 조작하는 데 힘이 덜 소모된다.

이 모든 인쇄기는 500,000리라 상당의 상업적 가치를 지닌다.

접지기는 그 이름처럼 신문을 접고, 제본할 책을 16페이지씩 접는데, 세 번째 접지 다음에는 꺾매는 재봉 장치가 있다.

제본기는 책, 장부, 팸플릿 등을 제본하여 아주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 책끈을 붙인다.

그리고 제본소에는 다른 기계들도 있는데, 철선 재봉기 3대, 구멍 뚫는 기계 2대, (카드 절단기 1대), 절단기 3대, 고압 압축기 1대 등이 있다. 이 여러 기계를 위해 80,000리라를 투자했는데, 더 새롭거나 우수한 가장 좋은 기계를 보유하려면 더 많이 들 것이다.

알바 인쇄학교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막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교구의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역인 베네벨로 그리고 그곳의 수석사제로서 이미 연로하지만 사상은 진보적인 지극히 사랑하는 브로비아 루이지 신부Cav. Don Brovia Luigi가 도움을 주었다.

기계 앞에서의 성찰

기계는 물질에 불과하고 인간은 정신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기계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매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를 구성하는 이 물질은 하느님의 작품이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기계는 마치 설교가에게 거룩한 설교대가 귀중하고 또 그를 아끼듯이 이 기계들

도 소중하고 아낄 만하게 변한다.

성 바오로는 세기에 걸쳐 위상을 드높인 학문과 사랑의 기념비, 곧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렇게 감탄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복음에서 오며… 평화를 전하는 이들과 행복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²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가져가도록 선택된 기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출판 사도는 기계 앞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마음에서 우리나라 형제인 태양에게 찬가를 부를 때 느낀 것보다 더한 무엇인가를 체험해야 한다. 사도의 사상은 기계를 거쳐 무수한 독자를 양육할 영적 자양분, 영원한 진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의 살아 있는 종으로 구체화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³

하느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지혜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묵상한 사도의 마음과 영혼을 양육한다. 용광로, 기계의 용수철, 톱니바퀴, ‘평반 인쇄기plateaux’를 통해 드러나고 육화되며 구체적인 모습을 띠도록 사도의 영혼에서 하느님의 지혜가 전달된다. 하느님의 지혜가 ‘종이의 몸’으로 드러난다. 하느님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혼들의 생각이 될 것이다. 저자와 독자, 그리스도인 저자와 그리스도인 독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영혼의 생각과 감정을 형제처럼 친근하게 해줄 것이다. 하느님의 진리는 세상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

좋은 출판의 선교사는 자기가 사용하는 기계를 사랑하며, 나쁜

2. * 로마 10,15-17 참조.

3. * 마태 4,4.

출판과의 경쟁에서 그를 따라잡고 추월할 만큼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가장 신속한 기계를 원한다. 그는 자기의 작은 성당을 사랑하고, 청결과 정돈을 유지하며, 좋은 말씀이 흘러넘치도록⁴ [하기 위해] 항상 활동하기를 꿈꾼다. “나는 설교대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한 사제는 여러 사도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찬미하는 강론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내 기계 발판 위에 있고 싶다.

성인들은 그들의 도구, 상징, 문장^{紋章}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출판사도인 나는 펜과 잉크병, 또는 한창 작동 중인 기계 옆에서 있는 초상화로 그려지기 바란다고 말한다.

사실 테르툴리아노의 “언젠가 저술가들의 잉크가 순교자들의 피만큼 가치 있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한 그 깊은 생각을 어떻게 화폭에 표현할 수 있을까.

순교자들은 칼, 화형, 석쇠, 십자가, 야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성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

성 바오로는 손에 당신 서간인 책을 든 모습으로,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펜을 잡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도미니코 사비오는 오른 손에 종이를 든 모습으로, 복음사가들은 진리의 성령에게서 영감을 받는 대로 양피지에 쓰는 모습으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신심의 학자라고 공표하게 만든 작품을 옆에 낀 모습으로, 성 대 그레고리오는 그의 저서「윤리학^{Moralia}」을 저술하는 모습으로, 성 요한 베르크만스는 아주 오랜 시간 묵상한 규칙서를 가슴에 꼭 껴안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4. * “좋은 말씀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말은 라틴어의 직역이다. “아름다운 말이 제 마음에 넘쳐흘러^{Eruclavit cor meum verbum bonum.}”(시편 45,1)

III. 출판 사도직

“수확할 것은 많은데…” [마태 9,37]

다양한 종류의 사도직, 곧 좋은 표양의 사도직, 말씀의 사도직, 기도의 사도직, 활동의 사도직, 좋은 출판 사도직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리고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도, 거룩한 선교사의 무리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얼마나 열성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렇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출판 사도직이 필요하다. 좋은 출판이든 나쁜 출판이든 이 출판은 거의 감추어진 힘을 행사하지만, 현대 사회의 사상과 관습의 추이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힘이라 말하고 싶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기관, 많은 학교, 많은 예산, 많은 법률 규정이 있다. 그런데 언론인은 모든 사회 계층에서 더욱 폭넓게 유사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일반 출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에 대해, 설교가의 직무에 속하는 좋은 출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도, 선교사, 곧 덕성, 거룩한 열성, 적합한 지식을 충분히 겸비한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성소다. 좋은 출판은 사제적 사명의 일부이기에 사제의 마음이 필요하다. 베네딕토 15세는 당신의 회칙에 설교는 사제직의 주요한 직무라고 기술했다.

영혼의 단합

출판에 대한 주제는 아주 중대하고 매일 더욱 심각해진다. 많은 가톨릭 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을 생각하고 연구하며 궁리한다. 그렇다면 이미 그 길을 찾았는가? 의문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급의 문제다.

일부 사람에게는 저술가들의 문제다.

많은 사람에게는 신선한 뉴스의 문제다.

가장 솔직한 사람에게는 좋은 시절, 헛된 영광, 혁신... 등에 관한 문제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다.’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출판에 달려 있고, 그리스도교 문명과 국가 간의 번영이 출판에 달려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복음을 보급하고 강화하는 것 또한 출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영혼의 문제다.’

이 점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 특히 선한 영혼을 지닌 사람의 의무요, 무엇보다 성직자의 의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교황이 천명했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영혼의 문제다.’

좋은 출판은 참 사도직을 하듯이, 바른 정신으로 일하는 저술가와 보급자가 필요하다. 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나쁜 신문을 버리고 좋은 신문을 읽는 것이 참 의무라고 생각해야 하고, 모두가 자기 주변에서 나쁜 출판을 없애기 위해 일해야 한다.

‘좋은출판물협력자협회’는 이러한 점에 대해 확신하는 모든 사람을 모집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설득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원대한 사도직을 향해 그들의 기도, 그들의 봉헌, 그들의 활동으로 물길을 트고자 한다.

‘이 간행물을 신중하게 읽고 가입하십시오.’

알바 인쇄학교는 좋은 출판사도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성바오로수도회는 “이제 시작이다”

1914년 8월에 시작한 알바 인쇄학교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되었다. 이 기간은 모든 준비기, 실습기, 훈련기였다.

마침내 목표에 합당한 하나의 집을 곧 갖게 될 것이다. 좋은 출판 사업을 위해 ‘영혼’, ‘의지’,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와 같은, 서로 결속된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은총을 구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미 학문과 재능이 충분히 준비된 선생들이 있으며, 주님이 필요에 따라 보내주시는 참되고

수많은 성소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준비기에 지냈던 이 집의 명칭은 점차 버리고 “성바로수도회Pia Societa S. Paolo”라는 참 이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과, 공부와 활동을 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규칙을 발췌하여 알리는 바이다.

성바로수도회 규칙 - 알바 (인쇄학교)

좋은 출판의 남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신학원

1. 좋은 출판을 위해 열성적인 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곧 참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인 이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단체다. 다시 말해 사제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듯이 출판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식자공, 선교사, 저술가와 언론인을 양성한다.

2. 기술인과 저술가라는 두 줄기가 있다. 이를 통해 사도적 정신, 사람과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러한 종류의 삶에 필요한 덕을 일깨워 주고자 노력한다. 그밖에 차츰 많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조판, 저술, 인쇄, 정기간행물, 신문, 좋은 회보의 보급 등 출판관련 일을 시작한다.

3. 남녀 기술인(곧 출판의 수작업과 선교-보급만 하는 젊은 남녀를 뜻한다)은 영적 윤리적 전문적 양성 외에 교육과 훈련에 적합한 보완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는 5년 과정을 거친다.

4. 영적 윤리적 전문적 양성 외에 저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일반교사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8년 간 지속된다.

5. 저술가, 선교-보급자, 언론인이 되려는 젊은 남성은 신심, 활동 외에 공부도 해야 하고, 일반사제 지망생에게 할당된 공부를 이수해야 하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6. 입회하면서 모두 지참비로 30리라를, 기숙사비로 2년 동안 매달 30리라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다음은 무상이다. 의복과 세탁 경비는 가족이 부담한다.

7. 본회는 6년 전부터 운영되었다.

입회를 하려면 만 11세가 되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필요한 신체적 도덕적 지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8.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현대적인 참 사도직이다.

참한 성소자를 수도생활로 이끌어 주는 본당신부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다.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일찍 다른 수도회에 입회하지 못한 좋은 젊은이, 특히 ‘늦깎이(tardive)’ 성소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의문사항이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알바에 있는 신학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에게 문의바란다.”

집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일 하는가: 출판은 새로운 분야인만큼 늘 이해받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일이기에 대중의 판단에 지배를 받는다. 좋은 출판은 좋은 일이지만, 노고와 희생도 치러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감탄한다. 거룩한 일을 완수하는 사람처럼, 각자 정신을 집중하며 주의 깊게 임한다! 일하고

기도한다! 적어도 반나절은 그룹별로 돌아가며 일하는데 일을 끝내기 위해, 교정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휴식과 여가를 줄여달라고 청한다. 거룩한 경쟁을 하고자 상의하고 문의한다.

많은 사람은 출판을 돈벌이로 생각하나, 인쇄학교에서는 이에 걸맞는 위치, 곧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 non nova sed noviter’으로 이루어진 사명, 사도직으로 고양되기 바란다. 그러므로 일반적이며 지배적인 아주 다른 정신에 이미 젖어 있는 장인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뿐 아니라 많은 오류가 있고, 많이 공부해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뜻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조금씩 장애를 극복해 나가고, 느리지만 꾸준히 매일 진보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근본적인 부흥, 유일한 ‘자본’, 하느님 섭리의 가장 뛰어난 선물, 곧 ‘출판을 사도직, 거룩한 사제직으로 생각하는’ 그 정신을 보존하고 함양하고, 하나의 사도직, 하나의 사제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지적 윤리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가: 실제적으로 주보 40여 종, 큰 판형의 주간지 5종, 「사목생활 *Vita Pastorale*」(사제직무의 실천을 위한 잡지), 「사회의 조화 *Armonie sociali*」, 책, 팸플릿 등을 출판하고 있다. 최근의 우수한 출판물을 큰 창고에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판매소 등을 설립한다.

약간의 대차 대조표

알바 인쇄학교에서는 현재 본당주보 40종, 5종의 「가제타 알바 *Gazzetta d'Alba*」, 양서와 신심서적, 교리서, 선교 전단지 등을 출판하

고, 사목 실천을 위한 「사목 생활」을 거의 모든 본당신부들에게 1만 부 정도 발송한다.

매주 평균 2,000리라 상당의 양서와 성물을 보급한다.

작년 3월까지 30여 곳에 도서관을 설립했고, 양서와 성물 판매소 170곳을 개설했으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좋은 출판을 위한 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양서, 팸플릿, 신문, 리플릿, 회보를 전달하고 보급했다.

남녀 젊은 이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와 일과 신심에 전념하고,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집을 수많은 방식으로 섭리하신다. 하느님이 은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손에 맡겨주신 수단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짧은 기사와 인용문들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매일 읽는 신문에 나오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고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레오 13세)

* * *

“성 바오로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신다면, 언론인이 되셨을 것이다.”(몬시뇰 폰 케틀러Mons. W. von Ketteler)

* * *

루이 뵈일로Luigi Veuillot는 자신의 묘비명[을 위한] 글에서 ‘모든 것을 죽음의 침상에 켜놓을 마지막 촛불 밑에서 숙고하자. 모든 것, 보잘것없는 이 종이에 쓴 글마저’라고 썼다.

“내 곁에 나의 펜을 두려거든
나의 유일한 자랑인 그리스도는 가슴에,
이 책¹은 발밑에 두게.
친구들이여,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내 관을 덮어주게.”

1. * 그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La Vita di Gesù Cristo*」.

* * *

“오늘날 그 누구도 출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 *

“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은 좋은 신문이 사라져 없어지게 놓아두는가? 왜 그다지도 많은 사람이 대중의 물질적 행복을 위해서는 고생하면서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가? 좋은 출판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사도직, 현대적이며 가치 있는 사도직으로서 최고 권위에서 적합하다고 여긴다면, 교회의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루드빅 빈드호스트 Ludwig Windhorst)

* * *

“가장 훌륭한 자선 중 하나는 좋은 출판을 돕는 것이다.”

* * *

언론인

「가톨릭 문화 *La Civiltà Cattolica*」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좋은 언론인은 진리의 투사요, 이상의 챔피언이며, 희생의 영웅으로서 자신의 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펜으로 그리스도교 문화의 위대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하느님의 섭리로 손에 쥐게 된 무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몬시뇰 기비에 Mons. Gibier는 “성 술피스 원장이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언론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이 분은 세속의 옷 속에 사제의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양심적인 언론인은 사제직과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말한 젊고 아주 신심 깊은 현대 작가를 설명하고 있다.

* * *

“좋은 출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입니다.”(레오 13세)

호 소

현재 알바 인쇄학교에서는 이번 일에 좋은 출판을 위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 공동 신심생활에 자신을 봉헌하려는 16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여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출판을 위해 남녀 협력자들께서는 인간의 참된 힘인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 도와주시고, 특히 좋은 남녀 성소자를 보살펴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기부금으로, 출판할 책이 있다면 알바 인쇄학교에 맡겨주십시오.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공로를 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 * *

알바 인쇄학교는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인쇄기술자가 되어 좋은 출판에 자신을 봉헌하려는 많은 젊은이를 모집합니다.

신심 깊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알바 인쇄학교가 지속되는 한, 모든 은인의 지향에 따라 4대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알바 인쇄학교를 위해서 적어도 10리라를 봉헌하게 되면 가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출판을 위해 일하는 남녀 선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들의 지역을 위해 선교사와 교리교사 수녀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도서관 설립

제대로 된 하나의 도서관을 쉽게 열기 위해서는 50리라 상당의 책 25종, 100리라 상당의 책 50종, 200리라 상당의 책 100여 종을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도서관 설립인지, 그러니까 노동자나 학생을 위한 것인지, 재미있는 문학작품, 교양도서, 성인전 등을 선호하는지 명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불은 주문시 또는 수표 상환으로 합니다.

그와 같은 도서관은 알바 인쇄학교 옆에 둘 수 있습니다.

대표: 신학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바 인쇄학교 - 알바

발행일 | 2016년 7월 25일

옮긴이 | 이창욱

펴낸곳 | 바오로딸